

언론에 비친 민선 5~7기  
사람 중심 도시

수원시 만들기

12년의  
발자취

Contents

008 '특례시' 쟁취 그리고 도시인프라에서 문화예술까지 고른 발전

Ⅰ. '수원특례시'의 출범, 더 큰 수원으로

022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다

Ⅱ. 사람 중심 정책, 시민 소통 키웠다

042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출범

048 마을만들기, 사람이 마을을 만들고 마을은 삶을 일구었다

056 도시정책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시민계획단

064 해묵은 광교산 주민 숙원 푼 집단지성 '광교산 상생협의회'

071 "사람이 우선!" 수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다

083 노동자와 기업,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090 '주민참여예산제', 내 손으로 우리 동네 바꾸자

097 수원시에 경기도 내 최초 '인권청사'가 들어서다

109 선제적 감염병 대응, 전국은 수원을 주목했다

Ⅲ. 수원시는 품격 있는 인문학 도시

126 수원시, 인문학도시를 천명하다

132 걸어서 10분 만에 도서관을 만나는 도시

137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수원문화재단

143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도시재단

Ⅳ. 하나의 바퀴, 수원시의 환경과 도시 디자인

154 '생태교통 2013 수원' 행궁동은 핫플레이스가 됐다

176 시민 휴식공간 공원녹지 확보에 전념하다

190 성매매집결지가 반듯한 거리로 환골탈태하다

196 "안전위협, 소음피해, 재산권피해, 도시디자인 걸림돌 ..."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208 '탄소중립'은 인류의 미래

216 몽골 '수원의 숲'에도 나무를 심자

Contents

V. 문화예술과 스포츠, 축제 : 에너지 넘치는 도시 수원

- 226 시민이 주인, 수원화성문화제
- 235 수원 대표축제들, 시민 삶의 수준을 높였다
- 258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법정문화도시'
- 262 화성(華城)의 숨결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268 북수원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수원SK아트리움
- 274 수원만의 상설 공연이 열린다, '정조테마공연장'
- 278 떴다! 수원연고 프로야구단 kt 위즈
- 294 프로농구 KT 소닉붐, 수원에 등지 틀다

VI. 공공 인프라 구축 '빛났다'

- 304 사통팔달 친환경 철도망 구축 : 수인선, 수원분당선, 신분당선 연장선, 인덕원-수원선, 수원발 KTX, GTX-C까지
- 326 수원역 ·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개통
- 335 수원역고가도로, 동서(東西)의 대동맥을 잇다
- 339 수원 최초의 민자도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개통
- 344 화성, 팔달구청사를 품다
- 350 고등법원 · 검찰청, 수원으로 오다
- 355 강화되는 치안, '팔달경찰서' 신설

VII. 공존하는 '레트로 수원'과 '뉴트로 수원'

- 366 마무리되는 수원화성행궁 복원사업
- 371 '성안마을' 행궁동을 한옥마을로
- 382 "원도심을 살려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 388 도시농부의 꿈을 키우는 탑동시민농장
- 394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정조대왕의 뜻을 읽다

VIII. 수원은 '사람 중심 공유경제'를 추구한다

- 404 "무엇이든 예스! 'Yes생활민원처리반'이 달려갑니다"
- 410 수원휴먼주택, 다자녀가족을 품다
- 414 '마음' 놓고 '정' 가져가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 418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은 수원시 최우수 협치정책
- 424 승객도 기사도 윈윈, 착한 호출앱 '수원e택시'
- 428 '수원'이 캄보디아에도 있나요?

---

‘특례시’ 쟁취  
그리고  
도시인프라에서 문화예술까지  
고른 발전

## \* '특례시' 그리고

# 도시인프라에서 문화예술까지 발전 이뤄

### ●● '사람이 반갑습니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수원시장에 당선된 염태영 시장은 2014년 민선 6기, 2018년 민선 7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당선되며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수원시장이 됐다.<sup>1)</sup> 염 시장은 취임 후 공직자들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휴먼시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시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재임 기간 중 시정 중심은 항상 '사람'이 주인공이었고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시정 철학과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로 형상화된 시정 이미지까지 모든 중심에 '시민'을 뒀다.<sup>2)</sup>



### ●● '자치분권의 전도사'

민선 5~7기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한 '사람 냄새' 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하는 삶을 영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다.<sup>3)</sup>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었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며, 교통의 편리함과 여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발전이 이뤄졌다.

특히 민선 7기에는 최우선 과제였던 '수원특례시' 지정이라는 큰 역사를 이뤄냈다.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 출범 선발·마무리 투수로서 제 몫을 다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시는 특례시가 됐다. 물론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따라서 시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별적 요소와 불합리한 절차, 기준들을 개선하기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중앙 부처와 국회 등을 통해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sup>4)</sup>

특례시 지정이라는 큰 역사를 이뤄낸 것은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자는 자치분권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란 평가이다.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시민의 주체적인 시정참여는 자치와 분권으로 발전했다.<sup>5)</sup> 시민이 사회 운영의 핵심주체라는 개념을 기본방향으로 민선 5~7기 추진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시민참여정책을 적극 현실화시켰다. 특히 2012년부터 도입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수원시민이 제안한 의견 7,278건 중 1,214건이 반영되어 878억여 원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수립됐다.<sup>6)</sup>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 1,276건의 사업에 2만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으며 44개 동 중 8개 동에서 동장주민추천제가 시행돼 주민

이 직접 필요로 하는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시행됐다.<sup>7)</sup>

특레시는 '자치분권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앞장서 10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해 일궈낸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시정과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겠다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거버넌스(협치) 역시 수원시 민선 5~7기의 성과로 꼽힌다. 시민과 수원시 정부가 협의와 공감대를 조성한 후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갔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인해 시민과 시 정부, 또는 시민 집단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했지만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표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sup>8)</sup>

광고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광고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보호구역임과 동시에 거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 의견은 48년간 상충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현지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광고산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7개월간 30회가 넘는 회의와 토론회,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2018년 말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sup>9)</sup>

거버넌스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다. 대표적으로 소통박스와 참시민토론회가 있다. 소통박스의 경우 정책의 구상 단계에 현장 소통부스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며, 참시민토론회는 시민과 행정 및 의회가 함께 현장에서 토론하는 방식이다.<sup>10)</sup>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78건의 정책을 발굴해 53건을 도입했으며 약속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추적하기도 했다.

## ●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도시 수원과 시민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다.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3번지, 994번지, 1097-2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산업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이다. 수원델타플렉스는 3개 블록으로 구분된 첨단 산업단지다. 1블록과 2블록은 2010년 이전에 조성됐다. 가장 큰 규모인 3블록은 2016년 완공됐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5,906억 원이었다. 델타플렉스에는 700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와 지역 기업 활동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1만 5,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원델타플렉스는 지역 기업 활동의 중심축으로 수원은 델타플렉스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11)</sup> 특히 5년간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통해 수원시와 경기도로 이분됐던 지정·관리권을 일원화했다. 지정관리권이 통합됨으로써 기업의 민원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켰다. '산업단지'라는 명칭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델타플렉스'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출퇴근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했다. 창업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12년과 2013년 창업지원센터 2곳을 개소했는데 이곳에는 창업을 원하는 수원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 공간과 사업체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각종 프로그램까지 제공했다. 이런 노력은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관련된 통계지표를 보면 확연히 나타나 사업체 수,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1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는 호매실 주민들의 카드섹션(2020.1.15. 수원시 포토뱅크)

교통망이 확충돼 수원시민의 생활권과 이동권도 크게 확대됐다. 10여 년 전, 철도 인프라는 국철 1호선뿐이었지만 지금은 격자형으로 개발돼 그야말로 사통팔달, 동서남북 어디나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됐다.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뿐이었던 수원시 철도망은 2013년 11월 분당선 기흥역-망포역-수원역으로 이어졌다. 이어 2016년 1월 성남시 정자역에서 수원시 광고역 구간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써 수원시민들이 서울이나 성남을 오갈 때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9월 수인선이 고색역과 오목천역을 통해 인천까지 연결됐다. 시는 수인선 고색역의 경우 상부를 공원처럼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산책로 공공시설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초 광고-호매실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현실화됐다.

아울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복수원·장안구청·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삼거리·원천교사거리·영통역(가칭) 등 6개 역 신설이 확정돼 시민의 생활권은 더욱 확대된다.<sup>12)</sup>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라도 주민의 숙원이던 복수원역을 신설하는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sup>13)</sup>

2017년 6월에는 버스·택시·지하철·경부선·한국고속철도(KTX) 열차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환승센터가 건립됐다.<sup>14)</sup> 수원역은 하루에 유동인구 30만 명가량을 자랑하는 최대 교통요지인 동시에 교통 혼잡 지역이었지만 환승센터가 건립되면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상당부분 해결됐고, 경부선 철길로 동서로 단절됐던 동수원과 서수원 주민 간 화합의 상징이 됐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뒀다는 적극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978년 준공, 심각하게 노후화돼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성균관대역도 복합역사로 개발해 접근성 좋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했다.

## ● 함께 사는 도시

또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해 평등·공정 가치를 높였다.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에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 총 703명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지속적이거나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용역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sup>15)</sup> 2020년 1월에는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진행된 공동주택 용역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 내 30개 가까운 공동주택단지에 휴게시설이 생겼다. 새벽 3시에 출근했던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도 2020년부터 아침 6시로 늦춰졌다. 청소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도 100ℓ에서 25%를 줄여 75ℓ로 줄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1월엔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2020년부터는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통합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합채용 시험방식을 도입했다.

청년은 수원지역과 국가의 미래 자원이다. 시는 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육성·지원·교육에 적극 투자했다. 2016년엔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청년만의 공간인 청년바람지대(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바람지대에서 공간대여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1만 2,000여 명이나 된다.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취업을 위한 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했다.

## ● 환경도시와 인문도시

염태영 시장은 '환경시장'이라고도 불린다. 그 자신도 환경운동가 출신이지만 재임기간 내내 '환경수도'를 수원시의 중점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2011



2013년 9월 한 달간 수원화성 성안 마을 행궁동에서 자동차를 없앤 '생태교통 수원 2013'(2013.8.5. 수원시 포토뱅크)

년 9월 민선 5기 초반이었던 시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도시 선언을 한 이후 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sup>16)</sup>

'생태교통 수원 2013'은 그 핵심이다. 2013년 9월 한 달간 수원화성 안 행궁동에서 자동차를 없앤 실험은 큰 성공을 거뒀다. 이 행사는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까지 타이완 카오슝(2회)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3회)에서도 개최될 정도였다. 수원시는 환경수도로서 국내 지방정부들을 선도함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도 동시에 얻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환경 정책, 협치도 중요하지만 인문도시 만  
들기 성과 역시 눈여겨 볼만한 것이었다. 염 시장은 재임기간 중 시민의 소양을  
향상시키고 인문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버  
스 정류장에서 아름다운 글귀를 만날 수 있으며 12개의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걸어서 10분이면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7개 지하철역  
마다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되고, 광고에는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  
간도 있다. 또한 2017년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되어 수원화성 일대 주요 관광지가 인문기행특구로 지정받았다. 왕이 만든 도  
시 역사기행, 근대 역사기행 탐방로 조성사업, 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인문기행  
특구를 지정했다. 수원에 대해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는 수원학을 진흥시키고  
자 수원학 강의를 개설하고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센터도 신설했다.<sup>17)</sup>

수원의 정체성의 정수이자 핵심인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단계별  
로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에 소장된 채색본 『정리의궤』 복제본도 제작했다. 수  
원 역사의 근간이 되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것 역시 민선  
5~7기의 중요한 성과이다. 수원시는 민선 1기 심재덕 시장 때인 1996년 수원화  
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지대고개부터 용·건릉까지 가는 대규모 정  
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매년 지속해 왔다. 그런데 2016년부터  
는 서울시와 함께 능행차 출발지인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에까지 이어지는 행  
사를 공동으로 재현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7년에는 서울에 이어 화성시도 참  
여해 창덕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화성시 용릉에 이르는 총길이 59.2km 구간의  
능행차를 재현했다.

1795년 을묘원행 이후 2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수원의 축제를  
넘어 수도권 일대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 축제로 발전한 것이다. 이 행사는 150

만여 명이 관람한 우리나라 거리 퍼레이드 축제 중 최대 규모의 행사로써 2018  
한국국제관광전에서 '2018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을 수상, 명실상부한 대  
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sup>18)</sup>

명실공히 스포츠 메카라고 자부하는 수원시는 스포츠 육성도 게을리 하  
지 않았다. 현재 수원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프로축구팀인 수원 삼성 블루윙즈  
와 수원 FC 모두 2021년 1부 리그 상위그룹인 스플릿 A에 올라갔다. 수원 프  
로야구팀 kt 위즈는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모두 제패, 통합우승이라는 쾌  
거를 거두어 야구팬들을 흥분시켰다. 남자 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VIXTORM), 여자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로농구 수원 KT소닉  
붐 등 프로 스포츠구단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검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소프트테니스, 씨름, 역도, 유도,  
조정, 체조, 탁구, 태권도, 테니스팀과 국내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등 수  
원시청 직장 운동부는 소외 종목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1) 「"10주년" 연태영 시장 "푸른 수원" 만들기 노력했다」, 『국민일보』, 2020년 7월 1일 「수원시, 인구 5만 농촌도시에 서 125만 첨단 도시로 성장」, 『경기1news』, 2019년 8월 13일.
- 2)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5·6·7기 성과」, 『경기etv뉴스』, 2021년 6월 29일 「수원시, 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①」, 『일간투데이』, 2021년 6월 29일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 『서울뉴스통신』, 2021년 6월 29일.
- 3) 「"휴먼시티 수원" 10년, 경제활동과 즐거움이 커졌다」, 『경기etv뉴스』, 2020년 7월 7일 「"휴먼시티 수원" 10년 경제활동과 즐거움이 커졌다」, 『일간투데이』, 2020년 7월 7일 「수원시, "휴먼시티 수원" 10년, 경제활동과 즐거움이 커졌다」, 『경기경제신문』, 2020년 7월 7일 「"휴먼시티 수원" 10년, 경제활동·즐거움 커져」, 『신아일보』, 2020년 7월 7일 「수원시, 휴먼시티 수원10년 활발한 경제활동」, 『케이에스파뉴스』, 2020년 7월 7일.
- 4) 「유문중 수원시 제2부시장, "민선7기 마무리 투수와 수원특례시 선발 투수 역할 할 것"」, 『경기중앙신문』, 2021년 11월 23일 「"민선7기 마무리 투수와 수원특례시 선발 투수 역할 할 것"」, 『경기&뉴스』, 2021년 11월 23일 「유문중 수원시 제2부시장,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 『서울뉴스통신』, 2021년 11월 23일.
- 5)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①」, 『경기데일리』, 2021년 6월 29일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내외뉴스통신』, 2021년 6월 29일.
- 6) 「수원시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광고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한 협치, 시민을 주인으로 만든 차분권」, 『경기IN』, 2021년 6월 29일.
- 7)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 『서울매일신문』, 2021년 6월 29일 「연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매일일보』, 2021년 6월 29일.
- 8) 「연태영 수원시장, 취임 11년... "시장의 중심은 사람"」, 『UPI뉴스』, 2021년 6월 29일.
- 9) 「지난 11년간 상생과 동행으로 수원시정을 이끈 연태영 수원시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정 정책들, 인문학으로 발전시킨 수원의 정체성」, 『CNBNEWS』, 2021년 6월 29일.
- 10) 「"휴먼시티 수원"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경기신문』, 2021년 6월 30일.
- 11) 「휴먼시티 수원 10년, 어떻게 바뀌었나」, 『헤럴드경제』, 2020년 7월 7일.
- 12) 「"휴먼시티 수원" 위해 10년 뚝 연태영, "기초단체가 튼튼해야 민주당이 산다"」, 『스포츠크강』, 2020년 8월 9일.

- 13) 「휴먼시티 수원 10년, 경제활동과 즐거움이 커졌다」, 『Good 교통뉴스』, 2020년 7월 7일.
- 14)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식.. 버스·지하철 환승 19일부터 가능」, 『연합뉴스』, 2017년 6월 16일.
- 15)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 『서울매일』, 2022년 2월 22일.
- 16) 「지난 11년간 상생과 동행으로 수원시정을 이끈 연태영 수원시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정 정책들, 인문학으로 발전시킨 수원의 정체성」, 『CNBNEWS』, 2021년 6월 29일.
- 17)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 『서울매일』, 2022년 2월 22일 「수원시,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광고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한 협치, 시민을 주인으로 만든 차분권」, 『경기IN』, 2021년 6월 29일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①」, 『경기데일리』, 2021년 6월 29일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연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 『경기중앙신문』, 2021년 6월 29일.
- 18) 「"휴먼시티 수원" 10년, 경제활동과 즐거움이 커졌다-연태영 수원시장 민선 5기 취임 이후 2010~2020년 일과년 성과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7월 7일 「연태영 수원시장, "휴먼시티 수원" 10년의 성과 조명, 프랑스 소장한 정리의괘 복제본, 정조대왕 능행차 완벽 재현 등 문화도시, 야구 등 프로그래밍 유치부터 직장운동부 종목 운영까지 스포츠 메카 명성」, 『경기뉴스탑』, 2020년 7월 7일 「경제·교통·문화 '신바람 혁신' 10년..수원시민 삶의 질 높였다」, 『경기일보』, 2020년 7월 7일.

---

‘수원특례시’의 출범,  
더 큰 수원으로

\*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다

●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7년을 십 없이 달린 '수원특례시'행 열차가 드디어 종착지에 도착했다. 또 하나의 기념비적 역사가 이뤄진 것이다. 지방자치 새로운 모델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sup>1)</sup>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9일 21대 국회는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수원시를 비롯, 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획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오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안을 설명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



특례시가 국회에서 통과되자 환호하는 수원시·고양·용인·창원시 시장과 관계자들(2020.12.9. 수원시 포토뱅크)

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를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sup>2)</sup>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어진 전자투표에서 272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238인의 찬성을 얻어 가결 선포됐다. 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압도적인 표를 얻어 가결 선포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은 큰 진전”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가겠다.”고 기뻐했다. 2002년 인구 100만을 돌파하고 20년 만의 성과이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오랜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와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다.<sup>3)</sup>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116만여 명인 울산광역시보다 7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의 63.6%에 불과하다.<sup>4)</sup> 당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 110명을 제외하고도 63.6%에 불과했다.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개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 뿐이다.<sup>5)</sup>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더 멀리 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sup>6)</sup>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지방정부 시민이라는 이유로 울산시와 같이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방정부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던 것이다.<sup>7)</sup>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이다.

## ● 인구 더 적은 광역지방정부보다 상대적 혜택 적어

이처럼 수원시는 규모에 비해 작은 지방정부 조직이 운영됐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에 묶였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 100만, 50만 인구 규모의 2배가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sup>8)</sup> 수원시민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 가운데 하나는 복지서비스이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한도액이 1억 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비슷한 물가와 생활수준의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상 ‘대도시’가 아닌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은 셈이다.<sup>9)</sup> 그동안 수원시는 최소한의 복지혜택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특례시’ 도입이다. 수원시는 인구가 117만 명을 넘어섰던 민선 5기 중반이던 2013년 무렵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sup>10)</sup> 사실 수원시의 이러한 요구는 2007년 수원시의회에서 ‘대도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시청 내부에서 이미 광역시 승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놓은 상태였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이 요구됐다.<sup>11)</sup>

2013년 당시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규모에 맞는 도시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된 것이다.<sup>12)</sup> 이때부터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이 수없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도 만나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켰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줄을 이었으며 대도시공동건의문 발표도 계속됐다.

이에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켰

다. 2018년 8월 수원, 창원, 고양,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후 9월에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sup>13)</sup>

### ● 불합리와 차별 해소 위해 ‘특례시’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우여곡절은 계속됐다. 일부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들은 역차별 논리를 내세워 반대했다. 광역지방 정부와 일부 기초지방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특혜’로 오해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반대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염 시장은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해도 순간순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특례 사무이양 과정까지 단 한순간도 쉽게 넘어간 과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라고 솔회했다.

원칙대로라면 인구 1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시는 이미 광역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경기도가 좋아할 리가 없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인 용인시나 고양시도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것이고 경기도는 세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례시’로 목표를 수정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정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 권한과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조차 반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9월 3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



2018년 8월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2018.8.8. 수원시 포토뱅크)

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 특례시를 추진해 온 수원이나 용인시 등 대도시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sup>14)</sup>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존재했다.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법안통과 기대감을 높였던 법안은 1년여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2020년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자 도시 규모에 따른 입장차이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sup>15)</sup>

### ●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기고 얻은 특례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백균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즉각 공동 환영사를 발표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

해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은 부여되었으나,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sup>16)</sup>

행정안전부는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에 그 명칭이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sup>17)</sup>

이에 수원시는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우선이다.<sup>18)</sup>

재정 분권을 통해 자치재정을 강화시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수원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 언론인 『수원일보』(2021년 12월 3일)와의 특집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감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 등을 밝혔다.

### 내년 특례시 출범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텐데요.

그 동안 시민들과 한마음이 돼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2022년 수원 특례시 원년의 해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10년 민선 5기 시장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이 12년째 되는 해, 그것도 임기

전 마무리된 것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법 통과와 특례시 명칭 확보를 통해 수원시가 새로운 옷을 새롭게 입을 수 있게 돼 큰 보람과 자부심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례시 출범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당장 특례시가 된다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특례시로서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출발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재는 거창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 들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이런 시도와 노력들이 훗날 수원시가 전국 최고의 특례시로 우뚝서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조항이 주민자치회와 특례시 부분입니다.

특례시는 일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광역지방정부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지 않고, 특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위기 소멸을 고려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끝내 삭제됐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한 시범 실시 과정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법 개정을 통해 제

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음에도 단순하게 비판적인 의견만을 근거로 삭제된 것은 안타까움이 굉장히 큼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의 원리와 가장 가깝기도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삽입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근간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주민자치회 조항을 다시 보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 있어 안심되지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을 주신다면 분명 주민자치회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실무적인 사무 발굴 및 이양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특례시’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을 ‘특례사무’ 발굴·이양을 위해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단을 통해 이양대상 사무 발굴, 정부건의, 입법 지원활동 등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공동 발굴한 특례사무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논의단계를 거쳐 특례시로 권한이양이 요구되는 특례사무는 자치분권위원회로 이양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심의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5개 기능 11개 단위사무 이양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

정하는 사무 신설을 추진했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도 특례 사무 21개를 담는 등 발굴된 사무 법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와 내용은

####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급여 책정 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금액을 도시 규모별로 다르게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고 여기에서 도시 구분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광역시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여전히 중소도시로 분류, 울산광역시와 같은 금액의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중소도시의 공제 기준액이 낮아 책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많은 민원이 재개돼 왔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를 개선해 사회복지 급여 책정 기준의 대도시 그룹에 특례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급여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이 제대로 부여된다면, 여태껏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받았던 역할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원특례시가 추구하는 제10아젠다는 시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걸맞는 법규가 마련된다면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는 권한의 확보로 대도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행정·복지 서비스로 나아가는 길이 확보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수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는 워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드 코로나는 이전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통한 한 단계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맞이하는 2022년은 새로운 수원특례시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이 우리가 추구하는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가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으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지금 당장 시민들의 삶 속속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통한 희망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염태영 시장의 언급처럼 특례시 명칭은 부여됐지만 이에 따른 권한은 미흡하다. 따라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과 위원장에게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특례시 시장들(2021.7.2. 수원시 포토뱅크)

## ●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2021년 7월 2일엔 수원시(염태영 시장)와 창원시(허성무 시장), 고양시(이재준 시장), 용인시(백군기 시장)의 시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이에 앞서 6월 29일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면담했다. 먼저 만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 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만난 김부겸 총리에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한 지방분권법 개정과,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을 요청했다.<sup>19)</sup>

김부겸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튼 사람이다. 염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 시장이 위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것처럼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 가격, 전·월세 수준 등에서 광역시와 생활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은 인구 5만의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sup>20)</sup> 인구 123만 명인 수원시와 인구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 수원시민들은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는데 향후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

과 특례권한을 발굴하고 있다.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공동 TF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수원일보』(2021년 1월 18일)에 게재된 '특례시 본격 준비에 나선 수원시' 제하의 사설이다.

본보는 지난해 12월 11일자 사설을 통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도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이 반가운 소식에 해당 도시들은 즉각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기 때문이었다.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속빈 강장'이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특례시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입법'이란 것이다. 본란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았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명칭조차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해당 도시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TF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TF팀은 앞으로의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



수원특례시 출범식(2022.1.13. 수원시 포토뱅크)

과 특례권한을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공동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시'는 새로운 수원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돼야 한다.

- 1) "“수원특례시 반드시 실현...시민들 삶의 질 높여겠다” 염태영 시장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서 강조, 『경인일보』, 2018년 9월 20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된다. 수원·용인·고양·창원, 환영... “행·재정적 과리로 불편 겪어온 시민에게 반가운 소식”』, 『OHMYNEWS』, 2020년 12월 9일.
- 2)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확정..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경기뉴스탑』, 2020년 12월 9일; 『DJ 유언 ‘지방자치’ 32년만에 염태영 수원시장 완성』, 『헤럴드경제』, 2020년 12월 9일.
- 3)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수원특례시’ 실현」, 『이뉴스투데이』, 2020년 12월 9일; 『수원시,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수원특례시’ 실현된다』, 『경기티브종합뉴스』, 2020년 12월 10일.
- 4) 「인구 118만의 경기도 최대도시 수원, ‘특례시’ 됐다」, 『인사이트』, 2020년 12월 10일; 『수원특례시’ 실현...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글로벌이코노믹』, 2020년 12월 11일; 『수원시, 2022년 특례시 행 열차에 오른다... 3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7년 노력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주) 경기타임즈』, 2020년 12월 15일.
- 5) 「염태영 수원시장 “자랑스런 수원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노력”」, 『Moneys』, 2020년 12월 15일; 『특별기획] 수원시, ‘특례시’로 발돋움하다』, 『일요서울』, 2020년 12월 15일; 『이름은 염태영’ 코로나 히어로 된 진짜이유』, 『헤럴드경제』, 2021년 2월 16일.
- 6) 「“수원특례시’ 2022년 1월 출범...차별 탈피 위한 7년 노력 결실 됐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12월 15일; 『수원시, 특례시 격상으로 시민의 차별 줄인다』, 『쿠키뉴스』, 2020년 12월 15일; 『수원시, 특례시 속원 이뤘다』, 『경기뉴스탑』, 2020년 12월 9일.
- 7)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경기etv뉴스』, 2020년 12월 15일.
- 8)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경기중앙신문』, 2020년 12월 16일; 『이름은 염태영’ 코로나 히어로 된 진짜이유』, 『헤럴드경제』, 2021년 2월 16일; 『특별기획] 수원시, ‘특례시’로 발돋움하다』, 『일요서울』, 2020년 12월 15일.
- 9)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경기IN』, 2020년 12월 15일;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경기인터넷신문』, 2020년 12월 15일;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중부시사신문』, 2020년 12월 15일; 『염태영 수원시장 “자랑스런 수원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노력”』, 『Moneys』, 2020년 12월 15일.

- 10) 「수원시, 특례시 격상으로 시민의 차별 줄인다」, 『쿠키뉴스』, 2020년 12월 15일;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서울매일』, 2020년 12월 15일;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경기etv뉴스』, 2020년 12월 15일;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경기중앙신문』, 2020년 12월 15일.
- 11) 「123만 수원시민의 숙원 ‘특례시’,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 제도화하는 초석될 것”」, 『cnbnews』,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된다. 수원·용인·고양·창원, 환영... “행·재정적 과리로 불편 겪어온 시민에게 반가운 소식”』, 『오마이뉴스』, 2020년 12월 9일; 『지난 7년 간 ‘특례시’ 지정 위해 발로 댄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자랑스런 수원특례시의 성공적 출범 위해 노력할 것”』, 『cnbnews』, 2020년 12월 15일.
- 12) 「7년 여정 끝에 2022년 ‘수원특례시’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경기신문』, 2020년 12월 15일.
- 13) 「수원시, 수원특례시 실현된다...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주)경기타임즈』,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32년만에 개정...수원특례시’ 실현된다』, 『Moneys』, 2020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수원특례시’ 실현』, 『이뉴스투데이』, 2020년 12월 9일.
- 14) 「[광감칼럼]특례시는 새로운 수원의 출발점」, 『수원e뉴스』, 2019년 1월 10일.
- 15) 「2022년 수원시 특례시가 된다」, 『경기인터넷신문』, 2020년 12월 15일; 『2022년 수원이 특례시가 된다』, 『중부시사신문』, 2020년 12월 15일; 『수원시, 2022년 수원시 특례시가 된다』, 『경기경제신문』, 2020년 12월 15일.
- 16)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시대’ 활짝」, 『일요신문』, 2020년 12월 10일.
- 17) 「2022년 수원시 특례시가 됩니다」, 『일간투데이』, 2020년 12월 15일; 『지난 7년간 ‘특례시’ 지정 위해 발로 댄 염태영 수원시장』, 『CNBNEWS』, 2020년 12월 15일; 『특별기획] 수원시, 특례시로 발돋움하다』, 『일요서울』, 2020년 12월 15일.
- 18) 「수원시, 2022년 수원특례시 된다」, 『경기데일리』, 2020년 12월 15일.
- 19)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건의」, 『매일일보』, 2021년 7월 3일.
- 20) 「[사설]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야」, 『경기신문』, 2021년 7월 5일.

---

사람 중심 정책,  
시민 소통 키웠다

## \*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출범

2011년 2월 16일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시장)가 출범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기구로써 공약 이행 점검·평가 등 약속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추적하고 정책 제안·개발 등을 담당한다. 협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성은 기획조정위원회와 5개 분과위원회(일자리·안전도시·환경교통·자치교육·복지여성)가 있다.

뉴스 통신사인 『뉴시스』(2011년 2월 16일)는 2011년 출범 당시 소식을 이렇게 보도했다. “민선 5기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의 소통 행정에 꽃을 피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4시 인계동 이비스호텔에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 명으로, 앞으로 본위원회(20명), 일자리전문위원회(12명), 도시재생전문위원회(12명), 환경수도전문위원회(12

명), 시민참여전문위원회(12명), 여성복지전문위원회(12명) 등 본위원회와 5개 전문위원회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선 5기 염 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행정의 핵심으로 '시장의 공약 이행과 실현', '시정의 정책개발과 제안', '참여와 토론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 실행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정책 과제의 발굴, 발굴과제에 대한 실행 로드맵 작성,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 등 정책 형성 과정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sup>1)</sup> 염 시장은 “좋은시정위원회가 참여와 토론으로 관료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조정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1년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출범(2011.2.16.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그동안 민선 5기 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행정의 핵심으로 '시장의 공약 이행과 실현', '시장의 정책개발과 제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115만 인구에 걸맞은 수원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등 시민약속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시장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람중심의 정책을 도입·평가하는 등 시민참여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까지 위원회가 발굴하거나 개발한 정책 78건 가운데 53건이 시정에 도입됐다. 위원회의 약속사업 관리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2011~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6회, 우수상 6회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결과 2018년 SA등급(최고 등급), 2019년 A등급, 2020년 SA등급, 2021년 SA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광고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광고산 일대 상·하광고동 지역은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2015년 9월 광고주민대표 협의회를 구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고저수지 폐쇄를 시에 요구했다. 이에 2017년 3월 수원시는 비상취수원을 광고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



2018년 2월 '광고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광고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상생'을 기반으로 풀어냈다.(2018.2.21. 수원시 포토뱅크)

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고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는 해당 사안의 논의 과정을 민·관 협치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에 위임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6년 12월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고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과 관련한 모든 논의 과정을 좋은시정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비상취수원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논의 과정의 위임 목적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 2016년 12월 5일 기사를 보면 김동근 수원시 제1부 시장은 “현 상황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전체를 철회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면서도 “이번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해제 여부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되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해 부분적인 수정을 검토한 후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위임 배경을 설명했다고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의견 수렴을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으며 좋은시정위원회가 어떠한 결과를 내리더라도 그대로 반영하겠다. 시민단체와 광교산 주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청한다.”는 수원시의 의지도 전했다.

이에 따라 좋은시정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6년 11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태스크포스팀 회의, 전체 회의, 광고주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sup>2)</sup> 좋은시정위원회는 2017년 3월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수원시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장기간 보류될 경우 시의 다른 계획과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 승인 추진과 보호구역 해제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수원시가 범시민적 대화 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권고는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좋은시정위원회를 포함한 외부위원까지 충분히 포함하는 범시민 대화 기구인 광교산 상생협의회가 2017년 7월 출범했다. 이후 6개월간 상생

의 노력을 했다. 광교취수원 해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찬성하는 광교산 주민들과 각각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와 원탁토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냈다. 드디어 2018년 2월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 중 일부가 부분 해제됐다.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라는 난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상생’을 기반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처럼 좋은시정위원회는 수원시 협치의 상징으로써 시정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주도로 인한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통과 조정능력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시정 현안과 갈등 문제에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실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 \* 마을만들기, 사람이 마을을 만들고 마을은 삶을 일구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문화·복지·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2010년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5기 시장으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개발논리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마을만들기를 통한 도시재생’은 생소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는 했다. 당시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진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자며 주민들이 도입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추진된 것은 수원시가 최초였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마을만들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 중심에 수원시가 있었다. 2020년 4월 12일 『기호일보』는 기획특집으로 수원시의 마을만들기를 다루면서 수원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마을만들기 표준모델로 성장하며 국내 각 지방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2년 수원시 마을만들기 소식지인 『마을르네상스 저널』 창간호에서 염 시장은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워 새로운 마을로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시민사회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가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염 시장은 평소 주민이 주축이 되는 자치를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그의 신념은 마을만들기에 반영됐다.

민선 5기 중요한 시민 참여사업이자 핵심사업 중 하나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됐다. 2011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1,078건의 브랜드 네임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가운데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마을르네상스’를 마을만들기 정책 브랜드로 선정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12월 마을만들기를 본격화하기 위해 담당부서 실무자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고 제2부시장 직속으로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신설하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2011년 3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좋은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에 위탁 운영했는데 이는 민간의 인적 자원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구토론회와 도시환경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수원형 마을만들기’인 ‘마을르네상스’ 기본정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같은 해 7월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첫 공모사업 공고를 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3년 9월 전 세계 최초로 열렸던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기호일보』(2020년 4월 12일)는 “한 달간 원도심인 팔달구 행궁동 일원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때 열린 마을만들기 전국대회(2013.9.25. 수원시 포토뱅크)

열렸던 이 행사는 주민들이 자동차 없이 비동력 이동수단만으로 실제 생활에 임하며 기후변화 문제와 미래 도시모텔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도심 재생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행궁동 마을을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마을만들기의 정수를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이 축제 기간 중 수원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 마을이 만든 사람’을 슬로건으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도 열렸다.

당시 전국 37개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만들기 행정을 현장·과정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 전국 자치단체장의 동참 요청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는 마을만들기 전국 확산



2015년 9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다.(2015.9.10. 수원시 포토뱅크)

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동안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2011년 54개를 시작으로 2012년 131개, 2013년 139개, 2014년 132개, 2015년 157개, 2016년 151개, 2017년 133개, 2018년 96개, 2019년 105개, 2020년 99개, 2021년 76개 등 총 11년간 1,273개 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까지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373회 열렸는데 여기에 참여한 주민 수도 1만 6,128명에 달했으며 마을 공간도 46곳이나 새로 조성됐다.

해당 공모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87억여 원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마을환경 개선, 이웃 주민과의 교류, 참여의식 변화, 주민리더 발굴 및 육성 등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 수원시가 띄운 마을만들기 불씨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는 2015년 9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으로 이어

졌다. 출범식에서 염태영 시장이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돼 2018년 10월 말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했다.

이 기간에 전국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신설·운영 확대, 민관 거버넌스 체계운영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및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21년 6월 현재 현재 협의회는 수원시 등 전국 60개 기초지방정부와 서울시 등 7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파급효과는 컸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는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들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 구상을 위해 견학을 오기도 했다. 국내 지방정부들의 벤치마킹도 줄을 이었다. 지금까지 58회에 걸쳐 4,967명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현장을 다녀갔다.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시 정책으로 인정받아, 2017년 Urban SDG 홈페이지에 수원시의 도시정책 ‘마을만들기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Urban SDG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식 플랫폼으로 아·태지역 국제기구인 CityNet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가 공동으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식 플랫폼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도시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식 플랫폼은 ‘수원시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730여 개 사업이 진행됐으며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해마다 새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환경이 개선됐으며 이웃 주민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주민 리더를 발굴·육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우수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수원시의 마을만들기를 배우기 위해 수원을 찾는다고도 했다.<sup>3)</sup>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에서도 수원을 찾았다. 일본 타마 주민자치연구소, 일본 다테야마 NPO법인 아와문화유산포럼 등도 수원시를 방문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마을만들기 원조’로 불리는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은 마을르네상스센터를 방문해 “일본보다 낫다.”는 찬사를 남겼다고 한다.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엠티주 ‘프놈끄라움 수원마을’ 주민들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주요 사례지를 방문했다.

이 같은 호평에 지난 2015년 10월 20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수원마을축제 정책포럼 및 공식행사에서 염태영 시장은 “5년 전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50여 개였던 사업은 올해 140여 개로 증가했으며 수원



마을만들기 사업 현장(2011.9.3. 수원시 포토뱅크)

시의 마을만들기는 전국으로 확산돼 지금은 국내외 벤치마킹 행렬이 줄을 잇는 마을르네상스의 메카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마을만들기는 계속 진화해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진정한 마을르네상스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마을만들기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했다. 그 중에서 김병익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장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업무를 완수했다. 그가 『중부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수원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앞서 민선 5기부터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초기에는 공무원들조차도 마을만들기가 뭐지?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았었다. 당시에는 마을만들기는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가, 마을전문가 등 일부 특정인만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략) ‘마을계획단’을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며 주민이 직접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칙칙하고 무너질 듯한 골목담장이 주민이 직접 그려 넣은 벽화로 지날 때마다 미소를 머금게 하는 골목으로 다시 태어나 이웃의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 오는 장소가 되었고, 각 마을에서는 주민공동체가 살아나 지역공동체 주관의 소규모 마을축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중략)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단순한 공모사업의 반복, 공동체간의 경쟁과 갈등 분쟁도 적지 않았으며, 사업의 지속성과 자립성 부족에 따른 중도포기도 잇달았다. 마을르네상스 추진 5년차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과 성과를 조명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열어 마을 르네상스에 대한 주요정책과 이슈를 진단하고, 전문가와 시민 토론

회를 개최하여 향후 마을르네상스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을르네상스 추진성과 조사에 따르면 마을르네상스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의 비율이 2012년 20%에서 46.5%로 크게 증가하였고, 친한 이웃도 11.5명에서 23.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목적인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본다. 마을만들기는 누군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함께 해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마을 주민뿐 아니라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가야 하는 일이다.<김병익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장><sup>4)</sup>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형 · 사람중심의 도시 수원이라는 기초하에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 \* 도시정책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시민계획단

과거 도시정책은 행정(공공), 전문가, 용역사가 주체가 되고 시민 참여가 배제되는 하향식이었다. 이런 도시정책에서 탈피해 협치(거버넌스)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이 시작됐다. 2012년 수원시는 시민이 직접 도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이후 시민이 다양한 도시계획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

성인과 청소년, 다문화 시민 등 다양한 시민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해 더 나은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면 수원시는 이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와 시민 단체의 추천 등으로 선정하며, 시민·시민의원·시민단체 회원·학생·전문가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2012년에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도시계획에 현안이 있으면 토론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2013.7.3. 수원시 포도뱅크)

의 장을 펼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그 가운데 2014년 8월 9일에는 수원시 도시 주요 쟁점 및 이슈사항인 '롯데몰 수원점 개점 시기 및 지역상생'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계획단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및 선진 경영기법 교육·전수·판매 품목 합의 등의 의견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또 한편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몰 개점 시기를 과선교 개통 이후로 하자고 제시했다. 수원시와 롯데 측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롯데몰 개점을 과선교 개통 이후로 미뤘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탁토론회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까지 1년에 1~2차례 열렸다. 2013년 7월에 열린 500인 원탁토론회의 주제는 ‘함께하는 수원교육을 말하다’였는데 참가한 500명의 시민이 10명씩 50개 테이블에 나뉘 앉아 모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참여형 토론으로 진행됐다.<sup>5)</sup> 기존 패널이 무대에서 토론하고 시민은 듣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토론 참가자 500명은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수원시장 및 교육전문가와 수원시 의회 50명,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 300명, 평생학습 참여시민 150명으로 구성됐다.<sup>6)</sup>

이날 제1토론 ‘올바른 공교육 혁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를 의제로, 제2토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제로 각각 참가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차 의제인 ‘공교육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학부모 문화’(30%)와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정’(19%) 등을 꼽았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는 ‘학생의 내적 성장을 도와주는 교육과정 만들기’(29%), ‘참여와 소통의 학교민주주의 정착’(23%) 및 ‘장기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는 입시제도 마련’(21%) 등의 의견을 보였다.

2013년 11월엔 300인이 참여한 ‘지속가능한 생태교통을 말한다’ 원탁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행궁동 주민 240명, 생태교통전문가 15명, 시민단체 15명, 행궁동 이외 지역 시민 30명 등 10대 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참가해 2시간 반 동안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원탁토론 참가자 44%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렸던 화서문로-신평로 구간에서 ‘주말에 생태교통 차 없는 마을을 운

영하자’는 의견을 냈다. 차 없는 마을 운영 장소는 과반인 50.9%가 ‘행궁동 전체’라고 답했다. 이어 ‘화서문로~신평로(25.7%)’, ‘필요하지 않다(18.1%)’ 등의 순이었다.

생태교통마을 발전방안이라는 자유토론에서 참여자의 33%는 주민 간 토론 및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차 없는 거리 확대(16%),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희망(13%), 특색 있는 테마로 상권재구성(11%), 주민 교통불편 해결(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7)</sup>

2014년 10월에 열린 원탁토론회는 ‘수원컨벤션센터,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수원컨벤션센터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수원문화를 컨트롤하는 허브 역할’(30%), ‘독특한 건물 외관 디자인’(21%), ‘특징적인 시설도입’(18%) 등을 제시했다. 컨벤션센터 시설로는 전시체험관(26%), 숙박시설(20%), 소품몰 등 식음료 시설(17%)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수원컨벤션센터의 대표박람회로 IT(정보기술)·NT(나노기술)·ET(에너지기술)산업박람회(23%), 문화·예술·스포츠 박람회(2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수원마을르네상스 300인 원탁토론회가 열려 마을르네상스 추진 4년차 성과를 조명했다. 지난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성과를 진단하는 것으로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무엇이 좋아졌는지와 마을르네상스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지, 마을르네상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마을르네상스의 미래에 대한 의제로 주민들이 앞으로 바라는 마을에 대해 향후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공모사업의 어떤 점이 변화하였으면 좋을지,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의 2015년

주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재활방안’과 ‘수원도시철도 1호선(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이었다.<sup>8)</sup> 수원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서 시민 계획단 250여 명, 청소년계획단 150여 명과 수원시 관계자, 시의원, 자문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 직업, 경력을 가진 참가자들은 33분과로 나뉘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토론을 펼쳤다.<sup>9)</sup>

토론회는 1부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재활방안’과 2부 ‘수원도시철도 1호선(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각 주제에 대한 세부안건을 놓고 분과별 토론을 벌이고, 제시된 여러 의견에 대해 전체 토론자들이 전자투표를 했다.

1부 토론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방향에 대해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2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업주체는 ‘민관 협동개발(39%)’, 종사자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의견수렴 선행(33%)’과 ‘여성종사자 자립계획 마련(27%)’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가장 적합한 도입시설로 ‘청소년 놀이 및 휴식공간(공원 29%)’, ‘특화거리 조성(24%)’ 순으로 집계됐다.

2부 토론에는 청소년계획단도 함께 참여해 ‘수원도시철도 1호선(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 전원이 참여하는 전자투표에서, 노면전차 도입에 따른 기존 교통체계 운영방안으로 ‘대중교통과 연계성 확대(28%)’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용 활성화 방안은 ‘저렴한 이용료(25%)’, ‘트램 내부 문화공간 마련(16%)’,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특화(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활성화 방안으로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 유치(21%)’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sup>10)</sup>

2016년에 열린 원탁토론회의 주제는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방안’이

었다. 영흥공원을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영흥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수림, 지형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다.<sup>11)</sup>

이날 참가자들은 40개의 테이블에 10명씩 나뉘어 앉아 △공원의 테마 및 도입시설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 주체 △시민 참여방안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 나갔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17년에 열린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시민계획단은 ‘수원역 일원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종합적 개선’(37.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획기적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20.7%), ‘간판 정비를 통한 이미지 개선’(14.8%), ‘역전시장 특색화’(10.8%)가 뒤를 이었다. ‘수원역 일원의 문제점’으로는 38.6%가 ‘교통 혼잡’을 선택했고, ‘안전 및 치안’(35.2%), ‘부족한 녹지와 휴식·문화공간’(11.3%)이 뒤를 이었다. ‘수원역 일원의 미래상’으로는 ‘교통의 메카 수원역’(31.3%)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수원역’(19.7%), ‘밤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수원역’(17.4%), ‘만남의 상징 공간으로서 수원역’(15.1%) 순이었다.<sup>12)</sup>

또 경기도 문화의 전당 기능을 확장할 때 꼭 들어왔으면 하는 시설로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38%)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지금과 같은 공연·문화시설의 거점’이 18.3%, ‘시민들의 참여와 커뮤니티 공간’ 19.7%, ‘주민의 여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11.2%였다. 반면 배제해야 할 시설로는 ‘유흥시설’(32.9%), ‘종교시설 등 집객 유도시설’(13.4%), ‘불필요한 조형물’(12.1%), ‘모텔 등 숙박시설’(10.9%) 등의 의견이 나왔다.<sup>13)</sup>

2018년에 열린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서는 현장 투표로 ‘수원

형 스마트시티 구현 방향과 '서둔동 일원의 향후 정비 방향'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수원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관광·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구도심-신도심·동수원-서수원 간 불균형'(35%)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됐고, '청년·시니어 일자리 문제'(18%), '도시관리 미흡'(16%)이 뒤를 이었다.<sup>14)</sup>

'교통'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는 '주차난'이 49%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이용 불편'이 28%, '출퇴근 도로교통 혼잡'이 21%였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쓰레기'(48%)와 '미세먼지'(46%)를, '안전·생활복지' 분야는 '치안'(26%), '주차환경'(22%)을 선정했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안전·생활복지'(32%), '교통'(31%)을 꼽았다. 서둔동 일원의 문제점으로는 '군공항 이전'(27%), '교통접근성 부족'(18%)를 선정했다. '서둔동 일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묻는 투표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공간 조성'(31%)을 최우선 순위로 택했다. '친환경적인 개발'(29%),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활용'(15%), '다양한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공간'(14%)이 뒤를 이었다.<sup>15)</sup>

2019년의 원탁토론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원시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교통수단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선정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미세먼지 문제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28%)과, '미세먼지 유발시설 개선방안 미흡'(27%),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17%) 등이었다. 참가자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주요 미세먼지 유발원의 철저한 관리'(44%)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 선정됐고, '바람길 조성'과 '공원·녹지 확대'(29%), '환경감시·시민교육 등 시민참여 확대'(14%)가 뒤를 이었다.<sup>16)</sup>

'건축·스마트' 분야에서는 '건축 시 녹지 공간 조성·쾌적한 보행환경 마련'이 27%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규제 강화(비산먼지 관리·친환경 건축자재 권장 등)'가 25%,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장비 설치·활용'이 18%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교통수단 지원·인프라 확충'이 31%로 가장 높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29%,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과 '차 없는 거리 확대'가 15%로 뒤를 이었다.<sup>17)</sup>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민관협치) 기구로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 사회편에 수록됐고,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대상,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대상,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자리매김했다.<sup>18)</sup>

또 2014년 중국 고위공무원, 국제기구, 기업과 NGO 대표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사회혁신 국제행사 '베이징 스마트 도시 서밋(2014 DIY My Smart City Summit)'에도 초청돼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의 성공사례를 전파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대중의 지혜가 소수 엘리트 집단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집단지성의 철학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 해묵은 광교산 주민 숙원 품 집단지성 '광교산 상생협의회'

광교산 주변지역은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를 건디다 못한 주민들은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를 폐쇄하라고 시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2017년 3월 시는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광교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수한 생태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규제 해제 요구가 충돌했다.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고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타당한 것이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환경보호구역이지만 거주



광교산 아래 마을 전경(2020.11.8. 수원시 포토뱅크)

민들에게는 오래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인 것이다.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8년간 충돌한 것이다.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보리밥 등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 온 주민들은 불법 영업을 하는 범죄자가 됐다.

이에 환경부는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원시와 광교주민, 시민단체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수원시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수원시는 광교지역 주민,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와 수원시의회 등 20명으로 구성된 광교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2017년 광

교산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 '광고산 상생협의회'는 수원 광고산 일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보전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광고산 주민, 시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19)</sup>

출범 당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경기환경포럼 물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재응 아주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광고산주민대표협의회 대표 등 광고산 주민 3명,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인 수산 스님 등 광고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 조인상 수원시 환경국장 등 수원시 공무원, 수원시의원, 거버넌스 담당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광고산 상생협의회는 제도개선분과와 주민지원분과로 이뤄졌다.<sup>20)</sup> 제도개선분과 위원장은 김명옥 하천유역네트워크 위원장, 주민지원분과 위원장은 박종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수원시 광고산 상생협의회 위원들의 회의 장면(2018.2.21. 수원시 포토뱅크)

상생협의회는 월 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는 월 2회 분과회의를 열기로 했다. 분과회의 때 다른 분과 위원들이 상호 참관할 수 있다. 분과회의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 참석하면 개최하고, 의결은 광고주민들이 반드시 참석한 상황에서 합의로 이뤄진다. 광고산주민대표협의회 대표는 각 분과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생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전체회의(9회), 분과회의(16회)를 열고 광고지역 주민(132가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광고산 상생협의회는 '광고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했다.<sup>21)</sup>

드디어 수원시가 2018년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가 승인했다.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고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식(2019.9.23. 수원시 포토뱅크)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현황도, 2019.7.16. 수원시청 보도자료)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9년 7월 광교산 상수원보호지역 일부가 해제됐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고시했다. 고시된 지역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로 총 8만 34m<sup>2</sup>이다. 지목이 대지인 7만 930m<sup>2</sup>와 기존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물 부지인 9,104m<sup>2</sup>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sup>22)</sup>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박물관·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원거주민은 기존 200m<sup>2</sup>에서 300m<sup>2</sup>, 5년 이상 거주자는 232m<sup>2</sup>, 5년 미만 거주자는 200m<sup>2</sup>까지 신·증축할 수 있다.

특히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8년 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로 보호구역 내 음식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등산객 등 손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2018년 12월 2일)은 당시 주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고산 등산로 근처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몇 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상수원 규제로 인해 농사 말고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식당 운영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다는 자괴감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다.”며 “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주민 B씨는 “연간 천만 명 이상 등산객이 다녀가면서 모두 불법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광고지역이 지속가능한 모범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관리계획 수립 △광고상생위원회 구성 △주민지원방안이 등이 포함된 ‘수원시 광고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를 2019년 7월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그해 9월 광고상생위원회가 구성됐다.<sup>23)</sup>

광고상생위원회는 위원장인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5명, 수원시의원·전문가(대학교수·연구원 등)·광고주민·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촉직 18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광고상생위원회는 광고상수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친환경 관리 계획·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한다.<sup>24)</sup>

## \* "사람이 우선!"

### 수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다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지로 두었던 550여 명의 주민들이 2020년 7월 24일부터 수원시민이 됐다. 이들은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 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경계가 조정됨으로써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을 경험하지 않게 됐다. 수원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엔 용인시와, 2012년엔 의왕시와의 경계가 조정됐다.<sup>25)</sup>

● 불편 요소 사전 차단한 화성시와의 경계 조정

2020년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 8,825㎡의 면적을 교환함으로써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수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됐다. 6년 전부터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시작한 두 도시는 행정사무 인수인계 작업을 순조롭게 마쳤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 조정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받으면서 부터이다.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 조정 협약식에서 염태영(왼쪽) 수원시장과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 서철모 화성시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9.12.23. 수원시 포토뱅크)

화성시와 수원시가 맞닿은 원래 경계는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다. 이 구역에서 망포4지구와 반정2지구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화성시 부지가 수원시를 파고든 모양새여서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sup>26)</sup>

바로 옆 아파트 주민은 가까운 수원시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3km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에 나섰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의를 수차례 거치며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두 지방정부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 조정(2020.7.21. 수원시청 보도자료)

염태영 시장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절실히 호소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버스노선 확충 등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화성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끝에 2019년 12월 수원시와 화성시, 경기도의 공동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이후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20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 23일 공포가 이뤄졌으며 7월 24일 경계 조정령이 시행,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됐다.

『중부일보』(2020년 6월 16일)는 국무회의 의결 날 ‘수원·화성시,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부처’라는 사실을 통해 수원시-화성시 두 도시의 경계 조정을 환영했다.

기억에도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행정경계를 잘 마무리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은 그간 우리 지방정부 곳곳에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케 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수원시와 맞닿은 화성시다.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6년 만에 모두 마무리된다는 소식이다. 당장 주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탓이다. 이러한 경계 조정령은 오는 23일 공포되고, 한 달 뒤인 7월 23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는 탓도 크다.

이러한 경계 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되고 이제 주민들은 피부로 그 현실을 실감하게 될 일이다. 알려졌다시피 수원시와 화성시는 망포동

일원과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 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km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찾는 불편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가장 불편을 호소하던 학생들도 멀리 떨어진 학교가 아닌 단지 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물론이다. 수원시가 용인시와 같은 조정을 할 때 수원과 접해 있던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코앞에 초등학교를 두고 길 건너로 보내던 그 아슬아슬함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과 다르지 않다. 대개의 이러한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수원시는 3년 전 6월 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는 호소를 해 온 것을 기억한다. 자치단체장의 수고가 결실로 맺는 중요한 시간으로 남을 얘기다.

결국에는 2년 전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우호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경계 조정에 청신호가 켜졌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의회도 이에 부응해 ‘수원-화성 경계 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물론이다. 결국에는 경기도가 지난 1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안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돼 오늘의 결과로 귀착됐다. 우리는 지난 6년여 동안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수고에 당연한 박수를 보낸다. 이렇듯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해서다.

### ● '7년 만에 이뤄진 숙원' 용인시와의 경계 조정

앞서 2019년엔 용인과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이 역시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노력이었다. 유독 U자 형태로 파고들어 간 지형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청명센트레빌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이 단지에 살게 된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1.19km나 떨어진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 게다가 학교에 가려면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길이 유일해 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했다. 학군이 행정경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조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sup>27)</sup> 이에 수원시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무회의와 단체장 면담, 수차례의 조정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계 조정은 세수와 인구, 면적 등이 다양하게 얽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염태영 시장은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에 2017년 6월 '광화문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올렸고,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청원을 등록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슈화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수원시장이 용인시민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의 불만도 나왔다. '주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염 시장의 의지는 굳건했다.<sup>28)</sup>

## II. 사람 중심 정책, 시민 소통 키웠다

# 청명 센트레빌 입주민 환영 작은 음악회

## 수원시민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 시민이 시민에게

2019. 11. 9 (토) 11시 ~ 12시  
청명센트레빌APT 공원 중앙 마당

'수원시민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주제의 작은 음악회가  
2019년 11월 9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내 공원 중앙마당에서 열렸다.  
(\*'청명센트레빌 입주민 환영 작은음악회 개최', 'e수원뉴스', 2019.11.6.)

주관 | 경기르네상스포럼,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민회

이후 경계 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2019년 4월 18일 관련 협약을 맺었다. 관련법의 입법예고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9월 13일 드디어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결실을 맺었다. 용인과의 경계 조정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경계 조정의 첫 사례였다. 7년 만에 숙원을 해결하게 된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준 염태영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sup>29)</sup>

‘수원시민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주제의 작은 음악회도 11월 9일 아파트 내 공원 중앙마당에서 열렸다. 경기르네상스포럼과 청명센트레빌 입주민회가 마련한 이 음악회에서 이상희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지난 9월13일 청명센트레빌이 수원시에 편입되기까지 큰 고비가 있었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힘들었던 그간의 기억은 잊고, 수원시민으로써의 자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 협약을 맺은 날 『경기신문』(2019년 4월 18일)은 사설 ‘바람직한 선례 수원-용인 행정경계 조정’을 통해 두 도시의 결단을 환영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의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수원시-용인시 간의 경계 조정 공동협약’이 18일 체결된 것이다.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것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행정관청의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수원-용인 간의 행정구역 갈등은 지난 2012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과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

수원시와 더 가까운 탓에 주민의 생활권이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됐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부모들의 불편이 컸다.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생들은 불과 200m 거리 지척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대신 차량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왕복 8차선 42번 국도를 건너 1.2km 정도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이에 2015년 5월 경기도가 나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용인시의회는 경기도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경계 조정을 반대했다. 2016년 4월엔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의 면담해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역시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협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나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왜 수원시장이 용인 주민을 챙기느냐는 일부의 비난도 있었지만 경계 조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드디어 올해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엔 경기도의회가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도시 간의 경계 조정 공동협약이 18일 체결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합리적 경계 조정의 모범을 보여 준 수원시-용인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 ● '수면 위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의왕시와의 경계 조정

수원시-인접 지방정부 사이의 최초 경계 조정은 의왕 왕송호수로 인해 이뤄졌다. 2011년까지만 해도 수원시 입북동과 의왕시 월암동에 걸쳐 있는 왕송호수 수면 위로 행정구역이 형성돼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준설이나 수질개선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수원과 의왕 두 도시에 모두 승인을 받아야 했고, 자체 사업을 진행할 때도 행정절차가 이원화돼 원활하지 못했다.

왕송호수 행정구역 조정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행정구역 일원화 요청 이후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와 의회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의왕저수지 주변 의왕-수원 간 경계 조정은 레일바이크 강행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한 것이다.<sup>30)</sup>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2년 3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수원시와 시의회는 의왕시와 농어촌공사의 왕송호수 인근 행정구역 경계 조정 요청에 대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왕시와 농어촌공사가 2개 시에 걸친 의왕저수지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의왕시 초평동 등 3개동과 수원시 장안구 입북동 등 2개동에 대한 경계 조정을 수원시의회에 요청했다.”며 “이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왕송호수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며 수원의 젖줄 중 하나인 황구지천의 시점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돼야 할 곳이라며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수원시와 시의회는 지자체 간 온정주의와 갈등 유발 등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sup>31)</sup>

수원시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12년 7월 1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경계 조정안은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사회단체들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의왕시가 레일바이크와 각종 위락, 관광산업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의 철학과 맞지 않고,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므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입북동 주민들은 왕송호수에 대한 애착이 큰데, 수원시가 경계 조정을 통해 사용가치가 없는 땅을 받아 무얼 하느냐.”며 경계 조정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왕시의 개발 문제를 수원시에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류학자들의 검토결과 왕송호수 주변 개발로 인한 철새 도래지 훼손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레일바이크 설치 시 산책로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어서 오히려 왕송호수 주변 수원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왕송호수 일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2년 9월 11일 열린 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수원·의왕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왕송호수의 행정구역이 수원시와 의왕시로 나눠져 불합리하게 획정된 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왕시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수원시로 편입되는 부지도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신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市)산의 부정형 경계를 도로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수원시와 의왕시는 2012년 9월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을 건의했다. 2013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1월 22일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확정됐다. 두 도시의 경계 조정안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의 왕송호수 일부와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15만 8,600㎡가 의왕시로 편입됐으며, 비슷한 면적의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 우측 도로변과 임야 19만 4,193㎡는 수원시로 편입됐다.<sup>32)</sup>

이로 인해 과거 들쭉날쭉했던 의왕시와 수원시의 불합리한 경계구역 일부가 고색-의왕 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됐다. 저수지 수면을 지나가는 비합리적인 경계도 저수지를 경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됐다. 도시계획의 연계성도 확보되어 균형 잡힌 지역개발도 가능해졌다. 또 왕송호수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가 한층 수월해졌다.

## \* 노동자와 기업,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勞), 기업(使), 시민(民), 지방정부(政) 대표자가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체계)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시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노사협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1년 최초 구성됐다. 그 이전인 1998년엔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란 이름으로 창립, 그해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01년엔 '경제발전수원시민협의회'로 개칭, 경제포럼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진행했다. 2007년 노사파트너십 및 고용포럼 사업(노동부지원), 2008년 노사정 파트너십 사업(노동부지원), 2009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노동부지원), 2010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고용노동부지원)을 펼쳤다. 2010년 9월 수원시 조례에 의거 공식협의회로 창립, 노사민정이 함께 만드는 일자



수원시노사민정 대표들이 2020년 노동절을 기념해 '수원시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2020.3.5. 수원시 포토뱅크)

리창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

수원시노사정협의회는 2021년 수원시의 우수 협치정책으로 뽑히기도 했다. 대외 수상실적도 화려하다.

- 2010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기초단체 최우수(대통령상 수상)
- 2011년 1월 수원시 조례 개정에 의해 사무국 설치(전국 최초)
- 2011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국무총리상 수상
- 201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대통령상 수상
- 201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대통령상 수상
- 2014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대통령상 수상

- 2015년은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
- 2016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대상 수상
-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대상 수상
-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우수상 수상
- 20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초단체 최우수상 수상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통해 끈끈한 협력의 고리를 확고하게 했다. 또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 청년고용 우수기업 선정, 원도급-협력사 간 상생협약, 갈등 사전예방 및 조정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경비·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현장 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협치로 일궈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1세기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달하고 지역의 주요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서로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창출 거버넌스를 위해 활동하는 협의체로 지역경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확실한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노동전문미디어인 『참여와 혁신』은 2021년 9월호에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를 소개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수원시에서 노사민정 협력이 가시화된 첫 장면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만들어진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다. 이 활동을 이어받고 2007년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을 발판으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2010

년 시작됐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11년간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초지자체로 6번이나 선정됐다. 그 배경으로 노사민정이 쌓아온 협력의 시간뿐 아니라 2010년부터 3선째 시장직을 맡아 온 염태영 수원시장의 의지가 꼽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 보니, 협의회 위원장인 지자체장의 의지가 협의회 활성화 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시 노동정책과와 협력하며 노동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사회안전망 밖 노동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들의 쉼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발 빠르게 도입했다. 쉼 곳이 마땅치 않았던 노동자들은 “우리 아파트에도 해 달라.”며 협의회 사업을 반겼다.

긍정적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2016년 ‘시주택조례안’을 개정해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휴게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0년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했다. 경비·미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노사민정 사업이 수원시 정책,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최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터를 떠날 수 없는 필수노동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 대표들은 지난해 공동선언문을 통해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기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필수노

동자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 범위나 지원방향 등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 강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병기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던 강사들의 수입이 제로가 됐다. 언제 개강할지도 확실하지 않아 다른 산업으로 선택 진입하지도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몇몇 분들은 계약을 체결해 온라인에서 강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분쟁갈등조정 SOS팀’을 운영해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S팀을 통해 노사 간 입장차를 조율하고, 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OS팀엔 수원상공회의소,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2016년 노사민정협력사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2016.12.15.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노동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해 개설한 '수원노동상담119' 웹사이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노동상담119'는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리 보호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무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신문』(2019년 6월 17일) '수원노동상담119를 지지하는 까닭'이란 사설에서 수원노동상담119를 응원했다.

공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먹고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조상들의 은유다. 현재라고 다를까.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아르바이트는 줄어듦고 노인고용은 감소하는 세태다. 원청(元請)은 웃고 하청과 재하청이 악다구니 쓰는 시대. 그래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여전히 약자는 노동자다. 그나마 위안을 얻는 건 무조건적인 착취와 수탈을 당했던 봉건시대 하층민보다 지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 봐야 '굶어죽기 직전 국밥 한 그릇 나누는 정도'지만.

그 가운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 119(www.youjob.kr)'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지, 운영 주체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010~2018년까지 네 차례의 대통령상 등 매년 굵직굵직한 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장·단기적 비전제시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사·민·정'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온 협상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또 협의회 사무국이 '노'와 '사'와 '민'과 '정'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꾸준한 학습과 현장 경험축

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상근 직원 3명이 1년에 30개 사업을 진행하며 '119'를 운영하겠다는 결기가 있다니 '철의 조직'이다.

여기에는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권리구제지원단과의 공조가 '신의 한수'였다. 부당노동행위 접수와 동시에 센터 지원단 소속 전문 노무사에게 사건이 전달되는 '동시동발 시스템'을 갖춘 신개념 시스템운영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119'의 뿌리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다. 명칭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부당노동행위 근절보다 아르바이트 문제해결로 의미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일었고 지난 5월 '수원노동상담 119'로 명칭을 바꾼다. 명칭 변경을 통한 본 업무 회귀다. 수원지역 노동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119'는 부당알바 신고와 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고용주 신고를 돕는다. 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비상식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 공공일자리 소개는 물론이다.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가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119'의 의지를 응원한다.

## \* '주민참여예산제'

### 내 손으로 우리 동네 바꾸자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009년 8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sup>33)</sup>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생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수원시가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시민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4)</sup>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인분당선' 망포역의 '땅콩도서관'은 코레일에서 2017년 설치한 무인 도서관이다. 작은 컨테이너 규모로 400여 권의 책만 비치 가능해 늘 이용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한 시민이 이곳에서도 수원시 전체 도서관의 책을 열람·대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설치를 제안했고, 시는 2019년 6월 5,100여 만 원을 들여 망포역과 수원역 등 관내 6개소에 21개 수원 시립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온라인으로 검색, 신청·대여 받을 수 있는 무인 책 대여 시스템을 설치했다.

○ 2019년부터 어린이집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강화(70→35 $\mu\text{g}/\text{m}^3$ ) 조치에 따라 초미세먼지 민감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시설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곧바로 예산을 편성, 실내공기질관리사 20명을 양성하고 초미세먼지 민감 시설에 대한 전문 교육에 나섰다.

○ 야트막한 산의 지형을 살려 조성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고중앙공원에 어린이들을 동화 속으로 초대하는 신비로운 숲 놀이터가 있다. 둔덕과 물길 등 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숲놀이터는 동화 속 이야기를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가득하다. 놀이터 곳곳은 온 가족 누구나 즐거운 공간이다.

벤치와 운동기구 등이 놓인 일반적인 쉼터형 공간을 어린이와 가족들의 꿈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은 지난 2019년 주민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경사도가 완만하고 생태공원이 연결된 공간을 눈여겨본 한 주민이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자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덕분이다.<sup>35)</sup>



주민의 제안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광고중앙공원 내 숲놀이터(2021.12.14. 수원시청 보도자료)

주민이 제안한 숲놀이터 조성은 2019년 심의과정을 거쳐 2020년 4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실시설계용역과 착공이 이뤄졌고 2020년 11월 말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처럼 숲속 빈 공간을 창의적인 숲놀이터로 변신시킨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시민이 행정의 정수인 예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제도이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의 예산 및 재정 운영에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이전까지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일은 인터넷 의견 접수 등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되며 주민참여예산의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인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 제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보완하며 시민의 참여를 더욱 넓혔다. 주민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인터넷과 민원실 접수는 물론 홍보 캠페인, 찾아가는 제안 설명회 등 다양한 창구가 열려 있다. 특히 수원시는 매년 3~5월 접수 집중 기간에 각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탐방하며 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sup>36)</sup>

덕분에 첫해인 2011년 총 197건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꾸준한 호응을 얻어 2018년 1,036건으로 제안 건수가 대폭 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7,278건에 달하는 주민제안이 접수돼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민제안이 주춤하고 있지만, 2021년도 68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sup>37)</sup>

주민제안사업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심의 역시 시민이 한다. 주민의 제안은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지만 5월 말을 기준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수원시는 주민세 재원(개인균등분 주민세 전전년도 결산징수액)과 별도 재원(결산징수액의 20%)을 활용해 연간 48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한다.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는데, 180여 명에 달하는 위원들이 활동하는 위원회는 4개 분과별 시 위원회와 4개 구별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sup>38)</sup>

제안사업은 위원회별로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와 담당 부서의 검토 및 현장실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우선순위 사업들이 선정된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심의한 사업들은 예산부서를 거쳐 다음 해 예산안에 포함돼 수원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연말쯤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년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팔달문 시장에서 주민참여예산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수원시 포토뱅크)

간 1,585건의 주민제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됐고, 2021년 제안된 사업 중에는 127건이 예산안에 포함돼 수원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보고회 등 환류 과정도 지원한다.

주민들이 제안해 시행된 사업들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 꼭 필요한 유축기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다. 2017년 한 주민이 익명으로 제안한 유축기 대여사업이 접수됐고 심의 과정을 거쳐 2018년 4,293만여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이후 수원시는 2018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수유 산모에게 전동 유축기를 1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단기간 사용하거나 어떤 제품이 잘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축기를 구매 또는 대여하는 부담을 느꼈던 산모들은 수원시의 지원으로 무료로 유축기를 빌릴 수 있어 크게 기뻐했다. 이 소식은 지역 맘카페 등에서 활발하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호응을 받았다.<sup>39)</sup>

지난 2019년엔 수원시민 8명이 각각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 당시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흡입식물 보급, 홍보 교육관 설치, 공기질 지키미, 미세먼지 의무교육,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등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이에 각 실무 부서와 위원회가 숙의·토론을 거쳐 사업구조화,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다. 2020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수립해 미세먼지 대응사업이 수원시 전역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미세먼지 취약층에 7만 2,330장의 마스크가 지원됐다. 또 20명의 미세먼지 관리사가 양성됐고, 이 중 우수한 4명이 수원시 초미세먼지 관리사로 채용돼 총 266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미세먼지 대응 시민토론회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열렸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마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2021년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벌터어린이공원에는 자그마한 미니도서관이 설치됐다. 집 모양의 3단 진열장 안에 어린이 도서부터 일반 도서까지 수백여 권의 책이 있어 누구나 독서할 수 있도록 했다. 진열장에는 '주민 송○○ 씨의 제안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다. 덕분에 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서둔지대 옆 도로변에 설치된 흙먼지 털이기에 '주민 유○○씨의 제안사업'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제안으로 서호천 산책로 이용 후 흙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권선구 별터어린이공원에 주민참여예산 동단위 사업으로 설치된 미니도서관(2021.12.14. 수원시청 보도자료)

설치된 것이다. 이 밖에도 산책로 진입계단 변경과 마을소식지 발간 등을 포함, 서둔동에서는 올해 총 6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진행됐다.<sup>40)</sup>

수원시는 2020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로 마을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연계해 '동 단위 자치계 획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단위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참여 확대로 마을 자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인다. 2021년엔 주민자치회 시범동 8곳에서 460건의 동 단위 사업이 제안됐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2018년 최우수, 2020년 우수 자치단체로 잇따라 선정됐다.

## \* 수원시에 경기도 내 최초 '인권청사'가 들어서다

수원시에 경기도 내 최초 '인권청사'로 건축된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동행정복지센터는 '사람' 중심 행정을 펼쳐온 수원시가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은 첫 공공 건축물로 4년여 만에 완성했다.<sup>41)</sup>

지동은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화성행궁과도 인접해 있지만 수원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이기도 하다. 주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노인(인구의 21%)이고, 외국인인 수원시 전체 비율(3.6%)의 3배인 10%나 된다. 건축물의 60%는 1960~1970년대에 준공된 건물이어서 동네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다. 옛 행정복지센터도 1989년 11월에 건립, 30년을 훌쩍 넘겨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점증하는 행정·복지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마을행사 등 자치활동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논의해 왔다.

그러던 중 2017년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은 첫 번째 인권청사 신축사업으로 지동을 택했다. 전기한 것처럼 주거환경이 낙후된 데다 노인이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많고, 사회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새 청사 주변 외부 빈터에는 큰 소나무가 식재됐고, 주변으로 벤치 등이 배치됐다. 지동 주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그 누구라도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든 것이다.<sup>42)</sup>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된 지동행정복지센터 전경(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지동행정복지센터가 ‘인권청사’라는 사실은 외부 진입로부터 드러난다. 바깥 인도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 계단은 물론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물도 없어 누구나 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진입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목발을 짚은 사람, 보폭이 좁은 노인, 손에 짐을 많이 든 사람, 걸음마를 막 뎀 어린아이까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sup>43)</sup>



수원시 지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민원실(2021.12.15.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 지동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의 '못골마루'와 바닥 안내판(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자동문을 여는 버튼은 일반적인 위치보다 한참 아래에 설치됐다. 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사람, 허리가 굽은 노인 등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점자 안내판 등 장애인용 사인물도 더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됐다. 1층 중앙홀 바닥에는 공간별 안내판이 설치돼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활용된 디자인 요소들은 모두 수원시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한 것이다. 1층으로 들어서면 아늑하게 자리 잡은 문고인 '못골마루'가 방문객을 맞는다. 로비 자체가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한편에는 민원실이 있다. 노인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고, 독립된 복지상담실을 마련해 이용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했다. 동



수원시 지동행정복지센터 청소노동자 등의 심터로 활용될 '섬마루'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옷장 등이 설치돼 있다. (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장실은 1층 직원들의 사무공간 입구에 배치했다. 넓적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주민과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동장실을 차선 배치함으로써 주민밀착형 행정에 인권청사의 특징을 더했다.<sup>44)</sup>

오른쪽은 '못골마실'이라는 이름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다. 중앙문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만들었다.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간단한 수도시설 등이 마련돼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sup>45)</sup>

2층은 주민들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공간들이 들어섰다.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200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역할을 할 못골사랑뜰, 공유주방인 못골부엌,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동대본부 등이다. 건물 중간을 통로 삼아 앞뒤



지동행정복지센터 옥상의 텃밭과 정원(2021.12.15. 수원시 포토뱅크)

로 발코니를 배치해 개방감을 더했으며, 벽면에 롤스크린 등 다양한 전시방법을 활용해 인권갤러리와 지동 역사갤러리로 활용하게 된다. 복도는 앞으로 2단계로 사업인 문화복지동 완공 시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sup>46)</sup>

2층에 마련된 '쉽마루'는 인권청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청소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해 개별 옷장과 바닥 온돌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 옥상에는 텃밭과 정원을 조성했다. 텃밭은 바닥 대신 단을 높여 허리춤 높이인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치유농업 활동을 하는 데도 적합하다. 또 옥상 텃밭을 노인 등 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연결해 둔 것도 인권을 배려한 조치이다.



지동행정복지센터 내의 조리공간(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와 건축을 했다. 주민 의견은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해 구체화했다. 2018년 6월 주민 1,1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로 인권청사를 이용할 사람들의 욕구를 발굴했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해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김장 등 대형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 주방조리 공간이나 쉽터 등 주민편의시설, 민원실과 동장실 및 상담실의 접근성 개선 등이 요구사항이 반영됐다.<sup>47)</sup>

설계 공모전에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인권 및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협의회가 수차례 참여해 세심하게 인권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 인권담당관뿐만



지동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아니라 도시디자인단, 시설공사과, 팔달구 행정지원과, 지동 등 다양한 부서의 협업은 필수적이었다. 수원시는 행정 업무별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인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총괄계획가가 지휘하도록 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세웠다.

『인천일보』(2021년 12월 2일)는 개청에 앞서 12월 1일 이루어진 사전점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도했다.

“이야. 민원을 보는 이 책상 말이에요. 아래쪽이 시원하게 뚫려 있네요.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휠체어 탄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데도 우리 사회에서 해주지 않았거든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지동행정복지센터 내부가 사람들의 감탄사로 가득했다. 이곳은 나흘 뒤인 6일부터 운영되는 우리나라 두 번째 ‘인권청사’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60㎡ 규모다.

그동안 공공청사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인권청사는 진입부터 이용까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시설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 ○ 그들에게겐 소중한 ‘작은 변화’

이날 수원시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복지·인권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센터 점검에 나선 김현덕(61) 장애인 인권 활동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층 민원실을 둘러보면서다. 김 활동가는 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등 인권청사 관련 협의체에서도 활동했다.

민원인이 공무원과 상담을 할 때 가운데 두고 있는 책상은 보통 성냥갑처럼 네모반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서서 업무를 보는 일반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 책상이지만, 장애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곳 센터는 다리를 집어넣지 못한 채 불편하게 상담해야 하는 그들을 위해 책상 밑을 시원하게 뚫었다. 지체 장애인인 김 활동가는 기쁜 얼굴로 휠체어를 끌고 책상에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했다.

김 활동가는 “다른 공공청사는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까 목소리도 안 들리고 불편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만드니 정말 최고다. 약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며 엄지를 위로 척 들어 올렸다.

해당 사례처럼 칭찬을 받은 청사 내 설계는 대부분 ‘작지만 큰 변화’였다. 예컨대 휠체어 높이에서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자동문 스위치, 높낮이 차이(단차)가 전혀 없는 이동길이 대표적이다.

동장실은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최고의 구조였다. 대부분 공공청사가 동장실을 위층 또는 별도 공간에 동장실을 숨기듯이 한 것과 달리 이곳은 1층에 뒀다. 방문자들이 편하게 오가게 개방 배치한 것이다.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학과장은 “건물에서 몇 년간 주민과 소통하고 개선하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1층 동장실은 향후 인권청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1호 인권청사인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 설계 등에 활동한 이윤하 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한마디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청사다. 시의 노력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회의 공간, 쉼터, 승강기 등도 모든 대상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넓고 장애물 없이 마련됐다. 여러 군데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대피 요령 등으로 위험상황도 고려됐다.

#### ○ 6년이 지나 탄생한 '2호'... 인권청사 갈 길 멀다

'무장애'는 일반인은 물론 약자와 소수자 등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꼽힌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과 공공청사를 넘어 공공화장실, 놀이터 등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필요성과 달리 국내 인권청사는 2개소가 전부다. 2015년 서울시 안암동주민센터가 최초로 들어선 이후 6년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추진하지 않다가, 이번에 수원시가 지동행정복지센터로 맥을 이었다.

통상 2~3층 규모의 청사를 지으면 50억 원 넘는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권 친화 요소를 가미하게 되면 수십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전문가와 수없이 의견을 나누며 시간도 더 든다.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의 편의를 고려해 만든 뒤 인증을 받는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총 288점 가운

데 100점 환산 점수로 7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완전체에 가까이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다.

총점이 통과 기준인 탓에 어느 공간은 요건을 갖추고, 어느 공간은 허술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무조건 일반인에만 초점을 두고 지자체에 공간 설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인식도 걸림돌이다.

즉,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 없이는 인권청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수원일보』도 2021년 12월 8일 사설을 통해 인권청사로 지어진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칭찬했다.

지동행정복지센터가 6일 개관했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중앙부처·지방정부 공공청사에 배포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건물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부르는데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이 설계된다.

수원시는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인권청사'라고 부른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3년여의 준비 기간과 1년여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 이 건물은 청사 건립 과정부터 인권의 원칙을 적용했다.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아내기 위해 고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심의 흔적이 건물 곳곳에 나타난다.

우선 건물 진입이 쉽다.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은 장애인이나 환자, 걸음을 걷기 힘든 노인, 어린이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에 단차를

없었다. 바깥 인도에서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엔 계단 등 장애물이 없다.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자동문 버튼을 설치했다. 점자 안내판도 있고 중앙홀 바닥에는 공간별 안내판이 마련됐다. 건물내부에는 크고 명확한 글씨체와 픽토그램을 활용, 바닥이나 벽면에 연속적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1층에 들어서면 독서를 할 수 있는 '못골마루'가 있고 '못골마실'이란 커뮤니티 공간 외에 회의실 역할을 할 '못골사랑뜰', 공유주방인 '못골부엌' 등이 있다. 민원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 드러난다. 특히 민원실에 설치된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를 통해 독립된 상담이 가능하다. 2층에 있는 '침마루'는 청소 용역원들을 위한 쉼터다. 옥상정원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텃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사람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이해가 된다. 수원시의 설명처럼 눈길,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인권'을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지난 2016년 수원인권위의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원시청사는 사회적 약자 이용 및 이동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계단 및 경사로, 화장실 등이 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후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인권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했고,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인권청사로 지었다. 앞으로도 수원시내의 공공청사는 물론 모든 건축물들이 인권을 우선해 지어지길 바란다.

## \* 선제적 감염병 대응, 전국은 수원시를 주목했다

### ●● 메르스 사태 '과잉대응' 호평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수원시의 위기대처 능력이 빛났다. 수원시는 전염병에 대한 '과잉대응' 방침을 유지해 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잉 대응이 최선'이라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2015년 5월 20일 서울시 거주자가 메르스 최초 환자로 확진됐다. 수원시는 사태를 주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 예방 홍보안내 활동에 착수했고, 수원시 메르스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6월 5일 수원시민 1명이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자마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확진자의 거주지와 감염경로, 동



메르스 사태 때 경기도립 수원병원 밖에 시민들이 걸어 둔 응원 메시지(2015.6.17. 수원시 포토뱅크)

선 등 정보를 공개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 스스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메르스 선제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범 시민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전국 최초로 메르스 대응요령, 일일상황보고, 홍보자료,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메르스 비상대책'이라는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실시간으로 관련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SN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로부터 "조용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현장에 적용했고 자가격리자 일일 모니터링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격리해제자를 능동 감시자 수준으로 1주일 모니터링 연장했다. 또, 메르스 검사비 지원, 대대



『메르스 일성록』(2015.9.9. 수원시청 보도자료)

적인 방역활동 추진과 함께 4개구 보건소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해 지원했다.

메르스 확산방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안심정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며, 행정기관 간, 대형병원 간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심리치료 및 상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했고 특히,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일선 메르스 치료 의료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상황을 살피고 의료인들을 위로했다.

방역행정 전반에 대한 대응 상황과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백서 『메르스 일성록』도 발행했다. 발생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방역행정 전반에 대한 대응상황과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분석해 수록했다. 백서에는 메르스 발병기간인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69일 동안의 수원시 메르스 대응

사항을 500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메르스의 정의에  
서부터 수원시의 선제적 대응,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소통, 감염병 대응의 문제점  
과 극복과제, 30인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sup>48)</sup> 백서는 주요 기관과 단체에 배부  
돼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줬다.

특히 시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통해 기초지방정부에도 역학조사관이 필요  
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코로나19 초기부터 권한 부여를 건의해 법  
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 선제적 코로나19 대응 다른 지역 본보기 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대응 경험은 5년 뒤 코로나19 사태에서 빛을 발했다. 확  
산 초기부터 기초지방정부 최초 밀접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고,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을 운영해 감염병의 지역 확대를 막았다. 안  
심숙소와 안심귀가 등 해외 입국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고, 마스크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원정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인  
천공향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었다. 이를 뒤인 22일 오전,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과잉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적극 대처했다.<sup>49)</sup>

시는 SNS를 활용해 확진자 정보·동선,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시민들  
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1월 23일, 4개 구 보건소와 4개 병원에 ‘선별

진료소’(8개)를 설치한 수원시는 설 연휴(1월 24~27일)에도 장안구보건소에 대  
책본부를 운영하며 혹시 모를 환자 발생에 대비했다. 1월 27일 국내 네 번째 확  
진환자 발생 후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  
로 격상하자 수원시도 감염증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하고,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sup>50)</sup>

2월 2일, 수원시에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었다. 수원시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위기 경보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2월 3일부터  
임시 휴원 명령을 내리고, 수원시 공공시설, 모든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사흘 뒤인 2월 5일, 수원시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원시 첫 번째 확진자와 한 건물에 사는 인척이었다.<sup>51)</sup>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수원시 자체적으  
로 마련했다. 가족과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자택 자가격리’만으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둔동에 있는 수원유스호스  
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월 18일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접  
촉자 임시생활시설이었다. 접촉자들이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19일 수원시 1·2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입소한 것  
을 시작으로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  
리 생활했다.<sup>52)</sup>

2월 18일, 국내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광역시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며칠 후 수원시 영통구 ‘S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S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 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된 서둔동 수원유스호스텔(2020.2.20.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 3명, 화성시 6명, 오산시 2명이었다.

수원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예배(2월 23일)에 참석했던 모든 신도 171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참석 신도의 접촉자까지 광범위하게 모니터링을 했다. 또 모든 접촉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해 2·3차 감염을 차단했다. 3월 초부터는 해외입국자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해외입국자가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집에서 가족과 접촉해 2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어났다.<sup>53)</sup>

3월 8일에는 수원시에 첫 해외입국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튿날 확진자의 가족 1명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럽을 다녀온 후 3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가족은 이튿날 3명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

시는 해외입국자와 그의 가족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촉을 피할 방안을 고민했다. 곧바로 대책을 준비했다.<sup>54)</sup>

3월 26일부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1~2일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검사시설을 운영했다. 임시 검사시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설치됐다. 이 역시 전국 최초의 일이다. 시는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차단했다. 입소자는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머문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퇴소자는 수원시가 집까지 승합차로 이송했다.<sup>55)</sup>

수원시는 이처럼 입국 직후부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히 격리해 추가 감염을 막았다. 해외입국자와 가족을 격리할 방안도 마련했다. 3월 27일, 벨류 하이엔드호텔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호텔 수원 등 관내 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숙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은 기존 숙박료보다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을 이용했다. 해외입국자 가족들은 “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이 호텔에서 생활하면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고 ‘완전한 격리’를 할 수 있다.”며 수원시의 정책을 환영했다.

안심숙소 서비스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숙박업계에도 도움이 됐다. ‘해외입국자 임시 검사시설’과 ‘안심숙소 서비스’ 등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sup>56)</sup>

전기한 것처럼 수원시는 지난 5년여 동안 정부에 ‘기초지방정부 역학조사

관 운영 권한 부여'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부터 기초지방정부 시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sup>57)</sup>

2019년 2월 8일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건의에 국회가 화답했다. 2020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원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58)</sup>

수원시는 수원시의사회, 경찰서·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수원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급증할 때 4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자원봉사를 하며 일손을 보탬다. 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원 중부·남부·서부경찰서 등 수원권 경찰서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사법처리·확진자 역학조사, 방역 등을 지원했다.<sup>59)</sup>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민간자율참여 방역반

은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복지시설 등을 꾸준히 방역하며 힘을 보탬고,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천마스크 5만 2,000여 매를 만들어 마스크가 필요한 곳곳에 전달했다.<sup>60)</sup>

또 관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SD 바이오센서에서 생산한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기증받아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주도의 코로나19 신속검사는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 1) 「수원시 좋은시장위원회 위촉」, 『뉴스비트』, 2011년 2월 16일.
- 2) 「수원 광고 비상취수원 변경. "범시민 대화기구 구성해 충분한 논의 이어가야"」, 『경인타임스』, 2017년 3월 23일; 「수원 광고 비상취수원 변경. "범시민 대화기구 구성해 충분한 논의 이어가야"」, 『KPN한국시민뉴스』, 2017년 3월 22일.
- 3)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업 전 세계에 알려진다」, 『연합뉴스』, 2017년 5월 4일;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업 전세계에 알려진다」, 『세계타임즈』, 2017년 5월 4일.
- 4) 「전국으로 뻗어가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돌아보며-김병익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중부일보』, 2015년 12월 1일.
- 5) 「수원시, 교육 주제로 500인 원탁토론 개최」, 『이뉴스투데이』, 2013년 7월 3일; 「수원시, 함께하는 수원교육 500인 원탁토론 개최」, 『머니투데이』, 2013년 7월 4일.
- 6) 「500인 원탁의 기사 함께하는 수원교육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3년 7월 5일.
- 7) 「생태교통 수원운영방향에 대한 300인 원탁토론 개최」, 『아시아투데이』, 2013년 11월 14일; 「생태교통 수원 운영방향에 대한 원탁토론 개최」, 『노컷뉴스』, 2013년 11월 15일.
- 8)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성매매 집결지, 주변지역 연계 전면개발 필요" -」, 『수원인터넷뉴스』, 2015년 10월 5일.
- 9)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성매매 집결지, 주변지역 연계 전면개발 필요」, 『경인타임스』, 2015년 10월 4일.
- 10)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성매매 집결지, 주변지역 연계 전면개발 필요" -」, 『수원인터넷뉴스』, 2015년 10월 5일.
- 11) 「수원시, 수목원형 공원 시민의견 듣는다.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원탁토론회 개최」, 『서울일보』, 2016년 9월 11일.
- 12) 「수원역 일대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으로 환경 개선'」, 『뉴스스』, 2017년 11월 21일; 「팔달-수원역 일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 통한 환경 개선'」, 수원시, 2017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국제뉴스』, 2017년 11월 21일.
- 13) 「수원시, '2017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2017년 11월 21일.
- 14)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열고 도시문제 토론회」, 『매일일보』, 2018년 12월 2일; 「수원-스마트시티 수원, 구도심-신도심·동수원-서수원 간 불균형 문제해결이 먼저」, 『일자리플러스』, 2018년 12월 3일; 「스마트시티 수원'조성... 구도심-신도심·동수원-서수원 간 불균형 해결되어야」, 『경기1뉴스』, 2018년 12월 2일.
- 1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열고 도시문제 토론회」, 『매일일보』, 2018년 12월 2일; 「수원-스마트시티 수원, 구도심-신도심·동수원-서수원 간 불균형 문제해결이 먼저」, 『일자리플러스』, 2018년 12월 3일.
- 16)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시민 의견에 귀엿다. 수원컨벤션센터서 '원탁토론회' 녹지 확대 등 선정 향후 정책 반영」, 『경인일보』, 2019년 11월 13일; 「수원시,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단원 등 300여 명 참가...미세먼지 저감 위한 도시계획 방향 등 논의」, 『경기데일리』, 2019년 11월 12일; 「수원시,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경기중앙신문』, 2019년 11월 13일; 「수원시,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뉴스라이트』, 2019년 11월 12일.
- 17)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방향」, (<https://blog.naver.com/musicalplus/221713220553>), 『경기소셜라커』, 2019년 11월 20일.
- 18) 「수원시,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경기경제신문』, 2019년 11월 12일; 「수원시,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일요서울』, 2019년 11월 12일.
- 19) 「[수원소식] '광고산 상생협의회' 광고주인 대상 실태조사 실시 등」, 『뉴스스』, 2017년 8월 14일; 「수원시, '광고산 상생협의회' 구성」, 『수원복지신문』, 2017년 7월 31일; 「수원시 광고산 상생협의회 생활 불편·경제적 피해 등 실태 조사」, 『NPS통신』, 2017년 9월 1일.
- 20) 「수원시 광고산 상생협의회 출범 본격활동」, 『뉴스윌미디어』, 2017년 7월 28일.
- 21) 「수원시, '광고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 고시. 광고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 『경기뉴스』, 2019년 7월 16일; 「수원 광고상수원보호구역, 사유지 8만 34㎡ 해제」, 『해럴드경제』, 2019년 7월 16일; 「수원시 광고상수원보호구역, 주민불편해소 위해 최소면적 해제」, 『아주경제』, 2018년 12월 11일; 「수원시, 주민불편 대응 광고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NPS통신』, 2018년 12월 11일.
- 22) 「48년 만에 수원 광고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뉴스스』, 2019년 7월 16일; 「수원시, '광고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 고시-광고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 『경기뉴스』, 2019년 7월 16일; 「수원시, '광고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 '광고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 고시」, 『경기데일리』, 2019년 7월 17일; 「광고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해제」, 『수원타임즈』, 2019년 11월 8일.

- 23) 「수원시, 광고상생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고시」, 『투데이경제』, 2019년 7월 16일; 「광고상생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 8만 34㎡ 해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음식점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어」, 『매일일보』, 2019년 7월 17일.
- 24) 「수원시, 광고상생위원회 위원 18명 위촉」, 『투데이경제』, 2019년 9월 23일; 「수원시, 광고상생위원회 위원 18명 위촉」, 『교통뉴스』, 2019년 9월 23일; 「수원시, 광고상생위원회 위원 18명 위촉」, 『경기시사투데이』, 2019년 9월 23일.
- 25) 「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 조정 24일 시행...기형적이던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경계 합리적으로 조정」(https://blog.naver.com/kbr2hys/222037116072), 『화성뉴스』, 2022년 7월 21일; 「수원시, 주민 편의 위한 경계조정 더 '빚났다」, 『경기1뉴스』, 2020년 7월 22일
- 26) 「기획특집」 '시민숙원' 수원 망포 · 화성 반정동 '행정경계 조정' 해냈다」, 『전국매일신문』, 2020년 7월 26일.
- 27) 「기획특집」 '시민숙원' 수원 망포 · 화성 반정동 '행정경계 조정' 해냈다」, 『전국매일신문』, 2020년 7월 26일.
- 28) 「수원시의 '불합리 행정구역 개편' 노력들」, 『경인일보』, 2020년 7월 22일.
- 29) 「수원 망포동 ↔ 화성 반정동 24일 경계 조정, 용인 · 의왕 등 조정으로 주민 생활편의 높여, 염태영 시장, "경계조정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 『새수원신문』, 2020년 7월 22일.
- 30) 「수원 망포동 ↔ 화성 반정동 24일 경계 조정, 용인 · 의왕 등 조정으로 주민 생활편의 높여, 염태영 시장, "경계조정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 『새수원신문』, 2020년 7월 22일.
- 31) 「시민단체, 의왕 · 수원간 경계조정 "레일바이크 강행 필수"」, 『뉴스』, 2012년 3월 11일; 「의왕 · 수원간 경계조정은 레일바이크 강행 필수,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 11일 공동 성명」(https://blog.naver.com/spark0799/20153105554), 『우리동네소식』, 2012년 3월 12일.
- 32) 「의왕시-수원간 관할구역 변경으로 왕송저수지 단독관리」(https://blog.naver.com/yesuw21/140179051886), 『NOW 의왕알리미』, 2013년 1월 28일; 「의왕시-수원시 간 왕송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내일신문』, 2013년 2월 13일; 「수원 의왕 경계조정 추진-저수지, 고속도 넘나드는 경계선 조정」, 『뉴스지』, 2012년 10월 22일.
- 33) 「"수원시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세요"」, 『경인신문』, 2019년 11월 18일; 「수원시,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160명 공개 모집」, 『경기N』, 2019년 10월 30일; 「수원시,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160명 공개 모집」, 『로컬경기』, 2019년 10월 30일.

- 34) 「수원시 '시민참여예산' 도입 10년...제한 1,214건 878억 반영」, 『UPI뉴스』, 2021년 7월 7일.
- 35) 「수원시,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경기ETV뉴스』, 2021년 12월 24일; 「수원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서울매일』, 2021년 12월 14일; 「수원시,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경기중앙신문』, 2021년 12월 14일;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수원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11년간 8천건 달하는 제안 접수」, 『서울뉴스통신』, 2021년 12월 14일.
- 36) 「수원시, 2011년부터 내 손으로 바꾸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 『매일일보』, 2021년 12월 14일; 「수원시,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경기뉴스』, 2021년 12월 14일;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서울뉴스통신』, 2021년 12월 14일.
- 37) 「수원시, 주민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숲놀이터 조성, 유축기 대여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 시민 삶의 질 개선」, 『뉴스타운』, 2021년 12월 14일.
- 38) 「수원시, 2011년부터 내 손으로 바꾸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 『매일일보』, 2021년 12월 14일; 「수원시,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경기중앙신문』, 2021년 12월 14일.
- 39) 「수원,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서울매일』, 2021년 12월 14일; 「수원시,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경기중앙신문』, 2021년 12월 14일;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서울뉴스통신』, 2021년 12월 14일; 「수원시, 주민이 예산 및 재정 운영 참여 거버넌스 실현 숲놀이터 조성, 유축기 대여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 시민 삶의 질 개선」, 『뉴스타운』, 2021년 12월 14일.
- 40) 「수원시, 2011년부터 내 손으로 바꾸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 『매일일보』, 2021년 12월 14일.
- 41) 「경기도 최초 인권청사 건립...지동 행정복지센터 미리보기」, 『경기신문』, 2021년 12월 1일;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다」, 『이뉴스투데이』, 2021년 11월 30일;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다」, 『헤럴드경제』, 2021년 11월 30일.
- 42) 「수원시, 경기도내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된 지동 행정복지센터」, 『브릿지경제』, 2021년 11월 30일;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다」, 『헤럴드경제』, 2021년 11월 30일;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다"」,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12월 1일.

- 43) 「노인 및 외국인 인구 높고 노후화된 도심 지동 새 청사를 인권청사로 건립, 단차 등 이용 장애 요인 없앤 무장 예시실,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설계 과정에 주민 등 이용자, 인권영향평가협의회 참여로 인권 '최우선',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다,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30일.
- 44) 「지자체의 SR」 수원시, '인권' 담은 '지동행정복지센터' 건립, 『SR타임즈』, 2021년 11월 30일;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다, 『이뉴스투데이』, 2021년 11월 30일; 「수원시, 경기도내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된 지동 행정복지센터, 『브릿지경제』, 2021년 11월 30일.
- 45) 「지자체의 SR」 수원시, '인권' 담은 '지동행정복지센터' 건립, 『SR타임즈』, 2021년 11월 30일.
- 46)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다,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30일.
- 47) 「수원 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인권청사로 불리는 이유 설계 과정에 이용자·인권영향평가협의회 참여 인권 '최우선', 『뉴스핌』, 2021년 12월 5일.
- 48) 「수원시 69일간의 싸움 메르스백서 '일성록' 출간, 『아시아경제』, 2015년 9월 9일.
- 49) 「수원시, 코로나 19 100일간의 기록... "신속하게 대응,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경기1뉴스』, 2020년 4월 29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 19 대응, 지역사회 감염예방에 큰 역할, 『교통뉴스』, 2020년 8월 7일.
- 50) 「수원시의 신속 대응, 코로나 19 확산 막는데 '큰 역할', 『뉴스라이트』, 2020년 4월 22일; 「수원시의 신속 대응, 코로나 19 확산 막는데 '큰 역할', 『경기시사투데이』, 2020년 4월 22일.
- 51) 「수원시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경인타임즈』, 2020년 4월 22일; 「수원시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뉴스앤뉴스』, 2020년 4월 22일.
- 52) 「자가격리 기간 챙겨주신 수원시에 감사드립니다, 『광고신문』, 2020년 4월 16일; 「수원시, 코로나 19 100일간의 기록... "신속하게 대응,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경기1뉴스』, 2020년 4월 29일; 「자가격리 기간 챙겨주신 수원시에 감사드립니다.-수원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한 확진자 가족 이ㅇㅇ씨 이야기-, 『교통뉴스』, 2020년 4월 16일.
- 53) 「수원시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민원뉴스 기사』, 2020년 4월 22일; 「수원시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 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교통뉴스』, 2020년 4월 22일.
- 54) 「수원시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 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로컬경기』, 2020년 4월 22일.
- 55) 「수원시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 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경기TV종합뉴스』, 2020년 4월 22일.

- 56) 「수원시, 신속한 대응이 코로나 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했다, 『경인통신』, 2020년 4월 22일.
- 57) 「염태영 시장이 쓰아올린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마침내 실현, 『로컬세계』, 2020년 2월 26일; 「수원시의 신속 대응, 코로나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뉴스라이트』, 2020년 4월 22일.
- 58) 「수원시 신속한 대응, 코로나19 확산 막는 데 큰 역할, 『뉴스앤뉴스』, 2020년 4월 22일.
- 59)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일요서울』, 2020년 8월 6일;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큰 역할, 『경기데일리』, 2020년 8월 6일; 「염태영 수원시장, SNS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 정보 공개, 『매일일보』, 2020년 8월 7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 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큰 역할, 『교통뉴스』, 2020년 8월 7일.
- 60)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일요서울』, 2020년 8월 6일;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큰 역할, 『경기데일리』, 2020년 8월 6일.

---

수원시는 품격 있는  
인문학 도시

## \* 수원시, 인문학도시를 천명하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수원박물관이 개최한 '2021 수원지역 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에서 '인문도시 수원' 사업이 학교 교육 영역이었던 인문학을 지방 행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인문도시 수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 심포지엄에서 "수원시는 인문도시 조성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감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이후 인문도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인문도시 수원' 사업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sup>1)</sup>

이날 '인문도시 수원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를 한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수원시의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인문학 기반 조성(2011~2014), 인문학 대중화(2015~2018), 인문학 생활화(2019~2022) 등 3단계로 나눈 뒤 "인문도시를 조성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수원시는 이제 '인문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

라며 "문화도시의 과제는 인문도시의 성과를 계승하고, 시민이 주역이 되는 수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sup>2)</sup>

수원시 인문학 추진의 배경에는 정조시대 실학정신, 개혁정신과 더불어 효 사상과 위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로서의 역사성과 백성을 위한 인문정신이 잘 나타난 수원화성이 있다.<sup>3)</sup> 이와 관련, 당시 수원예총 회장이었던 김훈동 시인은 2011년 3월 수원시 인터넷 시정신문인 『e수원뉴스』에 '수원시가 인문학도시를 표방하는 이유'란 글을 썼다.

인문학은 인간의 조건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와 도덕기준을 제시해 준다. 학문과 교육을 통해 철학, 역사, 문화, 종교, 예술 등 인문학의 저변을 넓혀간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만든다. 비인간적인 사회 환경을 벗겨내어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 그래서 인간미 넘치는 도시-그것이 인문학 중심도시다.

수원은 조선왕조 인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로 일컫는 영조, 정조 때 조성된 도시다. 다른 도시와 달리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인문학도시로서 정체성을 살린 소재가 많다. 정조의 실학정신, 개혁정신, 위민정신이 실증적으로 나타나 있는 화성이 있다.

그동안 성장 일변도의 드라이브 속에서 인문학이 실용학문에 비해 우선순위에 놓이기 힘들었다. 인문학에는 국적과 역사성, 상황성이 내재돼 있다. 인문학은 이제 콘텐츠된 문화, 도시 경쟁력, 삶의 태도와 관련된 실천적 요구라는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다. 인문학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도시발전도 잘 된다. 그동안 인문학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 인문학이 전문적인 특수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인문학자들의 고집과 편견

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인문학 중심도시는 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계기가 된다. 때맞춰 수원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원학과 정조학 연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된 기획전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껏 '시민교육'으로서의 인문학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는 좋은 착상이다. 인문학 중심도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시민의 삶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한다. 저마다 도시가 인문학을 표방하는 이유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인간다움이 발견되는 인문학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수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길 기대한다.

수원시는 민선 5기가 시작된 뒤 2011년부터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펼치며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인문학 정신을 실현하고, 인문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에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인문학 전담팀'을 만들었고,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도 제정했다.

'수원학'을 진흥해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인문학 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을 확충해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하도록 했다. 민선 5~7기에만 12개 도서관이 건립됐다.

또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SK아트리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생활문화센터, 고색뉴지엄, 수원 구 부국원 등 시설에서 다양한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열었다.

수원시 인문학사업은 2011년 5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출발했다. 이어 1단계(인문학 기반 조성)인 2014년까지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2단계(인문학 대중화)인 2018년까지 7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2020년 3단계(인문학 생활화)까지 6개 분야 44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연도별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 연도별 추진경과

시기	내용
2010.07.	민선 5기 '사람 중심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표방
2011.04.	제1단계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1.12.	인문학 중심도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2011.12.	수원권 6개 대학 수원학 강의 협약
2013.02.	전국 최초 인문학팀 신설
2013.07.	인문학중심도시 조례 제정
2013.12.	인문학 자문위원회 구성
2014.10.	제2단계 인문학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2016.10.	제4회 세계 인문학포럼 개최
2016.12.	인문기행 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2018.08.	제3단계 인문학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2018.10.	제5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우수상 수상
2019.04.	교육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020.10.	문체부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인문기행특구 지정(2016.12.13, 수원시 포토뱅크)

한편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은 2024년까지 연장됐다. 수원시는 올해 인문기행특구 지정이 만료돼 3년 연장을 추진했고 2021 8월 27일 승인을 받았다. 2017년 수원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해 수원화성 일원 등 주요 관광지를 ‘수원 인문기행특구’로 지정받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sup>4)</sup>

수원 인문기행특구는 핵심권역인 수원화성 일원을 비롯해 주변 권역인 근대역사문화 밀집지, 전통시장, 나혜석 거리 등 140만 4,148㎡ 규모이다.<sup>5)</sup> 수원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왕이 만든 도시역사기행, 근대역사기행, 문학기

행, 인문기행특구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에서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2024년에는 세부사업 중 정조대왕 무예24기 공연 상설화, 궁중 식생활·예절문화 관광 상품화, 수원화성문화제 글로벌 축제 육성, 근대역사기행 탐방로 조성, 근대역사전시관 건립 운영 등 5개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길 위의 인문학 문학콘텐츠 확충, 인문기행 관광 콘텐츠 홍보 강화, 야간형 인문기행 관광 콘텐츠 육성 등 3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sup>6)</sup>

수원시 고유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국내외 도시들과 차별화를 이루면서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도심에 산재한 역사 문화 유산을 관광 상품화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의지이다.<sup>7)</sup>

## \* 걸어서 10분 만에 도서관을 만나는 도시

‘인문학도시’ 수원시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2시 개최된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에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단체로 선정돼 국립중앙도서관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시민에게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 도서관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공헌하고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수원시는 2014년 수상한 이후 7년 만에 재수상해 인문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sup>8)</sup>

수원시의 공공도서관 수는 2010년 8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도서관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가 표방하고 있는 인문학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도서관 확충”이란 신념을 갖고 “10분만 걸으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 지난 2011년 태장마루도서관을 시작으로, 2014년 창룡·호매실·한림·버드내·대추골·광고홍재, 2015



2021년 10월 26일 오후 수원시 관계자들이 '2021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 선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10.26. 수원시청 보도자료)

년 일월, 2016년 화서다산, 2018년 광고푸른숲·매여울, 2019년 망포글빛 등 모두 12곳이 문을 열었다. 따라서 수원시민들은 정말로 10분만 걸으면 시내 곳곳에 있는 20개의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수원시 곳곳에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 전체 도서관 이용자 수는 2015년 691만 1,152명에서 2019년 866만 6,655명으로 5년간 125%나 크게 늘어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도 2015년 2만 2,775명이었다가 2018년 2만 5,950명, 2019년 2만 7,724명을 기록, 매년 1,000~2,000명의 이용객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엔 폐쇄와 거리두기 등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이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개관한 망포글빛도서관(2019.4.29.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는 단순히 도서관만 많이 만든 것은 아니었다. 도서관 서비스에 모바일 IT 기술 접목, 관내 대학교 도서관 자료이용 협력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도서관별 특화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저 조용하기만 한 도서관이 아닌 시민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매년 수백 개의 강좌가 운영됐으며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10만 명 이상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를 자유롭게 대출·반납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희망도서 신청 후 도서관에 비치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서점에서 신청한 책을 바로 대출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시민 1명(수원시 도서관 정회원)당 매월 2권의 책을 빌려주는 스마트 도서관은 관내

20곳의 지역서점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월평균 1,922권에 머물던 이용실적은 2020년엔 2,756권까지 증가했다.

또 현재 수원역과 영통역, 수원시청역 등 7개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 '책나루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이 예약대출과 통합반납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서수도 크게 늘었다. 수원시민 1인당 도서관 장서 확보수는 2011년 0.15권에 지나지 않았지만 2021년 현재는 2.47권으로 무려 1,690%나 증가했다.

한편 수원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저마다 특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코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sup>9)</sup> 이를테면 선경도서관은 수문학·역사, 중앙도서관은 노인복지, 창룡도서관은 인권, 호매실도서관은 육아, 한림도서관은 여행, 대추골도서관은 청소년, 영통도서관은 다문화, 버드내도서관은 건강, 매어울도서관은 그림책, 태장마루도서관은 철학, 슬기샘도서관은 우주·천문, 지혜샘도서관은 환경·에너지, 바른샘도서관은 멀티미디어, 화산다산도서관은 과학, 북수원도서관은 미술, 광고홍재도서관은 디자인, 일원도서관은 생태·환경, 광고 푸른숲도서관은 힐링, 망포글빛도서관은 경제 등이다. 민선 5기 이후 개관되거나 재개관한 수원시 도서관들은 다음과 같다.

• 민선 5기 이후 수원시 도서관 개관

시기	내용	
2011	08. 25.	태장마루도서관 개관
	12. 03.	영통도서관 다문화자료실 리모델링 및 북카페(혜움) 설치
2013	01. 03.	수원역, 영통역 책나루 무인 도서관 개관
	11. 29.	수원시청역 책나루 무인 도서관 개관
2014	02. 01.	어린이도서관(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위탁 - 수원문화재단 운영
	03. 25.	대추골도서관 개관
	06. 24.	한림도서관 개관
	10. 02.	창룡도서관 개관
	11. 28.	버드내도서관 개관
	12. 16.	호매실도서관 개관
	12. 23.	광고홍재도서관 개관
2015	06. 02.	일월도서관 개관
2016	06. 13.	망포역 책나루 무인 도서관 개관
	06. 30.	화서다산도서관 개관
	08. 12.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명칭 변경 ⇒ 서수원도서관, 북수원도서관
2017	03. 13.	영통도서관 휴게실(3층) 리모델링 준공
	12. 05.	광고중앙역 책나루 무인 도서관 개관
2018	04. 12.	광고푸른숲도서관 개관
	05. 11.	매여울도서관 개관
2019	04. 29.	망포글빛도서관 개관
	10. 07.	성균관대역 책나루 무인 도서관 개관
	12. 01.	영통도서관 '경기도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강당 리모델링
2020	01. 21.	선경도서관 리모델링 완공 재개관
	02. 12.	광고푸른숲도서관 '푸른숲 책뜰' 개관
2021	01. 05.	북수원도서관 리모델링 완공 재개관

\*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수원문화재단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정책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사업 등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립 배경과 목적이다. 수원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염태영 시장은 수원문화재단은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를 꿈꾼다고 했다. 사람 사이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통하여 문화를 살찌우게 하는 감성적 통로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시민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동적인 문화예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수원문화재단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0)</sup>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성장하는 문



수원문화재단 출범식(2012.2.20.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문화재단 건물(2020.6.20. 수원시 포토뱅크)

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겠다고 천명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수원문화재단은 2022년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가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와 문화예술 창작·보급 활동 지원을 천명하며 수원화성과 행궁 등을 관리했던 '화성운영재단'과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개최했던 '수원화성문화재단'을 흡수·통합한 뒤 2012년 1월 2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sup>11)</sup> 현판식은 그해 2월 20일 열렸는데 염태영 수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 재단이사, 수원시 국회의원, 시·도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염 시장은 “재단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도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범 이후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 수원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문화예술사업과 문화시설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재단은 현재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연극축제, 수원 문화재야행, 수원재즈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 행사는 물론 수원SK아트리움, 수원제1·2야외음악당, 수원전통문화관, 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문화정책, 관광 활성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사업 등을 전개해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sup>12)</sup>

수원문화재단의 연혁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연도별로 중요한 사업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원문화재단 주요 사업

시기	내용	
2011	04.30.	수원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06.24.	수원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시민공청회 실시
	08.05.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09.27.	수원문화재단 이사회 및 발기인 구성
	11.30.	문화재단 설립허가(경기도)
	12.07.	문화재단 법인 등기, 29일 수원문화재단 규정 공포
2012	01.01.	수원문화재단 행정업무 개시, 초대 수원문화재단 유완식 대표이사 취임
	02.20.	수원문화재단 출범식(수원화성홍보관)
	04.27.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가입
	05.17.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수탁
	06.13.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경기도)
	07.29.	제9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8/1)
	08.23.	2012 수원국제음악제(~8/25)
	08.26.	2012 수원화성국제연극제(~9/2)
	10.05.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10/7)
	10.29.	수원 영동 아트포라 개관
	11.27.	정기간행물 인인화락 창간호 발간
	11.23.	터키 국립 아나톨리아 대학 미술작품 기증식
	12.10.	2012년 20세기 수원 문화예술인(나혜석) 선정
	12.22.	수원 문화클럽 FUNNY DAY 네트워킹 파티
	2013	02.22.
05.24.		2013 수원화성국제연극제(~5/28)
07.25.		제10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7/31)
09.27.		제50회 수원화성문화제(~10/1)
10.11.		수원 인터-에이 포럼 개최(~10/12)
10.12.		수원문화클럽 열림 퍼니 페스티벌
10.23.		터키 국립 아나톨리아 대학 미술작품 기증식
11.25.		2013 공모지원사업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표

시기	내용	
2014	01.01.	수원SK아트리움 수탁
	02.01.	어린이도서관(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수탁
	03.06.	수원SK아트리움 개관, 7일 수원SK아트리움 개관 기념 페스티벌(~4/6)
	06.14.	2014 수원화성국제음악제(~6/21)
	08.12.	제3대 수원문화재단 김정수 대표이사 취임
	08.13.	2014 수원화성국제연극제(~8/17)
	10.07.	제12대 정조대왕 및 해경궁 흥씨(역) 선발대회
	10.08.	제47회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한국총회(~10/14)
	10.08.	제51회 수원화성문화제(~10/12)
	11.28.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교육관 수탁
	2015	03.30.
05.01.		2015 수원연극축제(~5/5)
07.13.		재단 미션과 전략수립 연구용역(~11/9)
10.08.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10/11)
11.18.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의 비전 · 전략과 리더십 토론회
2016		04.16.
	05.05.	2016 수원연극축제(~5/8)
	05.07.	경기수원항공과학전(~5/8)
	05.10.	아시아모델페스티벌 in 수원(~5/22)
	07.01.	정책기획실 신설(1실, 2국, 6부, 18팀)
	08.20.	2016 수원국제음악제(~8/27)
	09.09.	수원재즈페스티벌(~9/10)
	10.07.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10/9)
	10.08.	서울-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10/9)
	12.27.	수원화성문화제 '2017 문화관광축제' 선정
	2017	04.12.
05.05.		2017 수원연극축제(~5/7)
07.01.		수원미술전시관(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어린이미술체험관) 수탁
07.18.		화홍문 공공한옥 수탁

시기	내용	
2017	08.30.	제5대 박흥식 대표이사 취임
	09.08.	수원재즈페스티벌(~9/9)
	09.18.	한옥기술전시관 수탁
	09.22.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9/24)
	09.23.	서울-수원-화성 정조대왕 능행차 완벽 재현(~9/24)
	09.27.	한옥기술전시관 개관
2018	01.15.	관광사업부 신설(2국 7부 21팀)
	04.13.	장안사랑채 개관
	05.24.	2018 수원연극축제(~5/26)
	08.10.	수원문화재야행 첫 번째(~8/11)
	09.07.	수원문화재야행 두 번째(~9/8)
	09.07.	수원재즈페스티벌(~9/8)
	10.05.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10/7)
	10.0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10/7)
	12.06.	수원문화재야행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선정
	12.31.	수원화성문화제, 올해의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 선정
2019	02.11.	제6대 박래헌 대표이사 취임
	03.21.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기부금 사업 추진
	05.24.	2019 수원연극축제(~5/26)
	07.02.	화성행궁 상설 야간개장(~9/28)
	08.09.	수원문화재야행(~8/11)
	09.18.	수원재즈페스티벌(~9/19)
	10.03.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10/6)
2020	04.22.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센터 개관
	05.20.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정담'(~10/30)
	10.23.	2020 수원 문화재 야행(~10/25)
	12.10.	수원 문화재 야행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선정
	12.14.	수원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12.15.	2020 변화와 혁신사업 경연대회 개최
2021	12.28.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02.09.	제7대 길영배 대표이사 취임

##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은 2013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기초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으로서,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설립·운영된 수원시의 싱크탱크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정조대왕의 의지에 의해 출발한 계획적 성곽도시 수원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 가치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수원시가 당면한 각종 도시문제를 진단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연구를 하면서, 수원시가 한 차원 더 높은 선진도시, 글로벌 도시, 미래지향형 도시로 나아가는 나침반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해 왔다.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수립,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 제시, 환경·도시재생 등 각종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중요한 임무다. 2019년 5월 『인천일보』는 '자치분권 키워드·싱크탱크 수원시

정研 따라 하기'란 기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을 소개했다.<sup>13)</sup>

수원시가 설립한 수원시정연구원은 자치분권시대를 열 열쇠이자 '씽크탱크(Think Tank)'로 불린다. 여러 지역에서 유행처럼 만들고 있는 연구기관의 초석이기도 하다. 행정에서 다뤘던 각종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및 연구하는 게 시정연구원의 주요 임무다. 이 과정을 기반으로 해답과 가까운 길을 찾아낸다. 중·장기적인 미래의 상을 그린 뒤,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도 제공한다.

조직은 연구원장을 필두로 연구실장, 연구위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등 70여명. 이들은 매일 도시경영, 도시공간, 연구기획 등 분야에서 분주히 연구 중이다. 연구자문위원회, 수원시민의목소리위원회에는 60여 명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활동 중이다. 과제 제안이나, 연구 평가로 시민 목소리를 담아 주는 역할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5기 취임 직후 인구 120만여 명,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수원시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지를 꾸준히 고민했다. 이에 수원시는 2012년 수원시정연구원 설립을 핵심 과제로 지정했고, 2013년 출범을 이뤘다.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초의 연구기관이었다. 대부분 기초단체는 지역의 과제를 용역방식으로 외부에 맡겼다. 비용낭비는 물론 지역에 맞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2013~2018년 사이 시정연구원이 기본·정책·기획·현안·수탁 등 다양한 종류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한 건수는 532건에 달한다. 2017년부터는 한 해 100건 이상을 수행했다. '바람직한 조달행정체계 개선방향', '산업단지 발전방

안 연구', '고령 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등 풍부한 연구보고서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서울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경기대학교, 제주대학교, 중국정법대학, 안산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등과 공동연구사업 추진은 물론 학술교류를 이어 가고 있다.<sup>14)</sup> 또 많은 지방정부들이 수원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했다.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등은 수원시정연구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성과 중 두드러지는 것은 지방분권, 특례시 관련 연구를 통해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는데 현격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수원시 성장과 발전에 따라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했고, 수원시의 교통체계와 제



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원시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수의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7대 전략, 28개 사업, 185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도 수립했다. 앞으로 5년간(2021~2025) 수행할 중장기 계획으로써 수원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분야·단계별 관광종합발전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sup>15)</sup>

재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세월이 감에 따라 사라지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지 편찬사업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사라진 고향 마을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주민들이 들려주고, 골목길의 추억을 되살려 그림으로 재현하거나 소중한 간직하던 개인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과 편찬에 참여해 시민 참여형 책으로 만들어냈다.<sup>16)</sup> 특히 2020년 2월 팔달구 인계동의 옛 모습과 변천사,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수원학연구센터의 마을지와 책 발간을 위해 모은 자료를 전시한 ‘굿바이 인계’를 수원 구 부국원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2021년 5월 수원시정연구원에 민간 이사장이 취임했다. 그동안 수원시장이 이사장을 맡았는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 이사장제를 도입했다. 제1대 민간 이사장에 이재율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대는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징 중 하나는 수원시민의 목소리 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는 2013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수원시민이 직접 시정에 도움이 되는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이를 직접 듣고 연구에 반영하는 ‘시민과 민생 중심의 연구활동’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민을 대표해 시 정책현안 발굴 및 제안, 연구과제 수

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 제시, 각종 연구원 행사 참석 등 연구진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왔다.<sup>17)</sup>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 올린 위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는 연구원 연구 사업에 녹아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수원시정연구원 연혁

시기	내용
2013.02.13.	제1대 손혁재 원장 취임
2013.03.28.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2014.02.28.	수원학연구센터(부설기관) 개소
2016.02.01.	제2대 이재은 원장 취임
2016.09.27.	수원시 더함파크(서둔동)로 연구원 이전
2016.10.31.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 개시
2016.11.01.	수원시정연구원 조직개편 실시(5실 3센터)
2017.01.03.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업무 개시
2019.01.02.	제3대 최병대 원장 취임
2019.03.11.	수원시정연구원 조직개편 실시(4실 2센터 1대학)
2021.04.01.	제4대 김선희 원장 취임

수원도시재단은 세계 최초의 융·복합적 도시거버넌스 기구로서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안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2016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사람 중심의 마을 공동체 조성, 소통 및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거버넌스 조성, 건강한 일자리를 통한 튼튼한 경제기반 조성 등의 비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수원도시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도시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도시의 물리적·사회적·생



수원도시재단 마을사랑방 입주(2017.7.27. 수원시 포토뱅크)

태적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공동체 발굴과 성장을 통한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사라져 감에 따라 마을 단위의 공동체 구성 및 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원도시재단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이다. 1,320건의 주민제안공모, 5개 지역의 마을계획수립(영화동, 서둔동, 행궁동, 평동, 지동)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130회의 포럼 개최, 100건의 업무협약, 6개 대학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180개 기업 창업, 585억 원의 기업지원 등을 통해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연무동, 행궁동, 매산동, 세류2동, 경기도청 인근의 5개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원도시재단이 걸어온 길은 다음과 같다.

### • 수원도시재단 연혁

시기	내용
2016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안상욱 이사장 취임
	주거복지지원센터 신설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선정:행궁동(일반근린형)
2017	(국토교통부) 행궁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매산동(중심상가지형)
	(경기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 경기도청 주변(일반근린형)
	(중소벤처기업부)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주관기관 선정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개소
2018	물환경센터, 미디어센터 인수
	매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연무동(주거지원형)
201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세류2동(일반근린형)
	연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세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2020	상권활성화센터 개소
	이재준 이사장 취임
2021	1실, 3부, 13센터, 1팀으로 개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0 시작
	이사장 허정문 취임
	수원도시재단으로 기관명 변경
	수원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청년지원센터 인수, 미디어센터 이관

- 1) "“인문도시 수원사업, 인문학을 지방행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 『경기&뉴스』, 2021년 10월 13일; 『수원시 인문도시 사업, 인문학 지방행정 영역으로 발전' 큰 역할', 수원박물관, '인문도시 수원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심포지엄, 『경기IN』, 2021년 10월 13일; "“인문도시 수원사업, 인문학을 지방행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 『중부시사신문』, 2021년 10월 13일; 『수원박물관, '인문도시 수원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심포지엄 발표』, 『GE경기경제신문』, 2021년 10월 13일.
- 2) 『수원박물관, '인문도시 수원의 성과와 과제' 주제 심포지엄 개최』, 『매일일보』, 2021년 10월 13일; "“인문도시 수원사업, 인문학을 지방행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 수원박물관, '인문도시 수원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심포지엄, 『경기인터넷신문』, 2021년 10월 13일; "“인문도시 수원사업, 인문학을 지방행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10월 14일.
- 3) "“인문학 중심도시 수원'추진 성과는? 4년간 인문학 프로그램 1만 5,087회, 134만여 명 참여”, 『수원내일신문』, 2015년 4월 21일.
- 4) 『수원 인문기행특구'지정, 2024년까지 연장』, 『경기ETV뉴스』, 2021년 8월 30일;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2017년 지정...2022~24년 4개 분야 8개 세부사업 추진』, 『GE경기경제신문』, 2021년 8월 30일;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신아일보』, 2021년 8월 30일; 『수원시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8월 30일;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수원신문』, 2021년 8월 31일.
- 5)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매일일보』, 2021년 8월 30일;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헤럴드경제』, 2021년 8월 30일.
- 6)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경기&뉴스』, 2021년 8월 30일.
- 7)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전국매일신문』, 2021년 8월 30일;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받아...2024년까지 연장』, 『뉴스웍스』, 2021년 8월 30일; 『수원시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8월 30일.
- 8) 『수원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 선정』, 『경기ETV뉴스』, 2021년 10월 26일; 『수원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 선정... 26일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수상』, 『경기타임스』, 2021년 10월 26일; 『수원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 선정 영예 인문학도시 조성 및 편리한 독서환경 제공...26일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수상』, 『경기데일리』, 2021년 10월 26일; 『수원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 선정』, 『브릿지경제』, 2021년 10월 26일; 『수원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 선정 인문학도시 조성 및 편리한 독서환경 제공...26일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수상』, 『GE경기경제신문』, 2021년 10월 26일.
- 9) 『수원시, 21번째 공공도서관 개관 ... '망포글빛도서관' 29일 개관식』, 『경기뉴스탑』, 2019년 4월 29일; 『수원시 21번째 공공도서관 '망포글빛도서관' 오픈, 도서관 이름 시민 공모 · 투표로 정하고, 특화 주제는 지역주민 설문 선정』, 『매일일보』, 2019년 4월 29일.
- 10) 『문화예술의 새 물결 '수원문화재단』(https://blog.naver.com/jun939a/30179673598), 『문화관광저널』, 2013년 11월 17일.
- 11) 『수원문화재단' 출범 초기부터 잇따르는 직원퇴사, "채용공고와 다른 연봉"...기존 직원도 '부글부글' 연봉계약 직 전환탕 호봉수 낮아져』, 『경인일보』, 2012년 2월 9일; 『수원문화재단' 출범 초기부터 잇따르는 직원 퇴사』, 『수원신문』, 2012년 2월 9일.
- 12) 『(대담) 수원문화재단 박흥식 대표이사를 만나다』(https://rja49.tistory.com/4760), 『바람이 머무는 곳』, 2018년 5월 15일.
- 13) 『자치분권 키워드 · 싱크탱크 '수원시정' 따라하기, 6년새 상당한 성과물 일궈, 내지역 경쟁력 확보 근거 마련, 23곳 벤치마킹 · 노하우 유행, 국내 · 외 지식 전수 중추 역할』, 『인천일보』, 2019년 5월 22일.
- 14) 『자치분권 키워드 · 싱크탱크 '수원시정' 따라하기, 6년새 상당한 성과물 일궈, 내지역 경쟁력 확보 근거 마련, 23곳 벤치마킹 · 노하우 유행, 국내 · 외 지식 전수 중추 역할』, 『인천일보』, 2019년 5월 22일.
- 15) 『수원관광'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 『경기ETV뉴스』, 2021년 4월 20일; 『수원시, 수원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수원 르네상스, 관광으로 물들이다 - 발길 닿는 곳곳 재미가 더해지는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경기데일리』, 2021년 4월 20일; 『수원관광'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Moneys』, 2021년 4월 20일;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 『뉴스핌』, 2021년 4월 20일; 『수원 르네상스, 관광으로 물들이다 - 발길 닿는 곳곳 재미가 더해지는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수원관광'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세계로컬핫뉴스』, 2021년 4월 20일.
- 16) 『옛 수원 인계동의 추억, 한 데 모았다... 인계동&굿바이 인계』, 『뉴스스』, 2020년 2월 17일; 『수원시, 재개발되는 인계동 옛 모습, 주민참여형 역사책으로 보존』, 『교통뉴스』, 2020년 2월 17일.
- 17) 『수원시정연구원, 2021년 수원시민의 목소리 위원 위촉식』, 『기호일보』, 2021년 5월 26일.



\* '생태교통 수원 2013'  
 행궁동은 핫플레이스가 됐다

2013년 8월 31일, 세계는 수원시 행궁동을 주목하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차 없이 사는 실제 생활을 실험하는 '생태교통 수원 2013'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밤 9시를 넘기며 행궁동 생태교통 마을 0.34km<sup>2</sup> 내 주민 2,200가구가 보유 중인 차량 1,500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세계는 놀랐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sup>1)</sup>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오토 짐머만 생태교통 페스티벌 총책임자가 "31일 밤,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정도였다.

석유 고갈 상황을 가정한 차 없는 마을 체험 '생태교통 수원 2013'은 2013년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행궁동에서 열렸다.<sup>2)</sup> 이 기간 국내의 방문객 100만 명이 행궁동 차 없는 마을에서 생태교통을 체험했으며 세계 45개국 95개 도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2013.8.15. 수원시 포토뱅크)

대표들이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에서 생태교통 추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로 수원시는 생태교통에 도전한 세계 최초의 도시로 기록되면서 생태교통의 표준을 보유한 중심도시 위상을 갖게 됐다.<sup>3)</sup> 수원시민, 행궁동 주민의 한 달 불편 체험이 전 세계인들에게 차량 이용 자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생태교통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다. 앞으로 세계 도시는 교통정책 수립과 생태교통 도입 시 수원시가 만든 생태교통 시스템을 참고하게 됐다. 수원은 생태교통 메카도시로 우뚝 섰다.<sup>4)</sup>

또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도시재생 계기가 됐다. 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차 없는 마을 행궁동에 130억 원을 집중 투입해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인근 정조로, 북수동까지 상가 450여 곳의 간판과 벽

면을 정비했다. 도로가 화강석으로 포장되고 소나무 가로수, 쌈지공원, 옛길 벽화, 화단 등으로 장식돼 과거 쇠락했던 거리가 깔끔한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변했다.

행사 기간 행궁동 방문 인파가 인근 지역으로 넘쳐나며 행궁동 공방거리는 서울 인사동을 방불케 하는 특수를 누리고 수원천변 상가, 지동시장은 모처럼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등 파급효과도 확인됐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기획 단계부터 화성 성안마을 원도심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로 낙후된 점과 생태교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한다는 점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명분이 됐다. 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을 앞두고 주 행사장인 화성행궁 성안마을 행궁동을 보행자 중심 도로로 선형을 바꾸고 조선시대 화성 축성 때부터 사용하던 옛길을 복원하는 등 자동차보다 사람이 주인 되는 미래 도시 모델로 면모를 일신했다.<sup>5)</sup>

당시 『경기신문』(2013년 9월 1일)은 ‘생태교통 수원 2013, 무모한 도전을 응원한다’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 행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8월 28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모한 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 말을 통해 그가 그간에 했던 고민과 겪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염 시장 말처럼 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도로를 넓혀 주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 대신 주민들에게 차 없이 사는 불편을 감수하자고 말하다니 … 이런 사람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 ‘무모한 바보’가 바로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9월 한 달간



차 없는 거리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걷고 있다.(2013.9.5.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 장안구 행궁동에서 열리는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다. 수원시와 유엔 해비타트, 이클레이가 주최하는 행사다. 인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 상황을 설정한 뒤 실제 생활을 통해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 행사로,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 시범지역에서 주민과 방문자들이 화석연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사는 ‘불편 체험’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시범지역에 있는 차량은 모두 외곽 주차장으로 빼낸다. 주민들은 자전거나 친환경 탈것, 또는 임시로 마련된 셔틀버스로 집과 주차장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그것도 무려 한 달씩이나! 염 시장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염 시장과 관계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엔 공무원들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다. 행궁동

리모델링, 차량 통행 제한 등 행사 주요 과제에 대해 끝까지 주민을 설득해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과거처럼 행정이 밀어붙일 수만은 없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환경 행사에 주민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추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 행사의 성공은 인류 역사에 남을 가치로 기록되겠지만 추진하는 사람들과 행궁동 주민들에겐 고통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행사 하루 전인 31일까지 공무원들과 추진단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은 하얗게 밤을 새웠다. 완벽한 행사 준비를 위해 팽팽하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만약 있을지 모를 반대 측 주민과의 충돌에도 대비해야 했다. 확실한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석유고갈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제 상황을 통해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는 매우 의미 깊은 행사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낙후된 수원 구도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궁금하면 지금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가 열리는 행궁동 지역에 가서 느껴 보시라.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준비는 과정에서 행궁동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내 집 앞에 차를 세우던 평소의 습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수십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했다. 시는 수십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설득했다. 주민추진단과 시민서포터즈가 이런 수원시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차 없는 마을 행궁동 0.34km<sup>2</sup>에 거주하는 주민은 2,200가구, 4,3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동차는 1,500여 대에 이른다. 소수가 반대의 소리를 높였지만 대부분 주민은 생태교통을 추진하는 시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이재준 제2부시장은 『중부일보』(2021년 9월 15일)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생태교통축제의 핵심은 '차 없는 행궁동'이었다. 해외 주요 성곽도시별 사례를 살펴봤을 때 환경 정화, 주민 삶의 질 제고, 상권 활성화의 열쇠가 바로 차량 통행 없는 보행 친화적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주민들은 차량 통행 제한에 따른 교통 불편을, 상인들은 그로 인한 소비인구 유입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다. 특히 상권 위축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가 아주 컸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 조성이 도시재생에 없어서는 안 될 키워드라 생각했던 나는 일대에서 직접 지내며 주민들과 상인들을 직접 설득해보기로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서 석 달을 지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막걸리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기탄없이 소통하며, 차 없이 깔끔하게 정비된 행궁동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섰다. 결국 차 없는 행궁동을 시범 운영해보자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내 생태교통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수원시의 생태교통축제를 모델로 비슷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원시를 찾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시장, 대만 가오슝 시장에게도 주민 설득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 상인들로부터 변화된 행리단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듣고 있어 뿌듯하다.

차 없이 사는 미래 체험 '생태교통 수원 2013'은 2013년 9월 1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원에서 한 달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인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 상황을 설정하고, 실제 생활을 통해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행사다.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 시범지역에서 주민과 방문자들은 '자동차 없는 마을'을 체험했다.



2013년 9월 1일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 개막식(2013.9.1. 수원시 포토뱅크)

개막식은 이날 오후 6시 화성 행궁광장에서 '즐거운 도시 산책, 생태교통 수원'을 슬로건으로 UN-HABITAT·ICLEI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지자체장, 주한 외교사절, 생태교통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나뉘어 2시간 동안 진행됐다.<sup>6)</sup>

이날 주민과 학생들의 플래시몹과 취타대를 선두로 이색교통수단, 인라인, 자전거, 시민 서포터즈 등 1,500명으로 구성된 생태교통 퍼레이드가 장안문을 출발, 행궁광장에 도착하며 개막을 알렸다. 이어 수원시, ICLEI(자치단체국제협의회), UN-HABITAT(유엔정주계획) 등 공동 주최 기구 대표와 내외빈 70여 명이 자전거버스, 자전거택시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타고 개막식장에 입장했다.<sup>7)</sup>

공식행사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2013년 9월 2일 열린 '생태교통 분야 올림픽' 생태교통 수원총회(2013.9.2. 수원시 포토뱅크)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염 시장은 환영사에서 "저에게는 꿈이 있다."며 "대중전통전용지구 추진과 노면전차도입,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로 만들어 사람이 중심인 친환경 교통의 메카가 되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수원 미래 100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세계인이 걷고 미래가 머무는 수원시는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해 생태교통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8)</sup>

2일부터 4일까지 행궁광장 회의장에서는 생태교통 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생태교통 수원총회가 열렸다. 저탄소 녹색도시 국제포럼, 수원국제그린포럼 등 국제 학술회의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가 한 달 동안 이어졌다.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개최

된 생태교통 수원총회에는 ICLEI, UN-Habitat 등 공동 주최기구, ICLEI 가맹도시 대표, 생태교통 전문가 등 해외 참가자 600여 명과 국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태교통 정책과 비전을 모색했다.<sup>9)</sup>

행사 기간 행궁광장 전시장에서는 세계 각국 친환경 이동기구 제조업체가 출품한 이색자전거가 전시됐고 홍보자료관에서는 생태교통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회화, 조각, 설치, 규방 작가들이 마련한 생태교통 관련 작품전 등 12개의 전시회도 열렸다. 행궁동주민센터 삼지공원과 화서문로사거리에서는 수원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을 비롯, 클라리넷 앙상블, 퓨전 타악, 블루스밴드 등 공연이 마련돼 방문자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리는 기간에 행궁동에는 원칙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 운행차량은 통행이 제한됐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차량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를테면 음식점 식자재, 마켓 상품 등 배달 차량은 맞춤형 통행 시간제 적용에 따라 영업장별로 필요한 시간에 제한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을 배달할 때는 시가 전기오토바이를 제공했다. 청소차는 새벽에 들어가 오전 6시까지 종량제 봉투 수거를 모두 마치고 이사차량은 오전 운행을 허용했다. 택배화물차는 행궁 주차장 집하장에 화물을 내려 놓고 화물 크기에 따라 전기카트, 자전거, 친환경 전기오토바이 등 이동수단으로 각 가정에 배달시켰다.<sup>10)</sup>

하지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은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운행이 가능했고 전기·가스 등 복구작업 차량도 진입이 허용됐다. 유치원버스, 학원버스도 통행이 허용되고 장애인 콜택시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행궁동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이동수단으로 자전거 730대를 배치했다. 일반 자전거를 비롯해 전기자전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이 있고 각종 이색자전



생태교통 수원 2013에서 운행된 자전거택시(2013.9.3. 수원시 포토뱅크)

거도 탈 수 있었다.<sup>11)</sup>

차량을 보유한 행궁동 주민에게는 ‘생태교통 수원 2013’ 기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행궁동 외곽에 대형 주차장 2곳을 마련했다. 장안문 밖 영화지구 주차장은 행궁과의 직선거리가 900m, 차량 600대를 세울 수 있다. 연무지구 주차장도 1km 거리에 110대를 세울 수 있었다. 행궁동 주민들은 이곳 주차장에 주차한 뒤 집까지 걸어가거나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고 행궁광장, 정조로, 팔달로를 순회하는 셔틀카를 이용했다. 관광객들은 자전거택시로 행궁동 골목을 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기간 행궁광장에는 관광용 자전거택시를 대기시켰다.

염태영 시장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경기일보』(2013년 10월 10일)

에 '생태교통 수원 2013의 교훈'이란 글을 기고했다.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된 '생태교통 수원 2013'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 했다. 행궁동 주민과 수원시민은 자동차가 사라진 보도와 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비면서 공공공간으로 되돌아 온 마을을 행복하게 즐기며, 마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수원을 방문해 주신 세계 각국 도시 대표단, 국제기구와 전문기관 관계자, 생태교통 연구자와 전문가 등은 세계에 보여 준 선도적 도전과 리더십에 놀라고 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대도시에서 승용차 없는 한 달간의 실험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반신반의 했다고 고백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 각국 도시 지도자들에게 녹색교통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안내하는 영감과 약속을 이행할 근간을 제공해 줬다는 평가이다.

세계를 향한 이러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행궁동 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공직사회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그동안 지극 정성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신 행궁동 주민 여러분들이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진정한 주역이다. 여러 불편을 참아주시고 미소와 친절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교통 혼잡, 시민 건강 악화 등 많은 문제와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주요 위협들은 개별 국가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범지구적 문제이므로 우리 인류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국제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제안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대도시의 가장 큰 숙제이다.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 사망자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 대도시들에서는 교통 혼잡으로 높은 교통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을 통해 자동차 중심 정책에서 생태교통중심의 교통체제로 전환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생태교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생태교통으로의 과감한 전환은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위협에 대응하는 첫걸음이자, 지속가능한 환경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세계 각국의 도시지도자들은 녹색교통으로 도시변화를 위한 신속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지방정부가 생태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과 지표를 제안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수원시는 '차량·소유·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았던 교통 정책을 생태교통 수원 2013을 계기로 '사람·공유·환경'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령화, 삶의 질,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등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해 수원시가 생태교통 중심의 세계적인 모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지속가능한 사회와 교통시스템을 추구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인간친화

적 보행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녹색교통 활성화 등 실천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수원시는 사람의 기본적인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우선 교통정책을 구현하며,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보편적 이동성과 접근성 높이기 위해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콘라드 오토 짐머만 '생태교통 수원 2013' 총감독도 『연합뉴스』(2013년 9월 4일)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행궁동의 생태교통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이라며 “이번 실험을 통해 주민들은 차 없는 세상을 통해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한 달 동안 차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해 마을과 주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로써 이번 실험을 통해 수원시의 도시교통문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sup>12)</sup>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무척 불편할 것이란 질문에 “물론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 실험이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한 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유발하는 소음이나 대기오염 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 없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같은 작고 동력을 사용하지 않은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덩치가 큰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라고 답했다.

짐머만 총감독은 이번 행사를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ICLEI와 나는 예전부터 이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적절한 도시를 찾기 위해 여러 도

시와 접촉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염태영 수원시장이 흔쾌히 우리의 제안을 수락했다. 나의 아이디어와 수원시의 의지가 반영돼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궁동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2013년 9월 세계 최초로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는 지구 온난화·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sup>13)</sup> 2015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회 생태교통세계축제가, 2017년 10월에는 대만 가오슝에서 세 번째 생태교통세계축제가 열렸다. 요하네스버그시·가오슝시 관계자들은 축제 개최 전 수원시를 찾아 행궁동을 견학하고, 생태교통축제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가 끝난 뒤 『한겨레신문』(2013년 11월 22일)은 '자동차 없이 한달 ... 수원 생태교통을 향해 직진!'이란 특집 기사를 냈다.<sup>14)</sup>

‘내가 꿈꾸는 마을과 도시는?’

해마다 전국에선 많은 축제가 열린다. 내·외국인들이 몰려드는 축제들은 도시를 꿈꾸게 하고, 도시는 축제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꿈꾼다.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없어진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난 9월 한 달 동안 차 없는 불편을 감수한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에는 세계 45개국 95개 도시 대표들을 비롯한 101만 명의 내·외국인이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행사장을 찾았다. 이들은 차량이 없어진 거리에서 골목길 문화를 즐기고 다종 다양한 생태교통수단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불편을 즐겼다.

수원시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유엔해비타트(유엔인간정주계획)가 공동으로 주최한 '생태교통 수원 2013'은 미래 도시의 생태교통을 내걸고 민관 협력이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실험이었던 만큼 국내

외 관심도 뜨거웠다.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와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찾아와 소개할 정도로 한 달 내내 관심을 받았던 곳은 '행궁동'이라는 수원 옛 도심의 작은 마을이었다. 200여 년 전 조선 정조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축성한 화성의 중심이었지만, 쇠락에 쇠락을 거듭하던 행궁동 마을은 이 축제를 통해 '희망'의 실마리를 잡는 듯했다.

생태교통 축제가 열린 9월 한 달 4,300여 행궁동 주민들은 비상차량을 제외한 1,500대의 차량을 마을에서 빼내 인근 주차장에 세워뒀다.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마을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했고 짐을 옮기거나 급한 볼일이 생기면 생태교통 택시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12개 자원봉사 분야에서 단일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835명의 자원봉사자가 생태교통 택시를 모는 등 참여했다.

한 달 동안 분주했던 수원 생태교통 축제가 주민들과 도시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지난 13일 저녁 7시 수원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생태교통 300인 원탁회의'에는 축제를 마친 마을 주민 240명과 시민단체, 생태교통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300명이 40여 개 원탁에 둘러앉았다. 옛된 여고생들부터 행궁동에 서 평생을 살아온 8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원탁토론 주제는 '행궁동 마을에서의 지속가능한 생태교통'이었다. 2시간 30여 분에 걸쳐 주제별 토론이 벌어지고, 그때그때 앉은자리에서 주민 의사를 결정하는 전자투표가 이어졌다.

첫 주제인 생태교통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묻는 토론이 벌어졌다. "축제가 끝나니 다시 차가 많아졌어요. 주1회 카프리(Car-free) 행사를 열어 전국의 대표적 생태교통 마을로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38년을 행궁동에 살아온 주민 도종호(74) 씨가 말했다. "점집이 많아요. 점집 때문에 동네 집값싼 곳 아니냐고 이야기해 창피해요." 37년을 살아왔다는 최화아(63) 씨가 말했

다. "행궁동에 30년 살았는데 이런 큰 변화는 처음입니다." 행궁동 상가번영회 황현노 단장의 이야기다. "생태교통축제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옆 동네 사는 제 친구가 잘 몰라요." 여고생 이주은(17) 양의 말이다.

원탁에 둘러앉은 이들은 나이와 성별의 차이도, 축제를 찬성했든 반대했든 개의치 않았다.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이 꿈꾸는 마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1분 30초 동안 발언하고 토론도 할 수 있었다. 토론 도중인 실시간으로 원탁회의 발언 내용이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등장했다. 의견들은 주제별로 분류되고 순위를 매기는 전자투표가 이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이 꿈꾼 행궁동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생태교통 마을 발전 방안을 두고 투표자 33%가 주민 간 토론과 화합을 꼽았다. 차 없는 거리 확대는 16% 지지로 2위를 기록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하자는 의견이 13%, 특색 있는 테마 상권으로 재구성하자는 제안이 11%, 주민 교통 불편을 먼저 해결하자는 의견이 11% 차례로 지지를 얻었다. 차 없는 마을의 운영 시기는 투표자 232명 중 102명이 토·일요일 시간을 정해 운영하자는 데 찬성했다.

토론에선 차 없는 생태마을 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목욕탕을 한다는 이아무개 씨는 "이대로 차 없는 거리가 지속되면 4개월 안에 부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식당을 운영한다는 여성은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 택시기사들이 안 오는데 대책부터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리스·로마 시대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직접민주주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주민 주도형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결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스럽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생태교통 축제는 민관 협치(거버넌스)의 성공이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도시의 희망이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축제에서 축적된 경험이 오늘 원탁회의로 이어지면

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과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틀 전인 11일 열린 수원시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 대표 등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졌다. “낙후 도시를 살릴 문화콘텐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박호철 행궁동 문화슈퍼 주인), “행궁동에서 주변 화성 구도심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김명욱 수원시의원), “세계인이 찾아와 수원의 대표적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용학 주민자치회장),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해 생태교통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자.”(한경숙 수원중증장애인독립센터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생태교통 축제 뒤 세계 도시들로부터 축제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와 주민들이 생태교통의 꿈을 실현할지를 묻는 문의와 발표 요청이 쇄도했다.”고 국외의 뜨거운 반응을 소개했다.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도시환경연구부)은 “생태교통 축제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불러왔다. 주민들이 ‘차 없는 생활도 가능하구나.’ 하며 참여했고, 쇠락해 가는 동네에서 ‘뭔가 될 것 같다.’는 의식의 변화를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생태교통 축제를 통해 수원시는 국내 최초의 노면전차 도입과 무인 자전거 대여 등 다양한 생태교통수단을 도입하며 문화와 역사가 깃든 수원화성의 옛 도심에 부활시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듯했다.(홍용덕 기자)

위 기사에서 본 것처럼 축제 기간 행궁동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은 100만 명이 넘었다. 이때부터 행궁동은 입소문을 타고 수원의 또 다른 명소가 됐다.



‘생태교통 수원 2013’ 2년 후인 2015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2회 생태교통세계축제’ (2015.10.7. 수원시 포토뱅크)



‘제3회 생태교통세계축제’는 2017년 10월 대만 가오슝에서 열렸다.(2017.10.2. 수원시 포토뱅크)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이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카페와 음식점들은 이제 100개가 넘었으며 수도권 젊은이들의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됐다. 이 일대는 ‘행리단길’ ‘행궁동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주말에는 각 업소마다 길게 줄을 지어 대기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물론 화성행궁과 맞닿아 개발이 제한되면서 낙후됐던 행궁동 일대가 문화 트렌드를 흡수해 오늘날 행리단길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시민의 삶도 바꾸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 수원에서는 ‘차 없는 날’이 곳곳으로 확산됐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시민이 중심이 된 생태교통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이 이듬해부터 확대 운영된 것이다.<sup>15)</sup>

2014년 정자동, 영화동, 금호동, 영통1동 등 4개 마을에서 총 18회의 자동차 없는 날이 펼쳐진 이후 2015년 8개 지역 51회, 2016년 10개 지역 46회, 2017년 11개 지역 56회, 2018년 13개 지역 61회, 2019년 18개 지역 55회 등 총 300회의 자동차 없는 날 행사가 열렸다. 비워진 길에서는 이색자전거 등 생태교통체험이 이뤄졌다. 체험 부스가 설치돼 각종 환경 문제와 이슈를 홍보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사고파는 벼룩시장과 재능 나눔도 활발히 이뤄졌다. 봄과 가을에는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거리문화공연이 열렸다. 여름에는 워터플장이 들어서고 노래자랑 등이 열렸다.<sup>16)</sup>

당시 수원시의 시정신문인 『e수원뉴스』 김우영 주간은 벌써 5년이 지났나? ‘생태교통 수원 2013’이란 글을 『e수원뉴스』(2018년 8월 30일)에 발표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태교통 수원 2013’의 감동이 생생하다. 지금의 수원 아이파크미술관 자리에 거대한 에어 텐트인 파빌리온이 들어서고 그 안에 있

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매일매일 현장 기사를 올리고 e수원뉴스를 편집했다.

그때 하주성 시민기자는 놀라운 열정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 현장을 누비며 매일 2~3꼭지씩 기사를 올렸다. 김해자 씨를 비롯해, 김연수, 박종일, 김성지, 심춘자, 문예진, 김소라 씨 등 e수원뉴스 시민기자들도 현장에서 자주 마주쳤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석유가 고갈된 미래 상황을 가정해 9월 내내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행사였다. 행궁동 주민들은 자동차 없이 무동력 교통수단만을 이용해 한 달간 생활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된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수원시와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그리고 UN-HABITAT(유엔 인간주거계획)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수원화성 행궁동을 찾아왔으며 수백 명이 넘는 전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수원에 모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이 되는 도심 한가운데 마을의 생활을 체험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대성공이었다. 이 행사가 끝난 뒤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석유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보여주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다.”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때문에 그간 개발이 되지 못한 약점을 최대 강점으로 전환해 이제 수원화성 행궁동은 개발 없이도 여유가 넘쳐흐르는 생태문화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해 11월 22일 행궁동 소재 선경도서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주민추진단 해단식’에서 인사말

을 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9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때를 생각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납니다. 9월 한 달 동안 생태교통 현장에서 사연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행궁동에 거주하면서 6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거리와 골목에 있던 자동차들은 성 밖으로 밀려났다. 대신 그 자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기 좋은 산책길이 됐다. 행궁동은 거대한 문화·생활박물관으로서 마을 주민들과 시민, 관광객들의 공간이었다. 마을의 모습도 바뀌었다. 간판정비사업 등 경관조성 사업이 실시됐으며, 전신주가 철거되고 전선은 지중화됐다. 도로엔 소나무를 심었고 화서문로, 신평로 특화거리와 옛길에 대한 정비가 실시됐다.

이 기간 동안 ‘2013 생태교통수원총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등 국제회의를 비롯해 전국대회 행사가 열렸다. 특히 생태교통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3 생태교통수원총회’는 생태교통연맹워크숍, 동아시아 저탄소 도시국제포럼, ICLEI 동아시아 집행위원회 회의, 생태교통과 미래세대 등의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생태교통축제가 열린 행궁광장에는 ‘생태교통전시관’, ‘이색이동수단체험장’과 ‘도시·기업홍보관’, ‘기후·에너지 홍보교육·체험관’, ‘친환경교통수단 트램 전시관’ 등 상설 체험·전시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생산한 세계 각국의 일반형 자전거부터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로 만들어진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직접 시승할 수 있었다.

기후·에너지 홍보교육·체험관은 친환경 대표적 기술과 정책, 국민실천 내용을 다양한 체험물로 제작해 학생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이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를 쉽게 즐기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의 장이었다.

생태교통 축제는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수원시 행궁동을 방문, 벤치마킹했다. 그리고 제2회 생태교통세계축제가 2년 후인 2015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3회 생태교통세계축제가 2017년 10월에는 대만 가오슝에서 열렸다.

그리고 행궁동 일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핫플레이스가 됐다. 50여 개가 넘는 카페며 음식점들이 젊은이들의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고 있다. 이것이 ‘생태교통 수원 2013’의 효과라고 나는 확신한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축제가 9월 7~9일 행궁동 일원에서 열린다.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 5주년을 기념하는 ‘생태교통 2013 리마인드(Remind) 축제’다. 차 없는 거리에서는 이색자전거 체험, 기후변화 체험 등 다양한 생태교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8 수원한국지역도사전’과 연계한 ‘북북시장 시민마켓’도 열린다. ‘마을 내 차량 줄이기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마을 포럼도 준비돼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행궁동 주민, 시민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함께해요, 생태교통’ 시민 퍼레이드와 축하 공연도 열린다.

## \* 시민 휴식공간 공원녹지 확보에 전념하다

### ●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

민선 5기부터 10년간 조성한 공원은 140개소에 달한다. 수원시는 시내 어디서나 걸어서 6분 안에 공원·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과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을 확대했다. 공원 녹지 공간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공원 녹지 서비스 향상과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했다.

수원시는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과 공원녹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주민의 연령별 인구구성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녹지 조성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사업은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도시개발이나 미조성 공원 활용 등 대규모 사업은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목원도 두 곳에 조정하고 있다.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 '수원수목원(가칭)', 동수원권인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영흥수목원(가칭)'을 조성하고 있다.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수목원이 문을 열면, 2015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가입과 지난달 19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 동참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프로그램' 인정 도시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생태환경도시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된다.<sup>17)</sup>

### ● 수원수목원

수원수목원은 수원시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목원으로 2022년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다.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일월공원 내 축구장 14개(10만 1,500㎡) 규모로 조성 중인 수목원은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명실상부한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을 지향한다. 도심 속의 거대한 허파 역할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할 것이다.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조성되는 수원수목원은 수원시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목원으로 2020년 11월 9일 일월수목원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sup>18)</sup>



수원수목원 조감도(2021.3.31. 수원시청 보도자료)

수원시는 수목원을 누구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수목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수목원은 지역거점 수목원으로서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중요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수목원에는 ‘생태정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생태정원에는 △수원의 역사성을 스토리텔링하고 수원시의 숲을 보전하는 숲정원 △습지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물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식물을 습지원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건조정원 △자연주의정원 형식을 도시환경에 적용할 초지원 등 4개 정원이 조성된다.<sup>19)</sup>

웰컴정원에는 △겨울에도 아름다운 식물들과 함께 겨울철 비수기에도 활기와 온기를 줄 겨울정원 △사계절 아름다운 포토 존이 되어 줄 예술적인 장식

정원 △식용, 약용 식물의 관상적 가치를 보여 줄 맛있는 정원 △빗물 재활용과 물 순환의 생태적 의미를 일깨우는 빗물정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방문자센터는 연면적 2,971㎡ 규모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 이벤트를 겸한 복합 식물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가드너 스톰, 로비, 카페, 기념품 판매대, 연구전시, 이벤트룸, 소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수원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수목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3월 ‘수원시민, 수목원을 만들다’를 주제로 참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들 의견을 들었다. 같은 해 3~5월에는 수원수목원이 들어설 일월공원 안에 ‘소통박스’를 들여와 시민 의견 1,040건을 수렴했다. 시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됐다. 수준 높은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신구대식물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일월저수지 건너편에는 수목원의 전시 완성도와 품격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양묘장을 조성해 희소성이 높은 식물유전자원 확보·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목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식물유전자원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립수목원, 천리포수목원 등 국내 저명한 수목원들과 생물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해 기증받은 수목들도 양묘장에서 길러진다. 특히 수원에서 연구·개발돼 역사적 관련성이 높고 우리나라 환경보전에 널리 활용돼 의미도 깊은 수목들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로부터 기증받았다. 수목원 양묘장에서는 은사시나무 등 교목(높이 8미터 이상의 나무) 60종 474개체, 히어리 등 관목 141종 1340개체, 다래 등 만경목(머루나 등나무처럼 덩굴이 발달한 나무) 10종 133개체, 진퍼리새 등 초본 233종 133개체 등 444종 1만 375개체의 식물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다.<sup>20)</sup>

기중 수목 중 은사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왕버들 등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는 없어 그 가치는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다양한 식물자원 확보를 위해 광교산과 칠보산 등 자생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50종 600개체의 식물유전자원을 직접 채집해 증식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sup>21)</sup>

한편 2021년 5월엔 '수원수목원 서포터즈'도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개인 SNS 활용 수목원 홍보 활동, 수목원 예정지 및 양묘장 식물·정원 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도 수목원에 큰 관심을 갖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 조성사업에 큰 도움이 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생태 랜드마크가 될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이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겪고 있었던 수원시는 특별교부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민들을 기쁘게 한 일은 또 있었다. 수원수목원 조성 현장 일원에서 법정보호종인 원앙, 참매 등 11목 19과 32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전후 생태환경 변화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한 조류 생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시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팀 공직자와 국립산림과학원·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탐조책방 등에서 일하는 생태 전문가들이 수원수목원 조성 현장을 포함 일월공원 전역을 모니터링했다. 동선을 정하고 걸으며 조사선 주변에 출현하는 조류를 관찰하거나 울음소리로 확인하는 '라인센서스법(line census)'을 활용했다.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4월 6일, 법정보호종인 원앙(천연기념물), 참매(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2급), 흰뺨검둥오리, 꿩, 해오라기, 멧비둘기, 청딱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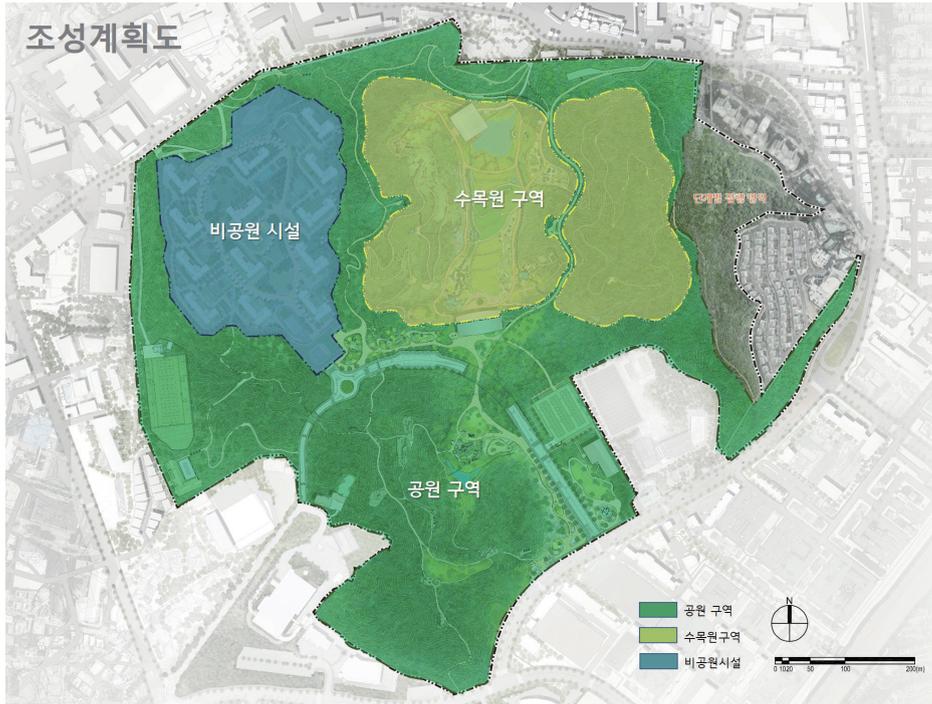
리, 직박구리 등 9목 14과 22종의 조류가 관찰됐다. 5월 모니터링에서는 1차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중백로, 물총새, 파랑새, 깡깡도요, 꾀꼬리 등을 추가로 발견됐고, 9월에는 큰오색딱따구리, 뺨뺨도요, 텃밭해오리기 등이 새롭게 관찰됐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전문가는 “수원수목원은 다양한 조류를 도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으로, “참매 등이 관찰되는 것은 주변 산림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면서 “수원수목원은 도심과 산림의 연결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 영흥수목원

2022년까지 원천동 303번지 일원 총 59만여㎡ 영흥공원에 14만 5,400㎡ 규모의 영흥수목원이 조성된다. 영흥수목원은 기존에 있던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다. 전시온실, 주제정원, 생태숲, 방문자 센터 등으로 조성된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존 논경작지의 일부를 남겨 경관을 전시하는 '논 전시원'이다. '수국원', '그래스원', '암석원' 등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영흥수목원이 들어서는 영흥공원은 영통신도시와 인접한 도심 속에 위치해 끊임없이 개발압력에 시달려 온 곳이다. 그러나 난개발 위기에서 도심 속 수목원으로 되살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원천동 일대 57만 1,308㎡ 규모로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영흥공원 조성계획도(2022.2.16. 수원시청 보도자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sup>22)</sup>

시는 2016년 1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비공원)’에서 사업 통과를 받는 성과를 냈지만 2019년 11월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일부 주민들이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 등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sup>23)</sup> 이에 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의견을 나눈 끝에 2020년 3월 11일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공원 내 축구장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 주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 축소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영흥수목원에 공원 인근 주민의 무료입장을 검토하는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 난관을 넘어서면 만큼 수원시는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착공에 들어갔다. 영흥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만 개발하는 형태이다.<sup>24)</sup>

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통한 거버넌스 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난개발 위기에서 도심 속 수목원으로 되살아난 영흥수목원에는 주제정원, 생태숲이 들어서고, 수원수목원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센터와 전시온실 등도 갖춰진다. 논 경작지와 산림 등 기존 자연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논경작지의 일부를 남겨 경관을 전시하는 ‘논 전시원’과 다양한 수국을 볼 수 있는 ‘수국원’, 벼과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그래스원’, 바위에 식생하는 식물들을 모아 놓은 ‘암석원’ 등이 조성된다.<sup>25)</sup>

기존 숲은 중부온대수림의 천이(遷移) 과정을 전시하는 ‘생태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시가 조성 수원·영흥수목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 속 생활밀착형 수목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수목원과 식물원은 생태복원의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수원시가 수목원 두 곳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을 환영한다. 아파트를 짓는

것, 도로를 새로 뚫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도시 안에 만드는 수목원이야말로 도시화, 자연 파괴로 인해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적은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수목원은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 주는 공간’이라는 시 관계자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 광고호수공원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호수공원으로, 광고신도시에 있다. 2013년 11월 3일에 개장한 이 공원은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2014 경관대상’으로 뽑힌 것이다. 국토부는 광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난립하던 기존의 저수지를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켰으며, 특히 지역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2020.10.8. 수원시 포토뱅크)

주민들의 기존 저수지에 대한 추억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광교호수공원에는 꽃밭단지뿐만 아니라 호수를 감싸는 생태하천, 커뮤니티 숲, 조용한 물숲 등 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많다. 야경이 특히 장관을 이룬다. 광고호수공원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광고호수공원은 원천호수와 북동측에 위치한 신대호수를 끼고 광범위하게 조성되었다. 호수 두 개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해 굉장히 넓다. 일산호수공원의 무려 1.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하며, 그만큼 공원 내 시설이 크고 광장이나 너른 잔디밭도 잘 조성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광고호수공원을 이렇게 소개한다.

원천호수는 수변에 전망 데크와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바닥분수와 공연장,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원천호수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붐빈다.

조금 떨어진 신대호수에선 더 여유 있는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둘 사이에는 숲속 쉼터와 광고푸른숲도서관, 스포츠클라이밍장 등이 자리 잡았다. 가족이라면 원천호수가, 연인이면 신대호수가 좋겠다. 종일 두 호수를 쉬엄쉬엄 둘러봐도 괜찮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돌아볼 수 있다. 광고호수공원가족캠핑장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광교호수공원 제1주차장에서 원천호수로 들어서면 중심 테마공간 어번레비가 시작된다. 어번레비(Urban Levee)는 ‘도시의 일상과 축제를 모두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 제방’을 뜻한다. 고층 아파트를 따라 이어지는 1.6km 수변 공간에 전망데크와 레비브리지, 바닥분수 등을 배치했다. 걸으면서 변하는 풍경을 즐기기도 좋고,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서 쉬어도 좋다. 아이가 있다면 바닥분수를 반길

만하다.

어번레비 곳곳에 색다른 공간도 눈에 띈다. 갖가지 수원 여행 관련 자료를 갖춘 '수원 여행 스테이션', 벤치에서 쉬는 동안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간이 도서관 '빨간 책꽂이', 관상수를 여러 가지 동물 모양으로 다듬은 정원도 있다. 다리가 아플 만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벤치와 그네 의자에 앉아 호수 풍경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어번레비 맞은편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가 자리 잡았다. 수원시가 세계적인 환경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그곳의 상징인 전망대를 도입한 시설이다. 나무로 마감한 외양이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리는 전망대에 오르면 바로 앞 원천호수와 조금 먼 신대호수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펼쳐진다.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옆 광고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선 광고호수공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환경 교육을 한다. (중략) 신대호수는 원천호수보다 사뭇 한가한 분위기다. 덕분에 아름다운 수변 산책로를 따라 여유 있는 산책이 가능하다. 이담한 다리와 6개 원형 텍으로 꾸민 조용한 물숲, 향긋한 꽃섬은 신대호수를 대표하는 테마 공간이다. 다리 좌우로 희고 둥근 조명 기구가 거대한 물방울처럼 호수 위를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현대미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광고호수공원은 야경도 아름답다. 수변 공간과 주변 고층 아파트를 색색으로 물들이는 조명이 물에 비쳐 환상적이다. 보름달이라도 뜨면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는 광고호수공원 밤하늘을 원색으로 밝히는 불꽃놀이도 펼쳐졌다.

## ●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시민 개방

수원역 인근인 권선구 서둔동에는 22만 1,000㎡ 규모의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수목원으로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던 학술연구림이었지만, 시와 서울대학교가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6월부터 일반에 개방됐다.<sup>26)</sup> 시는 서울대, 산림과학원과의 개방 합의에 따라 단체별로 숲속여행을 할 수 있는 숲 교실을 운영했다. 숲 해설사가 상주하며 수목원에서 자라는 470종의 고유종과 외래종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목원은 지난 2003년 12월 농대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서울농대 캠퍼스와 함께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철제 울타리 너머에는 공포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폐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있고 각종 쓰레기마저 쌓여 있어 도심 속 ‘비무장지대’를 연상케 한다.”며 조속한 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농대부지 전체를 수목생태공원으로 조성,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 12월 서울대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서울대 측이 학술용역결과를 토대로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10억 원과 공원 유지관리비로 매년 5억 원을 수원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사업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매년 유지관리비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방돼 경기상상캠퍼스가 됐고 수원연극축제가 열리는 등 주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가 됐다.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은 1907년경부터 조성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울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지도(서울대학교 수목원 홈페이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2007.7.9. 수원시 포토뱅크)

대학교 수목원 홈페이지에는 1907년 수원농상공학교(옛 서울농대)에 상수리 굴참나무, 회화나무, 리기다소나무 양버즘나무, 아까시나무, 칠엽수, 꽃개오동 나무(황금수) 등 수목 47과 101속 185종을 식재하고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다. 식물 유전자 연구를 위해 조성했다고 한다. 이곳 역시 그 때부터 나무를 심고 가꿨을 것으로 짐작된다. 1907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으므로 수목원과 캠퍼스 안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100년 넘는 할아버지 나무들이 수도 록하다. 수목원은 면적이 22.1ha(22만 1,197㎡)로 470여 종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어진 수목원이라 관람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

『e수원뉴스』(2019년 10월 18일) 김윤지 시민기자는 “입구에 있는 안내판 정도만 있어 마치 ‘아는 사람만 온다는’ 숲 같은 느낌이다. 대신 호젓하고 조용 히 가을 숲을 느끼고 싶다면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곳이다. 수원수목원은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서편은 산림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한정 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친목을 위한 단체일반인들에게는 동편은 출입을 허용 하지만 서편은 식물연구단체, 숲 관련 교육단체, 환경단체 중 사전에 예약한 단 체에 한해서만 입장할 수 있다. 개인관람은 동편을 이용하면 된다. 동편과 서 편, 길 하나를 두고 있을 뿐인데 두 곳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서편을 먼저 들어 가 보았는데 주로 작은 꽃나무들과 열매나무를 주로 볼 수 있다. 수국나무, 꽃 아까시나무, 밤나무 등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곳”이라고 수목원을 소개했다.

## \* 성매매집결지가 반듯한 거리로 환골탈태하다

수원시의 숙원이었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마침내 폐쇄됐다. 2021년 5월 31일 밤, 모든 업소가 자진해 문을 닫았다. 수원역 건너편에 자리 잡은 성매매집결지는 종사자들에게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수원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서는 치부(恥部)였다. 한 시인은 2018년 1월 28일 수원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시정신문 『e수원뉴스』의 칼럼에 이렇게 썼다.

“수원시민들 대부분은 수원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 주변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수원에서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연중 끊이지 않는 문화행사’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 ‘명산 광교산’ ‘집 근처의 공원’ ‘재래시장’ 등 수원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감추고 싶은 치부도 있다.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다. 집창촌이라고도 불리는

데 수원의 관문으로서 하루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요충지에 딱하니 버티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방문객들을 당황하게 한다.

성매매업소는 6·25전쟁이 끝난 후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이들로 인해 수원역 맞은편 매산로1가 114-3 일원은 도심의 흉물이 돼 버렸다. 저녁만 되면 흥등 아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의 성매매 여성들이 지나가는 남성들을 부른다. 예전엔 더 했다. 아예 모자나 가방을 빼앗아 골목으로 들어가는 일이 흔했다. 그걸 찾고 싶으면 따라 들어오라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씩 폐쇄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했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바로 맞은편에 형성된 성매매집결지는 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10여 년 전부터는 수원인근의 외국인노동자들까지 몰려 국제적인 흥등가가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염태영 시장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그동안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마침내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sup>27)</sup> 경찰의 역할도 컸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021년 3월 31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sup>28)</sup> 주민들 역시 ‘여성안심구역 지정’에 큰 역할을 했다. 같은 해 3월 29일 고등동·매산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안심거리조성 주민협의체’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여성안심구역 지정 청원서’를 전달하고,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했다. 그해 4월 15 일에는 민·관·경이 함께 성매매집결지 일원에서 ‘여성안심구역 지정’을 홍보



폐쇄되기 전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2013.5.9. 수원시 포토뱅크)

하고,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4월 20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함께 점검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수원시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성매매 집결지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TF는 성매매집결지에 임시 사무실을 얻는 등 ‘배수진’을 치고 정비 사업에 돌입했다. 업주 설득과 동시에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을 시작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를 조성하고,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써 2021년 말 개설됐다. 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팔달구 매산로1가 114-19 일원)

를 활용해 주민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5월 6일엔 거점공간의 활용·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거점공간 조성협의체’도 구성했다.<sup>29)</sup>

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생계비, 주거비,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2020년 8월에는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는 등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업주들도 호응하기 시작했고 자진 폐쇄·철수를 결정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한터연합회 수원지부는 2021년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업주들은 “5월 31일까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약속대로 5월 31일 밤 모든 업소는 문을 닫았다. 수원시와 경찰이 6월 1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합동 점검하고, 성매매업소 자진폐업 현황을 확인했지만 문을 연 업소는 없었다.<sup>30)</sup>

이 과정에서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6월 14일엔 일부 업주가 수원시청 앞에서 영업 손실 보상과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영업의 영업 손실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중앙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종합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집결지를 정비하고, 다른 형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 도심 슬럼화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순찰대를 운영



6월 1일 모든 업소가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2021.9.16. 수원시 포토뱅크)

하고, 인근 유흥업소·숙박업소로 성매매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집결지 내 건물 매매·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으며 보안등을 설치·정비했다.

2021년 10월 27일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 일원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도 철거됐다.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된 것이다.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제거돼 더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1999년 7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구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은 현재 소방도로 개설, 건축물 철거·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매산로1가 일대 소방도로개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고,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건물주들의 자체 정비도 이뤄지고 있어 폐쇄 이전 집결지 모습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집결지 내에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사업 2단계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도로개설구간 내 잔여지를 활용한 거점 공간도 조성됐다. 기존 건물 1개 동을 리모델링해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조성했다.

2021년 11월 2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성과보고회'에서 염태영 시장은 과거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발표부터 최근 결국 폐쇄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회고하며 "60년 넘게 철저히 분리됐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함께하는 힘으로 재탄생했다."고 감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산로1가 작은 골목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었다. 한없이 견고해 보이던 그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함께하는 힘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들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장섰고, 경찰은 전례 없이 강력한 순찰과 단속으로 가장 큰 힘이 돼 줬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우리는 함께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며 감격했다. 어둡고 부끄럽던 그곳이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거리, 곳곳에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공간, 누구나 찾고 싶은 수원의 명소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  
"안전위협, 소음피해, 재산권피해,  
도시디자인 걸림돌 ..."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2010년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수원시는 시민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는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거거고산(去去高山), 넘어야 할 산은 많고도 높았다. 얽히고 얽혀 해결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시는 우선 수원-오산 간 비상활주로가 폐지되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수원 비상활주로는 1983년부터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옆 1번 국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다. 수원 비상활주로는 전국 5개소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시권 내에 있다. 따라서 고도가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비상활주로를 해제되면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지역이 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돼 1조 원대의 경제개발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안으로 옮기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 실무회의 결과 총 200억 원의 공사비용은 경기



수원비행장 활주로(2018.5.25. 수원시 포토뱅크)

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각각 40:40:2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공군참모총장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드디어 2013년 수원 지역 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비행장 이전'이었다. 수원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인구(소음도 75웨클 이상)가 13만 5,000여 명(시 전체 109만 7,000명)에 달하고 고도제한 면적이 58.44km<sup>2</sup>(시 전체 121km<sup>2</sup>)에 이르는 등 도시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또 이에 피해 지역이 집중돼 있는 서수원권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학습권, 지역적 낙후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지역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sup>32)</sup>

민선 5기를 맞은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기술적 용역을 실시해 전문적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방부 주관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용역을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또 시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의 시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를 발족, 지원해 수원비행장 대책 마련과 이전방안 강구, 소음소송 판결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수원비행장 소음소송의 지원방안도 고민했다. 2010년까지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이 지방법원 18건, 고등법원 34건 등 52건에 이르고 소송인원만 23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불만이 급증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나 전국 군용비행장 주민연합회 등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음소송의 판결을 촉구하고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음관련 추가 소송의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와 공조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도록 노력했다.

시는 피해주민의 건강권, 학습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청력과 신경심리 추가 검사를 실시했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난청환자에게는 보청기를 지원했다. 다른 지역에 우선해 서수원권 소음피해학교에는 교육여건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수원시의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13년 6월 18일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인 수원·대구·평택·원주 등 23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이 골자이다.<sup>33)</sup>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주민 집회(『기호일보』, 2019년 11월 8일)

군지련은 “분단된 현실에 국가안보와 영공방어는 최고의 가치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법의 제정 없이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청원의 당위성을 밝혔다.

입법청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sup>34)</sup>

수원시는 이보다 앞서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물안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법안에 대해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군용비행기의 소음대책기준 '85웨클 이상'은 피해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점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내용이 반영되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및 보상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 노력한 결과 2019년 7월 15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군공항을 이전시키는 문제였다. 이를 위한 시민기구인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유치위원회', '수원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도 결성됐다.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수원과 화성의 경계지역에 걸쳐 6·25전쟁 당시부터 운용된 수원화성군공항의 신속 이전을 정부에 촉구하고 지역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활동을 해 왔으며 대구광역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합 활동도 병행해 왔다. 화성지역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의 이전을 요구하는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유치위원회, 수원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와 함께 노력했다.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2018.5.16. 수원시 포토뱅크)

군공항 이전 논의는 지난 2014년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이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됐다.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근거는 △비행기 이륙 방향이 바다를 향해 소음 피해 최소화 가능한 점 △국가가 소유 간척지가 대부분으로 거주민이 많지 않은 점 △서해안 바닷가와 연결돼 있어 시야가 넓은 점 △공역이 설정돼 있어 군공항 입지와 군사작전 적합성 충족 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국정 목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는 국방부 주관 5대 국정과제가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국방부 주관 5대 국정과제의 3번이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이다. 그 주요 내

용에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포함돼 있다. 국가의 시급한 주요 정책사업이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공군력 강화를 위해 수원비행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sup>35)</sup> “수원 군공항에서 해야 할 실무장 훈련을 도심지 안전성과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 비행장에서 하고 있다.”며 수원비행장이 군공항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 측의 반대가 심했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제시했다.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수도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포화상태라 여객 수요를 감당하려면 수도권에 공항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 신공항을 경기 남부권에 조성하고 활주로를 군공항과 공유하지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방부도 이 방안을 주목했다. 대구통합신공항의 기본구상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화옹지구 신공항의 밑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은 “화성에 조성되는 신공항도 대구통합신공항의 기본 설계를 적용하고 공사기간 5~10년 동안 국내의 행정절차를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고 토론 내용이 공개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적극 추진해 찬성과 반대 단체 사이 갈등요인도 사라질 것이다. 만약 경기남부 신공항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명된다면 이곳은 지방공항과 달리 인천공항과 연계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허브 공항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상생을 돕고 화성의 동서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투자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원역에 설치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홍보물(2021.2.9. 손예은 촬영)

장 회장은 “개인적으로 접촉한 화성시민 대부분은 국제공항 조성에 적극 찬성하면서 ‘언제 되느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국제공항유치운동이 화성지역 전체로 전파되고 공유되면 아마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로 전환되리라 예상한다.”면서 화성시가 오직 반대 논리만 홍보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국제공항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하고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정책 결정은 시장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해야 하고 시장은 이러한 통로를 열어줘야 하고 시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제공항에 대해 정보가 있는 화성시민 중 과반수 이상이 국제공항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

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유돼 대부분의 화성시민에게 전파된다면 화성시의 정책도 적극 추진으로 바뀌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현 군공항이 1954년 미군이 관할권을 이양한 후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협소한 부지와 노후한 시설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내세운다.<sup>36)</sup>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인 화옹지구에 민·군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조 원 이상 투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다.

또 종전부지의 약 2.7배 면적인 1,454만 5,454㎡(44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돼 소음 완충 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 수원시는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게 아닌 경기남부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 군공항 이전이 탄력받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경기남부 820만 도민과 해외 관광객의 공항이용 불편 해소 △경기남부 IT·반도체 등 대규모 수출기업의 첨단 화물운송 용이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공항 일대에 융복합 첨단산업·농수축산바이오 등 시설 조성 △국제테마파크·휴양관광 단지·전통시장 등 국제관광산업 활성화 △공항을 활용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발전 등이 기대된다.

수원시는 아주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민간공항 활성화 사전 검토용역’에서도 ‘경제적 타당성(B/C)’이 기준 값인 1을 크게 웃도는 2.043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화성시는 ‘수원시 이익을 위한 화성시 희생 강요’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중간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다. 수원군공항 문제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라 중앙정부가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확정·발표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6차 종합계획에는 △신공항 개발 및 기존 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별 방향 △증장기 공항 정책 추진 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 수요 예측 등으로 구성됐다. 장래 항공수요 추이와 주변 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를 감안,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방 공항시설 추가 개발·이전 방안을 증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계획안에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명시돼 수원군공항 이전을 바라는 수원시민과 이전을 요청하는 화성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는 같은 해 2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력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권 8개(성남·용인·평택·안산·수원·오산·이천·안성) 상공회의소장들도 지역 경제인들의 열망을 담은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화성 삼괴중고(화성시 우정읍) 총동문회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장 노조도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수원시민만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2월 2일 화성시 유앤아이센터에서 화성시군공항이전담당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병점, 진안, 황계, 동탄권, 서부권역 주민, 화성여성회,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화성시민 집담회’가 열렸다.<sup>37)</sup> 다음은 이날 상황을 전한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24일 기사 일부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병점1동에 살고 있는 김양순 병점 15통장이 병점지역에서 살면서 고충을 전했다.

“2005년 동부출장소 옆 아파트로 이사 왔다. 전투비행기 2대가 훈련하면 너무 시끄럽다. 어쩔 때는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정도다. 손녀딸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낮잠 자다 경기하는 수준이다.”

김양순 통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원한다. 김 통장은 “비행기 지나가는 환경은 같은데 이쪽은 보상해 주고 이쪽은 보상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라며 “시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수원군공항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허가는 왜 내주는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황계동에 사는 한현희 황계 2통장은 수원군공항 탄약고 바로 옆에 산다. 그는 소음 정도가 난청이 올 정도라고 말했다.

“평생을 살아왔다. 소음피해와 재산피해가 크다. 군공항 옆 동네라고 건축물을 마음 놓고 짓지도 못한다. 우리는 화성시민이 아닌가.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 변방에 산다고 화성시민 아니라는 취급받는 것 같아 속상하다.”

황계동에서 함께 집담회를 찾은 윤여일 씨도 말을 더했다.

“우리 마을에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못 들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 인간 이하의 생활, 절박하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황계동은 비행장 활주로와 직선거리 1,500미터도 안 된다. 우리도 화성시민이다.”

『중부일보』도 2021년 12월 9일 사설을 통해 “군공항 비행경로에 위치한 화성 동부권 5개 동 주민 2만 3,700여 명이 전체 피해주민 2만 4,500여 명의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화성시가 이전문제에 대한 반대 논리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물론 수원지역 피해주민도 5만 1,000여 명으로, 앞으로 수원시나 화성시가 이달 7만 4,700여 명의 피해주민 보상 접수처, 인력 신설을 완료할 계획인데 지자체별 군 소음 보상금 접수가 진행되면서 이전에 관한 다른 논란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됐든 화성시의 경우 이렇게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화산·진안·병점동 등 동부권 5개동이 수원 군공항, 양감면 등 남부권 일부 지역이 평택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 소음권에 포함돼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담보상태에 있는 이전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어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 '탄소중립'은 인류의 미래

'탄소중립(Net Zero)'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산화탄소 총량이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기상변이 일어나고 있다. 극심한 폭염과 해수면 상승, 가뭄, 식량부족 등이 계속되면 인류는 생존을 위협받는다.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탄소중립'이다.<sup>38)</sup>

'환경수도'를 표방한 수원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한 후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점검하며 감축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 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단계적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하면서 수원시는 기후변화를 대비하

는 선도도시로 자리 잡았다. 시민 토론회와 공감토크쇼 등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sup>39)</sup>

이런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2011년 대비 324%가 증가했으며, 친환경 건축 인증도 438% 늘었다. 공원면적은 2009년보다 157%가 늘었다. 수원시 내 공공청사는 92.1%가 LED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68%가 LED로 교체 완료됐다. 덕분에 2005년 수원시민 1인당 5.53톤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4.66톤으로 줄어 15.6%가 감축됐다.<sup>40)</sup>

온실가스 관리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성이다.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다. 즉 수원시는 초기부터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했는데, 이 결과치는 한국환경공단의 결과치와 비슷했다.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가 됐다. 2018년에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 인증이었고, 기초 지방정부로서는 최초였다.<sup>41)</sup> 그러나 수원시는 만족하지 않았다. 최종 목표가 '탄소중립'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21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주도했다. 7월 7일에는 전국 80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을 주도했다.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도 세웠다. 정확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도심형 전략이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단계적 모델 구현과 수소 연료 기반의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통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등 3가지 전략이 담겼다. 2050년 화석연료를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이

다. '2050년 수원시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과 석유류 등 화석연료의 사용률 0, 모든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모든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이어야 한다.

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그린인프라 △국제협력 및 시민의식 제고 △체계적 검증 및 연구 등 7개 분야의 과제를 도출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전력자립도·신재생에너지 발전율·그린수소 부담률 등을 높이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로 발표한 그린 뉴딜 전략과 연결된다. 수원시는 2020년 말 전기버스 100대를 도입한 뒤 2022년까지 사실상 시내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크게 감소된다.

수소차를 2022년까지 1,50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수소는 탄소를 대체할 궁극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달릴수록 청정해지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수소버스와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21년 3월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동부공영차고지에 하루 충전 용량이 250kg에 이르는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를 준공했다. 11월엔 전기버스 충전기와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도 구축했다.

이 사업은 시와 버스업체, 충전사업자,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했다. 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기 24기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2021년 11월 8일 수원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구축된 태양광·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 (2021.11.8. 수원시 포토뱅크)

하고, 전기버스 48대를 도입했다. 시는 앞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남·북부권에 수소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활발하다. 전문가 자문단을 확보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수원형 수소생태계 모델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이를 구체화한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택시, 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범도시사업 △산업단지 수소건설장비 시범보급사업 △소규모 가정용 연료전지 시범보급사업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sup>42)</sup>

수원시는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한 후 공공건물,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왔

다. 10년 연속 목표를 달성한 '우수기관',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선정됐다.

환경도시 수원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UN이 주관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32개국,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또 수원을 비롯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여한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도 함께 열렸다.

아·태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을 선정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며 상호 점점 △과학과 정책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강화 △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아·태 지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sup>43)</sup>

아울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2050 탄소중립 실현, 새롭게 채택될 '포스트 2020 생물 다양성 글로벌 프레임워크' 등은 밀접하게 연계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이며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공공의 우선 책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편 탄소중립 환경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정책은 타 기초자치단체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지수'에 따르면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75.12점보다 높은 78.89점을 받았다. 특히 환경에서 81.55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제3차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6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이 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수원시 기



수원시 환경교육한마당(2014.11.1. 수원시 포토뱅크)

후변화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배출전망치(BAU) 추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부문·연도별 수원형 감축 이행 방안 마련 △2050 탄소중립 비전·기후변화 적응 전략 등이 제시된다.

시는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 단위로 부문별 이행로드맵을 설정하기로 했다. 체계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같은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2025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7\mu\text{g}/\text{m}^3$  이하 달성을 목표로 '2021~2025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4개 분야 36개 단위 사업으로, 특히 가장 많은 배출원이 포함된 수송 분야 배출저감 사업에 2021년에만 400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했다.

수원시는 ‘환경교육도시’이기도 하다. 전국 최초로 2014년에 환경교육시범 도시를 선언했고 2018년부터는 찾아가는 이동 환경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환경교육시설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이다. 또 자연순환체험관, 유아숲체험원, 광고 물 홍보관, 광고산, 칠보산 등 지역 내 46개소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123개를 운영하며 환경교육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런 공로로 염태영 시장이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19 올해의 환경인상’을 받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2020년 6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7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동안 기후행동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하는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에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로 초청받아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sup>44)</sup>

이클레이(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환경문제에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84개국 1,220여 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메가 시티(거대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상임대표인 염 시장은 2022년 1월 24~2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UNOSD) 주최, ‘2021~2022 국제시장 포럼’에 참가해 수원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세계에 전파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 염 시장은 “수원시는 2011년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 구축했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이행상황을 평가한 후 국제사회에 ‘기후행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4월에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과 절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나머지 20%는 도시 숲과 같은 탄소흡수원을 활용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중심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행동을 이끌어 왔다.”며 “2020년 6월 모든 기초지방 정부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했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시켰다.”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의 노력을 세계에 알렸다.

## \* 몽골 '수원의 숲'에도 나무를 심자

몽골은 대륙발 황사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몽골의 사막화를 막는 것은 곧 황사를 막는 일이며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의 70%가량이 몽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피해규모가 22조원에 달하며 몽골에 조성하는 숲이 국가적인 황사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수원시는 몽골 사막에 숲을 조성해 황사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몽골정부, (사)푸른아시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튜브 아이막 에르텐 슝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까지 에르텐 슝 지역 100만㎡ 넓이의 땅에 포플러, 차차르간, 우흐린누드, 구주소나무 등 10만 4,770그루를 심었다. 당초 2020년까지 10년간 10만 그루를 심기로 한 것인데 9년 만에 사업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몽골은 급격한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의 90%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6만 9,000km<sup>2</sup>의 목초지가 사라졌고 식물종의 75%가 멸종했다. 최근 10



몽골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 수원시민들(2012.5.22. 수원시 포토뱅크)

년 동안 벌목으로 강물의 수위가 절반으로 줄기도 했다. 몽골 국토의 8%에 이르던 산림지역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6.7%로 감소했다. 북쪽 산림을 기반으로 3,800여 개 강과 3,500여 개의 호수가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약 850개의 강과 약 1,000개의 호수가 사라졌다.<sup>45)</sup>

산림지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과도한 방목 등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기후 변화이다. 수원시가 몽골에 '수원시민의 숲'을 만들기로 한 것은 국제 사막화 방지와 환경 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8년부터 수종을 수분 요구도가 낮은 소나무류 등으로 변경했으며 식재방법도 방풍과 빗물활용에 유리한 고랑식재를 도입했다. 그 결과 나무의 생존율이 높아졌다. 시와 (사)휴먼몽골사업단이 2019년 8월 조림지를 방문해 확

인한 결과, 2018년과 2019년 식재한 소나무와 포플리의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였다.

수원시와 (사)휴먼몽골사업단은 양묘장, 자동관수시스템 등 기반시설은 물론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 지원했다. 현지 주민들이 숲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실수 접목, 수목 관리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도 진행했다. 수원시와 (사)휴먼몽골사업단은 2020년에 사막화 방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실수를 활용한 상품화 등을 연계했다.

수원시민의 숲은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형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모범사례가 됐다. 2013년 5월 몽골 수원시민의 숲 식목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나도 몽골 수원시민의 숲 식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2013년 5월22일 밤 11시 30분 몽골 징기즈칸공항에 도착, 23~24일 이틀간 튜브아이 막 에르덴솜 지역에서 나무를 심었다.

에르덴 지역은 이전에는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사막화 방지를 위한 방풍림 조성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됐다. 이곳은 그야말로 황무지였다. 바람이 몰아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모래와 먼지가 천지를 지배했다. 점심 때 도시락을 나눠 줬는데 모래먼지 속에서 먹느라 고생했다. 고된 작업이라 배가 몹시 곱팠던 탓에 안 먹을 수도 없었던 '모래덮밥'이었다.(맹장 수술을 한 것이 다행이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고운 모래로 된 땅이라서 수월하게 구덩이를 팔 줄 알았는데

위낙 오랜 세월 다져진 터여서 돌이나 다름없이 딱딱했다. 곡괭이가 튕겨 나올 정도라면 민짚는가. 그럼에도 모두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열심히 땅을 팠다. 나무를 심고 물을 퍼서 날랐다.

그때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바트볼트 국장이 이렇게 말했다.

“5월 25일이 몽골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좋은 일을 하러 멀리 한국에서 몽골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오늘의 선행은 나중에 몇 배의 좋은 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뒤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수원시휴먼몽골사업단 최종한 이사장도 “몽골 에르덴솜 지역에 나무를 심는 일은 작지만 커다란 일입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10년 후면 몽골은 물론 주변 국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일행을 격려했다.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수원시휴먼몽골사업단과 울천동 주민, 자원봉사센터, 대학생, IBK기업은행 직원, 수원시 공직자 등 79명이었다. 에르덴솜 주민과 울란바타르에서 온 몽골 대학생들도 함께 했다. 몽골대학생들은 수년전부터 매주 주말마다 수원시민의 숲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은 인상 깊었다. (중략) ‘수원시민의 숲’이 조성되고 있는 에르덴에 ‘죤모드’라는 곳이 있다. 우리말로로는 100그루 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100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걸어서 다녀왔는데 예전에 나무들로 울창했다는 이 숲엔 이제 60그루 정도의 소나무만 남았다. 그나마 바로 뒤쪽엔 사막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머지않아 이마저 사라질 듯하다. 안타까움에 오후 작업에 더 힘을 냈다.<sup>46)</sup>

- 1) 「수원시 세계 최초 차 없는 불편체험 생태교통 메카 등극 1백만명 항공동 방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체 메  
사지」([http://www.lafent.com/sns/news\\_view.html?news\\_id=110756&mcd=H13](http://www.lafent.com/sns/news_view.html?news_id=110756&mcd=H13)), 『LAFENT 커뮤니티』,  
2013년 12월 3일.
- 2) 「100만명 체험, 수원생태교통 1일 폐막, 수원시 생태교통 최초 도전 세계 중심도시 각인」, 『E수원뉴스』, 2013년 9  
월 30일; 「차 없는 미래도시 도전…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롤모델 제시」, 『경기신문』, 2013년 9월 30일.
- 3) 「생태교통 100만명 체험, 사람 중심 교통체계 전환 시동, 수원시 생태교통 최초 도전 세계 중심도시 각인」, 『수원  
인터넷뉴스』, 2013년 10월 1일.
- 4) 「〈이슈 수원2013〉 ③생태교통 수원 2013」, 『NEWS1』, 2013년 12월 7일.
- 5) 「차 없는 미래체험 ‘생태교통 수원2013’ 개막」, 『NEWS1』, 2013년 9월 1일; 「생태교통 수원 2013」 화석연료 고갈  
된 미래 도시 모델 제시, 『중부일보』, 2013년 9월 3일; 「[사설] ‘생태교통 수원 2013’ 무모한 도전을 응원한다/ (2)  
수원 항공동 ‘차 없이 사는 도전’ 시작됐다/ (3) ‘수원, 전 세계 대표 생태도시 발돋움」, 『경기신문』, 2013년 9월 2  
일.
- 6) 「차 없는 미래체험 ‘생태교통 수원2013’ 개막(종합)」, 『NEW1』, 2013년 9월 1일; 「한 달 내내 차 없는 마을 … ‘사람  
중심 도시’ 수원 1위」, 『중앙일보』, 2013년 10월 11일.
- 7) 「사람과 도시의 재발견 생태교통 수원 개막」, 『광고신문』, 2013년 9월 1일.
- 8) 「생태교통 수원 2013」 화석연료 고갈된 미래 도시 모델 제시, 『중부일보』, 2013년 9월 3일.
- 9) 「차 없는 미래체험 ‘생태교통 수원2013’ 개막」, 『PRESSbyPLE』, 2013년 9월 1일.
- 10) 「수원서 열리는 세계 친환경 이동수단 경연, 미리 보는 수원시 항공동 생태교통 페스티벌, 9월 한 달 항공동 차  
없는 불편체험 인류 미래 지표 제시(<https://blog.naver.com/hdd1212/90174006381>)」, 2013년 5월 28일; 「생  
태교통 수원2013 ‘의미 있는 불편체험」, 『인천일보』, 2013년 7월 10일; 「자동차 없이 한 달 살기 항공동 주민 리  
얼리티쇼 ‘불편체험’ 함께 해봐요」, 『경기신문』, 2013년 7월 4일.
- 11) 「9일 열리는 ‘생태교통 수원2013’ 미리 엿보나…」, 『중부일보』, 2013년 7월 15일.
- 12) 「〈인터뷰〉 콘라드 오토 집머만 ‘생태교통 수원 2013’ 총감독」, 『연합뉴스』, 2013년 9월 4일.
- 13) 「염태영 수원시장, 청주시의회 ‘자치분권 의정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자치분권 의정연구회 소속 의원 8  
명, 수원화성 일원 견학」, 『건국경제』, 2020년 11월 7일.

- 14) 「자동차 없이 한달…수원 생태교통을 향해 직진」, 『한겨레』, 2013년 11월 22일.
- 15) 「[특집] 수원시, 도시를 위한 생태교통과 생태보전은 시민의 삶」, 『KSPNEWS』, 2020년 5월 26일;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시」를 위한 생태교통과 생태보전, 『산경일보』, 2020년 5월 26일; 「수원시 생태교통 · 보전으로 환경도  
시 짓는다」, 『경기일보』, 2020년 5월 26일.
- 16) 「생태교통수원2013 열린 항공동 ‘트렌디한 문화거리로 변화」, 『매일일보』, 2020년 5월 26일.
- 17) 「수원 도심에 여의도 규모의 수목원 조성…세계적 환경도시 우뚝, 수원의 생태랜드마크 일월수목원 · 영흥수목  
원 내년 말 개장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도시 이은 세계적 생태환경 도시 완결판」, 『UPI뉴스』, 2021년 8월 20  
일.
- 18) 「수원 도심에 축구장 14개 넓이 ‘수원수목원’ 조성」, 『연합뉴스』, 2020년 12월 21일.
- 19) 「수원시, 수원수목원 개장 준비 ‘순항」, 『뉴스핌』, 2020년 5월 12일.
- 20) 「수원 도심에 여의도 규모의 수목원 조성…세계적 환경도시 우뚝」, 『UPI뉴스』, 2021년 8월 20일.
- 21) 「수원시, 수원수목원 개장 준비 ‘순항」, 『뉴스핌』, 2020년 5월 12일.
- 22)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  
례사업’ 방식 도입」, 『중부뉴스』, 2019년 8월 22일;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 『투데이경제』,  
2019년 8월 22일; 「수원 영흥공원개발사업, 3수 끝에 환경영향평가 통과」, 『서울신문』, 2019년 8월 22일;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로컬경기』, 2019년 8월 22일.
- 23)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시-주민 협의 타결 후 재개-축구장 이전 등 지역주민 요청 반영.. 하반기 착공」, 『수원  
일보』, 2020년 3월 15일.
- 24) 「‘극적 타결’ 수원 영흥공원 조성, 7월중 첫삽,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대상 최대 난관 체육시설 갈등’ 넘어 시,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 속도」, 『경인일보』, 2020년 5월 4일.
- 25) 「수원 도심에 여의도 규모의 수목원 조성…세계적 환경도시 우뚝」, 『UPI뉴스』, 2020년 8월 20일.
- 26) 「수원 도심에 여의도 규모의 수목원 조성…세계적 환경도시 우뚝」, 『UPI뉴스』, 2020년 8월 20일.

- 27)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마침내 실현됐다」, 『세계타임즈』, 2021년 6월 2일; 「수원시, '홍등은 꺼졌다'...청소년들 통행 "OK"」, 『한스경제』, 2021년 6월 2일;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마침내 실현됐다」, 『수원신문』, 2021년 6월 3일;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마침내 실현됐다.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종합 정비추진계획」 수립. 경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큰 역할... 지속해서 단속」, 『경기신문』, 2021년 6월 3일.
- 28)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60년만에 '완전 폐쇄' 이뤘다」, 『중도일보』, 2021년 6월 4일.
- 29) 「수원시 오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마침내 실현, 5월 31일 밤, 모든 업소 자진 폐쇄... 수원시, 6월 1일 경찰과 합동점검」, 『경기데일리』, 2021년 6월 2일.
- 30)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마침내 실현되다」, 『일요서울』, 2021년 6월 2일.
- 31) 「수원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문제 해결 위해 총력」, 『뉴스와이어』, 2010년 7월 19일; 「수원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문제 해결 위해 총력」, 『경기eTV』, 2010년 7월 19일.
- 32) 「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문제 해결 총력」, 『세종교육신문』, 2010년 7월 20일.
- 33) 「군지런,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국회 입법 청원」, 『대전일보』, 2013년 6월 19일.
- 34)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법안입법 청원서 국회제출\_수원시」, 『E 수원뉴스』, 2013년 6월 19일.
- 35) 「김진표, '수원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 『중부일보』, 2017년 2월 9일.
- 36) 「해묵은 갈등 풀자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문제 국방부가 나서라」/ (2)- [해묵은 갈등 풀자] 군공항 이전 신경전... 화성 "차라리 폐쇄" vs 수원 "정부 역할 필요」, 『중부일보』, 2018년 6월 27일.
- 37) 「"수원군공항 근처에서 산다는 것은..."」,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14일.
- 38) 「"환경수도" 수원시, 2050년 화석연료 '제로' 선언」, 『Moneys』, 2020년 7월 28일; 「"탄소중립도시" 선도하는 환경수도 수원」, 『새수원신문』, 2020년 7월 28일.
- 39) 「염태영 수원시장,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가장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GE-경기경제신문』, 2020년 7월 28일; 「"온실가스 감축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환경수도 수원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해 감축목표 구체화」, 『CNBNEWS』, 2020년 7월 28일;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환경수도 수원시 기후위기를 관리한다」, 『경기중앙신문』, 2020년 7월 28일.

- 40)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환경수도 수원시」, 『KPN한국시민뉴스』, 2020년 7월 28일.
- 41) 「"환경수도" 수원시, 2050년 화석연료 '제로' 선언」, 『Moneys』, 2020년 7월 28일.
- 42) 「"환경수도 수원시" 기후위기 관리 탄소중립도시 선도에 앞장」, 『매일일보』, 2020년 7월 28일.
- 43) 「염태영 시장 "아·태 환경장관·지방정부 회의 정례회"」, 『전국매일신문』, 2021년 10월 5일; 「아·태 환경장관회의와 아·태 지방정부 정상회의 정례회 개최 제안」, 『브릿지경제』, 2021년 10월 5일; 「아·태 환경장관회의-지방정부 정상회담 함께 개최」, 『신아일보』, 2021년 10월 5일.
- 44) 「염태영 수원시장, 이클레이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에 한국 지방정부 대표해 토론 참여」, 『서울매일』, 2020년 10월 16일; 「염태영 수원시장, 이클레이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에 한국 지방정부 대표해 토론 참여」, 『경기ETV뉴스』, 2020년 10월 16일; 「[세계로컬핫뉴스] 염태영 시장, 이클레이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에 한국 지방정부 대표해 토론 참여」, 『세계타임즈』, 2020년 10월 15일.
- 45) 「수원시, 몽골 에르덴 사막서 나무심기 활동」, 『뉴스리더』, 2012년 5월 22일.
- 46) 「수원시민들,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다」, 『e수원뉴스』, 2018년 6월 4일.



## \* 시민이 주인, 수원화성문화제

1964년 10월 15일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 기공식이 개최됐고, 이날을 기념하여 ‘수원시민의 날’이 지정되어 ‘화홍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타지방과 다를 것이 없었던 이 축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확대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재탄생한 것은 민선 1기 심재덕 시장 때인 1996년이였다.

심 시장은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사업을 펼쳤는데 화홍문화제도 큰 도약을 했다. 기존의 행사 외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을묘년 1795년에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인 현릉원 참배를 위해 진행된 대규모 왕실 행차를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 재현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1975년 제13회 화홍문화제 때부터 복원·재현되기 시작했다. 1965년 제2회 수원시민의 날에 수원중고등학교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를 재현한 약식퍼레이드를 펼친 적이 있었다.<sup>1)</sup>

당시 능행차 복원을 주도한 이흥구는 “1975년 제13회 화홍문화제(현 수원화성문화제) 행사를 수원시 공보실이 계획하고 추진했다. 수원시내 각급 기관장 회의석상에서 매년 실시되는 화홍문화제가 잡다한 가장행렬과 시민들의 의례적인 놀이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 지역의 특성과 전통적 의미를 갖는 문화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의를 거듭하게 되었다. 수원에 특색 있는 전통적 문화행사 정착을 위해 여러 학교 교장단에서는 당시 13대 수원시장(이재덕)에게 건의했고 이를 담당할 지도자로 수년간 학교에서 연극을 맡아 지도하여 공연한 바 있는 나를 추천하게 됐다.”고 밝힌다.

1975년 수원의 전통성을 살리고 정조대왕의 유덕을 기리는 효원의 도시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이재덕 수원시장, 안익승 예총지부장, 수원시 김영권 공보담당관, 수성고등학교 이흥구 교사 등이 KBS 이서구 극작가를 초빙해 모임을 갖고 논의 끝에 능행차의 핵심 부분만 재현하기로 했다. 이후 8개 고교 교장단의 추천을 통해 수원고등학교, 수원농림고등학교, 매향여자상업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에서 학교당 60명씩 240명이 참가하기로 했다. 다음해부터는 수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맡아서 했다. 1978년엔 인천에서 열렸던 제5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형의 능행차 행렬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하면서부터이다. 원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의 반차도에 따르면 이 행사에 동원된 사람은 약 5,661명이며 말이 1,417필이었다. 현재 재현되고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는 4,000명 정도가 조선시대의 의상과 소품들을 그대로 착용하고 출연하여 당당한 위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이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하고 있다.(2017.9.23. 수원시 포토뱅크)



한강 배다리(주교, 舟橋)를 거쳐 노들섬에 이르는 구간을 지나는 정조대왕 능행차(2017.9.23.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 일부 구간에서만 이뤄지던 능행차는 2016년 서울시가 참여,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연무대까지 구간 47.6km를 처음으로 공동 재현했다. 이후 화성시와 경기도까지 합류하면서 창덕궁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용릉까지 59.2 km 구간에서 이어지는 전 구간을 완벽에 가깝도록 재현했다. 수원·서울·화성시가 행사 홍보·운영 등을 함께하면서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행사가 추진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2021년과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으로 능행차 재현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18년 능행차 재현에는 연인원 5,096명, 말 690필, 취타대 16팀이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행렬을 펼치기도 했다. 그해 10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창덕궁 앞에서 능행차 안전과 무사 복귀를

기원하는 출궁 의식이 거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2018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시작됐다.

능행차 행렬은 광화문, 승례문, 서울역 광장, 배다리를 거쳐 노들섬에 이르는 구간으로 이어졌다. 노들섬에서 정재(呈才) 공연, 무예시범 공연 등을 한 후 노들나루공원에서 다시 행렬을 시작한다. 첫날 행렬은 저녁 6시 시흥행궁에서 마무리됐다. 7일 오전 9시 금천구청에서 다시 시작된 능행차 행렬은 안양 만안교, 안양역을 지나갔다. 만안교에서는 '안양 만안담교놀이'·'안양현감 정조 맞이', 안양역에서는 '자객 대적 공방전'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오후엔 수원 구간 행렬이 시작됐다. 의왕시를 거쳐 수원 노송지대에 도착하자 '정조대왕 수원 입성 환영식'이 열렸고 노송지대에서 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까지의



장안문에서 능행차를 맞이하는 염태영 시장(2018.10.7. 수원시 포토뱅크)

구간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백미였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안문·화성행궁 일원에서 거리 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해외 자매도시 퍼레이드, 조선 백성 환희마당, 사자탈춤, 깃발무, 대북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안문 로터리에서는 '수원유수 정조대왕 맞이' 행사가 열렸다.

같은 날 오전 9시 화성행궁에서 또 하나의 능행차 행렬이 시작된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화성행궁에서 용릉까지 11.6km 구간에서 이어지는 행렬이다. 대왕교동, 화성시 현충탑을 거쳐 용릉에 도착했다. 용릉에서는 화성유수가 정조대왕을 맞이했다. 현릉원 궁원에서는 제향(祭享)도 재현됐다. 노들섬, 시흥행궁, 안양역, 행궁광장, 용릉 등 능행차 행렬이 멈춰서는 주요 지점에서는 격

쟁(擊錚)이 재현됐다. 왕이 거동할 때 징·팽과리·북 등을 친 다음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1996년 이후 수원화성문화제에 시장거리축제, 수원갈비축제(후에 한·중·일 음식축제로 변경), 자매도시 음식문화 축제, 과거시험 재현, 야조 등이 포함되면서 행사는 풍성해지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어 1997년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1999년 축제명칭은 수원화성문화제가 됐다. 아울러 1776년 화성이 준공된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 10월 10일 무렵을 행사 날로 정했다.

축제 기간 중엔 어딜 가나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인근 상가와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 잔칫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절로 흥이 생겨 잠시라도 일상의 이런저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능행차에 앞서 도로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연(2018.10.7. 수원시 포토뱅크)

축제는 역사와 지역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힐링을 선사한다. 또 관광객들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특히 축제를 야간에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수원에서 체류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실제로 행사 기간 전국에서 평균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데, 2018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485억 원에 달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에서 연속해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축제 콘텐츠가 풍부하고 방문객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표 축제로 성장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2018년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을 받았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정당성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sup>2)</sup>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수원화성문화제는 변화를 맞이했다. 관변행사에서 탈피, 수원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적인 분위기를 높인 것이다.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수원화성문화제의 화려한 성공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이뤄낸 협치의 결과물이다.

관 주도의 행사로 진행됐던 수원화성문화제는 2017년부터 시민이 주도해 축제를 이끌었다.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시민이 중심이 된 '완벽한 시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축제가 끝난 뒤 열린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종합평가보고회'에서 전문평가단은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전시 위주 행사에서 체험·참여 중심행사로 탈바꿈했다."면서 "특히 개막연 '화락'은 시민들이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전문평가단은 또 "축제가 수원시 곳곳에서 질서 있게 진행됐



수원화성문화제 마지막 날에 열리는 대규모 야간군사훈련을 재연한 '야조(夜操)'(2018.10.7. 수원시 포토뱅크)

다."면서 "기획력, 조직력, 집행력을 집결시켜 수원시의 저력을 잘 보여 준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주도 축제'로 치러졌다는 것이다. 그해 3월에 출범한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기부금 모금 홍보 등으로 활동하며 수원화성문화제 준비를 주도했다.<sup>3)</sup>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분과 △시민참여 홍보분과 △어린이·청소년·청년분과 △재정분과 △음식 거리 기획·운영분과 △거리 질서 안전분과 등 6개 분과 위원 254명은 20여 차례에 걸쳐 분과회의를 열어 축제를 준비했다.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시민추진위원회가 제안한 프로그램이 10개, 시민공모로 선정한 프로그램 5개 등 15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와 관련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글을 게시, “시민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돼 1년여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들에게 ‘수원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플래시몹을 보여 주신 분들, 행사장 쓰레기를 치운 청소년들, 교통안내를 해 주신 봉사자들,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해 주신 분들, 끝까지 축제를 즐겨 주신 분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엔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민 주도형으로 변화했다. 추진위원회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주도형 축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프로그램분과, 어린이·청소년분과 등 6개 분과, 위원 35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기부 캠페인 등을 담당하며 수원화성문화제 준비를 주도했다.

2018년 행사의 경우 수원화성문화제는 2017년 46개 프로그램보다 14개 늘어난 6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시민 공모로 선정한 시민 주도 프로그램은 21개로 지난해(15개)보다 6개 늘어났다.

2019년엔 수원화성 화서문과 장안공원에서 시민 제안 및 공모로 선정된 15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화서문 무대에서는 수원화성 축성 준공을 기념하는 ‘수원화성 낙성연’, 판소리 음악극 ‘정조가’, ‘2019 Again Joseon’, ‘오래된 미래’, ‘달빛가요제’ ‘석채화 수원화성 그리기’, ‘정조 예술로 품다’, ‘수원화성 축성체험’, ‘조선의 거리 악사’ 등은 시민이 주인이 된 축제의 모습을 잘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 수원 대표축제들, 시민 삶의 수준을 높였다

### ●● 수원연극축제

수원연극축제는 1996년 수원화성축성 200주년을 기념해 화서문에서 열린 수원화성국제연극제로부터 비롯됐다.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수원에서 다양한 극단의 연극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년 해외 공연팀도 초청해 실험적인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원연극축제는 화서문, 수원천, 장안공원, 연무대, 만석공원, 행궁광장 등 수원의 역사와 유적이 있는 곳에서 열렸다. 2014년까지 수원화성국제연극제라는 이름으로 열렸다가 2015년부터 수원연극축제로 행사 명칭을 바꿨다. 그리고 2018년 22년째부터 장소를 경기상상캠퍼스 숲속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다. 접근성이 높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역사문화 공간인 행궁광장을 두고 굳이 교통사정도 좋지 않은 외진 곳으로 행사장소를

옮겼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고민 끝에 수목이 우거진 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로 정했다고 한다. 숲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관객들이 더위를 피할 시원한 그늘을 주기 때문이다. 이 해부터 ‘숲속의 파티’를 콘셉트로 잡고 경기상상캠퍼스로 무대를 옮겼다.

수원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15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것이다. 그 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국내 14개 팀과 해외 6팀이 참여해 총 37개 작품, 89회 공연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소통했다.<sup>4)</sup> 『한겨레』는 2018년 5월 28일 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수원연극축제에 15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는 등의 ‘대박’을 냈다.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경기상상캠퍼스(옛 서울농대 캠퍼스)에서 열린 ‘2018 수원연극축제’에 1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원화성행궁 등에서 열린 연극축제의 관람객 4만 명에 견줘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공연 무대가 처음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옛 서울농대로 옮기면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던 애초의 우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나무와 숲이 울창한 자연 속 15개의 공연장에서 86회 열린 국내외 공연을 보기 위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경기신문』도 2018년 5월 27일 ‘성공 거둔 숲속의 파티 수원연극축제’라는 사설로 이 행사를 극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제22회 수원연극축제는 대성공이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옛 서울대 농대)에서 ‘숲 속의 파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원연극축제를 비롯, 지역 축제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명백하



2018년 열린 수원연극축제 숲속의 파티(2018.5.25. 수원시 포토뱅크)

게 보여졌다. 행사장인 도심 속의 숲 경기상상캠퍼스에는 연일 엄청난 인파가 몰려 밤늦게까지 공연을 즐겼다. 나이든 부모와 어린아이를 동반해 편안하게 돛자리에 앉은 가족과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나무에 기대 연인, 삼삼오오 모여든 생기발랄한 청소년들 … 초여름의 숲속 행사와 잘 어울렸다.

숲속에는 별다른 무대를 설치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공연장을 비롯, ‘쌀의 독백’ 등 전시 작품을 곳곳에 마련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또 푸드 트레일러와 푸드 트럭, 행사장 인근 서둔동 지역 주민들이 마련한 먹거리 공간도 들어섰다. 교통이 불편한 서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온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준비했다. 주최 측의 배려가 돋보였다. ‘인간모빌’ 등 해외공식참가작 6개 작품, ‘불의 노래’ 등 국내 공식참가작 14개 작품, 수원연극한마당 등 시민

프린지, 시민체험 프로그램 숲 속의 작은 무대 '나도 예술가' 등 총 37개 작품, 89회 공연이 열린 다양하고 알찬 이 행사에 관람객들이 몰려든 것은 당연했다. '이유 있는 성공'이었다. 정확한 관람객 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매일 2만 명 이상은 이곳을 찾았을 것이다. 서울대 농대가 이전한 뒤 조성된 경기상상캠퍼스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숲과 어우러진 공연은 한마디로 환상적이었다. 숲에 어둠이 내리자 이곳저곳에 조명이 들어오고, 사람과 자연, 예술이 하나가 되어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처음엔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외진 곳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에 과연 관람객들이 얼마나 올까' 하는 걱정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화성행궁 광장 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있었다. 예상되는 무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장소를 이곳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과는 예상 밖으로 만족스러웠다. 축제의 전형을 보여줬다. 나무랄 데 없었다. 그야말로 '숲속의 파티'였다. 관객들은 숲 속에서 어머니의 품에 든 듯 편안했고 행복했다. 한동안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 '막대한 예산 대비 성과 없는 행사'란 비난을 받았던 수원연극축제의 환골탈태가 기쁘다.

'숲속의 파티'를 부제로 정한 2018년 수원연극축제는 예년과 다른 점이 많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주(主) 공연장 역할을 했던 수원화성 일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축제를 열었다.<sup>9)</sup>

경기상상캠퍼스는 2003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캠퍼스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긴 시간 방치됐다가 2016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단장, 시민에게 개방됐다. 숲과 나무 잔디밭이 있는 상상캠퍼스 곳곳에서 열린 연극제는 대형무대

공연, 개·폐막식 등 의례적 행사는 지양했다. 따라서 소풍을 오듯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곳곳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 쉬다가 공연을 보며 여유롭게 축제를 즐겼다. 공연 내용도 다채로웠다. 무대공연은 물론이고 공중퍼포먼스, 거리극, 인형극, 서커스, 뮤지컬 등 공연 형태도 다채로웠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연극인 중심의 시민프린지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시민프린지 페스티벌'은 아마추어, 전문 공연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이는 축제로서 연극축제의 흥미를 더했다. 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수원연극축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 행사가 적었던 서수원 지역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있었다.

수원문화재단이 리서치 전문업체인 포인트맥리서치에 의뢰해 5월 25~27일 수원연극축제 방문객 682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8.6%가 내년에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관람객 10명 중 8명이 내년에도 다시 찾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85%로 높게 나타났다.

윤종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은 『경기일보』에 발표한 글에서 "이전 축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었고 도심이나 공원 부지에서 열리는 타 연극제나 거리예술축제와는 차별성 있는 축제의 풍경을 연출했다."고 칭찬했다. "수원연극축제가 과감하게 행궁을 버리고 숲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많은 예술가들과 흥미로운 공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얻었다. 행궁광장에서는 부각되지 않던 수원연극축제의 차별적인 노선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미래가 상상되는 과감한 시도였고 성공적인 모험이었다. 덕분에 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지루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상상으로 가득한 연극의 세계를 만났으며 숲속에서 일렁이



2019년 열린 수원연극축제 '숲속의 파티'(2019.5.25. 수원시 포토뱅크)

던 예술의 향에 취해 숲을 거닐었다. 이런 성공적 재시작을 기반으로 숲속의 공간적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원연극축제만이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예술적 실험들을 지원하고 숲속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밀담과도 같은 보다 많은 극형태의 공연들이 수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썼다.

이듬해인 2019년에 열린 제23회 수원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도 성공을 거두었다. 주최 측은 지난해보다 관람객 6만 명이 증가한 21만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평했다. 축제에는 국내 신작 4작품을 포함해 총 17개 작품(국내 11개 작품, 해외 6개 작품)이 총 54회 공연됐다. 독일 극단 아누의 '위대한 여정', 동족상잔의 비극인 킬링필드의 아픔을 딛고 예술적으로 풀어낸 캄보디아 파래서커스의 '석화', 벨기에 씨르크의 '위대한 카페' 등은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국

내 작품인 단디의 '달의 약속', 정가학회의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도 관심을 끌었다. 아쉽게도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 행사는 취소됐다.

### ● 수원 문화재 야행(夜行)

수원 문화재 야행은 이제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원 문화재 야행은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가 된 '행리단길'(행궁동)을 명소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행궁동 생태교통마을은 예전에 인적이 끊긴 노후한 마을이었으나 2013년 '생태교통 수원 2013'에 이어 수원 문화재 야행이 이 일대에서 펼쳐지면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골목마다 카페와 음식점이 속속 들어섰다. 수원의 새로운 명소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수원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재가 밀집된 전국 곳곳에서 야간형 문화 향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첫 번째 수원 문화재 야행은 2017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렸다. 3일간의 축제에 19만 2,475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는 저녁 6~10시 방문객 기준이므로 행사가 밤 11시까지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총 관광객 수는 2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SNS 인스타그램의 '수원야행' 태그만 해도 2,000건에 육박했다.

수원야행은 야경(夜景)·야화(夜畵)·야로(夜路)·야사(夜史)·야설(夜設)·야식(夜食)·야시(夜市)·야숙(夜宿) 등 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중 야식과 야로는 사전 예약을 해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수원



2017년 수원 문화재 야행(2017.8.12. 수원시 포토뱅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시작한 후 곧바로 매진됐다.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원문화재단의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정도이다.

첫해 수원야행 때 인기를 끈 곳은 화서문·장안문·화홍문으로 이어지는 수원화성 성곽길을 따라 펼쳐진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 미디어파사드, 모래 예술인 샌드아트 공연, 수원화성을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만든 ‘형형색색 수원화성’ 등이었다.

‘수원야행의 성공 …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제목의 2017년 8월 16일 『경기신문』 사설에는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해가 진 밤에 선선한 바람을 벗 삼아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의 표정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중략) 야간 경관을 구경하면서 역사를 느끼고, 공연과 영상을 관람하는 동시에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것

이다. 여기서 수원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마도 야숙이 아닐까 싶다. 수원은 수도 서울과 가깝고 경주나 전주 등 주요 관광지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어렵고 대부분 화성행궁이나 화홍문 등 수원화성의 중요시설만 주마간산 식으로 돌아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이 수원시 관광 관련 파트의 최대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수원야행을 하면서 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시민·관광객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사전 예약을 해야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예매시작 직후 매진됐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이유가 있는 행사다.”라고 수원야행의 성공을 알렸다.

2018년 수원 문화재 야행은 2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행사는 8월 10일과 11일 밤 성 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수원화성행궁 인근에서 열렸다. ‘행궁 그리고 골목길, 이야기 속을 걷다’가 주제다. 수원화성행궁, 화령전, 아름다운 행궁길, 신평동 일원의 아름답게 장식된 골목길을 걸으며 문화재가 들려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경험하는 감성체험이 주를 이뤘다. 화성행궁 광장 내 산대무대에서 열린 무예 24기 특별 야간 공연 ‘장용영의 후예들’, 전통연희 ‘수원야행 산대놀이’도 관람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화성행궁·화령전, 수원전통문화관·수원한옥기술전시관·수원아이파크미술관·수원화성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밤 11시까지 관람할 수 있었다. 화성행궁과 문화시설을 캔버스 삼아 빛으로 작품을 만드는 미디어아트(매체 예술)도 흥미로웠다. 화성어차, 수원화성 자전거 택시, 플라잉 수원 등 수원화성을 구석구석 감상할 수 있는 탈거리도 밤 늦게까지 운행됐다.<sup>6)</sup>

두 번째 야행은 9월 7~8일 ‘수원화성, 아름다움을 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화홍문 광장, 북동포루, 북동적대, 방화수류정,



수원 문화제 야행에 몰린 관광객과 시민들(2017.8.12. 수원시 포토뱅크)

용연, 수원전통문화관 등에서 열렸다. 특히 화홍문 광장에서 펼쳐진 '신명나는 산대놀이 한마당', 용연에서 펼쳐진 '워터미디어 쇼', 동북적대와 동북포루 사이에서 펼쳐진 '성곽길 잔디밭 콘서트'에 많은 관객이 몰렸다.

참가 시민들은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건축물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을 밤 빛 아래에서 감상하며, 흥겨운 전통놀이 공연에 신명이 나고, 과거의 현재가 공존하는 성곽길을 따라 역사의 순결을 향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 언론은 “성 안 동네인 행궁동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해방구’가 됐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음에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틀간 행사가 진행됐다. 인근 카페와 통닭거리, 식당, 편의점 상인들은 밀려드는 손님맛이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소개했다.

2019년 ‘수원야행 한여름 밤의 축제’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렸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미디어아트, 정조대왕 거동 재현공연 등 화려한 볼거리를 관람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수원화성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름밤 즐거움을 만끽했다. 특히 이 해는 지역 주민, 행궁동·남문 로데오시장 상인, 예술인 등으로 이뤄진 ‘지역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해 의미를 더했다.<sup>7)</sup> 수원문화재단은 13만여 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관람객이 2018년 보다 감소한 것은 무더위가 지속한데다 일요일 오후에는 거센 바람에 비까지 내린 탓이다.

2020년 네 번째 수원 문화제 야행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밤빛 품은 성곽도시’를 주제로 수원화성행궁과 행궁광장, 행궁동 일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이 모일 수 있는 공연, 체험, 마켓 등의 행사는 취소하고 영상, 미디어아트, 전시 등 워킹스루(Walking thru) 형태의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선보인 온라인 라이브 야행과 GPS를 기반으로 한 나홀로 투어가이드 ‘행궁 소리길 프로젝트’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sup>8)</sup> 주최 측은 “행사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올해 야행은 코로나19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시도했다.”며, “관람객들도 안전요원들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2020년 수원 문화제 야행은 문화재청 주관 2020년 지역 문화제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으로써 수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야행 도시’가 됐다.

2021년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 문화제 야행’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행궁동, 공방길 일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해 행사가 진행됐으며 관람객이 모이는 공연·체험·마켓 등 대면

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걸으며 관람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sup>9)</sup> 2021년은 ‘기억’을 주제로 수원화성 안 마을에 살던 이웃들과 그들의 터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원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대부분 비대면 방식이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기억의 찰나 225 아카이브 전시’를 화성행궁 광장에서 개최했다. 산업화로 인해 수원에서 사라져 간 직업들과 그것을 생업으로 살아왔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라져 가는 직업에 대한 기억’,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수원독립운동가, 그들을 기억하라’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수원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2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에도 열린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 ● 수원재즈페스티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광고호수공원에 돛자리를 깔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는 문화피크닉...” 이것이 수원재즈페스티벌이다. 수원재즈페스티벌은 2014년부터 매해 가을 광고호수공원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수원의 가을밤을 선율로 수놓고 있다. 정상급 재즈보컬리스트와 연주자들이 출연, 수원시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행사로 자리 잡았고 매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매년 수만 명 인파가 몰리는 수원재즈페스티벌(2018.9.7.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재즈페스티벌의 첫 행사 명칭은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선정 기념 광고호수공원 재즈페스티벌’이었다. 광고호수공원이 2014년 대한민국 경관 대상에 선정되자 이를 기념해 축제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경관대상은 대한민국의 우수 경관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2014년 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 광고호수공원이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다.

이 음악회는 첫해부터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다. 2014년 8월 30일 저녁에 열린 재즈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재즈음악의 1세대인 류복성이 이끄는 류복성 라틴 재즈 올스타즈를 비롯해 이정식 밴드, 웅산 밴드가 나와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들려 줬다. 본 공연보다 1시간 앞서 마련되는 스윙댄스 콘서트에서는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라스 밴드 브라소닛과 스윙댄서 김잔디가 함께 꾸미는

무대가 펼쳐졌다. 그런데 2만여 인파가 몰려 열광한 것이다.

이에 고무된 주최 측은 재즈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했다. 이듬해부터는 행사기간도 이틀로 늘렸다. 특히 2016년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음악분야의 스타들이 함께 했다. 이에 온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꿈의 음악축제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2016년엔 수플러스 라틴재즈퀸텟, 신현필 With Que Pasa,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과 함께하는 신관용 빅밴드 13인조의 재즈공연이 펼쳐졌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로 유명한 대한민국 최정상 드러머 김희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인 이생강과 2016 여우락페스티벌에서 보여줬던 국악과 재즈의 감동적인 협업공연을 차세대 소리꾼 송길화와 함께 다시 한 번 선보였다. 한상원 펑크재즈 9인의 공연, 힙합씬의 대표주자 래퍼 산이가 함께하는 재즈와 힙합의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펼쳐졌다.

다음 날엔 드러머 한웅원의 한웅원프렌즈, 쿠마파크재즈밴드의 퓨전재즈, 정통 재즈의 최정상급 스타인 필윤, 재즈보컬 조아해,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의 재즈밴드, 재즈 피아니스트 민경인과 김도향의 협업공연을 선보였다. 대미는 대한민국 재즈 디바 웅산이 장식, 공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당시 공연을 지켜본 『e수원뉴스』 김연수 시민기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인 죽향 이생강(84) 명인의 대금소리에 이어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자리에 일어나 어깨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아리랑은 재즈 풍의 음악으로 드럼과 기타. 대금이 함께한 장르로 국악과 재즈가 만나도 이렇게 멋진 음률이 나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 스포츠 클럽 이밍장 잔디광장 야외 특설 공연장에서 국악과 재즈가 만나 세계적인 음악으로 탄생했다.” “저 넓은 잔디밭 관객석은 밭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



수원재즈페스티벌에서 열창하는 재즈 디바 웅산(2019.9.19. 수원시 포토뱅크)

돛자리를 펼쳐 놓고 편안한 식사를 하는가 하면 통닭 박스를 손에 든 배달원은 음악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 휴대폰으로 고객의 위치를 확인하느라 두리번 거린다. 야외 간식은 간단한 치킨과 캔 맥주가 최고 인기식품인가 보다. 야구장이나 공연장에도 젊은 엄마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이 떠나지 않은 대담을 나누고 아이들은 잔디밭을 놀이터처럼 달리고 뒹군다.”

2017년 이틀 동안 열린 축제에는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첫날 공연에 1만 5,000여 명, 둘째 날 2만 5,000여 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은 추산했다. 재즈펑키밴드 JSFA, 울프 바케니우스&이로 란탈라, 유승호 재즈밴드, 이지연 재즈밴드, 헤일리 로렌&재즈파크 빅밴드, 이선지 재즈밴드, 송연주 퀸텟 with 알리 등이 무대에 올라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뉴스 통신사『뉴시스』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한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서울시 강동구에서 1시간 걸려 행사장으로 왔는데 이 같은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은 축제였다.”며 “어린 아이들 때문에 재즈를 즐길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시원한 가을, 가족과 함께 재즈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18 수원재즈페스티벌엔 발라드와 소울의 황제 JK김동욱,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 웅산과 윤석철 트리오, Moon밴드가 출연했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색소포니스트 릭마기차 퀴텟, 이태리 재즈피아노의 영라이언 케코 포르나벨리 트리오 등 해외 재즈 뮤지션들도 출연했다.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재즈콰이어 프라이부르크가 특별 초청 게스트로 공연, 명실상부한 국제 재즈페스티벌이 됐다.

언론은 이 해에 4만 5,000여 명이 운집, 가을 밤 재즈 선율에 흠뻑 빠졌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국내외 내로라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재즈의 섬세하면서도 진한 매력을 깊이 새겼다. 끝없이 펼쳐진 수원시 광고호수공원 야외무대 앞 잔디광장은 재즈 선율에 심취한 연인, 가족 단위 시민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였다. 올해는 해외 재즈 마니아들의 모습도 곳곳에 뿔 정도로 늘었다. 행사 시작 5시간 전부터 몰린 인파로 무대 앞은 물론 광장 곳곳에 설치한 3대의 대형 화면 주변도 자리 맡기가 힘들었다. 돛자리 행렬은 광장 입구까지 이어졌다.”고 현장 상황을 송고했다.

2019년 역시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링링 여파로 예정했던 행사를 한 차례 연기했는데도 행사장은 가을밤 재즈 선율을 만끽하려는 시민으로 모두 찼다. 평일인데도 공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몰린 연인과 가족 단위 시민은 잔디광장을 메웠다. 재즈 전문 아티스트 SW JAZZ BIG BAND, 스캇의 여왕 말로, 블랙&소

울 뮤직의 국모로 불리는 BMK, SW JAZZ BIG BAND, 허니밴드, 웅산밴드 등이 무대에서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 ● 수원발레축제

수원발레축제는 2015년부터 수원시가 주최하고 발레STP협동조합이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발레는 부유층과 일부 마니아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수원발레축제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로 대중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레축제에서는 발레STP발레협동조합 소속 6개 발레단(‘서울발레시어터’, ‘유니버설발레단’, ‘이원국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이 답답한 실내무대 대신 넓은 잔디밭을 배경으로 삼삼오오 둘러앉은 시민들에게 발레를 보여 준다.<sup>10)</sup>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7만여 명 이상의 관객이 발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정도로 발레축제는 성황을 누렸지만 코로나19 이후 행사가 축소되고 일부 공연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회 수원발레축제는 201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행사명은 ‘2015 수원발레축제 발레, 아름다운 나눔’으로써 그동안 ‘비싸고, 특권층이 즐기는 고급 문화예술’이라는 발레에 대한 인식을 깨고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발레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무료로 진행됐다. 메인 공연으로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발레 심청’, ‘문라이트 파드되’ 등과 와이즈발레단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손을 흔들며’와 ‘외계에서 온 발레리노’ 등을, SEO(서)발레단의 ‘2040년의 하루’와 ‘웨어 위 고’ 등을 공연했다. 이원국발레단은 ‘차이코프스키 파드되’와 ‘돈키호테’ 하이라이트를, 김



수원발레축제 공연(2021.8.20. 수원시 포토뱅크)

옥련발레단은 ‘거인의 정원’과 ‘해운(海雲)’을 마련했으며 서울발레시어터는 ‘시티 라이트’와 ‘탱고 포 발레’ 등을 관객 앞에 내놓았다. 발레 단장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아 발레를 접하기 어려웠던 관객들에게 작품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 주고 생소한 발레용어, 관람예절 등을 함께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부대행사로는 유명 발레리나·발레리노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레 기본동작과 스트레칭 등을 알려 주는 발레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서울발레시어터의 ‘알면 알수록 재밌는 발레’(25일), 와이즈발레단의 ‘발레야 놀자’(26일), 서발레단의 ‘발레즉흥수업’(27일), 이원국발레단의 ‘이원국과 함께하는 생활발레’(28일) 등이다. 발레와 관련된 용품, 그림, 사진 등의 전시회는 25~29일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됐다.

제2회 수원발레축제는 2016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9월 2일 개막공연에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백조 파드되’ 등 김옥련발레단을 제외한 5개 발레단(김옥련발레단 제외)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메인공연이 열린 9월 3일과 4일엔 ‘돈키호테 그랑파드되’, ‘파우스트’, ‘호두까기인형 그랑 파드되’, ‘오페라의 밤’ 등 5개 발레단과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메인무대 공연뿐만 아니었다. 수원시청역 주변에서 진행된 횡단보도 댄스는 신선한 이벤트였다. 수원시청역 주변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나 멋진 춤을 선보인 플래시몹 댄스는 초록불이 켜지는 35초의 시간동안 횡단보도 위에서 펼쳐졌다. 이 깜짝 공연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의 작은 일탈이 되어 즐거움을 선사했다.

각 발레단의 대표 트레이너들이 직접 가르치는 발레체험교실은 발레를 한번도 배워 보지 않은 사람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전공자, 일반인으로 나눠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2016년 발레 발전·대중화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발레협회로부터 ‘디아길레프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디아길레프 상은 해마다 비(非) 발레인 중 발레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에게 주는 상이다.<sup>11)</sup>

제3회 행사는 2017년 8월 31일~9월 3일 열렸다. 『한국일보』가 이 행사를 “발레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무용수의 열정부터 국내 최고 전문 발레단의 우아함까지, 발레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공연예술 축제”라고 평가했듯이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이원국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 등 최정상급 발레단 6곳이 참여했다.

축제 첫날 발레를 배우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자유 참가공연을 시작으로 성인 발레동호회의 공연, 전문 발레단의 레퍼토리 작품, 창작 발레컬(발레와 뮤



수원발레축제에 모인 인파(2019.8.25. 수원시 포토뱅크)

지컬이 합쳐진 형태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나흘 간 쉽 없이 펼쳐졌다. 관객들은 사흘간 최고의 공연 18편을 만났다. 이 해 행사 역시 개막 전날인 30일 사전 행사가 진행됐다. 나혜석 거리에서는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발레STP 협동조합이 준비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으며, 오후 4~5시 지하철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보행신호 때마다 횡단보도 위에서 '35초 플래시몹 발레 공연'을 볼 수 있었다.

제4회 행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수원제1야외음악당과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열렸다. 2018 수원발레축제는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발레시터, 이원국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 등 국내 최정상급의 여섯 개 민간발레단이 함께 했다. 8월 20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발레 체



횡단보도 위에서 펼쳐지는 '35초 플래시몹 발레 공연'(2019.8.23. 수원시 포토뱅크)

험교실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자유참가공연(학생부), 성인 아마추어 발레단 공연 및 여섯 개 발레단의 레퍼토리 작품 등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가 일주일간 무료로 펼쳐졌다.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는 국내 최고의 발레 축제로 발돋움한 수원국제발레축제 다섯 번째 행사는 2019년 8월 21~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렸다.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터, 이원국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 6개 발레단 외에 스위스 바젤발레단과 독일 슈타츠발레단 등 해외 발레단도 초청했다.

수원발레축제에는 2015년 7,000여 명, 2016년 1만 3,000여 명, 2017년 2만 여 명, 2018년 1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2020 수원발레축제는 8월 16일 개막하여 20일까지 5일간 수원시의 여름을 특별하게 장식했다. 2020 수원발레축제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메인 공연 온라인 생중계로 더 많은 관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발레STP협동조합, 수원발레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수원발레축제'는 16일 '발레 in 횡단보도' 거리공연으로 시작됐다.<sup>12)</sup>

기존 수원시청역에서만 진행됐던 장소를 16일 낮 12시 영통역과 오후 6시 수원시청역, 17일 낮 12시 장안구청 사거리와 오후 6시 수원시청역으로 장소와 횡수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선물했다. 메인 공연은 18~20일 오후 7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진행됐다. 18일 클래식의 밤, 19일 발레 마스터피스, 20일 발레 갈라스페셜 등을 주제로 '호두까기인형'부터 '카르멘' 등 유명 발레공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졌다. 이 해엔 광주시립발레단도 초청돼 메인 공연에 함께했다.<sup>13)</sup>

야외에서 진행하던 메인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내공연으로 진행, 사전예매를 통해 관객을 입장시켰는데 객석은 50%로 제한됐다. 대신 포털 사이트를 통해 3일간의 메인 공연 모두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원하는 곳 어디서든 발레 공연을 볼 수 있었다.

'2021 수원발레축제'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렸는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객석이 제한됐다. 대신 모든 공연이 네이버TV 발레STP협동조합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2021년엔 세종시발레단, 정형일발레크리에이티브, 김용걸댄스씨어터, 프로젝트클라우드나인, 부산발레씨어터, 아이엠발레씨어터 등 민간 발레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과 전공생과 서울예고 발레과 학생들이 함께 축제를 꾸몄다. 축제 메인 공연은 △클래식의 밤(8월 20일 오후 7시

30분) △발레 마스터피스(8월 21일 오후 6시) △발레 갈라 스페셜(8월 22일 오후 6시)이었다.<sup>14)</sup>

'클래식의 밤'에서는 서발레단 '파키타' 중 그랑 파드되 클래식, 프로젝트클라우드나인 '클래식 & 콤비네이션', 아이엠발레씨어터 '바람처럼',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중 백조 파드되, 와이즈발레단 '레이문다', 세종시발레단 '해적' 중 3인무, 이원국발레단 '돈키호테' 중 그랑 파드되를 만날 수 있다.

'발레 마스터피스'는 서울발레씨어터 '탱고 포 발레', 부산발레씨어터 '날개의 물결', 김용걸댄스씨어터 '망각', 김옥련발레단 '아베마리아', 정형일크리에이티브 '투 페더스', 서발레단 '오페라의 밤', 유니버설발레단 '해적' 중 해적 파드되 등으로 꾸민다. '발레 갈라 스페셜'에서는 서울예고 발레과 '라 바야데르' 1막 중 주요 장면, 이원국발레단 '사랑의 2인무', 와이즈발레단 '데비에이션', 김옥련발레단 '릭 베송의 페르소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과 발레 '돈키호테' 중 파드되, 서울발레씨어터 '남국의 장미' 등을 무대에 올린다.

메인 공연 외에도 '마스터클래스', '발레체험교실', '무대적응훈련' 등의 부대 행사를 마련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취소됐다. 발레체조 '발롱(ballon) 배우기는 온라인 챌린지로 전환해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진행했다.

## \*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법정문화도시'

2021년 12월 23일 수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sup>15)</sup> 수원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시비 100억 원을 합쳐 200억 원으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지방정부를 지정했다. 제3차 법정문화도시는 지난해 12월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검토한 후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sup>16)</sup>

수원시는 다양한 생활권역에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시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를 위해 시민협의체·기관단체협의체·행정협의체·기획자문그룹 등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문화도시센터·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또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문화도시 추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재정적 준비를 마쳤다.<sup>17)</sup>

2019년 12월엔 수원시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시민협의체인 '문화도시 시민정담회'를, 올해 5월에는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수원시 6개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6월에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제안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8월에는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수원만의 특별한 요소들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을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의 힘으로 그려내는 인문문화도시를 위해 수원시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이다.

지난 2010년 민선 5기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한 이후 수원시는 줄곧 '휴먼시티'를 표방해 왔다. 인사하는 사람들이 형상화된 심벌마크 역시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람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정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효과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해 왔다. '문화도시 조례'도 2011년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조례는 수원을 사람 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며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sup>18)</sup>

시는 이를 위한 전담기구로 수원문화재단 내 문화도시팀, 대외협력TF팀을 만들었으며 문화도시 수원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월부터 ‘문화도시 수원 조성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시민 중심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4월 ‘문화도시 탐구생활’ 포럼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였고, 이후 의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의제와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했다.<sup>19)</sup>

또 각계 전문가들이 시민의 문화적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는 인문학 렉처 콘서트인 ‘문화도시 일상서곡’ 프로그램도 4개 구에서 3회씩 골고루 개최됐으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와 네트워킹도 활발히 이뤄졌다.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들은 지난해 12월 70명의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 ‘문화도시 시민정담회’로 발족하는 결실로 맺어졌다. 정담회는 앞으로 문화도시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sup>20)</sup>

물리적인 인프라도 구축됐다. 문화도시 도약의 거점공간으로 실험목장 아지트(AGIT)도 활발히 활용됐다. 이 공간은 탐동시민농장 일대 유휴공간을 활동(Activity), 모임(Gather), 상상(Imagine), 시도(Try) 등 목적별로 활용하며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은 수원시의 행정적인 노력 못지않게 시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시민 주도 대화모임인 ‘씨티메이커스’와 실천 활동 ‘씨티플레이어’로 구현됐다. 시민들은 도시의 문제에 대

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문화적 해결방법을 직접 실행해 보며 도시를 바꾸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으며 지역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기를 희망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역동’은 수원화성문화제 시민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등 대화모임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자산화를 시도하는 성과를 냈다.

도시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한 청년모임 ‘캐슬런’은 야간에 수원 화성을 달리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이트캐슬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도시와 문화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씨티메이커스 94팀과 씨티플레이어 11팀이 운영되며 활발한 시민참여가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주민들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도시문화일상학교’와 공간의 용도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공간실험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며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 줬다.<sup>21)</sup>

청년 문화기획자와 같은 문화인재 양성·지원 사업 등 문화생태계도 구축했으며, 시민 제안·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 브랜드 창출, 문화적 장소재생 등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사업 등도 추진했다.<sup>22)</sup>

## 화성(華城)의 숨결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5년 10월 8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개관됐다. 수원화성행궁 옆 부지에 건립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수원 최초의 시립미술관이자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미술관이다. 약 3년간의 준비를 마친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661.94㎡ 규모로, 전시실 5곳과 전시홀 2곳, 교육실 2곳, 라이브러리, 카페테리아, 뮤지엄라운지 등을 갖췄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화성행궁과 팔달산, 팔달문 그리고 장안문 사이에 길게 늘어진 도시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통로다. 콘크리트 시공을 기초로 송판 무늬를 차용해 현대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경사 구획이며 콘크리트의 회색 바탕을 기본으로 검은 색, 흰색이 교차하는 무채색 개념의 디자인을 토대로 하여 전시를 돋보이게 한다.<sup>23)</sup> 개관 이후 시민과 함께하며 열린 문화 공간을 추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수원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과 쉼터로 각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경(2015.10.5. 수원시 포토뱅크)

광받고 있다.

화성(華城)의 숨결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공존의 예술공간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다. 수원에 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인구 120만의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역사문화 도시이지만 미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sup>24)</sup> 특히 공연장을 갖춘 수원SK아트리움의 개관과, kt 위즈파크 야구장이 생긴 이후 미술계와 애호인들은 갈증은 더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7월 9일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사기업인 (주)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에 300억 원 규모의 기부 채납을 결정함으로써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건립이 시작됐다. 미술관 명칭에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

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졌지만 시의회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당시 “국내에서 기업이 300억 이상을 기부해 시립 미술관을 지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화 사업을 위한 기업의 기부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더 많은 기업이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미술관의 성격은 명칭이 아니라 소장품이나 전시, 교육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개관 이후 현대미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문화관광 거점 기능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했다.<sup>25)</sup> 개관 기념으로 수원 지역작가의 ‘수원 지금 우리들 Now Us : Su won’과 특별전으로 수원시민의 사연이 담긴 애장품을 모은 ‘아주 사뱀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획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쉼터이자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개관 8개월 만인 2016년 7월 27일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듬해엔 1종 미술관 등록을 완료하고 총 9개의 기획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를 진행, 약 1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해에 개최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가상현실’ 전시는 세계적 권위의 ‘IF디자인 어워드2017’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수상해 전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고, 수험생 대상 문화 특별 프로그램은 3회 개최 동안 2,500명의 학생들이 방문했고, 전시와 연계한 어린이 및 가족 대상 창작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앵콜 요청이 쇄도했다. 분기별로 진행된 정규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과 동물’, ‘과학과 만난 예술’, ‘음식과 만난 예술’ 등의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친근하게 해소해 준 것으로 평가됐다.



남북 미술 · 사진전 '약속'(2021.6.29,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 지역 작가 조명 및 연구를 위해 ‘김인겸, 공간과 사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권용택, 새벽의 몸짓’, 수원화성 건축프로젝트 ‘구조의 건축’, 나혜석 타계 70주기와,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한 ‘여성주의 미술’, 수원 지역 원로 작가 조망전시인 ‘김학두 개인전’도 열었다.

이 밖에 한·영 상호교류의 해 특별 전시 ‘줄리안 오피’는 관객들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현대미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영국 팝아티스트 줄리안 오피(Julian Opie)는 영국 런던 출신으로 ‘움직이는 미디어’ 작품으로 유명하다. 대형 광고판, 일본 목판화와 만화, 고전 초상화와 조각 등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특유의 축약된 형식과 현대인들에게 소통 가능한 이미지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명성을 얻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에서는 한국의 일상을 표현한 ‘워킹 인 사당 동 인 더 레인(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2014)’ 시리즈, 머물렀던 도시 이미지의 기억을 담아 낸 ‘타워2(Tower.2)’(2017)를 전시했다. 특히 미술관 전면 유리에 설치되는 걸어가는 사람 이미지 LED 패널 신작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백년을 거닐다 : 백영수 1922~2018’전도 큰 관심을 끌었다. 수원에서 출생한 백영수는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다. 서정적이면서 조화로운 경향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열린 100여 회의 전시에 참여했다.<sup>26)</sup> 2016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은관훈장을 수훈해 공로를 인정받은 작가이다.

‘남북 합의 이행’을 염원하는 남북 미술·사진전 ‘약속’도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주최한 이 전시회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약속·우정을 담은 전시회였다. △백두산과 한라산의 만남 △우정 △약속 아카이브 △먼저 온 미래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 전시회에는 남북 미술가 23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북측 평양미술대학교 교수들의 작품 10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수원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협력 전시회 ‘바람보다 먼저’전은 197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수원을 비롯한 경기·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사회참여적 미술운동의 양상을 조망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원시립미술관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협력으로 개최한 기념전 ‘어윈 올라프: 완전한 순간-불완전한 세계’도 화제가 됐다. 어윈 올라프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 사진작가로써 이번 전시

는 어윈 올라프의 한국 국내 최대 전시였다.

한편 2015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개관한 수원시립미술관은 2018년 만석공원에 자리한 ‘수원시립만석전시관(구 수원미술전시관)’, 파장동의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구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을 편입한 데 이어 2019년 아트스페이스 광고를 설립해 현재 4개관을 운영 중이다.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지역을 소재로 한 특색 있는 전시 등을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서울까지 방문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수원시립미술관 내부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객들이 기분 좋게 관람한 뒤, 편하게 모여 차를 마실 수 있는 예술이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 북수원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수원SK아트리움

수원SK아트리움은 2014년 3월 개관했다. 이후 수원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북수원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예술가-관객-공연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 예술 공간으로서 양질의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적극 소통했기 때문이었다.

수원SK아트리움은 SK그룹이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350억 원을 들여 공연장을 건립, 수원시에 기증한 것이다. SK가 도시화와 경제여건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정자동에 40년간 위치했던 SK케미컬 공장을 지난 2010년 말 폐쇄하고 그 자리에 SK뷰아파트를 건립하며 발생한 이득금으로 건립한 수원SK아트리움을 증여했다.<sup>27)</sup>

SK는 수원에 선경도서관, SK청솔노인복지관을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 SK아트리움을 지어 증여함으로써 수원에서 출발한 기업다운 애郷심을 보여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SK가 1995년 팔달산 중턱에 건립해 수원시에 기증한 선경도



수원SK아트리움 전경(수원문화재단 소장)

서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좌석 1,823석 규모이다. 2010년 개관한 청솔노인복지관은 일반 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수원SK아트리움은 2012년 4월 착공해 2013년 10월 25일 완공됐다. 대지면적 3만 9,000㎡에 연면적 1만 4,997㎡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95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복합형 전문공연장이다. 3만 9,000㎡ 규모의 문화공원 내에 건립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로 아이러브맘 카페, 카페테리아도 갖춰 수원시민들의 문화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공연장 명칭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예술 (art)과, 공간·장소를 의미하는 접미사 리움(rium)의 합성어인 '아트리움'으로

선정했다. 수원SK아트리움은 '정조 능행차길'과 '노송지대'를 모티브로 건립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2013년엔 제9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 대상 건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술력과 예술적 건축미도 인정받았다.

특히 수원시의 자랑인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수원시립합창단이 상주해 아름다운 음악을 항상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 수원시민과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고품격 공연과 대중적 공연이 함께 열리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수원에는 수원시민회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장안구민회관에 공연장이 있으나 전문공연장이라기보다 행사장에 가까웠다. 경기아트센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을 뿐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따라서 사실상 수원시 최초의 진정한 전문 공연장이 탄생한 것이다. 2014년 3월 3일엔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에서 수원SK아트리움 증여식과 기증물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SK는 수원선경직물을 모태로 한 수원의 향토기업으로 지난 1995년 행궁동에 위치한 선경도서관을 지어 기부한 바 있고 이번에도 북수원권에 문화시설인 이번 아트리움을 건립 기부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원SK아트리움은 약 2년간의 건축과 준비과정을 마치고 2014년 3월 6일 개관했다. 개관식에서는 대공연장 로비에 있는 '수원의 노래' 노래비도 제막됐다. 노래비는 작곡자 이흥렬(1909~1980) 교수의 아들인 이영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 수원시에 기증한 '수원의 노래' 악보 원본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이날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한 달간 개관기념 페스티벌이 열렸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피아니스트 손열음, 고은 시인, 재즈 가수 나윤선, KBS교향악단, 국립극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수원시립합



수원SK아트리움 개관식(2014.3.6. 수원시 포토뱅크)

창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단체들이 출연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기간 동안 약 1만 4,000명의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아 뜨거운 갈채와 환호를 보냈다. 평균 객석점유율은 94%나 됐다. 수원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협연한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 등 첫 주 클래식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고은 시인과 나윤선이 함께한 '고은, 시의 밤', 수원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의 '한국합창 빅3' 공연, 최정원과 함께하는 K뮤지컬 콘서트와 국립극단의 '혜경궁 홍씨'도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소공연장에서 열린 국립현대무용단의 '11분'은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실험적인 무대로서 조명을 받았으며, 수원시립합창단의 '뭔가 특별한 음악회'는 클

래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친근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호흡했다. 개관기념 페스티벌은 성공적인 수원SK아트리움의 안착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첫 기획 공연인 악극 ‘두 엄마’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획작품을 선보였다. 수원화성국제연극제와 수원화성국제음악제 등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들도 수원SK아트리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수원SK아트리움이 수원 문화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e수원뉴스』(2014년 7월 20일) 김해자 으뜸기자는 7월 19일에 열린 ‘아리아의 밤, 사랑 & 리콜레토 갈라 콘서트’에 다녀온 뒤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남겼다.

수원 지역 공연 문화예술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기존에 남부의 경기도문화의 전당이 중심축이었다면 이젠 북수원의 판을 쥐고 있는 수원SK아트리움이 가세하면서 남북으로 양분되고 있다.

수원SK아트리움은 지난 3월 개관과 함께 수원예술의 완성도를 드높이는 격조 있는 무대 ‘수원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의 협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6월엔 고품격 음악세계 ‘2014 수원화성국제음악제’를 통해 음악의 진수를 전파하면서 공연문화예술의 본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열린 무대, 열린 문화’란 기치로 수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는 이곳은 오페라,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예술을 펼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그리고 본 공연장에 버금가는 연습실, 분장실, 아이러브맘카페, 카페테리아 등 공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끌어올린 가운데 야외공연장과 문화공원도 휴식공간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2014년 8월엔 서울 흥대의 대표 문화 아이콘인 인디밴드 6탐이 수원SK아트리움에서 집들이 콘서트 ‘수원愛! 놀러 왔어요!’를 열어 수원시민에게 색다른 무대를 선사했다. 2015년 8월 30일엔 수원SK아트리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기획공연 ‘조수미, 그리운 날의 기억’ 콘서트를 개최했다.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와 함께 이 시대 최고의 벨칸토 소프라노로 평가받고 있는 조수미와 함께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과 세션 연주자들도 공연에 대거 참가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役に 출연한 테너 출신 뮤지컬 배우 윤영석과 더불어 차세대 지휘자로 손꼽히는 최영선, 풍부한 감성의 선율을 더해줄 과천시립교향악단, 그리고 국내 최정상 세션인 프렐류드와 기타리스트 박윤우 등이 연주를 맡아 최고의 무대를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sup>28)</sup>

개관 2주년인 2016년 3월부터는 브런치 콘서트인 ‘조재혁의 아침 클래식’이 진행됐다.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아침 클래식은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해설과 진행, 피아노 연주까지 맡아 매월 색다른 주제와 출연진으로 꾸몄다. 차별화된 아늑한 형태의 무대 구성과 실내악 중심의 음악회로 진행됐으며 관람객 전원에게 매 공연 전 ‘아침 클래식 맛있는 브런치’를 제공, 호평을 받았다.

수원SK아트리움에서는 2014년 3월 개관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획 공연 226개 작품, 대관공연 작품이 공연돼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물론 수원SK아트리움 개관을 가장 기뻐한 사람들은 북수원권 주민들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 \* 수원만의 상설 공연이 열린다, '정조테마공연장'

1996년 수원화성축성 2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수원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문화재 야행, 수원연극축제 등은 관광도시 수원의 위상을 더욱 높이면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수원화성 야간관광'은 '2021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2012년 '수원화성', 2015년 '무예24기'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경기신문』은 2021년 12월 27일 사설을 통해 수원시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체류형 관광'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과거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연간 600만 명가량의 관

객이 방문했다고 한다.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엔 역대 최대인 7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 하룻밤 이상을 숙박한 관광객 비율은 28.2%밖에 되지 않았다. 관광객 1명당 찾은 관광지도 2.7곳에 불과했고, 화성행궁과 수원화성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수원화성 일부와 행궁, 그리고 가까이 있는 화성박물관 정도만 보곤 가버린 것이다. 일부에선 "대소변만 보고 그냥 간다."는 한탄도 나왔다. 이런 경유형 관광은 수원의 문화·역사적 면모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당연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는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야간관광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야간관광 거점개발'·'야간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안문-화홍문 구간과 용연에 예술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화성행궁 야간개장과 연계한 야간관광 상설프로그램(야간경관조명·인공 달 등 전시물 설치), 문화관광 재현 배우 프로그램(행사 안내, 소리군)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수원문화재 야행'은 매년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야행'의 하나다. 뜨거운 한낮을 피해 밤에 수원 곳곳과 화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성행궁·화령전 등을 밤늦게까지 관람할 수 있다.

화성행궁과 문화시설을 캔버스 삼아 빛으로 작품을 만드는 미디어아트(매체 예술)도 흥미롭다. 수원연극축제도 밤에 열리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축제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가 있었던 자리인 경기상상캠퍼스에 열리는 이 축제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이들 행사의 성공 요인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담당자 스스로가 관광객의 마음으로 사전에 현장을 누볐기 때문이다. 책상머리에서 펜 끝으로만 기획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챙긴 것이 성공의 요인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수원화성의 야간특화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수원시 관광정책의 당면 목표는 '관광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 정착'이다. 화성행궁 광장 옆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팔달구 팔달로1가 134번지 일대 부지에 정조테마공연장을 만드는 것도 무예24기를 비롯한 수원의 특색 있는 공연을 상설공연함으로써 관광객을 상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무예24기 공연을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다. 수원화성에 주둔했던 조선의 최정예 부대인 장용영의 군사들이 익혔던 24가지 군사 무예를 재현하는 무예24기 시범단의 시범공연은 화성행궁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공연이 열리지 않아, 공연을 기대하고 온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또 단원들이 대기하면서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북군영이 문화재여서 화재의 위험 등으로 냉난방기도 사용할 수 없는데다 샤워시설도 없어 수원문화재단 유스호텔 샤워실을 빌려 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해 왔다.

이에 수원시는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원의 대표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는 무예24기 공연을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정조테마공연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에 준공 예정인 정조테마공연장은 마당극, 정극, 도출 등 무대변형이 가능한 공연장으로써 3,25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300~500석 규모이다.



무예 24기 공연(2021.3.2. 수원시 포토뱅크)

화성행궁 광장 남쪽 도로변에 있어 접근성도 좋다. 이곳에서는 수원화성의 대표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무예24기 상설공연과 주말을 이용한 정조 관련 상설공연 등을 열 계획이다. 공연장이 완공되면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과 함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 떴다! 수원연고 프로야구단 kt 위즈

창단한 지 8년밖에 안 되는 막내 프로야구팀 kt 위즈가 창단 첫 번째 정규 리그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도 4연승으로 통합우승을 일궈내자 수원이 들썩거렸다.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KT는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KT는 10월 3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KBO리그 1위 결정전(타이브레이커)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1-0으로 눌렀다. 이날 열린 경기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첫 1위 결정전이였다. 투수들의 호투로 팽팽하게 이어지던 경기는 6회 KT 심우준의 내야 안타와 삼성의 실책, 황재균의 볼넷 출루에 이어 강백호가 안타를 때려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2015년 1군 진입 이후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이었다. 그리고 한국시리즈에서도 1패도 없이 깔끔한 4연승을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수원 kt 위즈가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모두 제패한 뒤 통신사 『뉴시스』(2021년 11월 19일)는 수원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했다.

“지역 연고팀이 있는 것도 행복한데 우승까지 하니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네요.”

이러한 성과에 수원시민들은 오랜만에 지역 연고 구단이 우승했다며 크게 기뻐했다.

광교에 사는 이모(44) 씨는 “여덟 살밖에 안 먹은 막내 KT가 이렇게 듬직하게 우승해낼 줄 몰랐다. 정말 기쁘고, 내년에도 수원에서 우승 승전보를 울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팔달구 우만동에 사는 유모(38) 씨도 “예전 현대유니콘스가 수원에 있을 때는 실력은 좋았지만 ‘수원팀’이라는 느낌은 없었다.”면서 “KT는 진짜 수원의 팀이고 이번에 KBO리그 최고의 팀이 됐다. 2015년부터 7년 동안 열심히 응원한 보람이 있다. 내년에도 또 우승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이 다른 어떤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스포츠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시민들도 있다.

권선구 금곡동에 사는 홍모(31) 씨는 “우승을 계기로 수원이 서울에 뒤지지 않는 스포츠 도시라는 점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33) 씨도 “야구를 비롯해 축구, 농구, 배구까지 여러 구단이 수원을 연고로 하고 있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한때는 축구의 도시라고 불리던 수원이었는데 이제는 야구의 도시, 더 나아가 모든 스포츠의 도시가 된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KBO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2011년부터 수원 연고 KT가 10구단으로 선정되기까지 노심초사하며 적극 노력해 온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를 위한 시



2021 KOREAN SERIES

2021 KOREAN SERIES



kt 인조가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1.10.23. 경기 포스트백)



한국야구위원회를 방문해 프로야구 10구단 연고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2011.9.26. 수원시 포토뱅크)

민연대' 회원들은 더욱 감격했다. 시민연대에는 수원에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기 위해 35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홍보 운동, 시민 서포터스 발대식 등 약 17개월간 유치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한 지지서명자만 30만 명이였다. 한때 KBO가 10구단 창단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 잠실구장 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삭발식을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수원시와 KT는 2013년 1월 7일 프로야구 10구단 연고지 유치 신청을 마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석재 KT 회장,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은 7일 오후 3시 한국야구위원회를 방문해 프로야구 10구단 연고지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sup>29)</sup>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2011.9.19.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와 KT는 유치신청서에서 매일 열리는 프로야구 특성상 얼마나 많은 야구팬이 경기장을 찾느냐가 관건이라며 인구와 교통접근성, 관중, 흥행요소 등 3박자가 완벽하게 준비된 최적의 연고지라는 점을 강조했다.<sup>30)</sup>

염태영 수원시장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며 “프로야구 신규구단 연고지 결정을 위한 KBO 요건을 충족시키는 ‘1도시 1연고제’와 ‘100만 이상 도시’를 충족시키는 지역은 수원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프로야구 개막에 맞추어 수원야구장과 인천문학경기장, 잠실구장을 잇는 환상의 지하철 시리즈와 통신 3사인 SK·KT·LG 간의 라이벌전이 가능해 1000만 관중시대를 앞당겨 줄 프로야구 흥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프로야구는 비즈니스이고 산업”이라며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시장성과



2011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린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시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 시민연대 회원들 (2011.9.3. 수원시 포토뱅크)

인구, 접근성을 바탕으로 KBO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이보다 앞선 2011년 9월, 유관단체, 체육단체 등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희망 30만 시민 서명부와 수원시의원 34명 전원의 유치 결의문을 KBO 구본능 총재에게 전달했다. 자료에는 야구단 창단 시 1,373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441명의 고용효과로 수원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같은 달, 시민사회단체 330여 개가 참여한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를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시장은 “프로야구는 이제 700만 관중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프로야구단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라며 “수원이 프로야구단을 유치해 축구의 메카에서 진정한 스포츠 메카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경기도와 힘을 합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10구단 유치도시가 선정되는 것을 감시하고 튼튼한 기업을 유치해 반드시 10구단이 수원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는 정부와 KBO(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해 △정치논리에 의해 10구단의 특정지역 배정을 하지 말 것, △경기도가 10구단의 수원 유치에 적극 동참·지원할 것, △KBO가 10구단 선정 과정에 일체의 정치논리도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범시민 나아가 범도민 차원의 유치운동을 조직화해 반드시 10구단의 수원유치를 이뤄낼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경기 남부권에만 52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프로야구 10구단이 들어서기에 수원시만한 장소가 없다.”면서 “특히 수원에는 서울·인천 등과 지하철로 연결된 교통중심지라는 점 이외에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의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복합문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시 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KBO는 인구가 1천 200만에 달하는 경기도에 아직 프로야구단이 한 팀도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10구단 선정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프로야구단 수원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유치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잠실구장 방문해 홍보하는가 하면, KBS 열린음악회 등 각종 행사와, LED 차량을 통한 영상 홍보 등을 꾸준히 해 왔다.

수원시도 프로야구 10구단이 수원에 와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과 수원 야구장과 인접

한 1시간 이내 거리에는 경기 남부권 57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해 1,000만 관중시대의 최적지임을 표시했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수원에는 경부, 영동,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 서울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을 통과하는 모든 고속도로들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서울-천안 간 전철이 통과하는 경인전철 1호선과도 연결되는 최적의 전철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설명했다.<sup>31)</sup>

교통의 중심지는 관중 동원능력에서도 우위를 점하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통하는 분당선, 신분당선, 인덕원수원선 등이 완료되면 강남권에서 수원구장까지 40분에 도착이 가능해 수원은 인천뿐만이 아닌 서울소재 3팀과 이른바 ‘전철시리즈’도 가능함을 강조했다.

과거 프로야구에 대한 실패 경험에 대해 수원 연고지 현대유니콘스의 경우 임시 연고지로서 진정성을 보여 주지 못해 수원시민이 애착을 가질 수 없었

던 것과 달리 전북 쌍방울 레이더스는 약한 흡입력으로 흥행 실패로 팀이 해체됐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역안배에 대한 의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역안배는 전기나 공공기관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야구를 공공재 의미로 해석해서 지역안배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 설명했다. 특히, 수원과 전북과의 관계에서 수원 소재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를 위해 수원야구장 대규모 증축 및 리모델링, 전국 최고의 신규 구장 건립 추진, 2군 훈련장 및 숙소 부지 건립 지원 등 모두 7개항을 약속했다. 2013년 말까지 수원야구장을 2만 5천석 규모의 최첨단 구장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해 관람석 의자 전면 교체, 전면 증축 및 보수, VIP실, 스카이박스, 덕아웃, 선수대기실 설치, Full Color 동영상 전광판 설치, 조명타워 등기구를 교체한다는 것이다.

야구장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을 구단에 부여하고 야구장 장기임대(25년)로 구단 자체계획에 의한 운영권을 제공하고 야구장내 부대수익사업 권리를 구단에 부여해 야구장 내 식음료 판매권, 야구장 내 광고권 등 영업의 수익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 kt 위즈가 통합우승을 차지하자 많은 야구인들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수원시를 극찬했다.

허구연 프로야구 해설위원, 박동희 MBC스포츠플러스 기자 등 야구인들은 “염태영 시장은 야구단 유치 단계 때 내걸었던 공약을 모두 지키며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수원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KBO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kt 위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막내 구단 kt 위즈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가 파격적인 조건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헝가리치는 kt 위즈 선수들 (2021.11.18. 수원시 포토뱅크)

을 내건 약속은 잘 지켜졌다. 시는 470억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수원야구장을 2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했는데, 공사를 할 때 야구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수원야구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2만 2,000석 규모의 '수원 kt 위즈파크'로 다시 태어났고, 야구팬·야구인들에게 "아주 잘 만든 야구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발굴을 위해 엘리트 아마추어 야구 팀 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을 통한 야구 활성화 추진, 전국규모 대회 및 사회인 야구리그 개최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23일엔 수원체육관에서 '수원KT프로야구단 창단 염원' 수원 시민서포터즈 창단대회가 열렸다. 1부에서는 경기도 초·중·고·대학·사회인 야구 선수단 '수원 시민 서포터즈' 입단식,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쉼터대회가 2부에서는 수원시민 서포터즈 10구단 수원유치 기원 응원전, 치어리더 특별 출연(기아, LG, 두산, 넥센, NC팀), 시구 레이스(VIP, 연예인,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미니 홈런레이스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10구단 창단 무산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이 KBO 총재와 기존 구단 9개 구단 사장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무기한 유보되기도 했다. KBO 일부 구단들이 선수수급 문제, 경기력 저하, 리그 확대 시 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10구단 창단을 반대했다. 이에 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분노했고 팬들 역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많은 야구인들은 일부 구단들이 내세운 명분들이 근거가 없는 이기적인 내용이며 중흥기를 맞이한 한국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10구단 창설이 오히려 프로야구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절실하며, 1군 못지않은 2군 선수들의 진출로 흥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반대를 하는 KBO를 이

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야구 관계자들과 팬들은 밥그릇만 챙기려는 구단주 대기업과 KBO를 성토했다. 이에 선수협회는 발표 직후 "올스타전과 WBC(월드클래식베이스볼) 참가를 거부하고 선수노조를 설립해 구단 이기주의에 맞서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이행과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2만 5,000석의 야구장 리모델링 확장사업 그리고 10구단 창단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업을 당초 약속대로 모두 차질 없이 추진했다.

결국 수원시와 야구인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KBO가 손을 들었다. 2012년 12월 11일 KBO 이사회는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승인을 결정했다. 시는 115만 수원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이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 이사회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승인은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열정과 야구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며, 연 700만 관중시대를 넘어 1,000만 관중시대가 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관중을 유치할 수 있고, 야구 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원이 최적지라면서 "KT와의 창단협약, 최신식 야구장 건립,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뜨거운 야구열기,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10구단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수원에서는 이미 끝난 상태며, 수원이야말로 프로야구 천만 관중시대를 열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수원유치를 강조했다.

10구단 유치전에는 수원·KT와 전북·부영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10구단 연고도시 선정과정에서 야구팬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안배와 정치적 고려를 주장하는 명분 없는 논리가 제기돼 또 다른 사회적 충돌이 우려됐다. 이에 10구단 연고도시 선정발표를 앞둔 2013년 1월 국회 여·야 의원 59명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1,000만 관

객시대로 접어든 프로야구의 진정한 발전과 10구단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KBO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난 8일 마감된 프로야구 10구단 선정에 수원·KT와 전북·부영이 각각 유치에 나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10구단 선정과정에서 야구팬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안배와 정치적 고려를 주장하는 명분 없는 논리가 제기되면서 또 다른 사회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선정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프로야구 관중의 편의도모 최우선 고려 △KBO규정에 따른 선정 등을 프로야구 10구단 연고도시 선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sup>32)</sup>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고희선(故),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용익, 김태원, 김한길, 김현, 남경필, 노철래, 문병호, 문희상, 박기춘, 박남춘, 박수현,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신기남, 신장용,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원유철,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상민, 이석현, 이연주, 이우현, 이원욱, 이종걸, 이종훈, 이찬열, 이학영,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진선미,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천, 함진규, 홍의락, 홍익표 등이다.

그리고 마침내 KBO는 2013년 1월 17일 오전 총회를 열고 수원시를 연고지로 하는 KT를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기업으로 최종 승인했다. 수원 10구단의 이름은 ‘kt 위즈’로 결정됐다. 수원시민들은 환호했다. 특히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를 위한 시민연대’, 관계공직자들의 기쁨은 컸다.<sup>33)</sup>

프로야구 10구단이 된 수원 kt 위즈 출정식은 2014년 3월 29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렸다. 수원 kt 위즈 출정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의회 의장,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KT 경영기획부문 부사



2014년 3월 열린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kt 위즈 출정식(2014.3.29. 수원시 포토뱅크)

장,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등 선수단 전원과 지역 야구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인 3인조 걸그룹 벨로체의 미니콘서트와 수원시 태권도시범단의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출정식에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KT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과정부터 창단까지의 영상이 상영됐고, 구단주 인사말, 수원시장 환영사, KBO 사무총장 및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축사가 이어졌다.

염 시장은 “120만 수원시민, 전국의 야구팬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하며,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시민이 주인인 아름다운 수원야구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선수들의 명경기와 시민들의 환호가 어우러진 한국 야구의 새 중심으로서 수원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으

로 확산한다.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도심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정식 세리머니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조범현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소개되고, KT 한훈 부사장이 KT 스포츠 사장 및 조범현 감독에게 구단기를 전달했다. 수원 kt 위즈 야구단의 유니폼을 착용한 수원시장을 명예 구단주로 위촉했고 행사에 참가한 수원시민들이 kt 위즈의 퓨처스리그 선전을 기원하고, 하나 뒀을 기념하는 풍선 날리기와 치어리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2015년 시즌부터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수원야구장의 증축과 리모델링 추진과정도 소개했다.

- 국비와 도비 총 2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 8월까지 기존 1만 4,465석 규모를 2만 석 규모로 증축하고, 2016년 말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2만석 규모에서 2만 3,000석 규모로 증축을 마무리할 예정
- 관람석 확대와 풀컬러 동영상 전광판 설치를 비롯해 더그아웃 및 선수대기실 전면 보수, 조명타워 교체 등 관람객 편의는 물론 선수들도 최상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탈바꿈
- 수원야구장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기업인 KT가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등 구단 의견 100% 반영

이처럼 수원시는 kt 위즈를 적극적으로 지원, 막내 구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홈구장인 수원야구장에 470억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2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편의시설을 정비, 2만 2,000석 규모의 ‘수원 kt 위즈파

크’로 재탄생시켰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2013년 1월 창단한 kt 위즈는 이듬해 퓨처스리그(2군 리그)에 참가했고, 적응 기간을 거쳐 2015년 ‘열 번째 구단’으로 1군 리그에 데뷔했다.

하지만 막내 구단에게 1군 리그의 벽은 높았다. 2015년 52승 91패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6년에도 53승 89패로 순위표 끝에 자리했다. 그러나 2019년 제3대 이강철 감독이 부임하며 kt 위즈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해 71승 71패로 꿈의 5할 승률을 달성했으며, 리그 순위 6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만년 하위권에서는 벗어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sup>34)</sup> 2020년에는 81승 61패로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통합우승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줬다.

그리고 드디어 2021시즌 마지막 타이브레이크까지 치르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모든 야구인들과 팬들이 꿈꾸는 한국 야구 최고의 축제인 한국시리즈에서도 4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단 최단기간 내 통합우승이라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된 오늘 의 환희와 감격을 잊지 않겠다.”며 “kt 위즈의 우승이 우리 시 모든 프로 스포츠 팀의 우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프로농구 KT 소닉붐, 수원에 등지 틀다

프로농구단 KT 소닉붐이 수원으로 연고지를 이전해 수원 농구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KT는 2021~2022 시즌을 앞두고 부산시에서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겼다. 수원시와 수원KT 소닉붐은 2021년 9월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연고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홈구장인 서수원철보체육관의 명칭을 '수원KT소닉붐아레나(서수원철보체육관)'로 변경하고, 구단명에 '수원'을 표기했다.

수원KT 소닉붐은 연고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농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원 농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sup>35)</sup> 수원시는 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KT 소닉붐과 함께 홈경기를 홍보하는 등 KT 소닉붐이 수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sup>36)</sup>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KT 소닉붐의 연고 협약식(2021.9.30. 수원시 포토뱅크)

이어 “KT 소닉붐이 시민들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이 KT 소닉붐의 서포터즈가 되고, 경기장 밖에서도 KT 소닉붐과 함께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프로구단과 연고 지자체가 협업하면서 구단도 발전하고,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 프로스포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KT 소닉붐이 연고지를 이전하면서 우리 시는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4대 프로 스포츠팀이 있는 도시가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KT 스포츠 남상봉 대표이사는 “KT 위즈와 더불어 수원시와 KT의 또 다른 자랑이 될 KT 소닉붐이 수원에서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KT 스포츠는 언제나 팬들로 가득한 경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팀을 운영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2001년 '삼성 썬더스'가 떠난 후 20년 만에 다시 프로농구 팀을 보유했다. 지금까지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은 kt 위즈(야구),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축구), 한국전력빅스툼(남자 배구)·현대건설힐스테이트(여자 배구)가 있었는데 프로농구 수원KT 소닉붐까지 가세함으로써 사계절 4대 프로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관내 학교 농구부가 활성화되고, 농구부 학생들에게는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총 6개 학교(초·중·고등학교 각 2개)에 농구부가 있다.

현재 수원KT 소닉붐은 그야말로 봄을 일으키며 지역 스포츠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긴 후 파죽의 홈 10연승을 거두기도 했다.

- 1)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주인공 이홍구 선생」, 『E수원뉴스』, 2018년 4월 23일.
- 2) 「수원·화성·오산시 "정조대왕 능행차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신문』, 2020년 10월 6일.
- 3) 「9월 수원화성문화제 시민 기부 참여 축제로...염태영 시장 "지역축제 새로운 모델"」, 『국민일보』, 2017년 8월 23일.
- 4) 「[문화카페] 숲 속으로의 초대 '수원역극축제'」, 『경기일보』, 2018년 6월 6일.
- 5) 「수원연극축제, 3일 동안 관객 15만여 명 찾아」, 『이뉴스투데이』, 2018년 5월 29일; 「2018 수원연극축제, 관객 15만명 찾았다」, 『헤럴드경제』, 2018년 5월 29일; 「수원연극축제 3만명 몰렸다」, 『이데일리』, 2018년 5월 29일.
- 6) 「수원시, 8월 9~11일 '수원화성야경 문화체험 축제' 열린다」, 『경기1뉴스』, 2019년 7월 7일; 「수원시, 8월 9~11일 한여름 밤의 축제 열린다」, 『경인타임스』, 2019년 7월 7일; 「수원시, 한여름 밤의 축제 오는 8월 열려」, 『산경일보』, 2019년 7월 4일.
- 7) 「한여름 밤의 축제 '수원 야행', 13만 여명 찾았다」, 『NEWSNEWSN』, 2019년 8월 12일; 「수원시, 한여름 밤의 축제 '수원 야행', 13만 여명 찾았다」, 『경기미디어포스트』, 2019년 8월 12일; 「한여름 밤의 축제' 수원야행, 13만 여명 방문」, 『경기IN』, 2019년 8월 12일; 「수원 문화재 야행 13만명 방문 '대표 문화상품' 우뚝섰다」, 『KNS뉴스통신』, 2019년 8월 12일.
- 8)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020 수원 문화재 야행' 성료」, 『경기ETV뉴스』, 2020년 10월 26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020 수원 문화재 야행 성료,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에 성숙한 시민협조 돋보여」, 『경기중앙신문』, 2020년 10월 26일; 「비대면 '야행'..상권 활기」, 『헤럴드경제』, 2020년 10월 26일; 「2020 수원 문화재 야행' 성황리 종료,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에 성숙한 시민협조로 23~25일 소화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진행」, 『경기데일리』, 2020년 10월 26일.
- 9) 「10월 23~25일 밤, 수원화성 일원이 빛으로 물든다」, 『LAFENT』, 2020년 10월 20일.
- 10) 「수원국제발레축제, 21일부터 수원서 개최, 여름 밤, 수원을 물들이는 발레의 A to Z」, 『NEWSJI』, 2019년 8월 10일.
- 11) 「야외에서 만나는 발레의 향연 '2017 수원 발레축제'」, 『한국일보』, 2017년 8월 28일.
- 12) 「수원발레축제, 16일부터(5일간) "여름을 특별하게 장식한다."」, 『경기1뉴스』, 2020년 8월 13일; 「2020 수원발레축제, 온·오프를 수놓는다, 16~20일 5일간...메인공연 생중계, 횡단보도 in 발레 등 풍성하게 즐겨」, 『서울매일』, 2022년 8월 13일; 「수원발레축제, 온·오프를 수놓는다」, 『서울매일』, 2022년 8월 13일; 「수원발레축제, 온·오프를 수놓는다」, 『경기중앙신문』, 2022년 8월 13일.

- 13) 「온·오프를 수놓을 '2020 수원발레축제」, 『일간투데이』, 2022년 8월 13일.
- 14) 「'2021 수원발레축제' 20~22일 온라인 생중계」, 『이데일리』, 2021년 8월 16일.
- 15) 「수원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문체부, 전국 6개 지자체 지정...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지원」, 『경기중앙신문』, 2021년 12월 23일; 「수원시, 문체부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5년 최대 100억 확보」, 『뉴스핌』, 2021년 12월 23일; 「수원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수원신문』, 2021년 12월 24일; 「수원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서울뉴스통신』, 2021년 12월 24일.
- 16) 「수원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문체부, 전국 6개 지자체 지정...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지원」, 『이뉴스투데이』, 2021년 12월 23일; 「수원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5년간 국비 지원」, 『경인일보』, 2021년 12월 24일.
- 17) 「수원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뉴스타운』, 2021년 12월 24일.
- 18) 「수원시, '시민 중심 인문 문화도시' 재도약 꿈꾸다... 오는 2022년 문체부 주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 5년간 최대 200억 지원」, 『경기경제신문』, 2020년 3월 11일; 「'시민 중심 인문 문화도시' 재도약 꿈꾸는 수원시」, 『광고신문』, 2020년 3월 10일.
- 19) 「'시민 중심 인문 문화도시' 재도약 꿈꾸는 수원시」, 『투데이경제』, 2020년 3월 10일.
- 20) 「시민들 힘으로... '인문 문화도시 수원' 도약 준비 착착」, 『경기신문』, 2020년 3월 10일.
- 21) 「수원시, '시민 중심 인문 문화도시' 재도약 시동」, 『경기뉴스탑』, 2020년 3월 11일; 「수원시, '시민 중심 인문 문화도시' 재도약 꿈꾼다」, 『경인통신』, 2020년 3월 10일.
- 22) 「[특별기획] 수원시, '시민 중심 인문 문화도시'로 재도약하다」, 『일요서울』, 2020년 3월 10일; 「'시민 중심 인문 문화도시' 재도약 꿈꾸는 수원시」, 『경기포커스』, 2020년 3월 11일; 「수원시,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문화도시 지정 '박차」, 『매일일보』, 2020년 3월 10일.
- 23) 「서포터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을 돌아보다」, <https://blog.naver.com/suwonloves/220487490736>, 2015년 9월 21일.
- 24) 「화랑가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오픈 '시민 미술관으로 10월8일 개관전시」, 『CNBJOURNAL 문화경제』, 2015년 9월 21일.
- 25)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을 돌아보다」(<https://rja49.tistory.com/3375>), 『바람이 머무는 곳』, 2015년 9월 20일.
- 26)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첫 전시 '백년을 거닐다: 백영수 1922-2018' 개최」, 『경기타임스』, 2020년 5월 11일.
- 27) 「SK, 수원시에 수원SK아트리움 기부」, 『뉴스시』, 2014년 3월 4일.
- 28) 「수원SK아트리움 개관 1년 조수미 특별공연 개최」, 『뉴스시』, 2015년 8월 20일.
- 29) 「수원시-KT,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신청서 접수- 인구, 교통접근성, 관중동행요소 등 3박자 갖춘 최적지 강조」, 『경인투데이』, 2013년 1월 7일.
- 30) 「수원시·KT, 10구단 유치 신청서 제출」, 『뉴스피크』, 2013년 1월 7일.
- 31) 「프로야구 10구단 "당연하지, 수원!", 23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민서포터즈 창단대회」, <https://blog.naver.com/hdd1212/90159255983>, 2012년 12월 17일.
- 32) 「여-야의원, KBO에 10구단 선정 관련 공정한 평가 촉구」, 『MLBPARK』, 2013년 1월 10일.
- 33)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KT위즈 출정식 수원야구장에서 펼쳐져」, 『특속수원』, 2014년 4월 1일.
- 34) 「KT위즈 창단 첫 통합우승, 수원 들썩... "막내가 해냈다"」, 『뉴스시』, 2021년 11월 19일; 「[뉴스시 경기남부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하>」, 『뉴스시』, 2021년 12월 19일.
- 35) 「서수원칠보체육관 '수원KT소닉붐아레나'로 명칭 변경」, 『PAX경제TV』, 2021년 9월 30일; 「수원시·KT 소닉붐, 연고협약 체결... 협약 기간 5년 "수원 KT 소닉붐, 수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원KT소닉붐아레나(서수원칠보체육관)로 명칭 변경」, 『경기데일리』, 2021년 9월 30일; 「수원시·KT 소닉붐, 연고협약 체결...4대 프로팀 완성」, 『이데일리』, 2021년 9월 30일; 「"수원 KT 소닉붐, 수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울뉴스통신』, 2021년 9월 30일.
- 36) 「"수원 KT 소닉붐, 수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9월 30일; 「"수원 KT 소닉붐, 수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외뉴스통신』, 2021년 9월 30일.
- 37) 「KBL 이사회 승인, KT 소닉붐 수원시로 연고지 이전 확정」,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9일.



\*  
**사통팔달 친환경 철도망 구축 :**  
 수인선, 수원분당선, 신분당선 연장선,  
 인덕원-수원선, 수원발 KTX, GTX-C까지

●● 수인선 개통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2020년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됐다.<sup>1)</sup> 수인선 협궤열차는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로 1937년 7월 11일에 개통, 수원시-인천시를 오갔다. 소금과 곡물을 인천항으로 수송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생선장수, 직장인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다. 1980년대부터는 수인선 협궤열차의 낭만을 느끼려는 관광객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협궤철도는 철도 궤간(軌間)의 폭이 표준궤도(1435mm)보다 좁은 궤도(762mm)였다. 그러나 개통 58년 만인 1995년 12월 31일 한대앞-수원 간 운행을 마지막으로 멈췄다.

이후 수인선은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추진, 25년 만에 완전히 부활한 것



2020년 9월 12일 수인선 개통식(2020.9.10. 수원시 포토뱅크)

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해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했다. 1단계 구간인 오이도-송도(13.1km) 구간은 2012년 6월에, 2단계 구간인 인천-송도(7.3km)는 2016년 2월에 개통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9월 12일 수원-한대앞 구간(19.9km)을 개통함에 따라 기존 협궤 노선 폐선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원-인천 구간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완전 개통된 수원-인천 구간은 52.8km이다.

수원-한대앞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수원에서 인천 간 운행되는 수인선은 분당선(수원-분당-왕십리·청량리)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되고 있다. 수인선·분당선 직결 총 운행거리는 108km에 달한다.

이로써 인천과 경기 서남부지역인 시흥·안산·화성·수원에서 경기 동

부지역 용인·성남 등 간의 이동이 편리해졌으며, 주요 거점역인 수원역(KTX, 경부선 일반철도, 1호선, 분당선 이용 가능)으로 가는 거리와 시간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다.

지금까지는 인천, 시흥, 안산, 화성에서 수원역까지 전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거나 금정역 및 구로역까지 이동해 1호선으로 환승해야 했다. 수인분당선 개통으로 서수원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수인선 수원 구간은 5.35km로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있다. 수인선 전 구간이 연결되고, 수인선이 분당선과 연결되면서 서수원권 주민들은 고색·오목천역을 이용해 전철을 타고 환승 없이 인천·안산·용인·성남·서울시를 갈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동수원권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수원 지역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동·서수원의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sup>2)</sup>

수인선이 개통된 지 1년 후 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우선 분당선과 직결되면서 시민들이 안산과 시흥을 거쳐 인천으로 가거나 용인과 성남을 거쳐 서울로 진출하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었다. 개통 이전에 수원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데는 90분이 걸렸는데 수인선은 이를 70분으로 대폭 단축했다.<sup>3)</sup>

특히 수인선 수원 구간에는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신설돼 철도 이용에 소외됐던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였다. 수원시의 경계지역인 오목천역 인근에서 수원시 중심부인 수원시청 인근으로 오려면 버스로 환승까지 해 40분이 걸렸으나 현재 수인선을 이용하면 11분 만에 수원시청역에 도착한다. 시간을 잘 맞추면 30분 가까이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sup>4)</sup>

수인선의 이용객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색역의 경우 개통 후 11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말까지 누적 승하차 인원이 176만여 명에 달했다.



수인선 고색역 광장 일부 공원이 연결돼있는 모습  
(2020.9.10. 수원시 포토뱅크)



수인선 오목천역에서 협궤터널 방향으로 옛 철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2021.9.2. 수원시 포토뱅크)

첫해인 2020년 일평균 4,438명(승차 2,240명, 하차 2,198명)이었던 이용객 수가 2021년엔 5,998명(승차 3,046명, 하차 2,952명)으로 대폭 늘었다. 인근에 위치한 수원델타플렉스(옛 수원산업단지) 근무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오목천역은 같은 기간 129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0년 일평균 3,562명(승차 1,860명, 하차 1,702명)에서 2021년엔 4,226명(승차 2,192명, 하차 2,034명)으로 20%가량 증가했다. 오목천동은 수원시 외곽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지역이었으나 수인선이 생기면서 인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학생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졌다.<sup>9)</sup>

수인선 수원 구간인 고색동·오목천동 지역은 애초에 지상철로 계획했지

만, 철로로 인한 지역단절, 환경·소음 문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원시가 적극 수렴해 수인선 수원시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 2013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1,92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다.<sup>6)</sup>

지하화로 생긴 상부는 산책로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수원시는 수인선 수원 구간 상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시민이 가꾸어 가는 '참여정원' 등 약 3.5km 길이의 선(線) 형태 친환경 휴게 공간을 조성했다.<sup>7)</sup> 수인선 상부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수원의 명소가 됐다. 수인선 수원 구간이 서수원권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뿐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수인선 수원 구간이 지하화됨으로써 상부공간에는 '기차길' 대신 '사람길'이 생겼다. 고색동에서 오목천동으로 이어지는 3.5km 구간이 길게 연결돼 선형으로 단절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수인선 하늘숲길'이 됐다. 수인선 하늘숲길은 이팝나무, 왕벚나무,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역새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도심 속 숲길을 재현했다. 옛 철로를 활용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곳곳에 가미된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산책로 곳곳에 쉼터와 소규모 광장 등이 마련됐고 자전거도로도 잘 연결돼 있다. 수원시는 수인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배려했다.

수인선이 통과하던 189m의 협궤터널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협궤터널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에 주목한 두 도시는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보행터널로 재탄생시켰다. 터널 내부에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점을 표시했다. 수인선 하늘숲길 구간 중 도로와 하



수인선 협케터널(2021.9.2. 수원시 포토뱅크)

천 등으로 단절된 구간에는 보행입체시설을 설치해 끊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황구지천이 지나는 구간과 서부도로 단절된 길에 교량을 설치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분당 연장선 수원역까지 개통

2013년 11월 30일 지하철 분당 연장선 마지막 구간 망포-수원역 5.2km가 준공됨으로써 성남 오리-수원역 19.5km 전 구간이 개통됐다. 지난 2002년 오리-죽전 구간에서 첫 삽을 뜬 지 11년,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된 것이

다. 분당 연장선이 수원역과 연결됨으로써 국철1호선으로 수원역에 내린 승객이 지하철을 환승, 수원시청과 영통지역까지 갈 수 있다. 분당 연장선의 수원시 구간에는 청명, 영통, 망포, 매탄권선, 수원시청, 매교, 수원역 등 7개 역이 설치됐다.<sup>8)</sup>

수원시 내에서는 수원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수원 지역에서 분당 연장선을 이용해 강남까지 40분에 갈 수 있고 서울 모든 지하철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동안 수원시민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원역까지 가야했다. 수원시 서부권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유리했지만 동수원, 영통, 광고 등 동부권 주민들은 수원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지하철보다는 승용차 또는 버스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번에 분당 연장선이 개통되며 인계동, 권선동, 매탄동 등 동수원과 영통지역이 편리한 전철권에 포함됐다. 게다가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안산, 인천에도 쉽게 갈 수 있다.



2013년 11월 29일 열린 분당선 수원 연장 구간 개통식 (2013.11.29. 수원시 포토뱅크)

분당선 연장선은 당초 200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997년 기본설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공사기간이 매년 늘어났다. 분당선 연장선은 앞서 2011년 오라-기흥(6.9km) 구간이 완공됐고 2012년 기흥-망포(7.4km) 구간이 차례로 개통됐다. 수원역까지의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분당선은 사업에 착수한 지 11년 만에 완전 개통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을 크게 해소시켰다.

분당선 연장선의 완전 개통으로 수원에서 용인 기흥, 성남 분당, 서울 강남을 거쳐 왕십리까지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하철로 건설 중인 신분당선 연장구간(성남 정자-광교신도시 11.9km)과 수인선(수원역-인천 총연장 52.8km)이 개통되면서 수원의 교통체제는 지하철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하철 시대 개막으로 수원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일보』는 “수원의 새로운 가치는 높이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선 수원연장선 개통 후 승객이 급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통 후인 12월 12일 기준 분당선 연장선 수원구간 역별 승객현황을 파악한 결과 영통역에서 매표해 탑승한 승객수가 하루 8,210명에서 1만 6,221명으로 무려 97%나 늘었다는 것이다. 청명역은 4,600명에서 8,007명으로 71%, 망포역은 1만 2,703명에서 1만 9,823명으로 56% 증가했다.

연장구간 개통과 함께 신설된 수원시청역은 하루 1만 6,183명, 매탄권선역 6,852명, 매표역 4,057명이 각각 탑승했고 국철1호선과 경부선 환승역인 수원역에서는 1만 8,83명이 매표 후 탑승했고 4만여 명이 환승한 것으로 추정됐다.<sup>9)</sup>

이에 따라 분당선 연장선 수원구간에서 표를 구입해 탑승한 이용객은 하루 8만 2,026명에 달해 기차나 버스, 택시 등 환승객까지 합칠 경우 하루 이용객은 대략 12만~13만 명으로 대박 노선임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승객이 많은

이유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만성적인 수원시 내 교통정체를 피해 삼성전자나 영통, 수원시청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 호매실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

2016년 1월 30일에는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연결됐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가는 시간이 37분으로 단축됐다.

이 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11년 2월 착공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민간자본 7,522억 원 등 총 1조 5,343억 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정자-광교 구간은 경기철도(주)가 2046년까지 30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 운영은 강남-정자 구간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주)가 맡아 함께 운행하게 된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에 들어서는 역은 총 6개며 성남시가 재원을 분담해 뒤늦게 착공한 미금역(정자역-동천역 사이 위치, 분당선 환승 가능)은 2017년 말 개통됐다.<sup>10)</sup>

신분당선은 최고속도 시속 90km, 평균속도 시속 51.4km로 광교중앙역에서 강남까지 31분(광교(경기대)-강남은 37분 소요)에 접근할 수 있어 기존 분당선이나 버스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또 광교중앙(아주대)역에는 철도와 광역· 시내버스를 지하에서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되고 동천역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정류장이 설치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수원시는 광교역에서 호매실까지의 연장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



2016년 1월 29일 열린 신분당선 정자역-광고역 구간 개통식(2016.1.29. 수원시 포토뱅크)

이 쉽지 않았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고-호매실)은 수원원 주민들의 숙원이지만 십 몇 년째 사업이 지연됐다. 지역 주민들이 입주 시에 이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00여 억 원을 낸 바 있는데도 말이다.

신분당선은 수원 서부의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됐다. 2006년 7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13년 6월 2단계(광고-호매실) 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결정(기획재정부)돼 본격화됐다.<sup>11)</sup> 그러나 두 차례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불가 판단을 받았다. 국토부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광고-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분석)가 당초 1.0 이상에서 0.57로 낮아졌다.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2015년엔 그보다 더 낮은 0.39였다. 이에 사업이 표류됐다.

이에 『경기신문』(2019년 2월 6일)은 사실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선은 정부의 약속이다. 호매실 등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933억 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1,300만 경기도민을 향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도 신분당선 연장이 들어 있었다. 정부가 약속을 하고, 이에 주민들이 5,000여 억 원이나 되는 광역교통 부담금을 냈으며, 대통령까지 공약한 사업인데 이처럼 지지부진하다.”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2018년 10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분당선 호매실역 착공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린 12월엔 금곡동 어울림공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적용을 애타게 바라는 촛불집회까지 열었다. 그럼에도 2019년 1월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하자 수원시와 해당 지역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수원시는 입장문을 내 “경제부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겼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은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원론적인 계획 발표로 수원시민의 실망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하고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는 TF팀을 만들어 신분당선 사업 착공을 위해 전력을 투구했으며, 지난해 4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안)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국토교

통부·경기도·수원시 3개 기관의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조사 공동대응 용역을 추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분당선 연장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은 정부와 국민의 약속임을 강조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였다.

지역 주민들도 분노했다. 2019년 4월엔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호매실 연장의 필요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 “반드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은 주민은 12년 동안 기만에 놀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며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 지자체와 힘을 합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역시 입장문을 내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의 항의도 잇따랐다.

이처럼 수원시가 강하게 반발하자 2019년 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공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국토부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어 4월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대해 지역균형 배점(25~35%)을 폐지하고 경제·정책성만 갖고 종합평가하도록 제도

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도 선정됐다.

드디어 2020년 1월 15일 수원시, 신분당선(광고-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수원시와 호매실지구 등 서수원권 주민들은 드디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sup>12)</sup>

『경기데일리』(2020년 1월 15일) 한 언론은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가 이뤄진 후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15일 오전 11시께 금곡동 주민들은 14년을 기다렸던 소식이 들리자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호매실지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고 기쁨을 나눴다. 주민 박수희 씨(42·여)는 ‘수차례 열린 집회에 모두 참석할 정도로 바라던 일이 이뤄지니 날아갈 것만 같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 이사 온 지 3년 만에 호재까지 생겨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불일을 보다가 소식을 듣게 된 김진선 씨(40·여) 역시 ‘5년간 호매실지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을 위해 손꼽아 기다렸는데 연초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돼 너무 좋다.’며 화색이 돌았다.”

2023년까지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착공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단계를 거쳐 광고중앙역-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까지 수원의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으로 건설된다.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할 경우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2021년 12월 29일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연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다. 광고-호매실 연장사업을 통해 광고중

양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되며 정거장은 연장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광고중앙역 외에 우만동, 조원동, 화서동, 금곡동 등 4곳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1조 원 규모이다.

신분당선 호매실-광고사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때보다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전체 구간의 절반을 단선으로 계획했으나 기본계획에서는 열차 시격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구간을 복선으로 반영했다.

역사 위치도 이용자 관점에서 조정됐다. 수원월드컵역 인근에 위치한 SB06역은 인덕원-동탄선과 환승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위치를 인동선 정거장 인근으로 변경해 환승거리가 130m 감소됐다.

● 인덕원-수원 간 '신수원선' 사통팔달 격자(格子)형 철도망 구축

2018년 3월 29일, 인덕원역에서 광고신도시,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건설법 제7조 4항에 따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덕원과 수원-동탄을 잇는 37.1km 구간 복선전철과 18개 정거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수원선은 인덕원·의왕·수원·동탄 구간에 건설되는데, 수원 구간 13.7km에는 6개 역이 들어선다. 복수원·장안구청·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삼거리·원천교사거리·영통역(가칭) 등이다.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경수대로 차량 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신수원선은 특



신수원선 구간도(2020.1.21. 수원시청 보도자료)

히 복수원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1년 10월 12일 수원시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신수원선의 장안구 구간 조기 착공을 촉구하면서 “신수원선은 인덕원부터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는 장안구민과 수원시민의 애환과 노력이 담긴 숙원사업으로,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간선축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수원 전역의 교통 발전과 사통팔달 수원시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 3월 25일 신수원선 확정고시 촉구 가두행진(『신수원선 확정 고시하라!』, 『e수원뉴스』, 2018.3.25.)

하지만 신수원선 기본계획이 고시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2003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용인·안양·화성시 등 4개 시(市)를 가로지르는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북선전철) 사업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1번국도 노선을 따라 인덕원역-고천-북수원-수원야구장-수원월드컵경기장-수원시청역-수원종합버스터미널-병점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었다.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동력이 사라졌다가 2010년 노선을 조정해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어 201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2014년 12월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재착수하며 구체화됐다.<sup>13)</sup>

한편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희망고문을 받고 있던 북수원권 주민들도 들고 일어섰다. 주민들은 2018년 3월 25일 장안구청 앞에서 북수원지역발전정책위원회(위원장 주만근) 주최로 신수원선 확정고시 촉구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날 가두행진에 주만근 북수원지역발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수원은 신수원선 전철사업 준비가 완료되었다. 타 지역의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신수원선을 조속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확정 고시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3월 29일, 신수원선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다. 수원시는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된 5개 역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북수원역(교육원삼거리) 추가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에 북수원역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시 예산으로 사업비를 분담하더라도 북수원역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인덕원-수원-동탄 북선전철은 일반철도사업으로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가 추가 신설을 요청한 역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북수원역 신설 추가 비용 686억 원 중 343억 원(비용편익비 1.0 이상은 50% 납부)을 분담하기로 최종 협약했다. 이처럼 인덕원-동탄 북선전철 건설사업이 확정되면서 수원시의 ‘사통팔달 격자(格子)형 철도망 구축’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수원시는 신수원선 수원 구간 조기 착공과 완공을 위해 중앙정부, 국가철도공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 ●● KTX 수원에서 출발한다

수원은 수도권 남부 순환철도망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경부선 일반철도,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을 수원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원역에서 삼성역·의정부역을 거쳐 덕정역(양주)에 이르는 GTX-C노선 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데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 평택지제역까지 4.7km를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KTX 건설 당시 광명역에서 출발한 노선은 수원을 거치지 않았다. 수원시민들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수원이 KTX 노선에서 제외된 것이냐며 무능한 설계자와 정치논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을 비롯해 경기남부의 시민들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과 광명역, 또는 천안으로 가서 KTX를 타야 했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역 KTX 정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KTX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입장에서도 승객이 많은 수원역 정착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2010년 11월1일 KTX가 수원역에 상행선 4편, 하행선 4편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수원역에 KTX가 정착하자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수원은 물론이고 화성, 용인, 안산 등지에서도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연일 매진사례가 벌어졌다. KTX 한 편당 정원이 935명인데 약 430명이 수원역에서 승차한다. 매진사례는 당연한 결과이다. KTX가 수원역 정착한지 불과 1년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역을 거치는 KTX는 대전역까지 기존 경부선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속철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제안했다. 수원역이 KTX 출발지가 되면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수원역에서 전국 주요 역까지 이동 시간은 줄어든다. 수원역에서 부산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2시간 44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28분 단축되고, 수원역에서 목포역은 4시간 39분에서 2시간 28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수원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위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관계 당국자 책임자와 실무자를 만나고 여론전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결과 2016년 7월 8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13일엔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천·수원발 KTX 직결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수원시는 2019년 9월 6일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기본설계안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고속철을 이용해 갈 수 있다.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소요 시간도 수원-부산은 현재 2시간 44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28분 단축되고, 수원-목포는 4시간 39분에서 2시간 11분으로 2시간 28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4)</sup>

## ●● 수원역에서 의정부까지 40분, GTX-C노선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삼성역을 가려면 1시간 2~3분이 소요되고

환승도 두 번을 해야 하지만 몇 년 후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을 이용해 환승 없이 22분 만에 삼성역에 도착할 수 있다.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GTX-C노선은 수원역에서 덕정역까지 74.8km 구간에 건설된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71분에서 26분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수원역에서 의정부역까지는 현재 2시간 정도에서 40여 분 만에 갈 수 있다.

GTX는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km의 초고속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이 중 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km 구간으로 서울 강남·북을 관통해 지나간다. 사업비만 4조 3,857억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7년경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GTX-C노선은 특히 환승 거리와 환승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GTX-A와 교차하는 삼성역, GTX-B와 교차하는 청량리역에서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 초 단위 환승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GTX-C 추진으로 수도권 남부와 북부 주민들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수원역 · 광고중앙역 환승센터 개통

### ● 수원시 교통의 허브, 수원역환승센터 개통

2017년 6월 16일 수원역사(AK플라자)와 롯데몰 사이 권선구 세화로 136에 수원역환승센터가 개통됐다. 이날 개통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으로 하루 유동인구 30만 명을 넘나드는 수원역 주변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며 “환승센터가 수원시 동서지역 균형발전의 축이자 서수원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승센터는 연면적 2만 3,377㎡, 건축면적 3만 5,16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써 버스환승터미널, 택시·승용차 승하차시설, 전철 환승시설 등을 갖췄다. 지상 2층에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12개 정류장이 있다. 12개 버스정류장이 승객대기실이 있는 중앙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실내 승객대기실



2017년 6월 16일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식(2017.6.16. 수원시 포토뱅크)

3곳에서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sup>15)</sup> 특히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과 ‘수원관광안내소’, 종합정보안내시스템(키오스크)이 있다. 대기실에 콘센트가 있는 탁자가 설치돼 있어 노트북을 올려놓고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지상 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실내), 택시 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차장이 있다. 지하 1층은 연결 통로이다. 환승센터와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자동차 131대를 세울 수 있는 환승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애경백화점, 롯데몰 등 주변 쇼핑센터와도 연결된다.<sup>16)</sup>

노인과 교통약자들 환승도 편해졌다. 환승센터는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원역환승센터(2017.7.3. 수원시 포토뱅크)

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단 시설물이 많지 않고 공간이 넓어 복잡하지 않다. 지하 1층 연결 통로 바닥에는 대기실, 환승주차장 등 주요 시설 명칭이 새겨진 색선이 그려져 있다. 색선의 폭이 1m가 넘고, 안내 시설물마다 색깔이 달라 환승센터를 처음 찾는 사람도 색선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sup>17)</sup>

수원역 주변은 역 동쪽에 107개 노선의 버스 1,200여 대가 경유하는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매우 혼잡했지만, 서쪽에 환승센터가 개통됨으로써 시내·마을·좌석버스 1,242대 중 26%가량이 환승센터로 정류장을 옮겼다. 수원시 공무원과 버스업체 관계자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선을 이전한 버스가 정차하던 정류장 주변과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지속해서 버스노선 이전을 홍보하

고, 위치를 안내해 왔으며, 동쪽 정류장에서 환승센터로 가는 길에는 바닥에 파란색 화살표 모양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sup>18)</sup>

수원역환승센터는 2012년 4월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을 시작, 같은 해 12월 '환승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014년 7월 공사를 시작해 3년여 만에 준공했다. 시비 495억 원, 도비 105억 원, 국비, 150억 원 등 750억 원이 투입됐다. 환승센터 개통으로 환승 거리·시간도 짧아졌다.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거리는 329m였지만 환승센터에서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m이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거리는 318m에서 215m로 100m 넘게 줄어들었다. 환승시간도 1분 9~43초가량 감소했다.<sup>19)</sup>

수원역환승센터 개통 한 달 후 『경인일보』는 2017년 7월 18일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수원역환승센터가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개통과 함께 수원역 주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107개 노선 시내·마을·좌석버스 1천 242대 중 26%가량이 환승센터로 정류장을 옮겼다. 초기에는 달라진 정류장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란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오전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이용객들을 만났다. 전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지만, 버스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시민들은 다소 불만이 있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환승센터 개통으로 가장 편리해진 점은 환승 거리·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거리는 329m였지만 환승센터에서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m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 거

리는 318m에서 215m로 100m 넘게 줄었다. 환승 시간도 1분 9초~1분43초 가량 단축됐다.

대부분의 이용객은 전철에서 내려 버스정류장을 익숙하게 찾아갔다. 이동거리가 줄어든 만큼 개통으로 편리해졌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어르신이나 환승센터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정류장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로 영통에서 전철(분당선)을 타고 와서 버스로 갈아탄다는 임지은(64) 씨는 “환승이 예전보다 편해졌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곳곳에 계셔서 크게 불편한 건 없다.”며 “예전 정류장은 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어서 혼잡했는데 환승센터는 정류소가 많아서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수원종합공구단지(권선구)로 출퇴근하는 허성은(43) 씨도 “수원역까지 전철을 타고 와 버스로 갈아타는데, 전보다 이동거리가 줄어들어 한결 편해졌다.”며 “정류장 바로 앞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와 수원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화성시로 간다는 김화녀(80) 할머니는 “오늘 환승센터를 처음 이용하는데, 갈아타는 게 너무 편해졌다.”면서 “전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안내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선구 탑동에 사는 송월석(72) 씨는 “화성시를 자주 가는데, 환승센터가 생기고 나서 버스를 갈아타는 시간이 늘어나 불편해졌다.”며 “젊은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질지 몰라도 나 같은 노인들은 몇 번을 와도 헛갈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환승센터를 처음 찾는다는 한 50대 여성은 “버스정류장을 찾느라 수원역 주변

을 몇 번 돌았다.”고 말했고, 한 40대 남성은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버스노선 변경 안내도가 너무 복잡하다.”며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환승센터가 수원을 대표하는 교통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강수 수원시 도시교통과 주무관은 “개통 초기에는 ‘예전보다 불편해졌다. 낯설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편해졌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더 많아졌다.”며 “버스노선을 물어보는 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2015년, 2017년, 2019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4회 연속 선정된 것이다. 4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초지방정부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평가항목은 ‘대중교통 수단·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안전성 제고’, ‘주민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률’ 등이다. 수원시는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대중교통 환승체계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수도권 최초 지하에 만든 광고복합환승센터

광고중앙역 광고복합환승센터가 2016년 4월 29일 개통됐다. 이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하에 설치된 환승센터는 더운 여름

이나 추운 겨울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중앙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3층 신분당선 플랫폼에서 지하 2층 개찰구를 나온 다음 지하 1층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입체적 구조로 설계되어 환승거리가 매우 짧다.

지하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지하 1층에는 버스정류소가, 지하 2층에는 지하철 대합실과 쇼핑몰 및 택시승강장이 들어섰다. 지하 3층은 지하철과 연결된다. 지하 1층은 버스승강장, 버스정차대, 진출입램프 등 연면적 9,889㎡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철도와 M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환승센터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18번 등 8개 시내버스 노선과 M5414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8443번 등 4개 시외버스 노선 및 공항리무진 1개 노선 등 모두 18개 노선이다.

광교중앙역 복합환승센터는 2007년 5월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돼 2011년 2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됐다. 신분당선 시행사인 경기철도(주)가 470억 원을 들여 건설한 후 수원시에 기부 채납했다. 수원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4월 29일 정식 개통했다.

개통 두 달 열흘 정도가 지난 후 『중앙일보』는 환승센터를 취재해 보도했다. 다음은 ‘지하에서 버스·지하철 환승 ... “눈·비 오는 날 더 편해지겠죠”’라는 기사이다.<sup>20)</sup>

7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지하 3층 전철 승강장에서 내려 바로 위층 개찰구를 빠져나온 후 다시 한 층을 더 올라 가면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광교복합환승센터(5,567㎡)로 연결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만들어진 환승시설이다. 스크린도어·열선이 깔린 도로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6년 4월 28일 광교중앙(아주대)역 환승센터를 현장 점검하는 염태영 시장(2016.4.28. 수원시 포토뱅크)

환승센터 내 승객 대기장소에 설치된 스마트교통정보 화면에 ‘인천국제공항행 8877번 버스 3분 후 도착예정’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3분 후 8877번 버스가 지정된 1번 승차장에 멈춰 섰다. 1번 승차장 등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닫혔던 스크린도어가 그때야 열렸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잠시 후 4번 승차장에 도착한 서울역 방향 5121번 M버스(광역급행버스) 역시 정확했다. 스마트교통정보는 길 찾기는 물론 주변 관광지·문화소식 등의 검색도 가능하다. 165m의 길이의 승차장 바닥에는 양방향에 각각 8면씩의 정차공간이 그려져 있다. 환승센터에는 현재 18개 광역·시내버스 노선, 118대 버스가 하루 평균 718번 운행하는데 지정 승차장제로 운영 중이다. 승객들은 자신이 갈아타려는 노선의 지정 승차장 앞 대기장소에서 잠시 머물다 버스를 타면 된다. 한 정류장

에 수대의 버스가 몰리면서 타려는 버스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까치발을 들고 찾거나, 뛰어가 버스를 잡아타는 불편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려면 환승센터 중간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는데 신호 등 속 보행신호가 들어와야 스크린도어가 열린다. 승객 대기장소 천장에는 지하철 도착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시스템이 부착돼 있고, 천장에는 터널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환풍기 4대가 설치돼 매연 등 나쁜 공기를 빨아들여 외부로 내 보낸다.

환승센터에서는 지상의 광고중앙로를 달리던 차량이 양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해 지하 1층 환승센터로 오가는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입·출구 쪽에 배수 펌프 4대가 설치돼 있다. 불이 날 경우 대피로 쪽으로의 연기이동을 자동으로 막아 주는 차단시스템도 설치돼 있다. 겨울철 결빙방지를 위해 도로 아래에는 열선이 깔려 있다. 일산화탄소 등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설비도 운영 중이다. 시민 임재환(37) 씨는 “보통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려면 역사 밖을 빠져나와 버스정류장으로 또 걸어가야 하는데 지하에서 환승이 이뤄져 편리하다.”며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 더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 \* 수원역고가도로, 동서(東西)의 대동맥을 잇다

수원역고가도로(跨線橋, 철도선로를 가로지르는 교량)는 수원역 앞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착공해 2012년 12월 30일 임시 개통됐고, 2016년 완공됐다. 당시 320억 원이 투입된 과선교는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에서 경부선 철도를 가로질러 평동 수원역 우회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다. 시는 고가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원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진행되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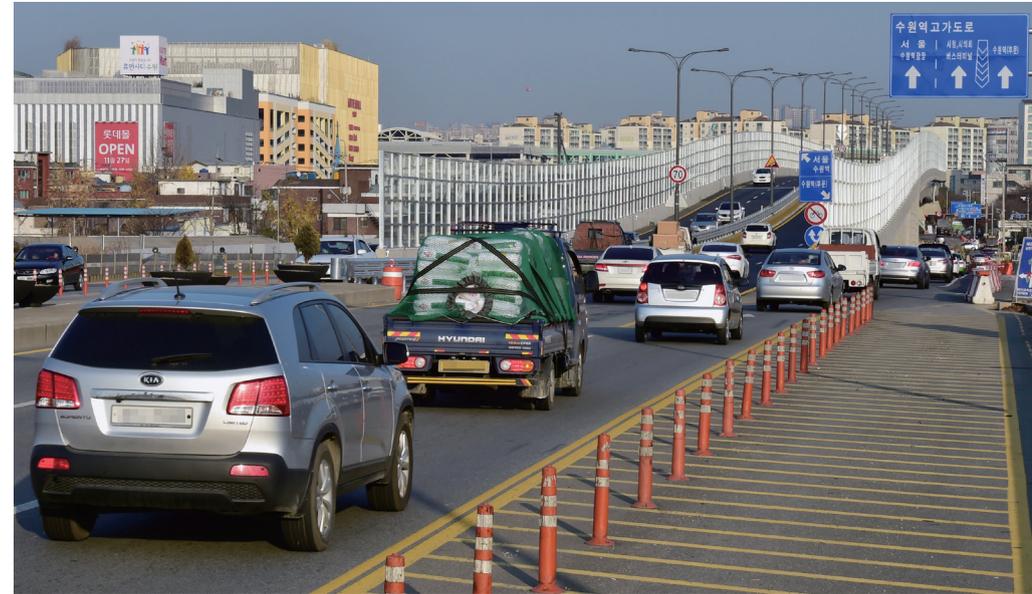
그런데 수원역 민자역사인 AK플라자 백화점과 교량 접속지점인 별터사거리에서 상습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더구나 수원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교량 주변에 롯데쇼핑과 AK플라자 백화점이 대규모 점포를 신·증설할 예정이어서 고가도로의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sup>21)</sup>

시는 교량 길이를 941m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토지소유자인 KCC와 롯데, AK플라자가 과선교 연장공사비 610억 원을 전액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줬고 2013년 4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AK플라자 백화점 진입로부터 호매실 방면 벌터사거리까지 기존 교량 370m 구간을 철거한 뒤 벌터사거리를 횡단해 '고향의 봄길'까지 연결하는 길이 595m(폭 18m)의 교량을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sup>22)</sup>

먼저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 AK플라자 백화점 진입로부터 KCC공장 부지를 거쳐 벌터사거리를 연결하는 우회교량을 새로 건설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과선교에 500t급 빗물저류탱크도 설치됐다. 당초 계획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기존 우수BOX을 철거하고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아직 상태가 좋은 우수BOX를 철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이를 빗물이용시설로 재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우수전을 재활용함에 따라 완전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철거하는 데 필요한 공정도 대폭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됐다. 빗물 저류탱크에 저장된 빗물은 가로화단 용수와 폭염 시 도로 온도 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원역고가도로는 2014년 11월 27일 공식 개통됐다. 주요 교통기반시설인 수원역고가도로를 개통하면서도 수원시의 예산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공사 비용 610억 원은 KCC 309억 원, 롯데쇼핑 244억 원, AK플라자 57억 원 등 수원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3곳이 전액 분담했다. 수원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대동맥인 고가도로 연장공사에 시 예산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주요 교통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수원역고가도로를 개통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sup>23)</sup> 염태영 시장이 "시민 세금으로 길을 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도로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유치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사회 기여를 설득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다.



2014년 11월 27일 공식 개통된 수원역고가도로(2014.11.27. 수원시 포토뱅크)

시와 KCC, 롯데, 애경 등 3개 기업과의 공사비 협상은 2010년 7월 애경과 롯데가 백화점 건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시는 기업의 입점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 확대를 수혜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역세권 교통개선대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기업은 부담액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시는 2개 안을 제시했다. 교통개선대책 비용 전체를 분담하는 '비용 분담 방식안'(1안)과, 수원역환승센터 공사를 시가 맡고 고가도로(과선교) 공사를 기업이 맡는다는 '사업분담 방식안'(2안)이었다.<sup>24)</sup> 이 과정에서 시는 "시가 공사할 경우 관급공사 예에 따라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맡는 게 유리하다."며 2안을 받아들일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시는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했다. 결국 2012년 1월, 3개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 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두 번째 안을 받아들이고 수원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개통에 이른 것이다. 수원역고가도로는 수원의 동서(東西)를 이어주는 대동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로가 됐다.

## \* 수원 최초의 민자도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개통

2020년 9월 21일 수원 최초의 민자도로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이하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됐다. 준공식은 이보다 앞선 9월 16일 열렸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의 동-서를 연결한다.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7.7km 길이 왕복 4차선 도로로, 투입된 사업비는 3,161억 원이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지지대교차로 인근 파장IC에서 시작돼 주안말사거리 인근의 조원IC를 지나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부근 광고IC로 연결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고·상현IC 일원 광고호수로 통한다. 또 수원 서쪽의 서부로와 동쪽의 동탄원천로와 연결돼 3개도로가 수원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를 완성함으로써 만성 체증에 시달렸던 수원시 전체 도로에 숨통을 틔웠다.<sup>25)</sup>

하지만 준공식에서 염태영 시장이 토로한 것처럼 이 도로가 준공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염시장은 “광고산 환경보호를 위해 노선도 변경하고 감사도 받으면서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더 이상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20년 9월 16일 열린 수원북부순환도로 준공식(2020.9.16. 수원시 포토뱅크)

빠르게 준공했다.”고 말했다.

2004년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 후 2007년 광교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2008년 말 수원순환도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 제안 후 10년이 흐른 2014년 8월에야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수원시가 토지보상 등을 맡고 수원순환도로(주)가 2017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 3년 3개월 만에 정식 개통하게 됐다. 시설물은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수원순환도로(주)가 2050년 9월20일까지 30년간 운영관리권을 갖는 방식이지만 도로 운영사에 혈세를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된 후 추진돼 도로 운영 손실을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운영 15년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원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수원시는 이를 활용해 수원북부순환로의 시설물 개선 또는 통행량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다.<sup>26)</sup>

그런데 도로가 수원의 주산인 광교산 자락을 지나는 것을 알게 된 시민단체는 2013년 3월 감사원에 민자사업 결정 과정과 교통수요 과다추정 등 6개 사유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는 절차와 분석이 모두 타당하다고 지난 9월 통보했다. 또 도로 옆에 광교신도시의 광고초·중학교가 개교하면서 아파트 주민·학부모의 반대 운동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2년 넘게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걸어야 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광고초·중학교 앞 구간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을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2017년 6월에야 전체 구간 공사가 시작됐다.<sup>27)</sup>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의 교통지도를 바꿔 놓았다. 2020년 9월 21일 개통 이후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 4개월여 동안 수원북부순환로 이용현황을 수원시가 분석한 결과, 140일 동안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380만대에 달했다. 하루 평균 2만 7,000여 대가 통행한 것이다.<sup>28)</sup>

수원시의 인터넷 시정신문인 『e수원뉴스』는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한 날은 3만 8,000여 대(11월 13일), 가장 적게 이용한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0월 4일 1만 1,000여 대였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수원북부순환로의 운영 기준이 되는 ‘추정교통량’은 총 4만 6,000여 대이다. 4개월간 추정교통량의 60%에 가까운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며, 최대 통행량 기준으로는 추정교통량의 80%를 넘길 정도”라며 수원북부순환로가 단기간에 자리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수원북부순환로는 주중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통행량(평균 3만 1,000여 대)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통행량(평균 1만 9,000여 대)에 비해 40%가량 많아 주로 출·퇴근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



수원북부순환로(2021.2.27. 수원시 포토뱅크)

됐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반적으로 겨울철 통행량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수원북부순환로가 수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었다.<sup>29)</sup>

수원북부순환로는 빠른 이동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북부순환로 개통으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통 후 한 달이 지난 2020년 10월 차량 2대를 이용한 비교 주행을 실시했다. 2대의 차량을 상현역에서 출발시켜 1대는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하고, 다른 1대는 창릉대로(국도 43호선)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를 경유해 이목사거리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했다. 출퇴근 시간의 절정인 오전 8시 정각에 2대의 차량이 동시 출발해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8분 만에, 기존 도로를 이

용한 차량은 38분 만에 도착했다. 구간 이동 소요 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된 것이다. 기존 시내 도로의 체증을 개선됐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기존 도로의 차량 속도 및 소요 시간을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하면 평균 이동시간이 최대 27%나 절감됐다.<sup>30)</sup>

새 도로 개통 전에는 지지대사거리-창룡문사거리-광고사거리까지 7.4km를 이동하는 경우 오전 8시에는 29분, 오후 6시에는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된 후인 10월 이후 이동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 12월에는 오전 8시에 23.4분, 오후 6시에는 25.8분이면 같은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 통행 속도 역시 개통 전인 9월 오전에는 26.15km/h에서 개통 후인 12월에는 29km/h로, 오후 6시 기준은 24.91km/h에서 26.2km/h로 더 원활해졌다.<sup>31)</sup> 수원북부순환로는 대형 덤프트럭 등 중차량 이용도 하루 1,000여 대에 달해 수원시는 도심지 미세먼지와 도로파손 등이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장안구 이목동과 화성시 진안동을 연결하는 서부로로 이어져 광고에서 화성서부지역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통구 매탄동에서 화성시 영천동을 연결하는 동탄원천로와도 가까이 위치해 화성동부지역에서 수원북부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막히는 시내 도로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sup>32)</sup> 즉, 3개 도로가 수원의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로 이어져 있어 수원시 전체 도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 화성, 팔달구청사를 품다

2014년 3월 31일 팔달구청이 매향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팔달구청 개청 21년 만에 수원화성 성안마을 매향동에 '내 집'을 마련한 것이다. 낙성식은 4월 5일 오전 11시 팔달구 창룡대로 23에서 개최됐다. 신청사 낙성을 천하에 알리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북 타고에 이어 사자놀이, 태평무, 경기민요 등 연희로 낙성을 축하했으며 참가자들이 나무기둥에 매달린 10가닥의 천을 민요에 맞춰 춤을 추며 기둥에 감는 단심줄 유희로 시민의 한마음 단합을 다지기도 했다.

팔달구청사는 2012년 11월 화성박물관 잔여 부지에 착공, 공사비 256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2,787㎡, 연면적 1만 2,62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공심돈의 벽면 디자인을 차용하는 등 화성 성곽을 모티브로 설계한 팔달구청사는 종합민원실, 각 부서 사무실, 회의실 등 업무시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직장어린이집,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14년 4월 5일 팔달구청사 개청식(2014.4.5. 수원시 포토뱅크)

팔달구는 지난 1993년 2월 1일 신설된 뒤 21년 동안 인계동 상가, 우만동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 독립청사를 갖게 됐다. 팔달구청은 수원시 4개 구청 가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청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의가 컸다. 아울러 팔달구청사가 위치한 매향동은 수원화성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곳이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정조대왕의 역사가 녹아 있는 화성 내에 팔달구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침체된 수원지역 구 도심권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시에 구청제도가 도입(장안구, 권선구)된 것은 1988년이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993년 수원시 인구는 71만 4,272명으로 증가했다. 이때 팔달구가

만들어졌다. 장안구의 일부인 팔달, 남향, 지동, 우만동을 편입했으며 권선구의 인계, 매탄1, 매탄2, 매탄3, 원천, 이의동이 편입됐다.

팔달구청은 시청 뒤편 인계동 개인 상가빌딩을 임차해서 1993년 2월 1일 문을 열었다. 세 번째 개칭한 팔달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시청 뒤편 상가 빌딩을 임대해서 개칭한 것이다. 청사가 비좁아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했다. 2002년 수원에서 월드컵축구가 끝나자 월드컵 경기장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2003년 1월 2일 월드컵경기장 1~2층을 리모델링, 팔달구청사를 이곳으로 이전했다. 현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11년간 이곳을 청사로 사용했다. 1층에는 세무과와 시민과가 있었다. 민원업무 부서를 1층에 두어 민원을 보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 주겠다는 배려였다. 2층에는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대강당과 합



팔달구청과 수원화성박물관(2021.2.20. 수원시 포토뱅크)

계 구청장실이 있었다.

2010년 6월 제5대 민선시장 선거에 나선 염태영 후보는 “슬림화되는 화성 내 행궁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팔달구청을 성 내로 옮기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이 됐고 팔달구청 이전을 위한 부지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구청사 후보지는 5곳이었다. 제1후보지는 신평지구인 현재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부지, 제2후보지는 행궁광장 남쪽 현재 건립 중인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부지, 제3후보지는 장안동 현재 전통문화관 부지, 제4후보지는 남수동 수원화성 박물관 건너편이었다. 제5후보지가 수원화성박물관 부지였다. 검토 결과 최종 후보지로 수원화성박물관 주차장 부지를 팔달구청 부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곳은 2006년 수원화성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동지(東池)를 복원하기 위해 추가로 매입한 땅이었다. 하지만 발굴결과 동지 유구가 나오지 않아 복원하지 못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이 팔달구청 부지로 결정이 된 것이다. 팔달구청은 수원의 원도심인 화성 안 행궁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팔달구청이 개칭되자 『e수원뉴스』(2014년 8월 7일) 김민규 시민기자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한 팔달구청’이란 기사를 올렸다.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고 있는 수원 팔달구는 수원의 중추적인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구청사가 없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현 구청사가 있기 이전에는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화서동과 고등동 등 팔달구 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구청 업무를 보는 것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제 팔달구의 중심부이자 수원화성 성곽 안쪽으로 이전한 팔달구청을 팔달구민들은 편리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3월 31일에 업무를 시작한 팔달구청은 지금 단순한 행정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공간이 아닌 작은 도서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또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했다.

팔달구청 앞에는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이라는 테마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비오톱'이라는 의미는 다소 생소한데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곳에 오면 아담한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다. 연못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고 분수도 있어서 시원하게 느껴진다.

또 정자와 벤치가 있어서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다. 팔달구청 앞에 조성된 공원은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고 잠시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행궁동, 매향동 등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종이나 박스상자 등을 수집하는 매향동에 거주한다는 한 할머니는 잠시 수레를 옆에 놓고 이곳 정자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팔달구청은 수원천과 화성 성곽을 따라 운동하는 시민들이 잠시 휴식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팔달구청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구청 내부에도 곳곳에 있다. 1층 로비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앉아서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읽을 수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이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꼭 민원업무를 보지 않는 시민들도 잠시 들어와 앉아서 더위도 식히고 독서도 할 수 있다. 구청 1층 뿐만 아니라 2층에도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으며 곳곳에 식물이 있어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준다.

현재 이곳에서는 (사)화성연구회 이낙천 이사장과 이용창, 오창원 씨 등 회원 18명이 참여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특별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6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사계절 밤과 낮의 아름다운 화성 풍경이 전시되고 있어 방문자들의 발길을 오랫동안 붙잡는다.

팔달구청 이전 후 주변 상권이 꿈틀대고 있다는 기사도 보였다. 『아시아일보』는 2014년 5월 7일 청사 이전 한 달이 지난 후의 변화를 기사로 썼다.

정오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팔달구청사 앞이 잠시 술렁였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나온 구청 직원 200여 명이 청사 인근 식당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 직원들은 팔달구청사 반경 200m 이내 거리에 있는 식당 10여 개로 들어갔고 다른 직원들은 500m 거리의 행궁길, 지동시장까지 찾아갔다. 점심식사도 해결하고 수원천 길을 걸으며 적당한 산책도 즐겼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퇴근길 직원들이 매향교 옆 통닭거리로 삼삼오오 빠져들거나 지동시장 순대골목, 1.5km 북문상가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의 발길은 모두 낙후됐던 원도심 상가의 매출을 올리는 직접적인 구매로 작용하고 있다.

팔달구청사 성안마을 이전 한 달째 걸으면 조용한 것 같지만 속으로 상권확보를 위한 치열한 변화의 힘이 감지됐다. (중략)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최근에도 가게 임대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식당, 커피숍 자리를 묻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빈 가게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임차인들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1~2년 사이 리모델링하는 단계에 상가의 면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땅값은 크게 올랐다. M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구청사 이전이 발표되던 2년 전부터 팔려고 내 놓 매물이 들어갔고 창룡대로 변으로 100만~150만 원 오른 평당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호가되고 있다.

## \* 고등법원·검찰청, 수원으로 오다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법원에 안 갈 수 있다면 좋지만 살면서 이런 저런 일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민사든, 형사든, 행정재판이든 엮이게 되면 법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했다. ‘원정재판’으로 교통비, 숙박비, 생업포기 등 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그동안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에만 설치돼 있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 설치 이후 고등법원은 5개소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200만 명의 경기도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들의 원정재판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법원·검찰청(이하 고등법원) 설치에 총력전을 펼쳤다.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수원시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국회에서 수원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수원고법 설치 당위성을

확산시켰다.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고법 신청사 부지를 협의하고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도 전개했다. 변호사협회와 지역 정치권도 이런 이유를 들어 고등법원 수원 설치에 적극 찬성했다.

수원시는 고등법원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3년 4월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 염원을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고,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시민의 의지를 모아 나가는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김진표 국회의원과 원유철 당시 국회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들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섰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경기고등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고등법원 유치열기 확산에 힘을 보탤다.<sup>33)</sup>

수원시의회도 경기고법 유치 건의문을 채택한 뒤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결성돼 “우리 경기도민 모두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최초 3년 동안 생산 1,302억 원, 고용 1,4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또 고등법원 설치 뒤 5년(중기), 10년(장기)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4,038억 원, 1조 1,2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외에도 수원 고법 산하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도 늘어나 지역 법률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고등법원(2011년 1만 7,200여 건)에 이송된 항소사건이 수원고법으로 이관되면 688억 원(변호사 수입료 평균 400만 원 가정)의 수입료 증대효과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 대전, 광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2022.5.9. 수원시 포토뱅크)



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수원시도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수원고등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수원고등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키로 확정했다.

2014년 10월 건립을 시작한 수원고등법원과 이듬해 10월 공사를 시작한 수원고등검찰청은 2019년 3월 4일 문을 열었다.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문을 열었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 8,962㎡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2006년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나온 지 14년 만이다.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가 시작됐다.<sup>34)</sup>

이날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시민이 수원고등법원 개원 주역”이라며 “우리나라의 6번째 고등법원이며, 기초지방정부에 설치된 첫 번째 사례”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2012년, 저와 김진표 국회의원,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원고등지방법원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았지만 산적한 난제들을 돌파하기에는 힘에 부쳤을 때 수원시민들께서 나서 주셨다.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수원고등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렸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 국회토론회, 국회·기획재정부·대법원 면담 등 수많은 고비들을 넘어가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셨다.”고 고마워했다.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중부일보』(2019년 3월 20일)에 유치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런 소회를 밝혔다. “역사적인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이 현실화되니 실로 감개무량하다. 감동의 눈물이 난다.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실현된 것이다. 대법원장은 개원식에서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중후표산(衆煦漂山)].’고 말했다. 그렇다. 수많은 경기도민의 즐기찬 노력들이 열매 맺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개원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이 더욱 향상되고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항상 신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 강화되는 치안, '팔달경찰서' 신설

120만 명 넘게 사는 대도시 수원시에는 지금까지 중부·남부·서부경찰서 3곳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중부서는 장안구에, 남부서는 영통구에, 서부서는 권선구에 위치해 있지만 팔달구에는 경찰서가 없다. 따라서 관내 3개 경찰서가 구역을 나눠서 관할했다. 팔달구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과거 수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품고 있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개발과 발전이 더뎠다.<sup>35)</sup> 단독·다세대주택과 구불구불한 골목길 등 사각지대가 월등하게 많다. 치안 수요가 많은데도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어 치안공백이 빚어지기 쉽다.

실제로 팔달구 관내에서 흉악강력범죄가 발생했고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2012년 중국인 우위엔춘은 길 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으며, 2014년 표우춘평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여기저기에 버렸다. 두 중국인들의 엽기적인 살인 사건으로

#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수원시청」 업무협약식



2018년 2월 5일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청 업무협약식에서 영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2.5. 수원시청 보도자료)

수원시와 해당 지역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 성범죄 위험도 측정·분석 보고서’를 보면 팔달구는 성범죄 위험도가 171.11로 서울 중구(203.78), 대구광역시 중구(196.67), 서울 종로구(183.49)에 이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였다. 특히 강간 위험도는 179.66으로 전국 최고였다. 그런데도 경찰서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졌다. 불만의 소리도 높아졌다.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행정과 치안의 경계를 맞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원시에는 4개 구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3개이다.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에도 경찰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타당했다.

수원시는 2015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팔달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했다. 드디어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결정됐다. 수원시는 지동 유치에 대한 주민동의서(90.7%)를 추가로 제출했다.<sup>36)</sup> 2017년 2월엔 사업 부지가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로 결정됐으며 연말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수원시는 물론 경찰과 지역 정가가 한데 뭉쳐 노력한 결과 사업비 확보도 수월하게 이뤄졌다.

2018년 2월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 10월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업무를 수원시가 수탁 받아 진행했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팔달경찰서 보상TF팀을 만들었다. 물건조사와 주민설명회,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신축사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해당 부지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집중했다. 보상 대상은 토지 100필지 1만 5,052㎡에 달했다, 여기에 지장물 57건, 이주 보상 99가구, 영업 18건까지 보상에 포함됐다.<sup>37)</sup>

주민들의 상황은 다양했다. 낙후된 구도심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고령으로 제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금 체납 등으로 보상 대상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지만 소유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수원시가 직접 세무서 또는 근저당권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금으로 대납 처리를 약속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았다. 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정정해 보상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압류등기 등을 정리하기 위해



2023년 개시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조감도(2021.5.11. 수원시청 보도자료)

가족을 찾아 백방으로 뛰고,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 분쟁 중이던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도 이끌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수원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연계해 부담을 줄였고, 임대주택, 전세지원금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내해 이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개별 사례뿐 아니라 보상 대상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

다. 지역 주민 대표 7인으로 구성된 비대위와 소통을 통해 마찰 없이 순조로운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 부지 내 계시판을 설치해 투명하게 진행 상황과 정보를 공유했다. 한때 정부가 예산반영을 늦추면서 부지 매입 등 사업진척이 늦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염태영시장과 지역구 김영진 국회의원, 경찰, 주민들이 힘을 합친 결과 사업비 확보, 보상업무 등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이런 노력의 결과 보상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전됐다. 보상업무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100%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수원시가 수행했던 보상의 발자취는 모범적인 보상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서로도 발간됐다. 백서엔 손실보상에 대한 실무를 사례와 함께 정리돼 있다.

팔달구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팔달경찰서는 오는 2023년 말 문을 연다. 팔달경찰서 개청으로 수원시 내 3개 경찰서의 명칭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중부경찰서는 장안경찰서로, 서부경찰서는 권선경찰서로, 남부경찰서는 영통경찰서로 변경, 시민들이 한결 찾기 쉽게 될 것이다.

- 1)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인천~수원 70분 소요」 『HeadlineNews』 2020년 9월 10일 「수원에서 인천까지 70분」…수인선 25년만에 완전 개통, 『뉴스시』 2020년 9월 10일
- 2) 「[특별기획] 수원시, 균형 발전의 표본이 되다」 『일요서울』 2020년 10월 6일 「수원시 '균형 발전' 이룬다. 상대적으로 발전 더뎠던 서수원권, 발전 거듭…수인분당선 개통, '서수원권 종합병원' 내년 첫 삽」 『경기데일리』 2020년 10월 6일 「수원시, 균형 발전 시작된다」 『경기티브이종합뉴스』 2020년 10월 6일
- 3) 「수인선 개통 1년, 위상 달라진 서수원…동서남북 잇는 수원 철도망 고색역·오목천역 교통 편의 높아지고 상부공간 공원화」 『뉴스핌』 2021년 9월 12일 「수인선 개통 1년, 편리하고 편안한 서수원」 『경기ETV뉴스』 2021년 9월 7일 「수인선 개통 1년, 편리하고 편안한 서수원」 『경기&뉴스』 2021년 9월 7일 「수인선 개통 1년, 편리하고 편안한 서수원」 『브릿지경제』 2021년 9월 7일
- 4) 「수원시, 58년 달렸던 수인선 폐선 25년만에 개통 1년, 편리와 편안한 서수원…고색역·오목천역 상부공간 공원화해 시민 휴게공간 조성」 『경기타임스』 2021년 9월 7일 「수인선 개통 서수원의 1년, 교통 편의 신장.. 고색역·오목천역 상부공간 공원화」 『경기뉴스탑』 2021년 9월 7일
- 5) 「수인선 개통 1년, 서수원 뒤편 달라졌다」 『헤럴드경제』 2021년 9월 7일 「수원시 '수인선 개통 1년…교통편의 획기적 개선」 『뉴스웍스』 2021년 9월 8일
- 6) 「수원시, 수인선 개통 1년 편리하고 편안한 서수원」 『일간투데이』 2021년 9월 7일 「수원시, 수인선 개통 1년, 편리하고 편안한 서수원」 『BreakNews』 2021년 9월 7일
- 7) 「[특별기획] 수원시, 균형 발전의 표본이 되다」 『일요서울』 2021년 10월 6일 「수원시 '균형 발전' 이룬다. 상대적으로 발전 더뎠던 서수원권, 발전 거듭…수인분당선 개통, '서수원권 종합병원' 내년 첫 삽」 『경기데일리』 2021년 10월 6일
- 8) 「수원시, 철도 허브도시로 변신중…시내 철도 우물 정(井)자로 연결」 『서울경제』 2013년 12월 4일
- 9) 「분당선 승객, 갑자기 늘어난 이유, 수원역장구간 개통 이후…영통역 97%·청명역 71% 증가, 하루 12만~13만명 이용」 『세계일보』 2013년 12월 19일
- 10)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광고에서 강남 '37분' 30일부터 운행, 국토부,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 요금인하 방안 강구」 『국토교통부-블로그 뉴스』 2016년 1월 28일
- 11)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조사 조속 마무리를…」 『경기신문』 2019년 12월 22일
- 12) 「신분당선 2단계 광고~호매실 구간 기재부 예타 통과」 『뉴스체인지』 2020년 1월 15일 「"14년의 기다림" 신분당선 연장 "수원시민의 힘으로 이뤘다."」 『경기미디어리포트』 2020년 1월 15일 「"민기지 않아"…신분당선 연장 예타 통과에 호매실 추체분위기」 『중부일보』 2020년 1월 15일 「수원시, '강남까지 47분' 신분당선 연장…14년만에 결실」 『LOCAL세계』 2020년 1월 15일 「신분당선 2단계 광고~호매실 구간 기재부 예타 통과」 『경기IN』 2020년 1월 15일
- 13) 「수원시, '사통팔달' 격자형 철도망 구축박차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수원 구간 6개역 신설 확정」 『뉴스시』 2018년 4월 3일
- 14) 「수원발KTX 직결사업 기본설계안 마련…6일 주민설명회」 『중부일보』 2019년 9월 6일
- 15) 「수원시, 교통허브 '수원역환승센터' 개통 운영」 『파이낸셜뉴스』 2017년 6월 16일 「수원시,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식 개최」 『연합뉴스』 2017년 6월 16일 「수원시 교통 허브 수원역환승센터 16일 개통」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16일
- 16) 「사통팔달 수원시 '교통 허브' 문 연다」 『KPN한국시민뉴스』 2017년 6월 6일 「수원시, 사통팔달 '교통 허브' 문 연다」 『중앙뉴스타임즈』 2017년 6월 6일
- 17) 「열차·버스·택시 등을 한번에…16일 개통식 여는 수원역환승센터」 『중앙일보』 2017년 6월 15일
- 18)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 한결 편리해졌다" 수원역환승센터 개통 한 달, 시민들 반응은?」 『국토매일』 2017년 7월 18일
- 19) 「수원시,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식 개최」 『연합뉴스』 2017년 6월 16일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 한결 편리해졌다"」 『중앙뉴스타임즈』 2017년 7월 18일
- 20) 「광고복합환승센터-지하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눈·비 오는 날 더 편해지겠죠"」 『중앙일보』 2016년 7월 8일
- 21) 「수원시,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 이달 중 착수」 『연합뉴스』 2013년 4월 8일
- 22)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 우회도로 이용」 『e수원뉴스』 2013년 4월 10일
- 23) 「수원역 고가도로 개통…'시창~금호동 10분 이상 단축 효과」 『뉴스시』 2014년 11월 17일
- 24) 「수원시, 수원역 고가도로 공사비 610억원 예산 제로」 『매일일보』 2014년 11월 28일

25) 「수원북부순환로 21일 개통…평택남부 순환형버스 신설」, 『교통뉴스』, 2020년 9월 16일.

26) 「수원북부순환로 16일 준공식 21일 개통…시내 체증 확 뚫는다」, 『경기뉴스탑』, 2020년 9월 16일.

27)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경기TV뉴스』, 2021년 2월 16일;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경기TV뉴스』, 2021년 2월 16일;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이동시간 및 시내도로 이동속도 단축」, 『서울매일』, 2021년 2월 16일; 「수원시,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이동속도 단축」, 『매일일보』, 2021년 2월 16일;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경기데일리』, 2021년 2월 16일;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경기중앙신문』, 2021년 2월 16일.

28)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경기eTV뉴스』, 2021년 2월 16일.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2020년 9월21일 개통 이후 동~서 이동시간 및 시내도로 이동속도 단축」, 『서울매일』, 2021년 2월 16일.

29) 「[특별기획] 수원시,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사통팔달 수원'으로 도약하다」, 『일요서울』, 2021년 2월 16일.

30)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 '뺑' 뚫렸다」, 『서울뉴스통신』, 2021년 2월 16일.

31)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 시원」, 『이뉴스투데이』, 2021년 2월 16일.

32) 「수원시, 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2020년 9월21일 개통 이후 시내도로 이동속도 단축」, 『일간투데이』, 2021년 2월 16일.

33) 「[기획]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 가시화하나」, 『NEWS1』, 2013년 5월 1일.

34) 「수원 고법·고검시대 개막」, 『세계일보』, 2019년 2월 28일.

35) 「수원,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엽니다. 팔달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손실보상 업무 완료…사업 '순항」, 『서울매일』, 2021년 5월 11일; 「수원시, 지동 경찰서 신축 부지 보상 절차 완료.. 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개청 파란불」, 『경기뉴스탑』, 2021년 5월 11일; 「수원시, 팔달구 주민 안전 위한 팔달경찰서 손실보상 완료」, 『매일일보』, 2021년 5월 11일; 「[특별기획] 수원시,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 문 연다」, 『일요서울』, 2021년 5월 11일; 「2023년 말 수원시 지동에 팔달경찰서 개서 한다」, 『경기중앙신문』, 2021년 5월 11일.

36) 「오원춘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2023년 '그곳'에 경찰서 들어선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발생→2023년 수원팔달경찰서 개소, 염태영 수원시장 힘든 여정...백서발간」, 『헤럴드경제』, 2021년 5월 11일; 「수원시, 2023년말 지동에 팔달경찰서 문연다...내년 2월 착공」, 『Moneys』, 2021년 5월 11일.

37) 「수원시,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엽니다. 낙후된 도심지역 치안 해소 위해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사업 추진」, 『경기IN』, 2021년 5월 11일; 「수원,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엽니다」, 『서울뉴스통신』, 2021년 5월 11일.

---

공존하는  
‘레트로 수원’과 ‘뉴트로 수원’

## \* 마무리되는 수원화성행궁 복원사업

수원화성행궁은 1796년(정조 20)에 화성 축성과 함께 지어졌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현릉원에 행차하거나, 은퇴 후 노년에 머물기 위한 처소로 마련된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수원부 치소로 사용됐다. 행궁은 고종 때까지도 잘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874년(고종 11)에 2만 냥을 들여 행궁 지붕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 차원에서 이곳에 병원과 학교, 경찰서 등을 집어넣으면서 건물 정전인 봉수당 등 대부분 건물이 파괴됐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심재덕 당시 수원문화원장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인 학자, 원로 등이 1989년에는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복원운동을 펼쳤다. 특히 1989년 수원의료원이 신축되면 화성행궁이 영원히 복원되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을 느낀 추진위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9년 6월 초 심재덕 문화원장, 김동휘 선생, 이종학 서지학자, 안익승 경



수원화성행궁 전경(2020.11.8. 수원시 포토뱅크)

기도 유네스코회장, 이승언 향토사학자 등이 경기도지사실을 방문해 임사빈 도지사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간악한 책동으로 파괴된 화성행궁 터에 수원의료원을 증축하면 영원히 화성행궁을 복원할 수 없다. 그러니 수원의료원 증축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사빈 도지사는 즉시 수원의료원을 연초제조창 옆으로 이전토록 지시했다.

이들은 화성행궁 터 일대(수원의료원 소재지, 수원경찰서 소재지, 경기도 여성회관 소재지 등)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현재 행궁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조치해 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궁과 아름답게 조화된 수원천을 비롯한 자연경관이 옛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책을 수립하라고 건의했다.

한디어 1990년 12월 22일 화성행궁에 있던 수원의료원이 이전됐다. 1993년 8월 10일에는 화성행궁 복원이 수원시정의 중점시책으로 선정돼 행궁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됐다. 1994년 3월에는 화성행궁 터에 대한 유구 및 지표 조사가 실시됐으며 5월에는 수원의료원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다. 이어 1995년 4월에는 화성행궁 터가 경기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됐다.

심재덕 원장이 수원시장에 당선되면서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날개를 달았다. 1~2차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1996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그해 7월 18일 역사적인 화성행궁 복원 기공식이 거행됐다. 1997년 9월엔 화성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의 상량식이 열렸고 2003년 1단계 복원공사가 완공되어 옛 모습을 되찾았다. 『화성성역의궤』 기록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총 576칸으로 구성돼 있으나 1단계 복원사업을 통해 482칸만 복원됐다.

완전한 행궁 복원을 위해서는 부지에 이미 들어선 오랜 역사의 신평초등학교를 이전해야 했다. 우화관(于華館)이라는 화성행궁 객사 자리에 신평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 최초의 근대 학교’여서 동문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지만 정조시대 유산 복원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 신평초등학교를 광고신도시로 옮기기로 하고 학생들이 분산 수용될 3개 학교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75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2단계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7년 발굴조사 결과 구 신평초등학교 건물 아래에서 우화관 건물지의 기초 흔적이 발견됐다. 만 3년간의 발굴조사 끝에 미복원시설인 우화관과 별주(別廚)의 건물지가 발견됐고, 화성행궁을 둘러싼 물길과 연못 등이 모습을 드러내 화성행궁의 완전한 복원 실현에 한 발 다가가게 됐다.<sup>1)</sup>

우화관은 1789년 건립한 객사로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묵게 하는 숙소



화성행궁 별주 터 발굴조사(2019.5.30. 수원시 포토뱅크)

로 사용돼 ‘영빈관’으로도 불렸다.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도 모셨던 중요한 건물이다. 1905년경부터 수원공립보통학교(신평초등학교)로 사용했다. 옛 신평초등학교가 있었던 터에서 우화관 유구가 발견됐다. 별주는 1795년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회갑연을 계기로 건축됐는데, 현릉원 행차 시 올릴 음식과 술을 만들고 제례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던 곳이다.

2019년 발굴조사 결과 전면 26m, 측면 20m 규모의 네모난 단 위에 2동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을 담장지로 둘러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주 건물 앞 연못도 확인됐다. 우화관과 별주 터에 있는 나무 이식, 공중화장실 철거, 복원에 쓰일 나무와 석재 준비 등을 거쳐 우화관과 별주가 복원되면 화성행궁의 옛 건축물 복원이 완료된다. 지난 30여 년간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노력



복원 작업이 진행중인 화성행궁(2021.2.27. 수원시 포토뱅크)

의 마침표가 찍힌다.<sup>2)</sup>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빛을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귀중한 보물을 도심 한복판에 지닌 행운과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 수원시는 화성행궁을 제대로 복원,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 '성안마을' 행궁동을 한옥마을로

수원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공공한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성 내에 고유의 건축문화 자산인 한옥을 늘려 나감으로써 관광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의 공공한옥 정책에 대해 『경인일보』는 2018년 10월 2일 '한국의 美 공공한옥 팔 걷은 수원시'란 기사를 통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201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에는 공공한옥으로 지어진 장안사랑채, 화서사랑채, 화홍사랑채와 한옥기술전시관이 있다. 이들 공공한옥은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쉼터 제공 및 관광객들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장안사랑채는 한옥이라는 뼈대위에 이용자를 고려한 무장애 진입방식,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 설치, 공간 활용을 높이고 개방성 확보를 위한 폴딩도어 방식의

창문 등 현대적 요소를 적극 채용한 한옥으로 외관의 수려함과 건물 내부는 현대적 편리성을 두루 갖춘 건물이다.

카페, 전통찻집, 수원명품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국토부가 주최한 '2018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한옥대상(국토부장관상)에도 선정되는 등 시가 추진하는 공공한옥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잘 표현한 곳이다.

공예 및 악기 체험 등의 즐길 거리와 정기적인 전통 국악 공연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옥기술전시관은 한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관광객들에게 다소 낮은 한옥이 지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시관과 한옥을 직접 건축해 볼 수 있는 3D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한옥 입체 퍼즐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이곳은 4개월 만에 1만 7,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지난 1월부터 현재(9월 말 기준)까지 2만 4천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인근에 한옥을 조성하는 '공공 한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 한옥 신축·수선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하고 '한옥지원조례'를 개정해 한옥 신축·수선 지원을 강화했다. 또 행궁동 일원에 수원전통문화관(2015년), 행궁아해꿈누리(2016년), 한옥기술전시관(2017년) 등을 잇따라 개관했다.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의 쉼터이자 지역 주민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화서사랑채(2016년), 화홍사랑채(2017년), 장안사랑채(2018년)를 잇따라 개관했다.<sup>3)</sup>



수원전통문화관 전경(2020.10.11. 수원시 포토뱅크)

#### ●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인프라 확충... 수원전통문화관 · 한옥기술전시관

수원전통문화관은 2015년 3월 30일에 개관해,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 2개 동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전통식생활체험관'은 대지면적 3,036㎡, 건축면적 950㎡ 규모로 주요시설은 조리실, 전시실, 영빈관 등으로 구성됐다. 1층은 조리실, 사무실, 전시실, 교육실, 2층은 제공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마당에 장독대, 아궁이도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체험관으로 전통음식, 궁중음식, 식문화 교육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교육·체험·연구 프로그램과 전시까지 아우르는 공간이다.

개관 기념 기획전인 '궁중음식전'은 왕실의 음식제조법과 배치방법은 물론



2018년 수원전통문화관에서 떡 메치기 행사를 진행한 모습(2018.9.8. 수원문화재단 제공)

‘진연의궤’에 소개된 조정과 왕가의 잔치음식, 임금님의 수랏상을 소개했다. 정조대왕의 수원화성 능행차 당시 어머니 혜경궁홍씨 올렸던 수라를 영상으로 소개했으며 조선왕궁의 건물배치도인 ‘동궐도’에서 궁중수랏간을 찾는 체험코너도 마련했다. 이후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음식과 궁중음식, 자연 친화음식, 수원갈비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sup>4)</sup>

이를테면 추석이나 설엔 행사가 열린다. 차례상 체험부터 전통포장 배우기, 약과 만들기, 추수 및 떡메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백설기 위에 우리 민화 속 동백과 매화 등 토종 꽃을 올려 곁들임 차와 함께 시음하는 ‘화중지병, 그림의 떡’ 등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이에 더해 전통음식 연구와 교육 전시에 이르기까지 전통식생활과 관련된 국내 최고의 거점으로 조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절교육관’은 수원화성과 정조대왕의 애민정신, 실학정신, 효를 바탕으로 두고 다례, 예절, 규방공예, 청소년 인성교육 등 특성화된 예절교육과 체험, 출강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계층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지면적 2,904㎡, 건축면적 626㎡ 규모인 예절교육관은 예접실, 체험실, 접견실, 교육실,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절기 때마다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있다. 팽이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사랑방 및 선비 문화에 관한 특별전 ‘사랑방, 선비를 만나다’ 등의 전시도 열리고 있다. (재)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전통문화관을 ‘수원 유니크베뉴’로 선정하기도 했다. 유니크베뉴(Unique Venue)는 ‘유니크’(독특한)와 ‘베뉴’(장소)의 합성어로 호텔·컨벤션센터 등 일반적인 회의 시설이 아닌, 마이스(기업회의·인센티브투어·국제회의·전시회) 개최도시의 매력과 특색을 보여 주는 장소 중 소규모 마이스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sup>5)</sup>

‘한옥기술전시관’(팔달구 정조로 885번길 1)은 2017년 9월 27일 개관했다. 수원전통문화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전통 한옥의 변천사부터 한옥 기술의 발전과정, 최신 한옥 건축기술까지 한옥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이다. 한옥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거점이 될 한옥기술전시관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 9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한옥기술전시관 공모사업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지 약 3년 만에 개관했다.<sup>6)</sup>

정부는 한옥기술개발 국가R&D사업의 하나로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개 기관을 선정, 국비 25억 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여기에 수시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한 ‘신한옥, 온고

지신(溫故知新)의 길을 가다'라는 스토리라인을 발표해 평가단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sup>7)</sup>

한옥기술전시관은 2,661㎡ 부지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연면적 946.16㎡)로 전통 한옥 양식을 접목해 지어졌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 대한 역사부터 현대 기술이 접목된 신 한옥까지, 한옥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는 한옥기술전시관은 미디어와 체험이 결합된 곳이다. 전시관 내부는 △한옥의 종류와 목(木)구조, 지붕 양식, 공포(貢包) 양식 등을 모형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실' △한옥모형 만들기, 단청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등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실' △전통 건축물 특별 전시와 다양한 한옥 관련 강의가 진행되는 '교육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체험실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한옥모형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전시실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통 건축 발전과정을 보여 주는 기획전시, 전통 살창 초롱 만들기와 기와에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20년 한옥과 건축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한옥배움터'와 '3D스케치업'은 호평을 받았다. '한옥배움터'는 한옥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성을 파악, 수원시에 지어진 한옥을 살펴보는 교육 과정이다. 한옥 건축 설계에 대한 기본 강좌부터 한옥의 건축주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시대별 대표적인 한옥의 특성과 사례 비교까지 학습 가능하다. 전문가와 함께 행궁동 일대의 고(古)한옥과 신(新)한옥을 사진에 담아 편집까지 배울 수 있다. '3D스케치업'은 전통 한옥 보급에 앞장서는 젊은 한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문 3D 모델링 교육프로그램이다. 3D 모델링 교육은 보다 전문성 높은 교육으로 평소 한옥과 건축 관련의 종사자 또는 건축 쪽의 장래를 희망하는 건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한옥기술전시관은 한옥에 관한 전시와 체험, 교육 이외에도 공공한옥 유지·보수, 수원한옥마을 조성사업, 신규 한옥 건축 상담과 기술 지원 등으로 수원시에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했다. 한옥기술전시관이 들어서면서 장안문 주변엔 수원전통문화관, 장안사랑채와 함께 한옥 문화벨트가 구축됐다. 개관 이후 가족 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수원시 문화행사와 협업, 많은 시민이 찾는 공공한옥 명소로 자리 잡았다.<sup>8)</sup>

한편 수원시는 2020년 7월 한옥기술전시관의 새 이름을 '한옥새움'으로 결정하고, 특허청에 업무표장(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한옥새움은 '한옥을 새로운 기술로 현대에 맞게 새로 세움'이라는 의미로, 전통건축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현대에 맞는 한옥사업을 확산하고자 하는 비전이 담겼다.<sup>9)</sup> 이에 따라 수원시는 한옥기술전시관과 한옥새움이라는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

#### ● 화서사랑채 · 화홍사랑채 · 장안사랑채 · 행궁아해꿈누리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등 공공한옥 조성

수원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화서사랑채 · 화홍사랑채 · 장안사랑채 · 행궁아해꿈누리 등 공공한옥을 조성했다. 모두 성곽 밖에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보러 올 때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 화서문(보물 403호)과 장안문, 화홍문 및 방화수류정(보물 1709호) 근처에 위치해 있다.

2016년 문을 연 화서사랑채는 화서문을 배경으로 건립한 한옥 문화예술공간으로 행궁동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2016년부터 공예 · 인문학 · 국악기 · 우리소리(판소리, 시조창 등) 등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10)</sup> 마음챙



2018년 12월 8일 개막한 '예술로 피어난 화서사랑채(예화전)'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8.12.10. 수원시청 보도자료)

김 명상, 그림에게 말걸기, 전통공예 인두화, 도자핸드페인팅, 생활도자기교실, 전통배넛저고리 강좌 등과 함께 주말 상설공연과 국악기 무료체험도 진행되어 공간이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만든 인두화, 생활도자기, 흙공예, 야생화자수 등 공예품 전시회도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개장한 화홍사랑채는 화홍문 옆에 있다. 실외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즈넉한 한옥 마당에서 액자 꾸미기, 캐리커처, 엽서 컬러링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나만의 액자꾸미기'는 액자 프레임과 조화, 비즈 등 꾸미기 재료로 구성된 키트를 활용해 액자를 꾸미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캐리커처 한마당'은 전문작가가 직접 그려 주는 캐리커처

체험 프로그램이다. '컬러링 엽서 체험'은 화홍사랑채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엽서에 인쇄해 컬러링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화홍사랑채는 국화 포토존 등 한옥과 어우러진 야외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MZ세대가 청년 문제·부동산·공정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2030 소통 프리토킹'도 개최했다.<sup>11)</sup>

2018년 개장한 장안사랑채는 처음부터 전통한옥 가로형상가(스트리트몰)를 표방하고 개관했다. 전통한옥 가로형상가(스트리트몰)인 장안사랑채는 두동으로 이뤄져 있다. A동에는 커피전문점, B동에는 한복판매점, 관광기념품 판매점 등이 들어섰다. 장안사랑채는 2018년 국토교통부가 우리 전통건축인 한옥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현대적으로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한옥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화성의 한옥 집단 조성지역 내 기존 한옥과 변잡한 중심 가로라는 상반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순화하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건축으로서 한옥이 나아가야 할 덕목을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12)</sup> 지금까지 주거 중심이었던 한옥을 상업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현대화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후문이다.<sup>13)</sup>

2017년 문을 연 '행궁아해꿈누리'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지원시설로써 한옥을 활용한 관공서의 주요 예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설명은 '아이들이(아해) 꿈을 키우는(꿈) 세상(누리)'이라는 뜻으로 아동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 시간제보육, 장난감과 도서대여, 아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양육에 필요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 1층에는 영아들이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러브맘카페'와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실', 2층에는 만5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도

서관'이 운영되고 있다.<sup>14)</sup>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에는 2023년 2월까지 대규모 공공한옥인 한옥체험 마을이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남수동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복합미디어센터, 남수동 한옥체험마을과 연계,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지역이 된다.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 '남수동 한옥체험마을(가칭)' 설계 제안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2,600㎡ 넓이 부지에 60명이 숙박할 수 있는 한옥 13개 동을 짓고 있다. 편의시설, 지하주차장도 설치한다.

도심 속 한옥체험마을은 수원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잡히면 한옥마을 연간 숙박객이 1만 3,000여 명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로 인해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한옥 건축 · 수선 보조금 지원도 지속 추진

민간인이 화성 성곽 안에서 한옥 짓기에 나서면 보조금을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 결과 20곳이 넘는 한옥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2채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올해의 한옥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인근에 한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14년에는 '한옥촉진지역'(신평동·장안동 일원)을 지정하고 '한옥지원조례'를 개정, 한옥 신축·수선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건축하면 공사비를 최대 1억 5,000



2016년 7월 26일 문을 연 한옥형 보육시설 수원 '행궁아해 꿈누리'(2016.7.26. 수원시 포토뱅크)

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sup>15)</sup> 한옥촉진지역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을, 한옥촉진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은 한옥촉진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관·내부 수선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 "원도심을 살려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가 연간 10조 원씩 임기 중 총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전국의 원도심과 노후주거지 100곳 정비해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되고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 사업이 발표되자 각 지방정부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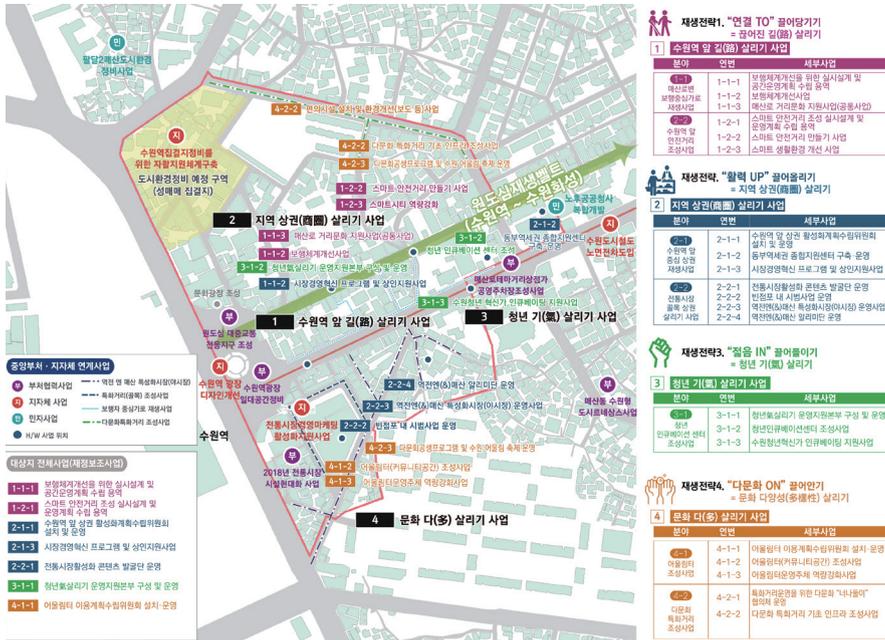
수원시도 2017년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정책을 총망라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 수원시 제2부 시장을 단장, 도시정책실장을 조정관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은 △총괄팀 △중심시가지 사업팀 △일반근린 사업팀 △주거정비지원 사업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했다. 각 팀에는 도시관리과·재개발사업과·도시디자인과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17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

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도시재생모델도 제시 등을 했다.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유형·사업·권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았다.<sup>16)</sup>

추진단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현황을 조사·분석해 꼼꼼하게 공모를 준비했다. 또 원도심과 노후화된 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공모 대상에 대한 사업제안서도 만들었다.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 원도심과 노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했다. 수원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 차원을 넘어 주거, 상업, 문화, 관광을 결합한 융·복합형 모델을 개발·적용하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의도였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도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목표였다.

수원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전에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2016년 4월엔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 8월에는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sup>17)</sup>

경기도와 수원시는 경기도 광고 신청사가 건립되고 도청이 이전하고 나면 따른 현 경기도청사 인근의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8년 3월 1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정됐다. 이어 연무동과 세류2동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sup>19)</sup>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통(통)하다'는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 19만 7,800㎡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2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매산동 일원은 1990년대 상업의 중심지로 변화했던 지역이지만, 현재 도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수원역 앞길 살리기 사업',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기 살리기 사업', '문화 다(多) 살리기 사업'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7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매산로 주변 보행 중심가로(街路) 재생사업 △수원역 앞 안 전거리 조성사업 △수원역 앞 중심상권 재생사업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인큐베이터센터 조성 사업 △다문화 특화 거리 조성사업 △어울림터 조성사업이다.<sup>20)</sup>

2019년 선정된 연무동과 세류2동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고시한데 이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무동 일원에는 국비 110억 원과 도비 22억 원 그리고 시비 51억 원 등 183억 원이, 세류2동 일원에는 국비 100억 원과 도비 20억 원 그리고 시비 67억 원 등 1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2023년 4년간 연무동 257-17번지 일원 9만 7,487㎡를 대상으로 낙후된 도로 시설·골목 등을 정비하고, 주거지 환경 등을 개선해 쇠퇴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연무동 사업 대상지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합돌봄서비



2021년 11월 26일 열린 골목상권 교류센터 개소식(2021.11.26. 수원시청 보도자료)

스 제공, 노후주거지 개선 등 주거환경 정비를 바탕으로 한 지역 재생에 초점을 맞춰 사업이 추진된다. '동문 밖 행복 삶터 연무마을'을 비전으로 △연무마을 거점 공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시티형 사업 등 총 5개 단위 사업으로 재생사업이 진행된다.

최근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그린뉴딜 및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8억 원(시비 24억 원, 한전·통신사 24억 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대상 구간에 설치된 전선·통신선을 지중화(땅속에 묻어서 설치)하고, 전주(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어 매기 위해 세운 기둥)를 제거

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sup>21)</sup>

'세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 세류2동 일원(133,310㎡)은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온 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생 가능한 주거재생기반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세류 동행 거점 조성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등 3개의 단위사업을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부지에 '세류동행센터'도 짓는다. 상인회 조직을 육성하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세류2동 골목상권 활성화 거점 골목상권 교류센터는 2021년 11월 개소했다. 교류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상인회 조직을 육성하고, 상권 트렌드에 맞춘 상가 전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sup>22)</sup> 교류센터에는 카멜레온 시범점포, 집수리 상담실, 공구대여소, 공유주방, 크레이터 공간(문화 공간), 마을소극장, 현장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등이 있다.

## \* 도시농부의 꿈을 키우는 탑동시민농장

추억 속의 당수동시민농장이 ‘탑동시민농장’으로 돌아왔다. 2018년 당수동 시민농장이 사라지자 수원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그곳에서 작은 농사를 짓던 시민은 물론이고 그것의 풍경에 반해 수시로 방문하던 시민들은 매우 허전해 했다.

당수동시민농장은 2013년 수원시가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빌려 조성한 이후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시농업의 근거지로 자리 잡았다. 한 해 방문객이 40만 명이나 될 정도였다. 그러나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18년 문을 닫은 것이다.

『e수원뉴스』 김성지 시민기자가 2021년 4월 5일 쓴 글을 보면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당수동시민농장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봄에 씨앗과 모종을 심어 쌈 채소와 토마토, 가지, 오이, 감자,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골고루 재배해서 맛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무엇보다 흙을 밟는 그 느낌이 참 좋았다. 시골텃밭에

대한 추억과 함께 여가선용에도 그만이었다. 이웃과 텃밭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나누어 먹는 재미도 꽤 쏠쏠하고 즐거웠다.”

“당수동시민농장은 총면적은 31만 6,955㎡로, 8만 7,651㎡를 시민농장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경관지대로 조성했다.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했고, 곳곳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금계국 등 계절 꽃들이 가득해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대포처럼 큰 카메라를 멘 사진동호인들의 행렬도 이어졌으며, 가족이나 연인들이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은 보기에 참 좋았다. 많은 행사도 열렸다. 다래기장터, 그린농업축제, 힐링 텃밭정원 축제, 찾아가는 마을극장, 코스모스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충실했다. 정신장애인과 가족, 정신건강 치료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인 마음돌봄농장을 비롯해 어린이생태학습원, 도시농부와 어린이농부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아카데미, 복지원에서 양성과정교육, 텃밭이론과 요리를 배워 보는 도시텃밭교육 ‘텃밭텃밥’,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 등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한 언론인의 찬사대로 이곳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sup>23)</sup>

그러나 아쉽게도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고 당수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수원시는 2018년 11월 탑동 540-2번지 일원 유휴 국유지 11만 9,635㎡를 빌려 탑동시민농장을 조성, 2019년 개장했다. 탑동시민농장은 ‘체험 텃밭’, 도시농업교육 공간, 계절마다 드넓은 꽃밭이 펼쳐지는 ‘경관 단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체험텃밭은 1세대당 16㎡씩 1,800곳의 텃밭 3개 구역을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연꽃과 벼를 재배하는 구역과 경관단지, 잔디밭 등이 있다. 경관단지에는 계절별로 해바라기, 코스모스, 연꽃, 꽃양귀비, 보리 등을 심고 있다. 교육농장에서는 청소년, 시민들이 농업·농촌 관련



탐동시민농장 전경(2020.6.22. 수원시 포토뱅크)

교육을 받고, 직접 농사도 지어 볼 수 있다.

탐동시민농장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0년엔 분양경쟁이 2:1이 채 안됐는데 2021년엔 3:1이 넘었다. 수원시농업기술원은 유기농 텃밭가꾸기 기초, 텃밭가꾸기 실재, 작물별 재배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텃밭 가꾸기 책자를 제공해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시민농장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며, 화학비료, 농약, 비닐은 사용을 금지하고 경작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해 가야 한다.

이곳에서 3년째 텃밭농사를 지었다는 시민 김현호는 『e수원뉴스』 2021년 9월 16일 기사에서 탐동시민농장 농사 후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전에는 농사개념이 거의 없었지만, 텃밭 이웃들과 정보교환을 하며 삼 년 동안의 경험이 쌓여 텃밭 농사꾼이 되었다. 텃밭 농장 채소는 흙, 퇴비, 물, 미생물로 농사를 짓는데,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는 주렁주렁 열리고, 상추와 깻잎, 썩갠 물만 줘도 신기할 정도로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주말마다 싱싱하게 따다 먹고 있다. 특히 무농약으로 텃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는 (중략)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는 경험이 쌓여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은 수확이 너무 많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으니 나눔의 기쁨까지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텃밭을 같이하는 친구들은 코로나19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곳에서 텃밭 친구도 사귀고, 유기농 채소를 수확하여 먹으니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한다.

자연은 아름답고 흙은 거짓이 없다. 텃밭 농작물을 가꾸며 저절로 자연 공부,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 땅을 파는 일, 파종 전 거름주기, 흙 갈기, 작물의 선택, 파종, 모종 심기, 물주기, 잡초 뽑기 등 가꾸지 않으며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가기 때문에, 땅의 결과가 보이는 자연의 맛을 체험하고 있다.

공원으로 조성된 큰 밭은 꽃밭, 보리밭, 메밀밭, 역사 길 잔디밭 등으로 계절 따라 바뀌고 논에는 벼가 자라고 있으며, 연못에는 연꽃이 피기 시작하고, 주변에는 오래된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정자와 잘 어울려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탐동시민농장은 텃밭을 넘어서 큰 꽃밭에 사계절 꽃이 피는 꽃 밭길, 보리밭 길, 역사 길, 메밀밭길 연꽃 길, 벼가 익어 가는 들 역에서, 통나무로 만든 쉼터 정자가 준비되어 있다. 친구와 만남 수 있는 아름다운 텃밭 힐링이다.

『머니S』도 2021년 3월 30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만히 집에 앉아 TV만 봤을 텐데, 지난해부터 시민농장에 텃밭이 생기면서 생활이 더욱 활기차졌다.” “여유롭고 한적하게 유기농 텃밭을 즐길 수 있어 좋아요.” “어린 자녀에게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텃밭 활동을 시작한 이후 아이와 함께 물을 주고 농작물을 기르는 시간은 ‘힐링’ 그 자체”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텃밭은 훌륭한 일상의 안식처”라는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텃밭을 분양 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전원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탐동시민농장이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절별 경관이 뛰어나 가족, 연인과 산책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탐동시민농장의 규모는 당수동시민농장보다 작지만 그래도 수원시 내에서 이처럼 탁 트인 경관을 보기는 쉽지 않다. 옆에는 농대 연습림 숲과 경기상상캠퍼스도 있어 산책코스로 제격이다. 이곳에서 도시생태농업으로 수확한 고구마, 쌀 등 먹거리는 취약계층에 기부되기도 한다. 도시농업 시민봉사단이 탐동시민농장 내 나눔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들은 관내 무료 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작물을 배분된다.

탐동시민농장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예정됐던 수원연극축제가 이곳에서 열리지는 못했지만 2020년 10월엔 탐동시민농장 내 서울대학교 옛 실험 목장의 젓소 사육공간(유우사)에서 ‘chaosmos : 새로운 질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 및 변화된 삶 속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새롭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민의 문화예술 기부와 푸른시대 창작센터 입주작가 등 시각예술작가의 참여형 예술창작프로젝트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예술작



탐동시민농장 내 연꽃(2020.7.15. 수원시 포토뱅크)

품으로 구현해 현재의 우리를 담아냈다. ‘탐동시민농장 유우사’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특화형 전시로 지역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활성화를 추진했다.<sup>24)</sup> 같은 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예술작품도 설치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수원 탐동시민농장에서 공공예술작품 ‘Engrave on Sound’을 제작·설치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 \*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정조대왕의 뜻을 읽다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전주)로, 국립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이 경북혁신도시(김천)로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했다.

우리나라 농업의 상징인 농촌진흥청이 2014년 9월 수원을 떠나자 수원시민들의 아쉬움은 컸다. 농촌진흥청 부지와 인접한 여기산 일대는 청동기시대 유적지를 비롯해 초기삼국시대의 벼농사 흔적이 발견돼 벼농사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sup>25)</sup> 조선 정조 대 국영농장이 시범운영된 곳으로, 유엔 국제관개배수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정도로 세계 농업사에 획기적인 농업유산인 축만제, 즉 서호저수지가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성지’였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2021년 11월 14일 『중부일보』에 쓴 칼럼에서 ‘수원은 농업개혁의 혁신지역’이라고 했다.

정조는 1800년 6월 1일 아침에 조정에서 특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정조는 신하들에게 본인이 왜 수원화성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는지 아냐고 화성유수 서유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서유린은 정조의 진짜 의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화성(華城)을 건설한 진짜 이유는 조선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농법을 실험하고, 이를 성공시키고, 성공시킨 농법을 조선 전체에 보급하여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정조는 국왕으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혁신 농법을 개발하여 쌀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에 물을 안정되게 공급시키는 저수농법과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퇴비 응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까지 조선은 저수지를 이용한 농법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실험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혁신 지역이 필요했고, 이를 수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을 이전했다. 수원으로서는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대신 농촌진흥청이 이전한 자리에 국립농업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수원과 가장 어울리는 유산이며 교육적 효과와 관광자원 확보 등 박물관 건립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sup>26)</sup> 염태영 수원시장은 “농촌진흥청이 부지는 우리 농업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조대왕이 농업에서 농업용수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만제를 건설한 곳이며, 얼마 전까지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대의 시험답 등이 위치해 한국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립농업박물관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2022.1.26. 김우영 촬영)



국립농업박물관 조감도(농림축산식품부 소장)

장소”라며 “비록 국가 정책으로 농업 관계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되지만 국립 농업박물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원에 건립돼야 한다.”고 수원 건립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은 수원시의 서수원권 균형발전을 위한 4대 프로젝트 중 ‘공공기관 부지활용 사업’의 일부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화답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을 수원에 건립하기로 하고 수원시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2013년 8월 12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수원시청에서,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 국립농업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원시는 2014년 9월에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수원시 서둔동)의 부지를 제공하고, 농식품부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시품을 수집·운영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2016년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2019년 10월부터 농식품부가 공사를 진행했다. 총사업비로 국비 1,532억 원이 투입되는데 부지 5만㎡에 건축 연면적은 1만 8,000㎡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관, 어린이 체험관, 식물공장, 수장고, 강당 등이 있는 본관과 교육실, 세미나실, 도농라운지 등이 있는 별관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팜 체험과 곤충 전시, 열대·희귀식물이 있는 유리온실과 부속동도 있다. 옥외에는 다랭이논 등 농경작 체험공간과 관람객의 휴식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박물관에 기대하는 사회 구성원의 바람과 요구를 반영해 기존 박물관과 달리 실내외 넓은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원형으로 조성된다.<sup>27)</sup> 박준기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위원이 『서울신문』

(2021년 10월 11일)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숨 쉬는 박물관, 살아 있는 박물관을 지향한다. 박물관 고유의 기능인 농업 관련 역사·문화와 유물을 전시·기록하는 농업관과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야외체험장 등 방문객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서호저수지와 연계한 야외 텃밭, 과수원, 다랭이논 등 실제 경작지를 조성해 박물관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힐링·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 전시 개요

구분	내용
전시주제	• 농업의 역사·문화·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체험 공간을 통해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이해
스토리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관 : 땅과 물, 씨앗, 짓기, 거두기, 갈무리와 먹거리, 나르기과 쓰임새, 가축 기르기, 소재농업, 미래농업 등 각 전시분야별 농업역사를 보여 주고 미래비전을 제시</li> <li>• 어린이체험관 : 주 전시관, 부 전시관으로 나누어 벼의 성장과정을 배우고 체험하는 콘텐츠 구성</li> <li>• 식문화관 : 음식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요리체험을 통해 음식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하는 공간 제공</li> <li>• 야외체험 : 다랭이논·밭, 과수원, 12월령 등 농경문화 체험을 통한 휴식과 힐링 공간 제공</li> </ul>

#### •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06.10.	'국립농업박물관 건립방안' 연구
2012.1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추진 결정
2016.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확정
2017.0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고시
2019.09.	농업 분야 최초로 건립되는 박물관임을 감안하여 '국립농업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2019.10.	'국립농업박물관' 착공(착공식 2019년 12월 4일)
2021.06.	「국립농업박물관법」 제정·공포
2021.08.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위원회' 구성
2022.01.	건립준공 및 하반기 개관 예정

- 1)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별주·우화관 제 모습 찾는데 '한발 더」, 『경기신문』, 2021년 6월 27일.
- 2) 「화성행궁·우화관·'별주' 복원작업 착수...내년 7월 완료」, 『연합뉴스』, 2021년 9월 20일; 「화성행궁·우화관·'별주' 복원작업 착수...내년 7월 완료」, 『파이낸셜뉴스』, 2021년 9월 21일.
- 3) 「수원시, 한옥 가로형 상가 '장안 사랑채' 개장, 연태영 시장, "수원화성 찾는 관광객 발길 이끄는 역할 기대"」, 『쿠키뉴스』, 2018년 4월 15일; 「수원화성의 또 하나의 명소 '장안사랑채' 문 열어」, 『노컷뉴스』, 2018년 4월 15일; 「수원시, 한옥 가로형 상가 '장안 사랑채' 문열어」, 『교통뉴스』, 2018년 4월 14일.
- 4)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예절교육관 개관」, 『수원인터넷뉴스』, 2015년 4월 1일; 「경기도교육청, 예술교육공동체 조성 나서」, 『수원신문』, 2015년 2월 12일.
- 5) 「수원 유니크베뉴로 마이스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 『수원ETV뉴스』, 2021년 11월 9일;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 전통문화관, 청수당 해림, 광고 아브뉴프랑, 앨리웨이 광고 '유니크베뉴' 선정」, 『경기타임스』, 2021년 11월 9일; 「수원시, '수원 유니크베뉴'로 마이스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 『경기IN』, 2021년 11월 9일; 「수원시, '수원 유니크베뉴'로 마이스 도시 경쟁력 강화」, 『브릿지경제』, 2021년 11월 9일; 「수원 유니크베뉴'로 마이스 도시 경쟁력 강화 추진」, 『경기데일리』, 2021년 11월 9일.
- 6) 「[국토닝 내셔널] 전통·최신 기술 다 모은 수원 한옥기술전시관」, 『중앙일보』, 2017년 11월 27일.
- 7) 「수원시 국토교통부지원 '한옥기술전시관' 유치」, 『수원톡톡』, 2014년 9월 12일.
- 8) 「수원문화재단서 한옥기술 배워볼까」, 『이데일리』, 2020년 8월 20일; 「수원문화재단 한옥기술전시관, 건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기IN』, 2020년 8월 20일.
- 9) 「수원시 한옥기술전시관 새 이름은 '한옥새움」, 『광고신문』, 2020년 7월 31일; 「수원시 한옥기술전시관 새 이름, '한옥새움'으로 결정 - 시민 공모 통해 선정한 새 이름, 7월 특허청 업무표장(상표권) 등록 완료」, 『수원일보』, 2020년 7월 31일; 「수원시, 한옥기술전시관 새 이름은 '한옥새움'...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완료」, 『경기1뉴스』, 2020년 7월 31일.
- 10)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공공한옥 재개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경인일보』, 2020년 8월 11일.
- 11) 「수원시 공공한옥 오랜만에 찾아볼까」, 『헤럴드경제』, 2020년 10월 14일; 「한옥기술전시관·화홍사랑채, 새단장 재개관...산규 프로그램 운영」, 『Moneys』, 2020년 10월 14일.
- 12) 「국토부,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대상 '장안 사랑채' 선정」, 『내외뉴스통신』, 2018년 10월 1일;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한옥 대상에 '장안사랑채'...47개 수상작 선정」, 『이코노미톡뉴스』, 2018년 10월 1일.
- 13) 「올해의 한옥대상에 '장안사랑채' 선정...한옥의 현대화에 중점」, 『ChinaFocus』, 2018년 9월 30일; 「국토부, 수원시 '장안사랑채'...올해의 한옥대상 선정」, 『국제뉴스』, 2018년 10월 1일.
- 14) 「한옥형 보육지원 시설 '행궁 아해 꿈 누리' 개관」, 『KPN한국시민뉴스』, 2016년 7월 26일.
- 15) 「수원화성·화성행궁, 건립 당시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 『경기IN』, 2021년 3월 2일; 「수원화성·화성행궁, 건립 당시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 『비전21뉴스』, 2021년 3월 2일.
- 16) 「도시재생사업추진단 구성」, 『수원광역일보』, 2017년 7월 17일; 「수원시, 정부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 대응」, 『매일일보』, 2017년 7월 16일.
- 17) 「'팔달-행궁동 일원·경기도청 주변 이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수원시 매산동 일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사업지로 선정」, 『CNBNEWS』, 2017년 12월 15일; 「경기도청 구도심 되살린다. 경기도-수원시 도시재생협약」, 『서울신문』, 2018년 3월 12일;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경기ETV뉴스』, 2019년 10월 8일.
- 18) 「경기도청 구도심 되살린다...도-수원시, 도시재생협약」, 『매일경제』, 2018년 3월 12일; 「경기도청 구도심 되살린다...도-수원시, 도시재생협약」, 『연합뉴스』, 2018년 3월 12일.
- 19)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GE경기경제신문』, 2019년 10월 8일.
- 20) 「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 선정」, 『경인타임스』, 2017년 12월 15일; 「수원시, 국비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매일일보』, 2017년 12월 15일.
- 21) 「수원 연무동·세류2동,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지 선정」, 『연합뉴스』,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구역...183억 투입해 '전신 지중화와 전주 제거사업'추진」, 『한국경제TV』, 2022년 1월 4일; 「수원시 연무동 도시재생사업 1.4km 구간 지중화 사업」, 『이데일리』, 2022년 1월 4일.
- 22) 「수원시, 연무동·세류2동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경기1NEWS』, 2019년 10월 8일.
- 23) 「바람·햇살·꽃·땀밭·사람...당수동 시민농장의 추억」, 『E수원뉴스』, 2018년 2월 16일.
- 24) 「chaosmos : 새로운 질서」, 『경기ETV뉴스』, 2020년 10월 28일; 「수원문화재단, 문화공간으로 변모된 '탑동시민농장 유우사'에서 전시」, 『경기인터넷신문』, 2020년 10월 28일; 「Chaosmos 새로운 질서'문화공간으로 변모된 '탑동시민농장 유우사'에서 전시」, 『경기중앙신문』, 2020년 10월 18일.
- 25) 「농촌진흥청 떠난 수원부지, 국립농업박물관 들어선다」, 『중부일보』, 2013년 8월 12일.
- 26) 「농촌진흥청 떠난 수원부지, 국립농업박물관 들어선다」, 『중부일보』, 2013년 8월 12일.
- 27) 「[In & Out] 함께하는 공간, 국립농업박물관」, 『서울신문』, 2021년 10월 11일.

---

수원은 '사람 중심 공유경제'를  
추구한다

\*  
"무엇이든 예스!"

'Yes생활민원처리반'이 달려갑니다."

갑자기 전등이 꺼지고, 싱크대에서 물이 새고,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부품을 바꾸거나 간단하게 수리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수리하려니 장비와 도구가 없고 수리방법도 모른다. 관련 업소의 기술자를 부르자니 수리비가 걱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더 난감하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Yes생활민원처리반'을 도입한 이유이다.

2012년 4월 17일 인계동 수원시청 건너편 올림픽공원에서 'Yes생활민원처리반' 발대식이 열렸다. 'Yes생활민원처리반'은 이름 그대로 '예스!'라고 대답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홈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와준다. 2018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 홀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 홈서비스를



Yes생활민원처리반 홈서비스팀이 한 민원인 가정에서 수리작업을 하고 있다.(2012.11.20. 수원시 포토뱅크)

네 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도 제공하고 있다.

전구와 전선, 콘센트 수리 같은 전기시설 문제, 수도꼭지, 하수구, 싱크대 막힘 같은 배관시설 문제, 못박기, 창문틀 보수 같은 소규모 집수리, 그 외에 보일러와 가전제품 점검 같은 다양한 일을 처리해 주고 있다. 만능해결사인 맥가이버들이 타고 출동하는 차의 이름도 '맥가이버 차'이다. 다양한 기술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Yes생활민원처리반은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곧장 달려가 해결해 준다.

이 차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좁은 골목길을 누빌 수 있는 소형차지만, 전기를 이용해서 곧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발전기도 장착했다. 옆문을 열고 닫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야간작업이나 도로 위 안전을 고려해 차량 뒷면



2012년 4월 17일 Yes생활민원처리반의 발대식이 열렸다.(2012.4.17. 수원시 포토뱅크)

에는 깜박이를 설치했다.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설비와 접이식 사다리 등 편리한 장비도 갖추고 있다.

Yes생활민원처리반은 3시간 이내 출동해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나 행정절차 이행처럼 당장 해결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민원은 ‘중간·사후통보제’를 운영하여 빠뜨리거나 지연되는 일 없도록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 하천, 청소, 환경, 광고물, 교통, 상하수도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해결해 준다.

Yes생활민원처리반이 활동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후인 2012년 11월 21일 뉴스통신사인 『뉴스1』엔 이런 기사가 떴다.

20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정모(여, 55) 씨 집 앞에 수원시 Yes생활민원처리반 탐차가 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집에 고장으로 수리할 일이 생기면 찾아가 고쳐주는 가사홈서비스팀이다.

정씨가 며칠 전 주방 싱크대의 수도 배관에서 물이 새 시 휴먼콜센터(1899-3300)에 호소하자 이날 찾아온 것이다. 고장은 홈서비스 요원이 탐차에 갖고 있던 새 배관으로 교체하며 끝났다. 30분 만에 일을 마친 요원은 고맙다는 인사를 뒤로 한 채 다음 현장으로 이동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Yes생활민원처리반을 신설하고 가사홈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처럼 취약계층 집의 수도배관, 하수구, 전기, 창틀 등 사소한 고장을 고쳐 주는 민원행정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은 못도 박아 준다.

홈서비스 전용 탐차에는 공구와 사다리 등 작업도구를 갖추고 형광등, 수도꼭지, 문고리 등 교체할 수 있는 부품도 갖고 다닌다. 여름에는 창문 모기장을 많이 갖고 다녔고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문풍지와 창문에 씌우는 비닐이 필수 부품이다.

같은 날 팔달구 인계동 조모(72) 씨 등 할머니 셋이 사는 집에 홈서비스 탐차 3대가 동시에 찾아왔다. 작은 방 도배를 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찾아가보니 큰 방, 거실도 검게 곰팡이가 슬어 일이 커졌다. 이날 4시간여 작업 끝에 집 전체 도배를 마쳤다.

도배를 하는 동안 지나던 주민들이 들여다보고 한마디씩 남겼다. “시청에서 나왔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군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수원시청 홈서비스 담당 구지울 씨는 “하수구를 뚫고 도배 풀을 머리에 뒤집어쓰는 곳을 일을 하다가도 시민들의 칭찬 한마디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홈서비스팀이 찾아갔을 때 조 할머니는 “작은 방은 분홍색으로 해줄 수 있어요?”하고 주문했다. 홈서비스 팀으로부터 “도배지는 기부 받은 것이라 있는 것 중에서 예쁜 색으로 해 드릴게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조 할머니 집 도배지는 홈서비스 취지에 공감한 수원시 도배지 판매상들이 기부한 것이다.

시가 홈서비스에 들인 비용은 탑차 4대 제작에 2억 원, 사회적 기업에 맡긴 홈서비스팀 7명 연간 인건비 1억 8,0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8,000여 만 원 등이다. 많은 예산을 들이는 시의 어느 복지사업보다 적은 예산으로 큰 만족을 주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835건 홈서비스 민원을 접수해 2,770건을 처리했다. 하루 평균 20곳을 찾아가는다. 도배, 창틀수리 등 집수리가 8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관 수리 832건, 전기 수리 661건, 전자기기 수리가 447건이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4월 8일 『국민일보』에도 수원시의 Yes생활민원처리반을 칭찬하는 기사가 나왔다.

“사람 불러 하자니 돈이 만만치 않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집을 새 단장 해 주시니 고마워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 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조모(78) 씨는 Yes생활민원처리반장과 반원들에게 연신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수원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9,400여 세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가사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사홈서비스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7명의 ‘Yes생활민원처리반’ 현장기술자들이 2인 1조로 신청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기, 전자,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는 가정 내 전구·콘센트 교체, 가전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 수도와 화장실 배관 막힘 등 불편사항 발생 시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로 신청하면 Yes생활민원처리반이 출동해 처리해 준다.

시 관계자는 “가사홈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현재 1만 9,408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했다.”며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아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전기·전자·집수리·도배·보일러 등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됐다. ‘10번 부르면 10번 오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을 이용한 가구는 2012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만 7,289가구나 된다.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무척 높았다. 2021년 6월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8%가 만족했다. 2020년부터는 동행정보복지센터가 추천한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가사홈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여름철(6~7월)에는 방충망 설치·에어컨 냉매 충전·해충 방제, 겨울철(11~12월)에는 보일러 점검·단열 작업 등 계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sup>1)</sup>

## \* 수원휴먼주택, 다자녀가족을 품다

2020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했다. ‘인구절벽’, ‘초고령화’ 사회는 현실이 되고 있다. 수원시도 2015년 1만 2,036명이던 출생아는 지난 2020년 43% 감소한 5,175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의 원인 중에는 집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에 수원시가 아이 많은 가족을 품었다.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이 처음으로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연말까지 47가구가 다자녀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2022년에는 4자녀 이상 30가구 입주가 추진된다. 2025년까지 매년 30~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수원휴먼주택(2021.11.15. 수원시청 보도자료)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준다.<sup>2)</sup>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수원휴먼주택 사업의 큰 특징이다. 시는 6명 이상의 구성원이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70㎡ 이상, 방 3개, 화장실 2개, 층간소음 걱정 없는 1층을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부모 직장, 자녀 학교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한다. 휴먼주택에 입주한 다자녀 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이다.

사업 초기 수원시는 주택을 직접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2020년 7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가 공급한 물량 중 1년 이상 수요자가 없는 임대주택을 시가 다자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수원

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 가정에 행복을 안겨 주고 있다. 『연합뉴스』는 2020년 8월 17일자 ‘톡톡 지방자치’ 기사에서 입주자들의 고마움을 보도했다.

“전에는 좁은 집에서 아래층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20년 5월 29일 경기 수원시 매향동 다세대주택 ‘수원 다자녀 휴먼 주택 15호’에 입주, 3개월째 사는 장모(49) 씨는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혼자만의 방을 가진 큰아들, 깔깔거리며 실 새 없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둘째와 셋째 어린 딸을 보고 있노라면 휴먼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수원시가 고맙다.

자녀가 다섯 명인 장씨 부부는 이곳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방 2개, 화장실 1개 인 60㎡ 남짓한 다세대주택에서 7식구가 비좁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73.8㎡에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딸린 넓은 이 집이 장씨 가족의 보금자리가 됐다.

장씨는 “수원시가 무료로 집을 마련해 준다고 전화로 알려왔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현실이 됐다.”면서 “제가 지원받은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면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2년 1월 7일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 열린 대화(팔달구·영통구)’에 참여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1호 입주자(2018년 11월)는 “2017년에 기

초생활수급자였는데, 많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짐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다. 그런 시기에 수원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주택을 지원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시장님과 면담했는데, 그때 힘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지방자치의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아 2020년 제 5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은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우수정책을 추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원시는 다자녀 가정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비용부담을 덜어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 \* '마음' 놓고 '정' 가져가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특별한 냉장고이다. 아무리 꺼내서 가져다 먹어도 바닥이 나지 않는 사랑의 화수분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골목 어귀, 또는 상점 앞에 설치돼 있는데 음식을 넣어 놓는 사람도, 보관된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공공의 예산 지원 없이 주민들의 의지와 관리, 참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먹거리 거버넌스'이다. 공유냉장고 논의는 2017년 겨울부터 시작됐다.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한 공유냉장고 프로젝트가 제안됐다.<sup>3)</sup>

프로젝트를 위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이 의견을 수렴해 2018년 1월 고색동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 커피페이지 1호점에 수원시 최초의 공유냉장고가 설치됐다. 이후 구시



수원 골목 어귀나 상점 앞 설치된 공유냉장고(2021.6.4. 수원시 포토뱅크)

가지와 다세대주택, 학교 등지로 확대된 공유냉장고는 2021년 12월 말 4년 만에 35개로 늘어났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만큼 음식을 넣거나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업소형 대형 냉장고에는 채소 및 식재료, 반찬류, 통조림 등 가공품, 음료수, 반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음식점 상품권도 나눌 수 있다. 다만, 유통기한이 이를 이내로 남은 음식물이나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등은 공유할 수 없다. 또 다량의 음식물이 있을 경우 한사람이 한 개의 음식물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 각 공유냉장고는 인근 주민이나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공유냉장고 주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음식 외에도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을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sup>4)</sup>

공유냉장고가 활성화되면서 운영자들끼리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매일 공유냉장고 운영 현황과 냉장고 관리에 관한 일화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공유냉장고는 2020년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한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최근 냉장고에는 더 많은 ‘참여’가 담기고 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기적인 후원을 하거나, 인근 대형마트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하기도 한다. 탐동시민농장 등에서 농작업 봉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 시민봉사단’은 수확한 농산물(감자·김장 채소·포도·사과 등)을 공유냉장고를 통해 시민들과 나눌 계획이다.<sup>5)</sup>

주민들이 넣어 둔 음식은 또 다른 주민이 금세 가져간다. 따라서 냉장고에 음식이 많이 남은 모습을 보기가 힘들 정도다. 어느 날은 사과 한 알·고추장 한 병·떡 한 봉지가 있고, 어떤 날은 택배기사가 저마다 다른 음료 10여 개를 냉장고에 넣고 가고, 또 다른 날은 엄마 손을 잡고 온 꼬마 주민이 냉장고에 상추를 넣어 둔다. ‘노지에서 재배했다.’는 메모를 직접 적어 두는 달필이 ‘참 잘 먹었습니다.’라는 꼬불꼬불 글씨로 돌아오기도 한다.

시민이 먼저 우리 집 앞, 혹은 우리 가게 앞에 냉장고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의견을 넣으면, 협의회 측에서 장소와 관리 주체 등을 검토해 설치를 진행하는 식이다. 음식을 넣는 것도, 냉장고 안 음식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모두 마을 주민들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시에서는 홍보나 단체 연결 등 간접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 사업전개는 수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

다.”며 “저희도 놀라웠던 건 이 도시에 나눔의 가치를 아는 헌신적인 시민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도시에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실은 나눔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다. 도시에 살다 보니 이를 표현할 방법이나 공간이 없었는데 공유냉장고가 하나의 매개로 작용해 서로 정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각 언론들도 수원의 공유냉장고를 칭찬하고 있다.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이웃사랑 실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냉장고 외에도 가정용 공구, 사무기 등 15개 물품 공유서비스와 시민텃밭 등 7개 공간 공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물품, 공간, 재능 등 시민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함께 나누는 공유사업이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공유 활성화는 결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sup>6)</sup>

## \*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은 수원시 최우수 협치정책

‘공유경제’는 제품·서비스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상호 공유하는 경제활동을 이르는 말로, 소유 기반의 대량생산·소비가 특징인 기존 경제활동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유·경쟁으로 대변되는 전통경제는 과잉소비와 자원고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공유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따라서 전 세계 공유경제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sup>7)</sup>

경기침체와 양극화,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2016년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립’,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등 다양한 정책안이 담겨 있다.<sup>8)</sup>

공유경제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유경

제 교육도 실시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가 보편화되려면 법률·제도 마련, 정부·지자체의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도 관련 연구모임을 만들고 시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공유경제사업은 비싼 공구를 필요할 때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는 ‘공구도서관’, 사용 기간이 길지 않은 고가의 유아용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도서관’과 휠체어 등 재활용구 대여, 우산 대여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공유경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물품·공간·교통·지식재능 등 많은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공유경제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7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7년엔 수원시가 운영하는 공유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이 시 홈페이지에 문을 열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의 물품·공간·교통·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은 2021년 ‘폴뿌리 협치 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선 5~7기에 추진한 협치정책 10개를 부서별로 발표한 후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50%)와 심사위원 평가·현장평가단 투표 결과(50%)를 합산해 수상 정책을 뽑았다.<sup>9)</sup>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공유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수원시가 펼치고 있는 공유경제사업은 다양하다. ‘물품 공유’사업은 가정용 공구·장난감 공유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지동 창릉마을창작센터 등에는 가정용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 도서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갖가지 공구를 저렴한(500~2,000원) 대여료만 받고 빌려준다. 망치, 톱부터 소형 절단기까지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는 거의 다 비치되어 있다. 각 공구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공구를 ‘공유 수원’에서 확인하고 대여 예약도 할 수 있다.<sup>10)</sup>

‘장난감도서관’은 조원점·정자점·권선점 등 여러 곳에 있다. 회비 1만 원을 내고 1년 동안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만 5세 이하 자녀(장애아동은 만 12세 이하)를 둔 수원시민은 누구나 회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한부모·다문화·장애인 가정 등은 회비가 면제된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아이들 장난감은 가격도 비싸다. 그렇지만 막상 사주더라도 아이들의 특성상 금방 싫증을 내 애물단지가 되기 일쑤이다. 장난감도서관은 부모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재활 의료장비(휠체어)·사무기기 등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빌릴 수 있고 공유수원 플랫폼에서 대여 예약을 할 수 있다. 사무기기는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sup>11)</sup>

공유자전거는 2017년 12월 민간운영 방식으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업체가 무인대여자전거 6,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대여자전거는 도입 1년여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도 주관 ‘201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



지동 창릉마을창작센터에는 가정용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 도서관’이 있다.(2017.4.7. 수원시 포토뱅크)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2009.9.23. 수원시 포토뱅크)

다. 그러나 2019년 운영이 종료됐다.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는 해외 사업장 전면 철수를 결정했고, 수원시 사업장도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sup>12)</sup>

이에 수원시는 2020년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TAZO(타조)를 도입했다. 9월 시범 운영한 후 10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3,000대가 수원시민의 발이 되고 있다. TAZO는 수원시와 KT, 옴니시스템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수원시는 KT, 옴니시스템과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사업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sup>13)</sup>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 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도 물품공유 사업이다. 청나래 사업은 수원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취업 준비 청년(수원 소재 학교 재학생 포함)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다.<sup>14)</sup> 1명이 1년에 3차례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4일이다. 면접 정장 일체와 넥타이, 벨트 등(구두 제외) 액세서리를 대여해 준다.<sup>15)</sup>

‘공간 공유’는 공공시설 개방, 주차장 공유, 북카페, 시민농장·텃밭 등이 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2019년 2월엔 수원칠보고등학교와 ‘시설 개방과 과학중점고등학교 예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칠보고등학교는 체육관·운동장·주차장·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시설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한 학교가 됐다. 구청에서는 북카페가 운영되고, 탑동시민농장과 공원의 텃밭은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sup>16)</sup>

‘주차공유사업’은 교회, 학교, 일반 업무시설 등의 주차장을 이용률이 낮은

시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예배 등 교회 방문자가 많은 시간을 제외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는 관내 교회들과 ‘주차장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개했다. 또 KT&G, LH와 토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화서동 KT&G 수원공장 부지(대유평지구) 일부 토지와 세류초등학교 옆 LH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sup>17)</sup>

또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 옆에 있는 윌테크놀러지(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말·공휴일에 해우재 방문객들이 윌테크놀러지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유사업은 수원시민·공직자·언론인 등이 뽑은 ‘2018년 수원시 최고의 시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통 공유’는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정해진 주차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지식재능 공유’로는 사진 공유, 무료법률상담, 공공 와이파이 등이 있다.<sup>18)</sup>

## \* 승객도 기사도 윈윈, 착한 호출앱 '수원e택시'

카카오T,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택시사업이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택시의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 업계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수원시가 나섰다.

시는 과도한 수수료, 운송수입금 등으로 고사 직전에 몰린 업계를 구하고 더불어 택시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호출비와 중개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 앱 '수원e택시'를 2021년 4월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e택시는 출시 직후부터 택시업계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시 후 6개월여 만에 수원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90% 이상이 가입할 만큼 택시업계로부터 반응이 좋다. 승객 가입자는 6만 4,000명을 넘었으며 누적 콜 수는 77만 건, 배차 건수는 47만 건을 돌파했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구축한 민관협업 플랫폼이다. 기존 택시호출 앱과 유사한 형태지만 호출비가 없다. 자동결제·마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수원e택시(2021.12.22. 수원시청 보도자료)

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결제 이용 시 요금의 2%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500포인트 이상 모으면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조용히 가고 싶어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세요.’ ‘급정거·급가속 운전은 싫어요.’ 등 기사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승객 운행선호 옵션도 있다. 또 근거리 배차방식 적용으로 승객에게 빠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적지까지 예상 운행 시간·요금·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가 택시호출 앱 구축사업에 착수한 것은 2018년부터이다. 시는 택시산업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을 하면서 통합 택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수원지역 택시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택시업계 종사자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집중 분석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바일 자동 결제 서비스를 호출 앱에 도입했다.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9월 26일자 기사를 통해 수원e택시 앱을 사용하는 한 개인택시 기사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15년째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기영 씨(66)는 매일 아침 7시 첫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휴대폰에서 호출 앱을 켜다. 예전에는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찾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손님의 콜을 받는 방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다수의 호출 앱 중에서 박씨가 가장 먼저 활성화한 것은 수원e택시다.

수원e택시 앱이 출시되기 전에는 박씨도 카카오택시를 주로 사용했다. 평가방식과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수원e택시 출시 이후에는 이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5개월여 동안 수원e택시를 통해 800여 명의 승객을 목적지로 이동시켰다. 수원시 택시 종사자 중 가장 많은 호출 수락 횟수다.

그는 “수원e택시는 개구리 모양 수원이를 지도에 옮겨 놓으면 출발점이 잡히는데, 다른 호출 앱보다 위치가 정확해 호출 손님을 찾기가 수월한 편”이라며 수원e택시의 홍보도우미 역할을 한다. 수원e택시는 이용 시민에게도 자동결제 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줘 택시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수원e택시 도입으로 11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0원의 호출비를 내고 사용하는 시민을 절반 수준으로 가정할 때 2억여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또 기존 정보 기술(IT)기업 앱에서 9만 9,000원 상당의 멤버십에 가입했던 택시기사를 30%로 가정하면 9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입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수원e택시를 호출하는 모습(2021.9.10. 수원시 포토뱅크)

코로나19로 택시 종사자들은 극심한 불황에 빠졌다. 수원시 운수종사자의 소득은 2019년 1,263억 원이었는데 2020년 987억 원으로 21.9%나 감소했다. 종사자 수도 2년간 16.5% 줄었다고 한다. 이런 형편에서 수원e택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원e택시를 벤치마킹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개최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수상했다. 이처럼 수원e택시는 거대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는,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

\* '수원'이 캄보디아에도 있나요?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움 마을은 '수원마을'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 수원마을엔 '수원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도 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움 마을은 시엠립 중심에서 약 10km 떨어진 537가구 3,100여명 인구의 작은 마을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다처럼 넓은 면적의 톤레삽 호수가 있다. 이 지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고작 153달러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원두막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빈민지역이다.<sup>19)</sup>

수원시는 2004년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했다. 2007년부터는 시엠립주의 대표적인 빈곤 지역인 프놈끄라움 마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 프놈끄라움 마을 입구에 '수원마을'이라는 한글 이름이 붙었고 수원시가 지원해 건립한 모든 건물 앞에는 캄보디아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표지판이 세워졌다.

시는 단계적으로 수원마을을 지원했다.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학



2016년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중·고등학교 준공식(2016.11.26. 수원시 포토뱅크)

교와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다리 등 마을 기반 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2008년 11월에는 '수원 초·중학교'를 건립했다. 2단계 사업 기간인 2013~2015년에는 주민의식 향상과 소득창출 프로그램, 학교역량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을공동자립작업장'과 여성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수원마을 유아 보육센터'를 건립했다. 3단계 사업의 핵심은 교육으로 마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원중·고등학교' 건립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10월 국제개발 비정부기구인 (사)로터스월드, 국제봉사단체 (사)행복한 캄보디아 모임(행복캄)과 협약을 하고, 학교 건립을 비롯한 3단계 지원사업을 함께 전개했다.<sup>20)</sup>

프놈끄라움 수원마을엔 수원초등학교가 있지만 이 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진학해야 하는 학교가 6km나 걸어가야 하는 지역에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수원시가 프놈끄라움 수원마을에 중·고등학교를 신축했다. 이날 준공한 학교는 전체면적 1,243㎡로써 10개의 교실, 교무실, 행정실, 부속동(과학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이 있다.<sup>21)</sup>

준공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마을 조성과 수원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 친필 서명이 새겨진 훈장을 받기도 했다.<sup>22)</sup> 준공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마을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 수원마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피아 바인 캄보디아 부총리는 “수원중·고등학교 건립으로 수원시와 시엠립주, 나아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신뢰가 더욱 공고해졌다. 수원시 지원으로 건립한 학교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교 후 1주년인 2017년 11월에 열린 기념식에서는 자전거, 생필품 및 완구류, 교복, 의류, 안경 등이 프놈끄라움 수원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모두 다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특히 통학과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300대를 받은 학생과 주민들이 기뻐했다고 한 참석자는 귀띔했다.<sup>23)</sup>

수원중·고등학교 첫 졸업식은 2019년 11월 8일 열렸다. 이날의 감동을 수원시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e수원뉴스』(2019년 11월 14일)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2019년 11월 8일 오전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움 마을에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큰 축제가 열렸다.

2016년 개교한 ‘수원·중고등학교’가 3년 만에 고등학교 첫 졸업생 11명을 배출한 날이었다. 학교 앞마당을 가득 채운 마을 주민 900여 명은 졸업생들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김경태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홍순목 (사)행복컴 이사장 등 수원시 대표단도 참석해 주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한 학생은 “3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됐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꿈을 꿀 기회를 준 수원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엠립주 수원중·고등학교는 현재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이 30명, 1학년 110명이다. 중학교 학생은 276명이다.

2016년 11월 건립된 수원중·고등학교는 수원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다. 전체 면적 1,243㎡에 교무실을 포함한 12개 교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갖췄다.

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실시됐다. 중·고등학교 신축과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했다. 4단계 지원 사업은 ‘기술교육을 통한 소득 창출’, ‘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수원마을 아동 교육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3년 동안 이뤄진 4단계 사업은 수원시와 시엠립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로터스월드, 행복컴이 함께 진행했다.<sup>24)</sup>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공적개발 원조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민들도 캄보디아 수원마을과 수원학교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 동수원병원, 수여성병원, 윌스기념병원 의료진과 수원시 치과

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안경사회, 경기도 간호조무사회 회원들로 이뤄진 의료봉사단도 매년 수원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인사를 베풀고, 안경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sup>25)</sup>

2018년 수원시 수원고등학교 학생들은 ‘프놈끄라움 수원마을을 밝혀 주세요’ 캠페인을 펼쳤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캄보디아 수원마을 ‘수원 중·고등학교’에 폐식용유를 활용한 무선 LED 램프 ‘LUMIR K(루미르K)’를 전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기부하는 루미르K는 한 소셜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다. 전기와 배터리 없이 폐식용유의 작은 열원을 전기로 변환하여 밝은 LED 램프를 점등하기 때문에 기존 등유램프 대비 최대 80%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한다.<sup>26)</sup>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과 학업에 불편을 느끼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다. 수원고 학생회가 모은 성금은 (사)행복캄에서 전액 루미르K를 구입, 현지에 전달했다. 이 벤처업체도 기부액의 10%를 기부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캄보디아의 수원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와 마스크목걸이 등도 지원했다. (사)행복캄은 그해 12월 8일 항공특송으로 캄보디아 수원마을로 덴탈마스크 3만 매와 마스크목걸이 1박스,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깜짝 졸업선물로 마련한 손목시계 20개 등을 보냈다.<sup>27)</sup> (사)행복캄은 매년 봉사단을 꾸려 11월 캄보디아 수원마을을 방문했지만, 코로나19로 방문 봉사가 어려워지자 후원 물품을 항공편으로 보낸 것이다. 후원 물품 외에도 캄보디아 수원마을의 보건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우물 및 정수탱크를 지원하고, 쌀 지원과 주택개량 사업 등을 현지에서 추진했다. 또 수원마을에 세워진 수원 중·고교 학생들을 위해 자전거와 교복,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내에 시청각실 설치를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사업도 벌였다. 지원에 필요한 물품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지에서 직접 구매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움 마을 수원중·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수원시 방문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8. 수원시청 보도자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왜 외국 사람들에게 돈을 쏟아 붓느냐고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고 있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설립자 성관스님(수원 보현선원 회주)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신 해 준 바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세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곧 국격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sup>28)</sup>

- 1) 「수원 흥반장 '가사홈서비스'...전화 한통에 OK」, 『헤럴드경제』, 2021년 7월 23일;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9년 동안 3만7천여 가구 이용」, 『브릿지경제』, 2021년 7월 23일; 「전화 한 통에 해결...수원시 가사홈서비스 만족도 ↑」, 『이데일리』, 2021년 7월 23일.
- 2) 「[특특 지방자치] 다자녀 가정에 행복 찾아준 '수원휴먼주택'」, 『연합뉴스』, 2020년 8월 17일; 「[특특 지방자치] 다자녀 가정에 행복 찾아준 '수원휴먼주택'」, 『한경닷컴』, 2020년 8월 17일.
- 3) 「'마음'을 넣고 '정(情)'을 가져갑니다」, 『경기ETV뉴스』, 2021년 6월 8일; 「수원 공유냉장고 25곳의 비밀...어디 있을까」, 『헤럴드경제』, 2021년 6월 8일; 「수원시에는 특별한 냉장고가 있다. 시, 25개 공유냉장고 설치·운영」, 『경기뉴스탑』, 2021년 6월 8일; 「"수원시 공유냉장고, 마음을 넣고 정(情)을 가져갑니다"」, 『중부일보』, 2021년 6월 8일; 「'마음'을 넣고 '정(情)'을 가져갑니다」, 『세계타임즈』, 2021년 6월 8일; 「수원시 '마음'을 넣고 '정(情)'을 담아갑니다. 수원시내 설치된 25개 공유냉장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성화」, 『경기중앙신문』, 2021년 6월 8일.
- 4) 「"누구나 가져가고 채워놓고"...호응 뜨거운 수원 '공유냉장고'」, 『한겨레』, 2021년 12월 19일.
- 5) 「수원시내 설치된 25개 공유냉장고, 주민의 참여로 활성화」, 『매일일보』, 2021년 6월 8일.
- 6) 「"누구나 가져가고 채워놓고"...호응 뜨거운 수원 '공유냉장고'」, 『한겨레』, 2021년 12월 19일.
- 7) 「수원시, 공유경제 인식개선 위해 공직자 '공유경제 교육' 시행」, 『중앙뉴스타임즈』, 2017년 8월 30일.
- 8)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열어」, 『서울일보』, 2017년 8월 30일;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문 열어」, 『매일일보』, 2017년 12월 7일; 「장난감·공구·라돈측정기까지...행복나눔 싹 틔운 '공유 수원'」, 『서울PN』, 2019년 1월 10일.
- 9)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 수원시 '최우수 협치정책' 선정」, 『경기IN』, 2021년 11월 19일; 「[수원시]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 최우수 협치정책 선정」, 『경기티브중합뉴스』, 2021년 11월 19일.
- 10)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오픈」, 『머니투데이』, 2017년 12월 7일.
- 11)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열어」, 『NEWS1』, 2017년 12월 11일.
- 12) 「수원시 공유자전거, 다시 달린다」, 『경기타임즈』, 2019년 10월 7일; 「수원 자전거시대 공유자전거 750대 시범 운영으로 출발한다」, 『교통뉴스』,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공유자전거 늦어도 내년 초 정식운영」, 『경기IN』, 2019년 11월 4일; 「수원시 공유자전거 운용 10월 750대 시범운영 문제 내년 초까지 개선한다」, 『교통뉴스』, 2019년 11월 4일.
- 13) 「수원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TAZO, 3월에 2000대 추가 도입해 총 3000대 운영」, 『서울매일』, 2021년 3월 2일; 「수원시, 무인대여자전거 타조 3000대 운영」, 『헤럴드경제』, 2021년 3월 2일; 「수원시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TAZO, 2000대 늘어난다」, 『경기중앙신문』, 2021년 3월 2일; 「수원시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TAZO...2000대 추가 도입」, 『중도일보』, 2021년 3월 2일.
- 14) 「수원시 '물품, 공간, 공유경제로 유·무형 자원 사용가치 높인다」, 『매일일보』, 2019년 2월 12일; 「함께 사용해 행복한 수원 공유경제학, 무인대여자전거 6천 대 운영, 장난감·공구도서관도 시민 호평, 청년 취업위해 면접장 무료 대여, 수원철보고교 사설, 지역 주민에 개방」, 『경기신문』, 2019년 2월 13일; 「수원시, 활발한 공유서비스 통해 '공유도시' 명성」, 『플랫폼뉴스』, 2019년 2월 12일.
- 15) 「수원시 공유경제로 유·무형가치 높여」, 『경기미디어신문』, 2019년 2월 12일; 「수원시, 공유경제로 유·무형 자원 사용가치 높인다」, 『KPN한국시민뉴스』, 2019년 2월 12일.
- 16)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열어」, 『서울일보』, 2017년 12월 7일;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 문 열어」, 『매일일보』, 2017년 12월 7일;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오픈」, 『머니투데이』, 2017년 12월 7일.
- 17) 「수원시 공유경제로 유·무형가치 높여」, 『경기미디어신문』, 2019년 2월 12일; 「수원시, 공유경제로 유·무형 자원 사용가치 높인다」, 『경인타임즈』, 2019년 2월 12일.
- 18)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열어」, 『서울일보』, 2017년 12월 7일; 「수원시,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 문 열어」, 『매일일보』, 2017년 12월 7일.
- 19) 「[사설] 해외 지원 모범 '캄보디아 수원중·고등학교」, 『경기신문』, 2019년 11월 10일.
- 20) 「'캄보디아 수원중·고등학교, 첫 고교 졸업생 배출」, 『아투시티뉴스』, 2019년 11월 10일; 「수원중·고등학교, 프놈고라움 아이들 가슴에 꿈을 심다」, 『경기중앙신문』, 2019년 11월 10일; 「'캄보디아에 있는 '수원중·고등학교' 첫 졸업생 배출」, 『경인일보』, 2019년 11월 10일.
- 21) 「〈광고칼럼〉 캄보디아에 '수원마을' '수원초등학교' 수원중·고교'가 있다고?」, 『수원일보』, 2020년 12월 14일; 「'캄보디아 작은 마을에 '수원중·고등학교' 건립」, 『KPN한국시민뉴스』, 2016년 11월 14일.
- 22) 「[사설] 해외 지원 모범 '캄보디아 수원중·고등학교」, 『경기신문』, 2019년 11월 10일.
- 23) 「[사설] 해외 지원 모범 '캄보디아 수원중·고등학교」, 『경기신문』, 2019년 11월 10일.

- 24) 「수원중·고등학교, 프농끄라움 아이들 가슴에 꿈을 심다」, 『경기시사투데이』, 2019년 11월 8일; 「수원중·고교, 프농끄라움 아이들 가슴에 꿈을 심다」, 『중앙뉴스타임스』, 2019년 11월 8일; 「수원중·고교, 프농끄라움 아이들 가슴에 꿈을 심다」, 『투데이경제』, 2019년 11월 8일; 「캄보디아 수원중·고등학교, 첫 고교 졸업생 배출」, 『아투데이뉴스』, 2019년 11월 10일; 「수원중·고등학교, 프농끄라움 아이들 가슴에 꿈을 심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 프농끄라움 마을 수원중·고등학교 첫 졸업식」, 『경기중앙신문』, 2019년 11월 10일.
- 25) 「캄보디아 작은 마을에 '수원중·고등학교' 건립」, 『KPN한국시민뉴스』, 2016년 11월 14일.
- 26) 「수원고, 캄보디아 수원 중·고등학교에 '희망의 빛' 전하다」, 『아시아뉴스통신』, 2018년 6월 26일; 「수원고등학교, 캄보디아 프농끄라움 수원 중·고등학교에 '희망의 빛' 전하다」, 『경기미디어리포트』, 2018년 6월 26일.
- 27) 「〈광고칼럼〉 캄보디아에 '수원마을' '수원초등학교' '수원중·고교'가 있다고?」, 『수원일보』, 2020년 12월 14일.
- 28) 「캄보디아엔 수원마을과 수원학교가 있다」, 『e수원뉴스』, 2018년 7월 5일.

책임연구원 유현희(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정수자(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조항인(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손예은(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집 필 김우영(수원일보 논설위원)

## 수원학 기획총서 ①

연론에 비친 민선 5~7기

## 사람 중심 도시

## 수원시 만들기

12년의 발자취

발행일 2022년 6월 1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편집 및 인쇄 이원디자인 031-256-2121  
 발간등록번호 11-B552980-000017-01  
 I S B N 979-11-6819-054-2 94060  
 979-11-6819-053-5 (세트)

